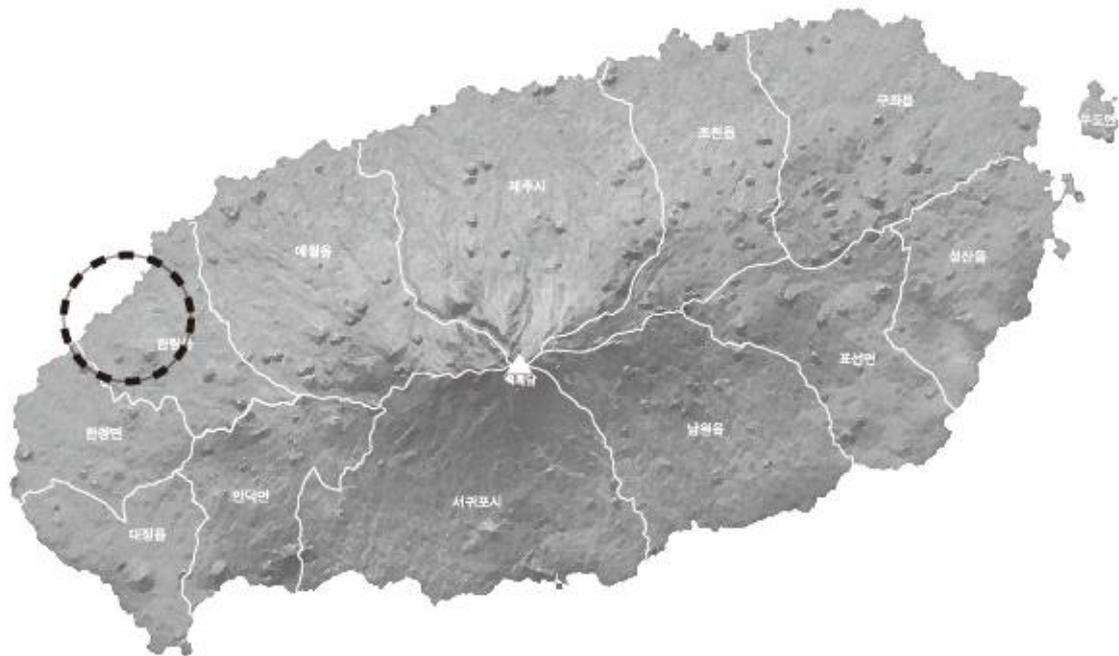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06-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안민희
조사지점 한경면 청수리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2**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환경면 청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3. 밭일	46
6. 의생활	130
8. 주생활	158
10. 세시풍속	165
12. 통과의례	173
2. 제보자 일생	17
4. 들일	105
7. 식생활	142
9. 신앙	163
11. 놀이	169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78
제2절 어휘	
1. 인체	180
3. 친족	193
5. 음식	202
7. 생업	216
9. 민속	231
11. 자연	234
13. 식물	252
2. 육아	187
4. 의복	197
6. 가옥	211
8. 수와 단위	228
10. 신앙	234
12. 동물	242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한경면 청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문창립 (남, 1933년생)
강성현 (남, 1934년생)
강대홍 (남, 1943년생)
이오생 (여, 1926년생)
오옥희 (여, 1935년생)
김춘선 (여, 1934년생)
강영래 (여, 1937년생)
고성이 (여, 1941년생)
박성요 (여, 1924년생)
오행순 (여, 1936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 의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문창립 강성현	01:15:06	×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강성현	01:24:12	×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문창립	00:01:40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문창립	01:57:33	○

	구술 2. 제보자 일생	이오생	00:32:33	○
	구술 2. 제보자 일생	강대홍	00:26:50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1	문창립	00:38:38	○
	구술 3-1. 보리 농사2	강대홍	00:24:59	○
	구술 3-1. 보리 농사3	오옥희 외 2인	00:13:43	○
	구술 3-2. 조 농사	문창립	00:49:36	○
	구술 3-2. 콩 농사	문창립	00:12:30	
	구술 3-2. 조, 콩 농사	오옥희 외 2인	00:29:17	○
	구술 3-3. 밭벼 농사	문창립	00:21:30	○
	구술 3-3. 밭벼 농사	오옥희 외 2인	00:08:59	○
	구술 3-4. 고구마, 메밀 농사	문창립	00:38:27	○
	구술 3-4. 고구마, 메밀 농사	오옥희 외 2인	00:14:04	○
4. 들일	구술 4. 들일1	문창립	00:42:34	○
	구술 4. 들일1	강대홍	00:24:54	○
	구술 4. 들일1	오옥희 외 2인	00:09:45	○
	구술 4 들일2, 딸감, 사농	문창립	00:15:01	○
	구술 4 들일2, 딸감	강대홍	00:09:47	○
	구술 4 들일2, 딸감	오옥희 외 2인	00:17:55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오옥희 외 2인	00:38:20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오옥희 외 2인	01:09:54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강대홍	00:32:52	○
	구술 8. 주생활2	오옥희 외 2인	00:03:40	○
9. 신앙	구술 9. 신앙	오옥희 외 2인	00:07:27	○
9. 신앙	구술 9. 신앙	강대홍	00:03:02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오옥희 외	00:13:17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강대홍	00:14:16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오옥희 외	00:8:1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오옥희 외 5명	00:19:39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문창립	00:13:06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문창립	00:05:22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1	문창립	00:22:00	○
2. 육아	어휘 2. 육아	문창립	00:42:34	○
2. 육아	어휘 2. 육아	오옥희 외 2명	00:15:05	○
3. 친족	어휘 3. 친족	문창립	00:8:46	○
4. 의복	어휘 4. 의복	문창립	00:12:01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춘선 외 2명	00:17:48	○
5. 음식	어휘 5. 음식	문창립	00:10:20	○
5. 음식	어휘 5. 음식	오옥희 외 2명	00:18:26	○
6. 가옥	어휘 6. 가옥	문창립	00:26:46	○
7. 생업	어휘 7. 생업	문창립	00:22:24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문창립	00:07:55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오옥희 외 2명	00:03:45	○
9. 민속	어휘 9. 민속	오옥희 외 2명	00:8:46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이오생	00:04:17	○
11. 자연	어휘 11. 자연1	문창립	00:07:08	×
	어휘 11. 자연2	오옥희 외 2명	00:06:32	○
	어휘 11. 자연3	강대홍	00:07:39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문창립	00:06:06	○
	어휘 12. 동물2	오 옥 희, 외 2명	00:15:18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강대홍	00:06:17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안민희, #1: 문창립, #2 강성현, #3: 강대홍, #4: 이오생, #5: 오옥희, #6: 김춘선, #7: 강영래 #8: 고성이, #9: 박성요, #10: 오행순)

101001 @ 이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사 청수리엔 해신고예?

101001 #1 조수부제가 저지부자를 못 당히고 저지부자가 검약부자를 못 당한다.

101001 @ 아 청수 무슨 검약 뭐마씨 아까?

101001 #1 검약서 마을이 검약이 먼저 생겼고, 거기서 저지분향해서 내려왔다는 거지. 저지분향 청수, 청수보다 저지가 먼저 생겼고, 청수분향 산양이고 4.3사건때 후에야 이제 산양 생긴 거거든. 한림가면은 수원, 요디 월림, 신창가면은 한월, 4.3 사건직후에 마을이 독립 되불렀어. 제주도 실질 내가 본 기억으로는 제주 10경인디 12경에서 13경 역사가 있는디 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가 책을 본 것에 의하면은 내가 열 다섯 술에 본 거주마는 용연야밤은 영주십경에 안 들어갔거든

101001 @ 예. 아 용연야밤은 안들어가마씨?

101001 #1 우리 청수리는 저지분향 청수라고 하는데, 금약분향 저지 잇고 저지분향 청수, 청수분향 산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이서시면은 옛날 갑자을축이라든 무슨 연도에 청수가 개방이 됐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예. 게서 우리 들은 말로는 이렇게 보면은 목장, 목장도 해변도 목장이 잇고, 우리 산간에도 바다목장이 이섯다고 해여.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어디 두모 신창용수 근처에 배정을 받아냈다고 그런 말을 옛어른들안티 들은 것이 잇는데 이게 확실하게 근거가 없고, 옛어른들안티 들 말밖에 없어노니까 뭐 세세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101001 #2 청수렌헌 마을은 이 저지가 독모룬디, “왜 독모루라고 허였느냐”허믄 답형치에 답대가리 형치라고 해서 독모루에 우리 청수마을이 같이 같은 마을로 뉘엇다가 다음에 해 방해왓이라는데가 이섯수다. 그 방해왓디서부터 이제 독모루 동네 사람으로서 방해왓디서 살았는디 그 동네가 차차차차 커지니까 청수라고 해서 분리를 해십주. 건 방해왓은 “왜 방해왓이라고 허느냐 ”그 처음 사람 살던 앞에 이물왓이 넓어서 물이 많이 이제 아집주. 그러니까 크게 이 장마때 비가 크게 오니까 그때는 생활 그 용품이 집이서 다 이 보리도 쪼렁먹고, 그 조도 남방애에 쪼렁 먹고, 큰 비가 오니까 그 물통뺏더래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되어가지고 “방애가 물왓디 터갓다” 그래서 방해왓이라고 지역 이름이 뉘엇수다. 그 다음에 츠츠

츠츠 (전화) 이 동네가 많이 사람이 와서 살게 되니까 이제 득뚜루 저지하고 분리
를 해서 청수라고 마을 이름을 지어십주, 청수라고 지은 건 무신 때문에 청수라고
지었느냐 맑을 청자 허고 빼어날 수자 해가지고 청수라고 했는데 물이 큰 비가 와
나면은 거기서 물이 쪼금씩 솟아나고, 가뭄때도 항상 거기가 물이 고이니까 맑은
물이 이제 우수허다 해서 그 물을 위주로 해서 동네가 점점점점 형성이 되고 마을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다가, 수년 지내다보니까 이 "맑을 청자 빼어날수자" 만 허니
까 물에 우수해서 동네가 웬건디 글자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맑을
청자 물수자”로 고쳐십주. 빼어날 수자를 맑은 물이 솟아나고 저장돼곡 맑은 동네
다 “맑을 청자 물수자”를 붙여서 청수리라고 해서 이제까지 내려온겁주.

101001 @ 마을의 형성예? 계난 일제시대에 한자말로 바뀐 건지?

101001 #2 일본시대 전에 이거를 청수리엔 헛는데 글자만 그렇게 바뀐.

101001 #1 우리가 듣기에는 그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던 모양이라 “ 인제가 나
면은 단명허겠다 단명허니까 빼어날 수자를 물수자로 바꾸거라.” 이제 우리 청수
마을은 멘 배 형국이라고 허여. 배를 개맞디 매어있는 형태라고 해서. 개맞이라허
여. 바닷가에, 바닷가에 이저 요즘 조그만헌 이성창 고깃배 곶은 거 바람자고 매는
디 ,

101001 #2 부두가 형성되지 안해가지고 작은 배덜 왔다갔다허고 해녀들이물질
나가고 허는디가 개맞이엔 험니다.

101001 #1 활동허는 디가 아니고 가만이 매여 잇는 밴디 저지 학교잇는 동산
이 배 타는 동산이라고 허여. 관갓동산이라고 이렇게 허고 동네 주위에 옷답대 거
육대 답대 해가지고 배는 옛날은 풍선을 달아서 지금은 기계를 달아서 옷답대 이제
거육대 알답대 해가지고 이것을 뒤희고 배에는 자그만헌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서 허다가 보니까 방해왓 밑에 흑수물 그 물이 막 컷
는데 그 물이 막 컷는데 천신이 얘기헛다는 전설이 잇는데 흑비가 오람시니까니
“장항 더끄라” 헛다고 허여. 요지금은 중국에서 느려오는 황사를 그게 옛날에는
뒤희비라고해서 장항에 들어가면 은근히 나쁘니까 그만 광덜 집이 강 “장항 더끄
라” 그리 헛다고 허여.

101001 @ 겐디 어떻 우뜨리에 배가 매어 잇는 형상인데 물이 어시난, 재미있다
예?

101001 #2 그게 어떻게 흑수물이라 지어졌느냐허면 흘습이라고 지어십주. 흘습
이 뭐냐 삼수변에 높은 지대에 물이 고이는 데를 “흘”이라고 험니다. “흘” , 저 그
“저질흘 자”에 “저질습 자”에 게서 항상 물이 쪼그만헌 높은 지대디 항상 고이니까
“흘습”이라고 그 물통 이름을 지었는데, 건디 습지, 흘습물이라고 지었는데 건디 말
이 지어진 대로 말하지 았고 말하기 좋게 원래는 흘습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이젠
그뎌 수도가 없으니까 봉천수만 이용헬 때이기 때문에 (전화)

101001 @ 뎛살때까지 흘습물을 봤수과?

101001 #1 아주 오랜 세월이니까 물이 항상 파이지 안으면서 물이 고이는데 너

버흘 동네가 있고 지버흘 동네가 있는디 항시 축축허니까 봉천수가 안지니까 동네 형성이 되었다고 헤여. 그래서 여흘동산 지버흘 물앗는 동네형성이 뉘엇다고 헤여. 동네 형성을 헤여서 살다가.

101001 @ 물이 참 중요한 거로구나예 사람사는데, 지버물, 너버물, 흑수물, 잘도 기억덜 햄수다예.

101001 #1 계난 내가 생각할때는 흑수물이란게 지세가 자왈로 지대가 뉘서 음팡허니까 떼와지니까 여기에 물이 아지니까 지버흘 너버흘 집결뉘 동네거든.

101001 #2 마을에서 파고 파고 깊으께 아무레도 흔 이십메다 지프께 파서 파다 보니까 말이 말하는 소리가 나서 귀신말이 들려가지고 그만 파자 헤서 그만 뵘다 그런 겁주

101001 #1 그게 우리동네 거 왕식이라고 죽어불엇는데 허벽을 지고 그디 물을 질레 갖거든. 왕식이 누님이 물을 질레 갖는데 늦사발이 물에 터 있어. 늦사발이 물에 터 있으니까니 요렇게 잡으면 잡아질꺼 같으니까 단계를 가이단 뵘가지고 한단계 내려가면은 그 사발을 아주 이쁜이가 잡을라고 하니까 쑥 나가불어가지고 쑥 또 내려가니까 가운데 내려가니까 허벽이 동글동글 뉘어. 뜨니까 다음에 물 길러간 사람이 오니까 가이가 외스춘 뉘인디 그걸로 아파가지고 죽어부러어. 게서 물질레 간 사람이 뉘겨가지고 어느새 늦사발이라고 험 게 없어져부러어. 우리가 알건데 우리 옥은 후제 그런 사실이 잇엇는데 물이 영이 있는 물 곱아. 왕식이 누님이 그세 영 헤오다가 죽어불엇주께, 아멩헤도 영에서 혼을 뵘가분 모양이여. 다음 물질레 간 사람이 등겨 가지고 경안헤시뉘 거기서 죽을 뵘헤신디,

101001 #2 경험 형성이 되어서청수마을에 지형이름이 동쪽으로 사능동산이 있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있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청수물앗이 있고,

101002 @ 사능을 하니까 사능동산마씨?

101001 #2 그걸 말험주. 사능동산은 앞에 가면 노루도 많고 지다리도 많고 또 이제 꿩도 많고 헤서 이 사냥을 해다가 이제 마을 모여서 믱을 잔치도 허고 사냥 나갈때는 사능동산에 젊은이들을 모입니다. 모여서 그렇게 모이는 곳이라 헤서 사능동산이주. 여기서 죽 올라가단 보면은 또 올라가당 보면은 저 고분뉘뉘물이 있고 뉘죽은 물이 잇고 뉘순빌레험 험 고지가 잇수다. 산뉘이 보이니까 그디서 쑥이니까 고분뉘뉘물이험 험디 와서 물을 먹으면서 곱아시니깐 산도세기가 거기완 이제 또 쑥이니까 뉘죽은 물까지 가서 물 먹는 걸 쑥아서 도세기가 죽으니까 뉘죽은 물, 거기서 산도세기가 곱은 빌레가 뉘순빌레가 잇수다.

101002 @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잇습니까?

101002 #1 여기는 그렇게 그 성씨가 잡성이 많지 안아. 현재도 많지 안 아 가지고 잡성이 김씨, 이씨, 오씨, 강씨허고

101002 @ 삼촌네 문씨도?

101002 #1 예. 이제는 뉘 사름 엿수다 시로 다 나가버리니까.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접)들이 있습니까?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10 @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청수리에는 지명처럼 물이 멧군데 잇수과?

101010 #2 청수리 물은 흑수물, 검부낭직, 고분뎃밭물, 뎃죽은 물, 청수물 다 서 여섯군데 이섯는데 상수도사 보급되면서 다 없어져수다 흑수물만 그대로 방치된 언 이서.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청수리에서 자라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아 나가 태어나기에는 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 청수리에서 큰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덜을 일곱성제를 낳는데, 다 죽어불었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집터 탓이라고 해서 당산리 산동네 요쪽 저 조그만 오륙가구 옛날부터도 이 저 왜정때부터도 반반 혼 반이 안되서 십호로 헛, 혼 반을 거시길했는디, 다섯호 여섯호백이 안되니까 반반 그거 헛 허는데 일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와서 요동네에 나서 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살았다가, 우리가 열너살때는 일본놈이 손을 들러 가지고 그 해방이 뻬는디, 일본군인이 전부 어린학생덜을 아껴주드라고 다이사라고 가마오름 요디가 연대본부랐거든. 연대본부디 그 양반이 시찰을 영 당이는디 “너희들 따라와서는 안된다” 허지 않허고 “잘 봐라” 이게 말을 설러버리니까, 일본말 다 잊어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조수국민학교 4학년때 그 해방이 되었는데, 글씨 후로는 우리 5촌이 한문선생을 했어. 선생을 했는데 그 분의 말을 영 들 어보면은 춤 뒤희고 그 분이 열여섯살에 우리 5촌이 한문을 통달했다고 해여. 통달 해서 글을 딱 읽으면은 해석 못허는 글이 없더라고. 게서 그 말을 나가 기억을 했는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뜻을 말하는 거여. 켜디 내가 혼 40년 전에 방송에 그 뜻을 허드라고. 뜻을 발표허는 걸 내가 들으니까 우리 5촌이 상당히 학자였구나 “하늘천자, 자시에 생천하니 호호탕탕 하늘천재, 축시에 개지허니 만물장성 따지제”라고. 그 다음엔 “금옥이 비보허니 혈조낭낭 담을 현재”, 누를황재는 “금목수가 토후행 중국을 받았으니 토지장성 누를황재” 한문책이란 건 천자글인데 전부

끝앓줄이 읽게 운문 읽게 헌 건디, 전부 뜻이 담겨 있다 했거든. “게서 그거 우선 한줄만 너도 기억을 해둬라 ”헌 것이 우리 5촌이 전설이고 글씨 허다가 보니까 이 어 4.3사건이 생겼거든. 4.3사건 생경 우리 가문에도 그 당시 폭도라고 했거든. 폭도대장이 하나 이서서. 아 게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타격을 안받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타격을 안 받았는디, 우리 친족덜도 많이 피해를 봐서. 겐디 그 사람은 내가 볼때는 똑똑은 했던가봐요. 그 부락에 습격을 허고 뭇했는디 여기에는 그런 피해는 산에서 오란 피해는 우리동네는 안주었어. 겐디 그 사람이 죽은 자리도 없어. 어디로 가서 없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그 무자년 소개랐는디, 무자년 소개로 저 신창 우리는 내려가서 살다가, 다음해에 기축년에 올라와가지고 살젠허니까, 먹고 사는데 춤 기가 막혀. 숲을 구워가지고 모슬포 가서 풀고, 한림시장에 가서 팔고, 그래서 이제 구명도사를 해서 살아 나갔는데, 게서 그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이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에 소집해가지고 군대에 가 가지고, 혼 군대생활을 42개월을 했거든 겐디 우리 선배는 62개월이 고통이랐는데 차차 제대 방법이 나니까 그렇게해서 옥아져서 농사를 지을라고 허니까, 아버지도 얼마어서 제대해난 다음 해 돌아가버리니까 맥도 줄아야지, 배도 해서 뭐 해야지, 이제 농사 지을라니까 농사방식은 남히는 거 보면서 헐라니까 춤 고통을 많이 겪었지.

102001 @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완 결혼허고 경 행 살았구나예.

102001 #1 예. 결혼허다 보니까 그때는 중매결혼이라 가지고 뭐 허다가 보니까 이 나가 눈이 다른 사람 보는 시각허고 좀 다른 모양이여. 이거 어거지공사로 결혼을 시겼는데 부인을 못 보겠어. 부인을 탁 보면은 울 때에 사람이 울 때에 눈물이 잘잘 흐를 때에, 불을 보면은 불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탁 본인을 비추우니까 도저히 접근을 못허고 넘어갈수록 마주 고개를 돌려서 보고 싶지를 안허여. 결국은 파혼뉘불어. 재가해서 이제 살다보니까 애덜이 오남매를 두어가지고, 살려니까 참 비참하게 살았고, 말쑤아덜이 하채마비 되어가지고 저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로(전화) 걸려가지고 그냥 뭐 재산이 다 들어서 우리 얘기어정도 이젠 동녕질을 해 먹을라 해도 자료가 없어. 못허켄허영 해도 병수발 그만 똬아다니자. 그러다가 스무살 나는 해는 여수재활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작대기 짚어서 걸을 수 있다 해서 거기 강 있다가 너는 나라에서 보조허는 병원이니까 얼마 되어서 헐나완 여수 살다가 금년 4월 4일날은 그만 죽어버렸는데 살까 했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똬 덕분에 살까 했는디, 똬이 어쨌냐허면 국가 영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혼 3년전에 독일가서 1등 먹영오고, 그 저 어디 뉴질랜드 강 1등 먹어오고, 랜드 일본 강 1등 먹어오고, 혼 네 나라에서 1등 먹영오니까 국가에서 알아주고, 모든 거를 다 경비 당해주고, 대학도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는 안허고, 바로 대학 들어가가지고, 예술대 들어가서 이제 수석, 1등 수석으로 들어가서 뭐 저 총장, 그 총장상 받고 해가지고 표창받고 해서 자꾸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는 안허고도 게서 살카부텐 허당보니까 그놈의 자식은 “아버지 영했수다. 정했수다” 허면서 허다가 그만 암 걸려서 돌아가부러서. 돌아가버리고 그거보다 문제는

큰아덜 죽어버리고 게 오래 살다보니까 비참한 “내가 초년에 고생했으니까 말년은 괜찮을까” 해서 말년이 한 불과 한 10여년쯤 좋았지. 10여년쯤 이제 좋게 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돈이 아쉬울 것도 없고 세력에 아쉬울 것도 없고 손자덜이 뭐 공직에도 있고, 회사직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봉급쟁이가 여러병 되다보니까 십여 명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 봉투 들어오고 명일때도 봉투들어오고, 생일때도 봉투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는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툭툭 밭을 차. 비참해. 오래 살아지는 게 원망이여.

102001@ 게도 좋은 것도 봤수게. 사람 명이라는 건,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예. 경해도 이런 소아마비로도 이렇게 살아서 딸을 낳고 딸 한 명마씨?

102001 #1 딸이 삼형제데 아이덜이 다 머리가 좋아.

102002 @ 아이고 거 봅서게. 자기 뭐는 다 했수게.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1 농사, 농사 소 길루고 집에서는 닭 길루고, 경허면서 돼지 질루고 옛날에는 똥돼지라고 허여. 통지에서 소 먹어난 그 퇴비, 퇴비는 똥통에다가 담아 놔가지고 쇠뿔발로 똥아냥 그게 그 거름되면은 마당에다 내놔가지고, 보리씨를 이렇게 섞어서 쇠스랑으로 섞어서, 이젠 쇠로 막 불려서, 그걸 데몯다가 담으면서 밧디 가서 그자 부인네덜은 굴채, 굴채해서 허리에 차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밧디 허대 경 뿌려. 옛날이야 그 농사가 주로 요새에는 부업이 많주마는, 보리, 조, 콩, 팥, 꿩은 쪼금씩 해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밧에염에 쪼금씩 놔서 해먹고 했신디, 그런 걸로만 할라니까 여자덜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굴갱이 췌가지고 밧에서 여름 내냥 검질을 메거든. 밥은 차룽착에 걸영강으네 잣우이 낱 포따리 더경 돌 딱 지들화듬서 뒹허고 가마귀가 안 지들리면 가마귀가 가서 밥 허봉치니까.

102002 @ 아 까마귀가,

102002 #4(이오생) 아판 젊을 때에 혼 환갑 ㄴ루에 다 돌아가부렀어 우리부모네는

102002 @ 예. 농사했지예?

102002 #4 농사했지. 계속 농사했지.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1 예 본동, 본동 임씨

102003 @ 청수리 본동?

102003 #1 예. 임씨는청수리 본동 분처님 임씨거든 우리는 남평문씨고.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청수리 아버지도 청수리?

102003 #1 예. 우리 고조부님때에 저지에서 내려왔다고 허는데.

102003 @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셨마씨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 계시고?

102003 #1 할머니는 아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탄생허기 전에 돌아가부렀어 게니까 나 아버지보다도 우리 동생보다도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는 육십팔세에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는 오십팔세에 돌아가고, 우리 동생은 일흔

셋에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덜은 선일곱에 죽어 불고, 큰 아덜은 선일곱에 죽어 불고, 세 번째놈은 선넷에 죽어 불고,

102003 @ 육십 넘기기가예. 육십 넘기면 오래오래 사신다고 합디다게.

102003 #1 겐디 병원이 지금 원수라.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었거든. 나 마흔 둘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102003 @ 큰 아들로 태어난마씨?

102003 #1 막내로 막내로 여기서 아버지가 즈식덜이 하도 도망가버리니까 죽어 없어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간 것덜만 막냉이로 난 것이 나 하나가 살았주기.

102003 @ 일곱남매중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102003 #1 옛날에는 감기를 걸리나 무당해서 설기통으로 속가락으로 두들기면서 허다가, 그냥 약이 없으니까 또 약이라고 허는 것은 뭐냐면 고지에 가면은 주축이라고 헌게 있어. 주축 주축이라고 허는 것이 무우같이 허는데 이거를 물에다가 끓이면은 빨갱게 나와. 물이 빨갱게 나오면은 그 빨갱헌 물에다가 쪽과, 콩나물 이 물을 해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해서 먹고 그렇지 않하면은 꿀에다가 콩나물 집에서 놔가지고 그거에 구들바닥에서 찌서 구들을 뜨뜻하게 행 알로 불 때면은 이불 더꺼가지고 뜨뜻하면은 거기에서 그 온도에서 허면은 잘 익지도 않거든. 게도 그거를 해다가 맥이면은 좋다고 해서 그런 정도 허다가 버치면은 가버리는 거.

102003 @ 감기나 홍역이나 뭐 이런 거 아까,

102003 #1 그때는 이 우리 목장에 주추라고 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부가 가가지고 있는 바둑있는 디 일부로 가서 주축을 캐다가 놔두고 경허거든. 게고 어렸을 때 홍역할 때에 홍역할 때는 뭘 허는고 허니까 그 생이족박이라고 허는 게 이서.

102003 @ 생이족박, 풀마씨?

102003 #1 예. 풀인디 줄 번어가지고 이 고구마같이 열매를 올라. 다섯 개까지 열매가 부드러우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이 열매가 요렇게 질어서 속에 그 털같이 어욱, 역새꽃같이 담아진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해다가 베개에 홍역할때는 머리에 비고 자면은 홍역이 약해진다 해여.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열매를 익기 전에는 가만이 봉해져 있거든. 봉해져 있는데 베개 밑에 다 이렇게 허는데 홍역이 걸렸다면 아뭏소리도 말고 툭 갖다가 멧개 놔두면은 홍역이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새사람덜은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지.

102003 @ 약초답은 건디 생이족박.

102003 #1 생이족박 거 약으로도 쓰고 막 캐러도 다니거든. 생이족박 그게 글자는 뭇자를 쓰는지는 몰라. 그거 이름은 여기 제주도말로 생이족박이라고 허는게 그 게 막 한참은 막 파러 다녔어. 나고 뭘 할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기고 다섯 번 줄거리 나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그게 보신약으로 먹는 그 한약 재료도 좋은 약재료도 쓰는 거주.

102003 @ 아이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아까와했겠다예?

102003 #1 아까와허면서도 엄하게 허니까 내 의견을 부모한테는 반항을 못해. 허허 해서 탁 허면 엄격해서 반항을 못해.

102003 @ 아버지가 무서웁데가?

102003 #1 예.

102003 @ 그때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니 같이 살안마씨?

102003 #1 예 우리 할머니는 구십셋에 돌아가셨거든. 게니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안아주고 헌 거는 기억에 나지. 우리가 한 스물 스물 혼 두어개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102003 @ 할머니가 아까와해줬고, 삼촌 멧살 때 형제덜은 다 돌아가셔불고 애기때 다?

102003 #1 낳기전에 나 탄생허기 전에 다 돌아가셔 불고, 나가 나오기 전에 다 돌아가부니까.

102003 @ 잘도 아까와했겠다예? 노인회장님 단아덜, 삼촌도 똑같네요?

102003 #1 나는 누님 둘이 있었어.

102003 @ 아아 누님 둘은 있었구나예. 그게 어디라예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마씨?

102003 #1 아아니 우리 큰 누님은 팔십둘에 돌아가고, 작은 누님은 원일곱에 돌아가니까 돌아간 지가 이거 멧십년 됐는데,

102003 @ 그래도 누님이 청수 살안마씨?

102003 #1우리 큰 누님은 살아시면은다가 구십팔세거든.

102003 @ 그른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누님사랑 많이 받아신게마씨게?

102003 #1 예. 많이 귀여웁은 받았주.

102003 @ 어렸을 때 잘도예, 자그마하시고 막 아깝게예 막아와실꺼 닳수다게.

102003 #1 예. 계난 우리 큰누님쯤은 친 자식모양으로 생각해영 열여섯살 위니까.

102003 #4 음 청수, 청수.

102004 @ 삼촌은 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노는 거,

102004 #1 노는 거는 빌레왓이니까니 혼어시 벗이 없어. 딱 그 저 강성현씨 형형하고 같이 동창이고 조수국민학교도 동창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왜정 때 조수국민학교 산간에는 조수국민학교하고 금악국민학교 밖에 어섯거던, 겐디 거기가 간생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들어가는데 요디 들어가는데 친구스라이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하나는 요렇게 쓰고, 요거는 신고, 이제 스라이는 요렇게 쓴게 스라이, 대장은 이렇게 쓰는 게 대장허면은 요거는 친구는 요렇게 쓰고, 모자 하나는 요렇게 쓰고 해서

102004 @ 한 번만 다시 해줍써, 무싱거시 마씨? 어떻 쓰면?

102004 #1 친구스라이라고 해가지고 대장은 요렇게 쓰고,

102004 @ 대장은 그렇게 쓰고,

102004 #1 이제 친구는 요렇게 쓰고,

102004 @ 거는 밑에 계급이 밑에라?

102004 #1 밑에면서도 요거는 이제 스라이, 요걸 잡는 놈이고 요걸 잡는 놈은 대장을 잡는 놈이고, 그니까 요 옆으로 쓴 놈이 대장을 보호할라고 허면은 이제 막 돌아댕기면서 그냥 막 그 뭐 허주기 허허허허.

102004 @ 모자를 세가지 방법?

102004 #1 모자를 세가지 써가지고 경해서 이제 서로 손 심으면서 그냥 보호할려고 해서 말허자면 요새골으민 아이덜이 전투하는 식이주게.

102004 @ 그 놀이 이름이 뭐마씨?

102004 #1 친구스라이라고 헤여 게니까 그것도 일본말일거여. 이 일절 왜정때에는 우리 말을 못쓰게 했거든.

102004 @ 예. 다마치기 빠치치기 뭐 이런 거 안 해났수과? 뺑이치기, 자치기,

102004 #1 빠치치기 같은 거는 했ندی 주로 어렸을 적인 제일 어렸을 때는 땅따먹을라기라고 해서. 땅따먹을락은 뭐냐면은 네모반듯하게 요렇게 그려가지고 사금파리 벌러진 놈 요렇게 놔서 저거 허고 마칠락이 해가지고 마치면은 거기서 이렇게 손 낡 영 그렁 요것이 따먹는 거. 요새 말허자면 정전하는 식이고, 또 흥썰 학교 댕기당 욱으면은 소나무, 소나무가 아주 미럽게 올라간 거 있으면은, 요 모작 율로 해서 요거 진 놈해서 율로 모작을 반으로 쫄라붙고, 율로 요렇게 해서 허면은 율로 칼로 영 돌황 돌로 독독 두드리민은 짝 벗어져. 경허면은 일본놈 그 저 일본도 모냥으로 짝허게 벗어지면 이제 칼싸움허는 거. 소나무 해가지고 꺾데기,

102004 @ 소나무 작은 애기 소나무?

102004 #1 예. 애기 소나무디 그냥 우리 키 정도 쪼금 더 된 나무허면 우에가 요만큼 길거든. 길면은 이제 잘라 가지고 게난 이건 도둑질로 해야지. 바깥디 강 허면은 혼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마주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 게 학교에서도 기분이 나오거든. 보깡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시대는 초등학교에 칼이 있어. 일본도 그 니쁜도 모양으로 그거 해가지고 육학년이 되면은 칼싸움을 시키거든. 이제 그걸 본봐가지고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대신 친구들끼리 이제는 씹는 식을 허는거라. 그런 놀이,

102004 @ 칼싸움예? 칼싸움도 하고,

102004 #1 그러다가보니까 우리가 보진대는 전쟁이 끝어지질 안허더라. 그러니 이 세변이 세변을 옛어른덜이 말허는 걸 보면은, 세변이 분명이 있어. 자꾸 세대가 흐르는만큼 싸움도 나고, 이제 킬릴 사람도 잇고 영 허는디, 그 당시는 그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우리 키 정도 돼면은 그 우에 혼막작만 죽어부러. 아무 이유없이 소나무가 죽는 나무가 아닌디, 대동아전쟁 해서 막 뫼혈대는 그렇게 허고, 죽실이라고 해서 대가 열매를 열어. 옛 어른덜이 말이 이렇게 허면은 죽실이라고 허는 것은, 옛날도 신선이나 신선은 죽실을 먹고 산다고 해. 그런데 죽실이 이렇게 뫼고,

소나무가 이렇게 되면 국변이 생긴다. 국변이 생긴다. 웨정때에 정치나 밑구장만 땡기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저런 말을 허지를 못해여. 겐 우린 죽은 동네에 사니까 학자덜은 전부 우리 집으로 모여, 우리 아버지가 한문 쫘 깨우니까 동네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문만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을 몰라. 게니까 요지금 시상은 신학을 모르는 건 멍청이라. 나가 지금 학교졸업을 못했거든. 게니까 싸인을 헐라면 꼬부랑 글을 못헌단 말이여. 요즘 중학교라도 싸인을 허는데 신학을 못배와서 한문을 배울려고 허다가보니까 한문 글짜백이 손이 안돌아가. 그러거든 요지금 고등학교나 어느정도 대학 땡기는 아이덜이 불쑥 한문을 쓰라고허면 우리만 못해. 우리도 써가민 늬이 나무레진 안해여. 늬덜이 잘췌젠은 안허는데 못췌젠은 말은,

102004 @ 조수국민학교가 검약국민학교보다 가까왓수과? 거기서,

102004 #1 검약은 상명허곡 거기만 헛고, 그때는 이시돌도 없었고, 여기에서는 청수, 저지, 낙천, 저 신창 우에 함월우에 저 그 무싱거고 보쿰물이엔 허니까, 그 동네는 명의동 저 월광동, 저 산양 여기가 전부 조수국민학교로 갔거든.

102004 @ 조수예, 지금 조수국민학교 잇수과?

102004 #1 폐기뵤불엇거든, 낙천 조천리 생겨나부니까 지금도 원순디 게니까 조수에서도 중학교나 낙천리나 넘어와야 당연이 단체가 뵤어서 좋을 건디 신창더레 빠진단 말이라, 신창이 더 멀거든.

102004 @ 아이고 아깝다예. 어췌튼 역사는 제일 오래된 데가 조수국민학콘데,

102004 #1 조수 양천이라고 허고, 옛날에는 우리 조상덜이 뵤가 나라에서 그래도 혼 번 잡을라고 허는 사람덜이 췌서 나와노니까 우리가 알게 뵤고, 4.3사건 나 건디가 혼 욱십 혼 칠팔년되엇나? 헌데 한문 선생님이 없는 동네가 없어. 없는 마을이 없고 게서 나가 보건데 친구간이라고 허는 것은 제주도 배긴 없다. 문법이 제주도에서 만들어 논 문법은 난 아니라고 생각허여. 모든 예절이 넘어 오고 넘어오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이 보니까 친구간을 나가 비결을 찾아서 허다가 보니까 친구간 문제가 나왔더라고. 나온 것이 그계 제주도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비결로 나온 책인디, 신후간이더라고. 친구간이 아니고 우리 방송에도 친구간으로 허는데 친구간이 아니고 신후간이라고 이 비후젠디 이 요렇게 해가지고 영헌데, 이 가문에서 아무후엔 쓰는 비후제, 비후제가 둘 아니과예? 성씨에 대해서 아무 후인 누구라고 허는디, 그 후제를 써가지고 논설을 보니까 신이 승천해버리니까 그때는 사람 같으면 주인 어신 집이 누게 귀천 가부리민 없다고 허물이 없다는 거여. 욱지에는 우리가 모슬포에 훈련받을 때 강 보면은 욱지 사람덜은 팔십프로는 핫바지여. 게 글을 잘 몰라. 그 가운데 공부를 험 아이덜이 멧개 있어서 고향더레 편지를 허라고 허면은 십여명이 포위를 허여. “나 나 나 ”헤가지고 입으로 자기가 어디 전라도민 전라도 어느 마을깁장배끼 아방일름 어명이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수준이 췌균적으로 알아진거라. 우리 제주도는 나가 볼때는 어느 마을이던지 한문선생이 두 세사람 있는 딴 보통이었거든. 4.3사건때깁진 그레노니까 모든 그런 예절이 앞서 잇지 않느냐. 욱지사람이 나 혼번 병원에 간 나무래더라고 “왜 감자보고 지실이

라고 허느냐” 이거야 “뭘 소릴 허고 있느냐 지실이 따지자 열매실자지. 땅 속에 열매지. 뭘 무식헌 말이냐?” 허니까 헐 말이 있나 답변헐 재료가 있어. 허허 게니까 배운 사람이 ,

102004 @ 영 해보난 지실도 한자 말이다예 지실 한자말,

102004 #1 우리 허는 말이 전부 한자풀이말이거든.

102004 @ 아아 난 제주도 말인줄 알아신디

102004 #1 알지자 심을 식자 아니여. 선비사자해가지고

102004 @ 지실은 계도 제춌말인줄 알아신디,

102004 #1 지실은 모든 게 겐디 이 시상이 흘러가면은 교과서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일본말이나 우리말이나 똑같아. 거의 같아. 겐디 이게 나가 보건데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왜정때에는 우리가 조수 땡길 때는 쇼세꼬스 고꾸민가꼬라고 했는데 요지금은 초등학교를 공립국민학교라고 우리말로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놈의 시류가 되다보니까 바뀌치기로 그리 허지 말자 우리 국민이다 왜 국민 학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여.

102004 @ 일본에서 자기네 우리 식으로 하자

102004 #1 이 학자덜이 난 그렇게 변화를 가진 것 같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게 따라나가는 게

102004 @ 우리가 썼던 말덜은예 알아 놔두민 좋은 거 닻아마씨. 일본에 어쨌든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102004 #3 겐디 그것도 참 나 하나 우리 어렸을 적에 나무, 이 낭칠일을 낭칠이란건 나무에 올라가길 잘 했다는 거여.원숭이 모양으로 (1918시작)

102004 @ 낭칠 아아

102004 #3 게 우리 집 앞에다가 그 닻배 폭낭이라고 있었어요.

102004 @ 닻배는 뭇파?

102004 #3 배

102004 @ 아 닻

102004 #3 배 그 닻이 내려진 상태로 그 나무에 올라간 거. 그 폭낭이 사라호 태풍에 무너졌습니다. 그 폭낭에 폭 타먹으레 올라가예. 경혜연 그 폭낭가지 꺾어그네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그래믄들 지금 그 말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주만 그래믄들 수덕에 그 거기에 폭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서마씨. 그 폭낭에 강 폭낭 탕 건디 춤 원숭이새끼 모양으로 참 나무에는 잘 올라가서마씨. 어느 꼭대기라도 올라가거든. 동네사람 넘어가당 아이고 저 “단 바농 꺾어진다 단 바농 꺾어진다” 허는 건,

102004 @ 단 바농?

102004 #3 단 바농, 단 바농, 단 바농, 바늘 하나, 하나를 단 바늘이렌 해. 단 바늘, 계난 나는 왜 혼차니까 “단 바농 꺾어진다”고

102004 @ 아아 외동아들이난,

102004 #3 응. 꺾어진다고 털어져불영 죽는다는 거여 하하,
 102004 @ 위험해부난 막 걱정행으네 하하하,
 102004 #3 우리어머닌 줌줍행 내불고헌디 동네사람덜이 그렇게 즈들앙,
 102004 @ “단 바농 꺾어진다”경해연,
 102004 #3 그추룩허영 거 춤 낭칠허명 건디 할망덜 어른들도 넘어가당 “폭 혼
 가쟁이랑 이레 털어치라” 그걸 털어치면은 손주를 ㄹ져다 주던 아덜을 ㄹ져다 주던
 경허게 되믄 춤 낭 가쟁이 이파리 든은 거 거짐 꺾다시피 해영 털어치멍해났는데
 이제 멧넌 안됐주마는 십이삼넌 됐나 일본 다대포 내런 돈벌레 일본 가가지고 그
 할망덜 거기 사는 할무니덜 은행열매이서. 게 은행열매 거 타드렌 행으네 거 오사
 까 공원에 허 강 은행열매 털어추는디 할망덜 춤 그 하루 강 타난 스몫 푸지게 타
 노난 거 할망덜이 나신디 춤 베라벨 거 술 다 사오고 베라벨 질을 다허여 아 춤.
 102004 @ 재미있디예.
 102004 #3 옛날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폭, 폭
 102004 @ 외동아덜이 게믄 저 학교갈 때 어머니가 산디쓸이라도 이시믄 밥도영
 행,
 102004 #3 벤또는 벤또 싸는 건 꼭 쓸방울이라도 섞영 해줘. 하도 겨꼭 계란반
 찬도 계속 해노니까,
 102004 @ 다른 아이영 비교됐겠디예?
 102004 #3 비교가 안됐주. 비교가 안돼. 겨난 그 나는 계란에 질령 안먹는디, 게
 난 걸 어떻헐거라 아이고
 102004 @ 다른 아이덜은 그런 거 귀헿허고예?
 102004 #3 다른 아이덜은 그 저 이 된장 쌍가는 애도 있고, 김치, 마농지, 김치
 튀 이 무싱거 행 그런 거 무말랭이끓은 거 그거 흐쓸 절영도 ㄹ정가는 책은 허긴
 했는디,
 102004 @ 어린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02003 #4 어린 때는 그냥 막 들럭퀴멍 요즘ㄹ치 학교 엇고, 공부 안 헐 때난
 막 놀멍 들럭퀴멍,
 102003 @ 공기? 또 어떤 놀이?
 102003 #4 오재미도 영 오재미도 허고,
 102003 @ 오재미도허고예.
 102003 #4 이제 실거리 낭썩 영 훌텅 영영 허영 “와가집 지시라 초집 지시라”
 허멍 이제 허허허허.
 102003 @ 무싱거 지시라 와가집?
 102003 #4 응. “와가집 지시라 초집 지시라” 기와집, 기와집, 기와집
 102003 @ 기와집 지시라 초집 지시라.
 102003 #4 그래 그래 그래.
 102003 @ 뭇로 허멍 놀안마씨?

102003 #4 경헌 거 저 무싱 거 실거리냥, 실거리냥 요즘은 뭐행 이제 없어. 실거리냥 영 홀터당으네 이디 낡으네 영영 허멍 “와가집 지시라. 초집 지시라.”영 허른 그것이 흐깁 영 세와져 세와져.

102003 @ 아아 세와져예?

102003 #4 음. 경헌디 요즘은 그런 낡도 어서. 바로 가시 영 번어지는 거. 번어지는 거.

102003 @ 그런 낡도 어서. 그때가 열슬 어릴때예?

102003 #4 그래. 열 슬 몬 안 날 때, 아홉 슬, 여덟 슬 경 될뻔꺼라.

102003 @ 배뜰락이라던가 공기?

102003 #4 배뜰락 배뜰락, 하나 둘 백꺄장, 하나 둘.

102003 @ 경허곡 배뜰락도 허고, 곱음재기?

102003 #4 아 곱음재기, 음 곱음재기 “날 좇이라 날 좇이라.” 곱음재기 있지.

102003 @ 꼭꼭 숨으라 “방 독닥” 없고?

102003 #4 아 그런 건 엇고, “날 좇이라 ” 경 막 좇아근에 “요거다 요거다” 하하 요거다!

102003 @ 팡에 강 방 독딱 이런 건 없고? 팡 나 좇으민 “방 독딱” 이런 거 없고예?

102003 #4 아 그런 거 없고.

102003 @ 어디 강 요거다 허여?

102003 #4 좇아보민게 좇아 좇아 좇았다. 좇았다. 요거다!

102003 @ 삼동 타 먹기, 뽕이치기,

102003 #4 그렇지. 그렇지.

102003 @ 말축 잡앙 노는 거, 그런 것도 해나실거라예?

102003 #4 어, 응, 허당도 남았주게. 요즘은 어디 유치원에나 간다 그뻐 통 없으니까, 들럭퀴멍 노는 게 목적이라 이거.

102003 @ 뭐가 제일 재미지게 놀았수과?

102003 #4 막 하영 하영 놀아부난 뭐 다 죽어 불언.

102003 @ 바당에는 안가고예 여기서 거의? 헤엄은 못 쳐마씨?

102003 #4 안가 안 가 . 난 못 해.

102003 @ 웃뜨리난예?

102003 #4 응.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시절 일제시대가 열네살까지 일본놈들의 세상이었잖아예. 그때 조수초등학교 다닐때에 일본

102005 #1 그거는 알지예.그때는 면사무소에서 그때는 한경면이 아니고 한림면 이랏거든. 한림면서기 세력이 쟁쟁허여.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말을 안 들으면은 방망이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도 맞아. 면직원안테 그런데 밧 멘적을

파악 해가지고 “당신네 밧은 멘적이 얼마니까 보리를 밧 가마니를 바쳐라” 불복을 허면은 이거는 때 밧는 거라. 때 밧아놓고 “허겠습니까.”이거여. 이거야 보리를 그렇게 해서 호미로 비어다가 클로 손으로 흘트거든. 흘터가지고 기계가 없는 때니까 이디선 도깨 요새말론 호로깨

102005 @ 호로깨

102005 #1 이디서는 도깨온 허주게 도깨 아덜. 그거는 도깨 아덜 솔진 낭으론 도깨어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으로 내외간이 때리는거라. 너미 쪼금 양이 많으면은 앞집의 사람, 뒷집의 사람 수눌어 가지고 이렇게 도깨로 두드려서 즘팍으로 거렁 바람에 불려. 불려서 멘적에 의해서 허면은 그때는 비료도 없는때고 허니까 벅차거든. 주인직시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걸 가마니에 묶어가지고 구루마 있는 사람 빌영 고산 창고에 가져당 데며.

102005 @ 고산에 강 데며마씨?

102005 #1 예. 여기서는 고산에 창고가 고산이 큰디라. 고산에 가서 창고에 데미거든 요즘에는 한경면이 생기다가 보니까 요즘은 고산은 왜정 때에도에도 파출소가 있었어. 파출소가 있었고 이제 두모에는 그런 경찰관사가 없었는데, 4.3사건 때에 두모 보니까 (전화) 고산 가서 이제 데며두고 오면은 먹을 것들도 돼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신창가면은 돼지 이것도 잡아먹어 불자 그래서 참 기가 맥혀가지고 돼지도 잡아먹고 오늘은 이디서 잡아먹고 또 다음에는 저디 돈 받고 돈이 어디 요새 같이 이서서

102005 @ 그렇게 공출을 하면 어머니한테 얼마 바치라 이렇게 온다는거지예?

102005 #1 멘적에 의해서 할당을 딱 시기거든. “너는 멘적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를 보리를 바쳐라” 허면 이거를 거역을 못해여. 거역을 허면 때맞아이. 때맞아 놓고 “허겠습니까”

102005 @ 순사가 때립니까? 누가 때려?

102005 #1 멘서기가, 아이고 동네 구장만해도 쫓 권리는 이서서

102005 @ 몽둥이 때려마시 뭘로 때려 뭘로 때려마씨?

102005 #1 몽둥이로도 때리고 뭐 탁 발로도 두루 차불고 뭐 뭐 권한대로

102005 @ 하 어떻게 그렇게

102005 #1 아이고 우리동네도 이 강구장이렌 현 사람 그 당시에 저 왜정때 구장했는데, 청년덜 딱 집합시켜서 늦이 오면은 요디 그 물이 있어. 그때는 동네 마을 물이 이제 개인 밧을 공동 밧으로 안해노니까 개인 걸로 들어 갔는데, 옛날에는 와라지라고 일본말로 와라지 초신, 짚으로 만든 거 그거 현 거 입에 물어가지고 그 물건 적전오라고 그렇게까지 압력이 세거든. 말 안 들민 뚜드려 맞았는데 발로도 차고.

102005 @ 그믂 젊은 사람은 시키는대로 때리고?

102005 #1 그때 구장 말 안 들어서도 그 때 뭐 그디 저디 왜놈의 정치하에 뭐 했다고 설움을 받았다고, 겐디 농사는 많이 계몽은 시킨 걸로 알고 있어. 고구마를

심는디 밭 한고지에다가 한 석줄 녀줄을 이렇게 싱그거든. 싱그면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혼 줄만 싱그라고 혼 줄만 싱그라고 해서 다 뽑아버려. 그믐 그걸 원수로 생각을 했거든. 겐디 이제 오히려 두줄이나 석 줄 싱그면 멍챙 이라고 허지. 그렇게 싱그는 법이 어서. 혼 줄 싱그는 그거 다 일본놈이 다 계몽시킨 거라.

102005 @ 뽕은 다는 뜻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102005 #1 농법을 많이 조금 계량을 시켜 줘지.

102005 @ 그런 면은 있는데 무섭거나 일본 선생님덜이 기억나는 것덜 엇수과? 매를 순사 칼 찬거 어떻게 생각?

102005 #1 초등학교 땡길때는 뭐 그렇게 학생덜 못살게 군 거는 아니고 무릎 밑에 겨울에 같은 때라도 무릎 밑에 바지가 내려오면은 가위 가져다가 “이거 집에 가서 잘라오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 “술까지 가위를 대면은 살까지 끊어진다” 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무릎우에 가게꾸리 아래 쓰봉을 해서 입고 머리가 길루면은 우리말로 성냥 가져와서 머리 태와버리겠다고 게니까 옛날엔 압력을 그렇게 많이 주었지.

102005 @ 무섭다예?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다예.

102005 #1 선생님덜도 좀 무섭게 봐야지. 선생님덜도 맥을 못쓰는 세상인디.

102005 @ 선생님덜 일본사람도 많았수과?

102005 #1 일본사람은 일본황제가 그 손들으니까 일본사람이 싹 가버리니까 일본사람이 별로 없었주게.

102005 @ 그 전에는 잇었수과?

102005 #1 전에는 일본사람이 여기 와서 살 수는 없어.

102005 @ 일본사람 봐 본적은 엇수과? 순사라도

102005 #1 그런 뵈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본사람 와서 뵈허지 이 제주도에는 우리지역에는 일본사람이 뵈허진 안했주,

102005 @ 가마오름 군대덜도 일본,

102005 #1 건 전부 일본군, 가마오름 와서 주둔 전부 일본군인인디 계급이 다 일등병에서부터 그 대령까지 뵈했고,

102005 @ 지나가는 건 봐봤겠다예?

102005 #1 우리나라 사람덜은 무등병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뵈 개판이고, 요 마진홀 목장에 와가지고 돌담 이렇게 쌓아가지고 초가집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살고, 여기 사람덜 사는 디 오라그네 밥 먹영 돌아나고 어떤 지어가지고 요 동네 살 때 큰동네는 못들어오는데 작은동네는 나무래서 들어오고 허면은 한 하르방이 일본놈 인줄 알고 조선말로 그냥 쳐 욕을 했거든. 욕을 헨 보니까 다 욕지놈덜이 이제 알아 듣는거라. 경산도 놈덜, 전라도 놈덜이 오라가지고 허니까 아 그땐 일본놈인 줄 자기네 말 못 알아שי카부덴 햄다고 그냥 막 행패를 겁이 나가지고 뵈라고 할 수가 있나게. 나도 그 동네 살 면은 집이 영 와가지고 막 집 뵈지고 뵈 허면은 요디 지

경청이라고 있는데 옛날 비석 세운디, 거기 이제 좃등이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 골으민, 잡으레 바짝 잡으레 오라가지고 고노야로 해가지고 저레 그냥 막 들고

102005 @ 다 어디로 가신고예?

102005 #1 겐디 나 지경천이라고 헌디가 의심스러와. 우리가 듣기엔 옛어른디 듣기에는 거기가 쇠비석도 세웠고 돌비석도 이제 집해서 세웠고, 우리가 보건디도 세 개가 이섯거든. 비석이 세 개가 잇었는데 그게 어뎡헌 비석이나 옛날은 검은 소가 나면은 무조건 돈도 안 주고 이거 했다고 허는디, 서귀포에서 거기가 중심, 제주시에서 거기가 중심이라서 나라에서 세운 비석이라 이거여. 내가 가만이 생각행 보드라도 사또가 넘어가다가 물을 곶아타서 간다고 해서 큰 비석을 세웠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저 남군에서 남군 북군이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은, 저 남군에서 서귀포를 중심 삼아가지고 이까지 옛날 중간에서 재어가지고 제주시에서 재어서 딱 공정허게해서 비석을 세우고, 누군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돌비석도 세우고, 쇠비석도 해서 세와가지고 우리까지도 아는데, 이 사건이후로 어느 도둑놈이 쇠비석같은 거 문 헤 치와불엇단 말이여.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게 지경청이라고 해가지고 헌 거 옛어른들 말을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이 견제 견제를 쓰지 안허고 말바꿀 견제를 썼다고, 이게 교환허는 디니까 저기서 여기서 이따가 모관에서 온다고 허면은 연락이 뉘가지고 제주시에서 오라가지고 그리헌 경계선이라느거여, 겐디 어느 말이 맞일런지 나도 주장은 할 수가 어서. 옛어른신디 들은 말인디 옛어른 상대는 나가 가만이 성 볼때는 나가 더 저축을 해진 거같아.

102005 @ 계난예 증거물이 다 사라져부러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증명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102005 #1 겐디 무사산디 그러더라고 우리 우에도 우리보다도 우에 사람덜이 많이 잇는디, 우에 지식인들이 가만이 보면 나를 어떡행 봤는지 “영 정 헌거여. 영 정 헌거여”해가지고 거 뉘를 잘 모르고 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게서 그 분들이 다 돌아가분 다음에는 동네 무신 무신 뉘이나 뉘에 대해서도 “어뎡헌 일은 거 어뎡해서든 좋코?” 의논허는 사람이 잇더라고. 좀 지식 잇는 사람은 의논해 오는 사람이 잇더라고, 게고 옛어른덜안티 “이런 이런 말을 쓰고 글로는 어떻게 어떻게 헌다 험디다.”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배운 것이 잇는디 지금 우리 동네에서 돌아가버리니까 나보다 우에 사람이 없어노니까 지금 딸아지게 이 사람안티 듣고 저 사람안티 듣고 거 비교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업서.

102005 @ 계난마씨. 잘못허당 덧붙영 뉘헛당 말덜이 다,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공출 그런 거 보긴 봐놔수과 기억남수과?

102005 #3 공출 공출이엔 허는 건 선물세 선물세라고 그랬는데 거 공출을.

102005 @ 공출 뉘렌 헛마씨?

102005 #3 선물세라고 이 우리 그 땅 내는 세금 세금, 겐 그게 선물세라고 헌 건 그 잘은 모르지만 저거 “선물로 받아다가 선물로 받아간다” 고 해가지고 저 선

물세라고 했는지 몰라. 것도 나도 그 뜻은 지세히 모르겠는데 그 해그네 그거 바껴 나서.

102005 @ 어머니가예 어떤 거 영 가져가고 허는지 모르쿠과?

102005 #3 선물세 그전인 보리, 보리나 조 끝은겘로 행으네 거 받으레 땡겨 반장이,

102005 @ 반장이?

102005 #3 예. 반장이 받아당으네 그 저 부락에 내노민, 부락에서 영 왕 면에서 왕 그져가는지 어떻사 했는지 건 자세한 몰라예.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시절 삼촌은 멧살쫘 되었수과?

102005 #4 예, 스물 스무살 혼 스무살 공출 공출 우리가 했지. 보리 바치쳐, 감 저바치라 ,절간헌 거 바치라, 뭐 이거 일본놈의 시대는 아니 공출아닌 게 없어. 전부 그냥 해부난 먹을 게 없어. 바쳐불면은 하영 못헐땐, 공출 안헌게 없.

102005 @ 공출은 누가 바치렘헉니까?

102005 #4 동네에 반장, 저 이장칩으로 반장칩으로 허민 그 반장덜은 혼 번에 이제 멧석을 내노라 허민, 그거 멧 번 땡기멍허민 총채 채울 수가 없어. 송년지난 채울 수가 없으면 아이고 춤 잘도 급급해났주게. 겨난 이녁 먹을 것덜 다 글경 바껴나서. 일본시대에.

102005 @ 주로 보리를 많이 땡헉짚다예?

102005 #4 그땐 비료도 없언. 비료도 없어.

102006 @ 뭐 보리 조 콩?

102005 #4 보리, 예 즘쫘, 콩, 땡땡 절간 감저, 저 드르에 강으네 솔땡을 다 주시멍 바쳐서. 솔여름을

102005 @ 솔땡까지마씨?

102005 #4 응. 솔땡이엔 헌 거 그거 행 바치믄 이거 땡헉꺼난? 군대에서 병정덜 불 솔땡 출꺼라고.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 사건 때는 삼촌이 멧살쫘 땡수과?

102006 #1 우리가 열 여섯에 신창 내려갓주기. 전부 산간에는 일시에 불을 그때 초가집이거든. 일시에 불을 짝 질러서 태와버렷어. 믿을 수가 없거든. “다 내려가야 산다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 그 당시에 그니까 이승만 박사 귀에 쟁쟁허여.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 게니까 전부 해변으로 이장을 헉다고, 전부 내려갓는데, 그 당시엔 청년덜을 전부 그 군복같이 옷을 트로허고 트로 입히고 이제 죽창 창을 해서 그냥 내가 독지에 탁 매개 허고, 화이바 이젯말로 군대에서 쓰는 화이바, 그런 화이바를 해서 데겡이에 탁 써서 빈쩍빈쩍허게 그냥 그 과랑 땡끼 매겨가지고 짝 허게 매겨서 탁 사니까 산에 공비를 잡아 온 사람이 있었거든. 자기네가 망원경으로 못 볼때에는 우리는 틀

렸다. 그렇게 했다고 하여. 그런데 전부 현역군인으로 놔가지고 지방마다 청년들 전부 그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해서 딱 허게 하여 죽창 매고 있는 걸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무장현 군인으로 봤다고 하여. 게서 산놈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찰이 피해로 승리를 해가지고 공비가 다 없어져 버렸지. 경해연 그렇게 허다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순전 지 밧디 일만 헐 줄 아는 사람덜은 애무허게 확 흥이면은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달달 떨리면은 이게 이상 이 있는 거라고 해서, 심어다가 죽여 버렸거든. 그니까 비참허게 죽은 사람이 엄청 나게 많지.

102006 @ 게도 삼촌 열 여섯 살인데 어째든 그때도 위험허긴 위험해서 그때도 벨일 어선 다행이다 청년들이 갑자기 억울허게 죽거나 이런 일이,

102006 #1 우리는 그 당시 열여섯살인데도 작았거든. 작았는데 신체가 좋은 사람은 걸려 들어가서.

102006 @ 신체가 큰 사람덜은?

102006 #1 예. 한두 살 우에 사람은 피해 본 사람이 많해. 걸려 든 사람이 많아. 일반인이 많았는데

102006 @게난마씨. 게난 친척이 가족중에 그렇게 하면 막 무서운 것들은 봐놔 수과? 불타는 건 봤었고, 민간인덜이 불타는 사람 죽이는 것도 봐.

102006 #1 아니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는 안 보고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해변 내려간 사람덜 데리고 밧디 간다고 하여. 밧디 사형 헐디로 데려간 다르릉 허게 쏘아버리고.

102006 @ 봐나진 않허고예?

102006 #1 예. 일반사람은 보게 허는게 아니주게. 막 취조허고 뭐허고 막 뭐해서 막 못전디게 굴어 놔가지고 계엄령 시절이니까 일게 순경이 사형할 권리가 이서서. 일게 순경이 사람 뭐 자기 죽이고 싶은 사람 감정 있는 사람좀 “너 이리 와” 데리고 와가지고 쏘아 죽여볼고, 이걸 호소할 길이 없어.

102006 @ 뭐 저 서북청년단이다 이런 검은개여 노랑개여 허는 말은 썬수과? 봐놔수과?

102006 #1 그런 거는 그 산 놈덜이 허는 말이주. 산에 올라간 공비가 순경은 검은 모자 쓰니까 검은 개, 군인은 (전화) 군인 모자를 안 쓰니까 노랑개.

102006 @ 잠깐 쉬게예.

102006 #1 게난 점쟁이도 아는거라. 우리집 사람이 하도 굵굽허난 들으레가난에 간 죽은사람도 간섭도 안 해오랏젠 확 흥이더라고 확 흥연 죽지 안헤도 하도 답답 허난 들으레 오랏텐 “이제 안죽었으니 살아나켄” 경 굴아똥 점쟁이도 아는 모양이라. 그 완전히 죽을거주게.

102006 @ 4. 3때 뭐 할아버지 때나 이런 때, 누구 뭐 일본으로 갔다거나 뭐 이런 건 엇수과? 피해 막 옆이서,

102006 #1 우리 집에는 그렇게 활동성이 있는 분이 업서. 일본 출입 허는 사람

도 없고,

102006 @ 무서워가지고 신창에서 살 때엔 무싱거 먹으멍 데넛수과? 4.3때,

102006 #1 그때는 그 저 보리밥 먹고, 고구마 고구마허니까, 그 저 갈때에 그 보리쌀 실러가곡, 또 그 우리는 영 좀 호강허게 살앗주게. 우리 고모가 신창이고, 그 숫글레동네엔 현디 가니까, 그디 우리 고모 난 아덜덜이 삼형제가 잘 살앗다고, 쉼구루마 이시니까 뭐 명석글은 거나 잘살아서 쓸같은 거나 하나 버리지 안허고 전부 실러다 주니까, 가고 그디 가서 이제 인자네 바꺼리 같은데 이제 그디서 밥행먹 으멍 삽센허니까, 그추룩 늣곡, 그디 큰 사촌이 그때 구장이라서, 구장이고 뭐허곡 허니까니 우리 사촌이랑 것찌지지 말렌헤신그라 경찰안티도 우리 아버지 흔허시 피해를 안 받았주기.

102006 @ 구장이면 어디 구장마씨? 신창? 아니 한경면?

102006 #1 한경면이게 신창일구라고 헛서. (전화) 음력으로 동짓달에 중순에 내려갔는데 다음해 4월달에 올라왔거든.(전화) 동짓달 중순에 음력으로 동짓달 중순에 내려가니까 다음해에 4월달에 올라왔거든. 올라오니까 내려갈때에 보리가 파종할 때 보리가 누릇누릇 익으니까, 갈아뿜 간 보리를 비어다가 장만해서 먹고 살앗거든. 일년 산 것이 아니 잠깐동안이지. 한 오륙개월 들수로 오륙개월 살고, 아래 나간 사람은 전부 올라오랐는디, 청수로 집중이 되었어. 저지고 산양이고 조수 낙천은 아니거든. 이디 와가지고 성담을 쌓았어. 네모반듯허게 네모반듯헌데 담구비 구비 2메다, 높이 4메다, 담꼭대기가 1메다, 게 담우로 사람이 팔팔 날아뎅길 수 이서. 그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거기에 보초막을 중간에 요렇게 담 준등이에 덜 쌓아가지고 사람 하나 앉앙바깳더레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근무를 취했주게. 그때는 공비가 꽤 이실때니까 그렇게 허다가 자꾸 토벌가고 뭐허곡해서 이제는 공비가 진화되니까 성담을 해제해버리고, 그때는 이제 나도 흐쓸 욱고, 한문을 조금 헐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뭘 허는고 허니까, 출장소근무를 시기는 거라. 시기는디 뭐냐면은 나무가 큰 네군데 뭘 허서. 청수거리에 절로 저지에서 내려오는디 이디허고 저 고산더레 가는데 허곡 낙천더레가는디 큰 뭘 해가지고 허면은, 요만헌 널짱을 만들어, 요만헌 널짱을 만들어서, 절로 들어오는 사람은 들입자 쓴 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나가 그 행적을 봤는데, 들어오면은 내출자 쓴 거를 그사람 주소, 성명, 행선지를 쓰고, 그거는 들입자 쓴 거는 받고, 저 하꼬짱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 놔가지고, 내출자 쓴 거를 그 사람을 줘. 내출자 쓴 거를 그져다가 정문지기신디 주면은 문을 열어주고, 그걸 안주면은 아뎡 뭘헌 사람도 다른 동네사람은 문을 딱 증가서 안 올라주거든. 그러니까 이걸 명령복종을 안허면 안되게 뉘었주. 그런 시절이 이섯주. 게서 그 당시만해도 그렇게 헐라니까 마을에서 밥해주니까 먹고, 집이 밥은 안 먹고 인자 그걸 근무헌다고 해가지고 허니까, 한달에 모슬포에는 경찰서라고 삼부경찰서, 흔 달에 쓸 한말, 석 달에 흔번은 주거든. 석 달에 흔번은 주는데, 가면은 석 달치 쓸 서말을 알량미 근쓸을 주면은 타나가, 이제 집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놔가지고 죽을 썩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네는 고급으로 먹으멍 살앗주.

나는 마을에서 해 준 밥을 얻어 먹영 살고 그런 역사가 이서.

102006 @ 양;구 세상에 계문 담 쌓을 때도 어머니도 가고 삼촌도 갑데가?

102006 #1 담 쌓을 때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가야 돼. 큰 돌이라도 영 여라이 너이 들어도 나 버청 못 지켄 소릴 안허어. 아 경찰이 탁 들어 사민 사용권이 이서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102006 @ 그른 저지도 쌓고 청수도 쌓고, 마을마다 다 쌓았수과?

102006 #1 예. 들어오면서는 다 쌓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쪼금 진압이 돼어서 공비가 이제 얼마 없다 허니까, 저지도 올라가고, 산양도 올라가고, 처음에 올라오 긴 청수안에 와가지고, 빈틈어시 조그만씩 집 세와 가지고, 임시 비만 받게해서 조그만씩 해가지고, 있다가...

102006 @ 어만큼 큰 이 백평 이백평 어민큼 커마씨?

102006 #1 게니까 마을 절반정도만 쌓은 거라.

102006 @ 터가 단이 흐깁 남아이신가예? 헛던 거?

102006 #1 다 치와버렸지. 경제정리라던지 뭐니 허면서 그냥 막 돌이 없어서 썰어가는 판인디 게 세상변화라고 허는 게, 춤 거짓말 닳은 노릇이주.

102006 @ 어느 쪽에 성담을 쌓았수과? 지금 만약에?

102006 #1 이 요디 카센타 일로 혼 오십메다 안으로 해가지고 요 질로 저이 저레 쪽 허게 나가가지고.

102006 @ 어디 영 돌담 이신디가 한 곳이라도 이실거라예?

102006 #1 다 치와 가지고, 오고생이 그레 집도 짓고, 그 밑에 그 2메타 널비민 죽은 거라게. 담이 어마어마 돌이 들어간 거, 게서 자로 말허자면 열두자 높이를 쌓은거라. 열두자 높이를 쌓으면은 우에가 일메다 너베기가 돼니까 딱 올라가서 스방 경계도 헐 수 잇고, 게 담이 너브니까 이제 요렇게 들라가지고 사람 앓아가지고 바깥더레 보게 요렇게 구멍 내가지고 볼 수 이쨌 영 볼 수 있게, 중간으로 가이단 놔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딱 혼 사람만 올라가고 내려올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초사고,

102006 @ 마을 사람덜은?

102006 #1 사무실에서 자꾸 순찰 들고, 유지들이 순찰 꼭 돌앗주게.

102006 @ 이 마을에는4.3때 피해는 많인 어섯수과?

102006 #1 공비 피해는 엇고, 공비 피해는 없는데, 이제 그 공비덜 그때 막 한참 막 성혈때라노니까 내려가니까 안 죽을 사람도 많이 죽어부럿주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허고 이 사람허고 흐쓸 좀 사이가 좋지 안허다 사이가 좋지 안허다허면은 사상의 문제가 저거 미운거라고 손가락질 해볼면 경찰안티 손가락질 헛다고 “너 이레와” 가면 없어져부는 거라. 게니까 제라허게 경찰허고 맞대어서 정치싸움을 헐라고 해서 현 사람덜이 아니고, 왜 엉뚱허게 좀 유감있는 사람은 다 죽어 버렸어.

102006 @ 무섭다예?

102006 #1 늑앞이서 큰 소리 혼 변 칠 수 없는 그런 선량헌 사람덜, 경찰이 “이

레와 봐” 혜영 허면은 발발 떠는 뭐가 시민 이거 틀리니까 영 험구나 해서 기냥 헤 버리니까,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 아까 말씀하셨잖아예. 겁나난 일이라던가 아버지 경 돌아가시난 또 뭐 보복이라던가 이런 거 주위에이런 거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거 지금 뭐 됐수과?

102006 #3 거 무싱거 헛 거 유족행으네 감젠 행게 난 그 날 시에 교육받으레 갈 거라부난,

102006 @ 막 나중에야 유족으로 이렇게 된 거지예?

102006 #3 4.3 난 이제야 덜 유족,

102006 @ 계란마씨. 어머니는 언제 삼촌 멧살 때 돌아가신 거마씨 정말로 ?

102006 #3 우리 어머니가 서른에 했던가?

102006 @ 삼촌 서른쯤? 아 애기 낳고 다 좋은 꼴 다 보고,

102006 #3 응 계란 스물아홉인가 서른 때, 저 그 그룹이라서예 우리 어머니가,

102006 @ 여든 넘게 사시긴 사셨구나

102006 #3 일흔 아홉에 돌아갔나? 여든까지 못채와십주.

102006 #4 아이고 4.3사건때는 뭘엔 굴으코?

102006 @ 멧살때쯤이파 삼촌?

102006 #4 음. 흔 스무솔.

102006 @ 음 결혼하기 전이다예.

102006 #4 아니 아니. 결혼 옛날은 열다섯만 넘으면 열일곱솔, 열여덟솔, 열아홉솔, 스무솔깝장 결혼했지. 계란 흔 열일곱에.

102006 @ 겐 시집 어른덜허고 같이 살았겠다예.

102006 #4 응.

102006 @ 경행 4.3 터지난?

102006 #4 게 터지난 이젠 이 산간에는 다 그냥 불부쳐부니까, 해각으로 다 내려간, 해각으로 내려간 어디 안 사람 이시민 허고, 안 사람 어시민은 늬의 집 방 무싱거 췌막 골은것도 하나 빌영 그디 살고, 춤 경허단에 이젠 흔 멧들 살아지난에 말제엔 이디 올라오난 담만 벌경해서 집 하나도 없언 다 불캐와부난. 겨난 이제 그 거 행 멜랑 두루두루 담 다와그네 영 그디서 밥해영 먹고 그디 그디 그냥 뵙 자고, 호호호호 기가 막히지 먹을 건 서? 저 화순깝장 강 감재똥 사다그네, 그것 헨이젠 뭇 허멍 먹고,

102006 @ 감재똥?

102006 #4 허 감재똥이라는 거, 지금은 없으니까 못 곱아. 그 뭘엔 굴으코

102006 @ 감재 빼대기 아니고예?

102006 #4 빼대기가 아니고 전분 딸려난 주생이 감재똥.

102006 @ 아아 감재똥, 전분 주생이, 세상에, 어떻행 먹어마씨?.

102006 #4 영영 췌영, 그 벨게 들어강 이서세 그 때는 그거해영으네 막 이제 저

무싱거 땡땡이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어서 땡땡이배긴. 땡땡이엔 현 거 알아?

102006 @ 예.

102006 #4 그것에 해영 시끄나 지나 했당 이젠 이레 찰락 비와노민, 흐끔씩 흐끔씩 꿍으멍 영영 췌영 담꼬망에 찢렁, 담꼬망에 찢릿당, 바삭 들류면은 이제 그걸 탁탁탁탁 이제 뻥상, 막 뻥상으네 영 허민 저 어디 바당굿디 기계에 사람 허는디 장 곱앙 곱아다그네 채로 청, 즈베기도 행 먹고, 범벅도 행 먹고, 허허허허 게난 지금도 막 형편어신 날 곤젠허민 “그 감재똥도 먹었져. 감재똥 먹으멍도 살았쨌” 아이덜ㄱ라 경허민 요새 아이덜은“ 경 먹을 꺼 어시민 라면이라도 사당먹주” 라면이 셔게. 라면도 게난 죽지 안으난 살아서. 죽지 앗앙 그때 살안. 게난 외국서 어디 저 어디서 원조를 해 줘어. 원조. 원조해주니까 살았주. 경안허른 사람도 하영 죽어실 거라 먹을 꺼 어선. 어디 대만곶은디, 대만서도 원조해주고, 미국서도 원조해 주니까 쪼끔씩 쪼끔씩 그때 왜밀ㄱ루, 춤 밀ㄱ루, 강냉이ㄱ루 강냉이 쫄, 그런 거 원조 해주니까 쪼끔씩 먹으멍 살아서.

102006 @ 어디서 누가 줘데가?

102006 #4 이 므을로부터 므을러래 멘더레 바치면은 멘더레 바치면은 멘에서 불러 누게누게 행 불르민, 이제 너커리ㄱ지 가면은 주주게. 거 주면은 쪼금, 하영도 안 줘. 쪼끔씩 쪼끔씩 췌, 췌 원조 받으난 살았주 원조 어서시민 다 죽어실 거라 그 때에.

102006 @ 그때 삼춘은 애기 난때파?

102006 #4 4.3사건때? 4.3사건때 스물 둘, 셋, 아 스물 셋에, 셋에, 스물 셋에.

102006 @ 애긴 안 낳고, 결혼은 헐?

102006 #4 응, 아이고게 그때 지금도 그때 살아난 생각허면은 춤 기가 막혀.

102006 @ 씨어머니 씨아버지 같이 살았고예?

102006 #4 씨어머니는 돌아가 불고, 이제 씨아버님은 있고, 시아지방 두 개, 이디서 저 서귀님이렌 현디 지금 하느니 하느니 그디 소까이를 가난 씨아지방 두 개 들고 씨아방허고, 세 살 난 지집아이 하나 나가 드난, 그건 거기 강 죽어불고.

102006 @ 아이고 딸 이섯수과?

102006 #4 아니 그 지집아이 하나 들안 가난 거기 강 죽으난 물어 불고

102006 @ 아이고 세상에 4.3 때예?

102006 #4 응 경헐 이디 올라오난 그 담ㄱ망 뒤에 벌경, 담만 벌경허난 두루두루 다완 그 소곱이서 이디서 해영 먹고 이디 뉘 자고, 경허멍 살았지.

102006 @ 씨동생도 어렷쨌다예 씨동생도? 열 멧솔?

102006 #4 응, 씨아지방 하나인 응 저 4.3 사건에 그냥 곤 죽어 불고, 서귀놈이엔현디가 습격 들어부난 습격, 습격들언 허난 이제 거기서 산더레 놈이라고 불러낸 그냥 총살 행 죽여부난 죽여부난 이젠 열여솔난 씨아지방 하나 들안 씨아버님허고,

102006 @ 4.3 때 다 돌아가불언마씨 흐 사람 돌아가셔부니까?

102006 #4 그 씨아지방 죽엇단 췌 이거 산간에 놈이라고 그 저 사무실로 불러

내언 “너 산간놈이지 너 산간놈이지” 멍 막 두드리타작허멍 죽어불언.

102006 @ 그때 씨동생이 열 멧살?

102006 #4 아니 그 말쑈씨아지방은 스물셋이고 나영 갑장, 근디 죽은 거는 열여
 솟술 난.

102006 @ 죽은 것이 돌아

102006 #4 아니아니 그,

102006 @ 갑장이 돌아가셨구나예? 아이고 세상에

102006 #4 응.

102006 @ 산 사람덜이영 내통했덴 해가지고 겐 시체는 좇아전마씨? 유족으로
 이라고 유족으로 등록 4.3유족

102006 #4 어땡? 4.3 유족이라고? 아니 유족,

102006 @ 4.3 유족 4.3 평화공연에 4.3 유족 신청허면 될건데

102006 #4 몰라 이제 저 우리 그때 우리 큰 씨아지방이 있거든. 그 씨아지방이
 우린 건 몰르고 음 건 몰라

102006 @ 올렸잖다예?

102006 #4 음. 올려실꺼라게 음.

102006 @ 아이고 세상에 씨아지방이 세 명이나 있었구나. 아들이 네명이지예
 세상에.

102006 #4 음

102006 @ 큰 씨아지방허고 죽은 씨아지방은 지금 쟁 잘 살았수과?

102006 #4 죽어불언.

102006 @ 다?

102006 #4 다 죽어불언. 다 죽어부난 큰씨아지방 아덜 이서.

102006 @ 청수에 사는 사람은 엇고?

102006 #4 어서어서 다 그냥 저 어디 대정면에 간 사람도 있고, 저 서울 어디
 저 경기도 에 간 사람도 있고

102006 @ 계도 영 전화도 오곡 아는 척은 험니까?

102006 #4 예예. 가끔 허지.

102006 @ 4.3때 삼춘은 결혼헌 아버지는 어땡 남편은 어땡?

102006 #4 그때 시에 가부런 시에, 살레 성덜이영 일보난, 형수는 필요 없고, 형
 수는 필요 없고, 애기아빠는 형수는 필요 없고, 계난 씨아지방만 그 스타에 하나 죽
 었지. 뜬 건 엇고,

102006 @ 남편도 같이 살았지예 어땡든?

102006 #4 나 살아보지 않허연 나 살아보지 않허연.허허

102006 @ 사이가 안 좋안?

102006 #4 응? 좋앗던 말앗던 막 그 사태가 위험하니까.

102006 @ 도망간 거마씨?

102006 #4 응. 사태가 위험하니까 저 성이 시에 사니까 이제 그디로 오갓 가분
 거라 일허고 뿔허곡 살젠 가부난,
 102006 @ 그렇지 시아지방이영 씨아방이영 모성 살고 세상에,
 102006 #4 그렇지 그렇지. 음 나추룩 산 사람도 베랑 엇지.
 102006 @ 아이고 결혼은 중매결혼을 하엿수과 연애결혼을 하엿수과?
 102006 #4 아이고 그때사 연애 셔서게.
 102006 @ 사주 그런 건 볼데가 부모님이?
 102006 #4 봤지.
 102006 @ 혼수폰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령헛습니까?
 102006 #4 결혼헛 때? 뿔허느니? 결혼 헛때사 이불 우알채, 이불허곡 요허곡 가
 민 뉘지. 뉘 살림 무싱거 그런거 안 출리고,
 102006 @ 이불 우알채, 퀘나 요강 그런 건 안 가져갓수과? 퀘 요강?
 102006 #4 아니 당추 그런 것도 엇고,
 102006 @ 결혼식은 어디서 하섯습니까?
 102006 #4 누게?
 102006 @ 결혼식?
 102006 #4 결혼식? 식 없어.
 102006 @ 옛날 그 몰타고 가매타고?
 102006 #4 응 가매는 탕 그 저 무싱 거 하인덜 영 들러으정 갔지, 거기 강 그난
 안에 들어 강 밥상 받았으네 그냥,
 102006 @ 상 폐우고 절허고 닭 날리고 이런 건 안허고?
 102006 #4 아이 그런 것도 웃고 서로가 맞대헤영 얼굴이 어떻헌지 잘 몰라. 하
 하 계난 부모 명령으로 가라 허면 갓다가 실프면은 다 도망가 불고, 그땐 경헤서.
 102006 @ 신랑도 몰 탕 집에 오고 경허지 않허고예?
 102006 #4 응 아니 당추 그런 법도 으섯고, 그런 법도 어서서.
 102006 @ 남편은 집으로 바로 갓수과?
 102006 #4 바로 갓지게. 바로 몰탄, 몰탕, 몰 탕 강으네 거기가면 밥상 받았
 밥 먹으면은 딱로 이젠 새각시 머리에 쓰고, 가매에 들러 아쨍 가민 도 그 즘음에
 는 신랑 몰 탕 그냥 갓어. 켜디 우리는 몰도 안탓어. 동네니까 걸언 간. 동네니까
 외방이민 허주마는 몰도 어려운 때나네.
 102006 @ 켜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섯습니까?
 102006 #4 건 뉘라?
 102006 @ 시집이 어딿과?
 102006 #4 다 죽어부난 이디 일로 이사온 지가 시집이 번지라.
 102006 @ 지금 삼촌 사는디가?
 102006 #4 아니 나는 뜯디강 살고 집 상 강 뜯디강 살고,
 102006 @ 이사번지는 어서져부럿수과? 경해도 그 번지에서 살고?

102006 #4 난 그건 필요였고 경해도 그 번지로 쓰는 거.

102006 @ 결혼행 그 번지에서 살고 강 보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십디가?
멧살에 결혼하신거마씨.

102006 #4 나 열일곱에, 열일곱에,
102006 @ 열일곱에, 게른 태어남 열일곱살까지 어머니 아버지영 같이 살았겟다
예.

102006 #4 응.

102006 @ 게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 멧 형제로 태어났수과? 삼촌은 태어날 때
청수리에서?

102006 #4 망녕이로 허난 사십, 어머니가 혼 사십뉘언,
102006 @ 형제도 어떻웁수과?

102006 #4 형제도 나도 죽어부런, 나도 죽어부런 난, 그때는 약도 엇고 병원도
어신 때난 아프민 침이나 마치고, 저 심방 빌어당 강 곳이나 허고, 허당 오갓 죽으
민 강 물어불고 물어불고 게난 내가,

102006 @ 형제도 어서?

102006 #4 어서, 어서.

102006 @ 언니도 엇고 오빠도 엇고,
102006 #4 언니 하나 잇는디 그때 일본간 어디 간철이 몰라. 일본 가부런.

102006 @ 멧살에 일본 가부런마씨?

102006 #4 혼 스무살뉘 때 갓지.

102006 @ 4.3에?

102006 #4 4.3전에 갓지.

102006 @ 어서져부런 어디 끌려간것파?

102006 #4 끌려간게 아니라 어서져부런, 어서져부런, 끊어져부런.

102006 @ 게민 아들도 어서마씨? 어머니에 자식 형제들?

102006 #4 나 어린 때 나민 죽어불고 나민 죽어불고 죽어부런

102006 @ 혼자만 외딸로 컷수과?

102006 #4 그래. 그래

102006 @ 아버지영 어머니영 사랑 많이 받았수과?

102006 #4 경 살아보지도 안허고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안허고, 그럭저럭 사랑보
난 이거 스물넛에 이 혼자 생활허는 게 지금이라.

102006 @ 열일곱살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을꺼 아니예?

102006 #4 그래 그래 4.3사건 7지 살안 저소까이 갓당 올라오란 죽어부런

102006 @ 누구 아버지 어머니? 4.3때 다 돌아가섯수과?

102006 #4 그루후제 끝난 아관,

102006 @ 어머니는 멧살 때 돌아가섯수과?

102006 #4 환갑,

102006 @ 삼촌 멧살 때?
102006 # 나 스물 넷에
102006 @ 결혼하는 거 다 봤겠다예?
102006 # 다 출려주니까 그건 어머니고 어머니가 스물
102006 @ 아버지는멧살 때 돌아가셨수과?
102006 # 4 흐뎡 넘을 때 혼 육십 두어개,
102006 @ 삼촌 멧살 때?
102006 # 4 나 스물 넷에
102006 @ 건 어머니고? 아버지?
102006 # 4 계난 금년 돌아가고 내년 돌아가고 해서.
102006 @ 어머니가 스물네살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스물 다섯살에 돌아가신 거. 아 1년 만에 돌아가셔봬데가? 와 삼촌 많이 슬뵈겠다예. 그때 애기 하나 이섯 수과?
102006 #4 아덜 흐나가 그거,
102006 @아덜 흐나가 멧술 그때가?
102006 #4 혼술 게.
102006 @ 스물세살에 낫구나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잇수과? 어머니 가 아껴봬수과? 아버지가 아껴봬수과? 어릴 때 생각해봬서
102006 #4 다 헛지 뭐 다 헛지.
102006 @어머니 가 뭐 가르쳐줍데가 베클이영, 삼촌안테?
102006 #4 저 무싱거 민영이라고 민영, 멘네 목화 걸로 허영으네 허는 거, 걸로 헤영 영 베클이라고 영 걸어지민 영영차는 거, 영허고 영허민 영영 차는 거.
102006 @ 멧살때부터 배왓수과 어머니안테?
102006 #4 혼 열다섯 뵈때 배왓주.
102006 @ 멩지도 허고?
102006 #4 멩진 안허고,
102006 @ 민영차는 거 배왓고, 거 베클이나 기계덜은 집에 엇고예.
102006 #4 불케와 불엇젠 허난
102006 @ 어머니 예봬수과?
102006 #4 응 췌좡앗지.날보다는 나삿지.
102006 @ 아버지는 막 엄허진 안헛수과?
102006 #4 안헤연 경은 안허고,
102006 @ 어머니 아버지는 그쟈 일어나민 밧디 가고?
102006 #4 그래 그래 그래
102006 @ 검질도 메레 가고 모든 일을 다 도웬구나예? 허벽정 물질렌 어디 갓 수과?
102006 #4 물질레는 여기는 물이 멀어 저 흑숫물이라고 흑숫물 여기서 아척이

강 그거 질어 오면은 이때 돼어. 길어당 빨래도 허고, 걸로 먹음도 허고 그 전부
흑숫물 강 한 허벅 질어오면은 걸로 살아서.

102006 @ 흑숫물은 청수에 있는 물이파?저지리까지 안가고예?

102006 #4 아니 청수물,

102006 @ 어머니가 당, 저지당에 댕기는 거 봤수과

102006 #4 봤지.

102006 @ 삼촌도 다념수과? 지금도 다념수과?

102006 #4 지금은 끈어불언

102006 @ 어머니가 무신 정성을 험데가? 당에 갈 때 정월 메칠 날 갑디가?

102006 #4 정월 당에 갈 때 할망당 밥해근에 보시 두 개에 걸이고, 보시 두 개
영 걸어놓고, 꿩기 꿩 거기 놓고, 이흠드리 술 흥병 놓고,

102006 @ 돌래떡은 안허고예? 뱃개정도?

102006 #4 무사 해여. 일곱 개

102006 @ 무신 돌래떡 모멸?

102006 #4 모멸이나 죽졸이나

102006 @ 뭘 많이 헛수과?

102006 #4 보리졸이나 아무거라도게.

102006 @ 삼촌도 다녔수과? 뱃살까지 뱃헛수과?

102006 #4 뱃헛지. 거기를 안 가면은 할망이 아프게 헛다고, 아프게 허면은 거
기 강 잘못헛수헛 허멍 잘 갖당 바찌고 거기 강 돈 갖다가 바찌고 허민 흐뎡 좋은
수가 이서. 흐뎡 좋은 수가 이서. 할망디 가살걸 아이고 할망디 가살걸 흥강
당이엔 안 헛 할망디라고 할망디 가살 걸.

102006 @ 옛날에는 큰 곳도 헛수과? 심방 메인 심방 이섯수과?

102006 #4 당에서 해났지 우린 안허곡

102006 @ 그 심방 돌아가섯지예?

102006 #4 옛날 가부런, 죽건디 오렌.

102006 @ 심방 이름 모르지예?

102006 #4 그 심방일름 사만생이,

102006 @ 여자분이엇수과?

102006 #4 여자도 두갓이 헛주마는,할망이름은 모르고,

102006 @ 사만생이가 할르방이름이파? 큰심방이엇구나예?

102006 #4 음.

102006 @ 그 사람 저지리분? 지금은 또 저지리나 청수에 심방은 엇고예? 거기
당맨 사람이 엇구나예.

102006 #4 어서. 지금은 병원 잇고 약 좋으니가 아파가민 병원에 가고 약 먹고
허지 심방 좃지 안허여.

102006 @ 예. 거기 물색 그런 것도 가져가 본적 잇수과?

102006 #4 응 가져갔지. 뭇행 뭇 옷가지 뭇행 허민 쪼금 뭇 우에게 쪼가리 이건 할망디 갈 때 ㄱ정갈거 허멍 톱 걸영 놔뒀어. 쟁 모영낫당 갈때는 가정가곡,

102006 @ 할머니가 예쁜 옷 입으렐 헛 거 아니예? 그런 정성이에

102006 #4 예.

102006 @ 삼촌은 계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이섯수과?

102006 #4 어린땐 친구 뭇 학교도 안땡기고 그냥 집이만 아쟝 ㄱ만이 일땡기고 친구도 엇고

102006 @ 무사 어머니 아버지는 단뿔애긴디 학교도 안보내쥬신고예

102006 #4 학교가 어섯지 여자는 학교가 어섯지 그때는,

102006 @ 야학 그런것도 안헤보고예?

102006 #4 야학은 쪼금 헛지, 흥 열술 열 흥 땡술 난때에 야학은 쪼금 허당 일 본시대 나난 설러부렀어, 일본시대 나난 또 일본글을 쪼금 무싱거 허단 스테 터지 난 설러부렀어.

102006 @ 스테 터졌을때에 노랑개여 검은개여 무서운 것들도 봤수과?

102006 #4 아니 그런건 엇고,스테 터졌을 때 봤주게.

102006 @서칭 안 들어봤수

102006 @ 순경은 무서웠수과?

102006 #4 순서 왓져. 아이고 순서 왓져 허민 무서와그네,

102006 @ 칼 차고,

102006 #4 칼차고, 보통은 안 땡기지 뭇 큰 죄가 이서야 오지. 큰 죄가 이시면 은 그 사람 잡으레 오는 거라.

102006 @ 4.3때 군인덜도 봐봤수과? 안 봐봤수과?

102006 #4 무사 막 무서왔지 뭇

102006 @ 불 캐우는 건 봐봤수과? 불 캐와 버리는 거

102006 #4 불 캐와 부는 거야 봐봤지.

102006 @ 계난 아들 낳고 땡년 뒤에 남편이 돌아가신 것과?

102006 #4 돌아가지 안허고 그냥 군대에 가부난 그냥 행방불명이야.

102006 @ 6.25전쟁?

102006 #4 6.25, 6.25때에.

102006 @ 6.25때에 돌아가신 거 땡수과?

102006 #4 돌아야 갔는지 저쪽에야 갔는지 행방불명이야. 계난 윈.

102006 @ 세상에 얘기는 봤수과? 얘기 난 건 알아?

102006 #4 몰라 몰라. 6월들에는 6월들에는 군대에 나가 불고, 10월 들에는 아 기 나서.

102006 #@ 아, 어땡 그럴 수가 있수과? 아이고 세상에. 계난 소식이 끈겨불언? 가자마자 소식이 안 와불언?

102006 #4 아니 간 때에 흥 땡들 흥 서너들은 뭇 쪽 편지도 오고 땡허당 그냥

말자에 막 6.25때 6.25때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때는 몰라. 그때는 죽었는지 저쪽에 그냥 저 납치당했는지 통 몰라.

102006 #@ 그 큰 시아버지는 멧살까지 모셨수과? 남편도 엇고 세상에.

102006 #4 일혼다섯까지.

102006 #@ 헤, 그 큰 삼촌 멧살까지?

102006 #4 나? 아 나 혼 혼 오십 얼마까지 했주.

102006 #@ 아이구 씨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가까이 살아신게게. 어떤 운명이파게 도대체 아이고?

102006 #4 그래, 허허, 남편 겐디 그 아덜 하나, 아덜 하나이시니가 그것이 크면은 이것도 씨아방이 씨아방은 환자주게. 하르방은 씨아방은 환자로 이제 천징 “으흥, 으흥” 영 허는거 요거를 씨아방안티 맡기면은 죽을지 살디 모르고 “나는 어디가 잘 살앙 뵈허리”, “요거 커야지 요거 커야지 ” 경헨 살아가난 그레저레 살아전.

102006 #@ 경 행 살 웬안허게덜 아집서.

102006 #4 속앗수다. 벳해주젠. (두 분할머니5,6가 들어온다)

102007 @ 응 게 큰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1 예 중매결혼.

102007 #3 우리 할뎨 연애가 어디 이섯수과? 우리 할때는 주로 중매마씨.

102007 @ 게 어머니 외동아들이난 메뉴리 잘 굴랐겠다예? 게도 조수에서 소문 들었으네?

102007 #3 그때는 그자 그때도 뭐 그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누게 나도 그때 그렇게 빨리 결혼을 안헐건디, 내가 그 군대를 지원 허젠허니까 어머니가 벳부쳐뵈 가렌 하도 무싱거렌 흐는 바람에, 겨 큰 벳을 부치젠 헛자 이거 여하튼 군대 갔다왕 나는 결혼허켄 했거든마씨. 군대 갔다왕 결혼을 허켄 허니까, 그때도 그 전쟁이 그 후맛이라 그 전쟁그루가 가시질 안해가지고 어머니는 군대가민 사람이 죽는 거로구나 “아이 벳부쳐뵈 가라 벳부쳐뵈 가라”경헨 그 무리에 결혼을 허단 바려보난 어뎡해연 요새 곁으민 쪽앙이나 헛젠헌다 어디 여자 있젠 허난 나보다 세 살우에 게난 밑에는 허젠헛자 어려네 주켄 안허고 어뎡헐거라.

102007 @ 멧살 때 결혼허신거 마씨?

102007 #3 스물하나.

102008 @ 경헨 군대를 갖구나예? 그때 사주는어머니가 보섯겘다예?

102009 #3 응.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

102009 #3 그런 건 우리 헐때는 뭐 결혼 예물이엔 현 건 거 반지하나, 헛는디 허는 사람이나 허고 난 그런 걸 안허주게. 결혼헐 때, 게난 그 결혼도 해져신지 말아신지도 몰라. 왜 그러냐허민 그 저 한림 사진관에 들어 강 결혼사진을 찍영 갖는디, 그놈의 짓거 도둑맞는 통에,

102009 @ 아이고야.

102009 #3 게 무신 돈 나뉘시카부텐 헤부리신디 아 게난 우리 둘이 오면 또 결혼사진을 찍어주켄 헛는디 아 지금이라도 지랄하고 있나? 아 그때 그 저 사진 찍은 거 어떻 행으네 켄당덜 모두왕 사진을 찍을 거냐고? 아 우리 둘이만 허든 뵈거나고? 그 모듬사진도 잇고, 무싱걸 해야되는디 그걸 어떻찍젠 햄시니 그걸 어떻 “아 이구 미안허우다. 어떻허우다.” 사진도 찍어 노은 거 어서 게난 그때 우리영 그치 결혼헌 사람덜은 사진도 하나 어서,

102009 @ 멧개라 한림사진관 지금은 없잖아예? 세상에

102009 #3 응, 아무것도 어서마씨. 게난 이거 뭐 결혼은 헤졌나 말았나??

102009 @ 하하하 도둑들어부런, 뭐 훔쳐갈 거가 어성으네, 말이 안되는,

102009 #3 차 게난,

102010 @ 세상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다까?

102010 #3 이 동네서.

102010 @ 집에서예? 가문잔치

102010 #3 그때는 동네 일뤼잔치 뭐 가문잔치니 무신 잔치니 뭐 뭐,

102010 @ 크게 했구나예?

102010 #3 아 단아덜이난게.

102010 @ 응 돼지도 멧 마리 잡고예?

102010 #3 돼지 그때 멧 마리 잡젠헛자 돼지가 어서사 십주. 돼지 혼 마리 헤도 그 우리 어머니가 우렁 질룬 도세기라,

102010 @ 우렁?

102010 #3 우렁 질룬, 게난 지금 단아덜 풀젠 허니까 도세기,

102010 @ 그거 우렁, 잔치 우렁,

102010 #3 잔치 우러네 그 도세기 게난 그 사람먹는 흐린 즈쫄 다 슣양 뵈이고, 그추룩허네 키왕노니까 돼지가 워낙 컷수다. 그때 동네사람덜 다 놀래십주. 돼지 큰 거 잡앗텐 쉼 큰 디 아찌낭 그것도 동네사람덜 그때는 고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 단아덜 질루왕 먹젠덜허당 바래보니까 돼지고긴 그추룩 큰 거 잡아도 모자라니까, 이제 또 “성할망네 집이꺼 강 걸러당 잡으라” 헤네 또 성할망네 집이꺼 거려다뵈, 그때 도세기 두 마리 잡아서.

102011 @ 기억은 좋은 때 기억은 신흔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다까? 어머니랑 같이 사셨지예?

102011 #3 응

102011 @ 지금 사는 집? 태어나도 그집이고?

102011 #3 응 태어난은 우리가 옆집이 살다가 어머니가 그 집터가 워낙 좋덴허니까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가 싯주게. 그 집 임재가 우리 사는 집인디 작은 아버진디 “느네랑 이디 살고, 우리랑 느네 사는 집이 강 살고 거기서 돈 흐쫄만 응과드라” 허난 돈 흐쫄 응가 췌 집을 바뀐. 경해연 우리가 거기 들어 강 이거 뭐

그자,

102011 @ 작은 아버지에 식구들도 친척도 그 옆에 살고?

102011 #3 응.

102011 @ 어디 풀지 안행예? 그 작은 아버지는 4.3때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

102011 #3 아니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 우리 외감주.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102011 @ 아아 돈이 필요허니까 경도 허는구나예?

102011 #3 그땐 그자 돈 필요허믄 밧도 흐쫘 나신 거 쥘으네 흐쫘 나쁜 거 받으면 돈 우수리 거뵤 식,

102011 @ 우수리 거뵤식, 신흔살림은 거기서 헛고예? 어머니랑 안거리 바꺼리 지서났수과?

102011 #3 아니 그냥 안거리에 혼디 살앗주.

102012 @ 아 같이예? 아이들은 어떻게 뵤니까? 자식은 어뵤 두셨수과?

102012 #1 육남 때, 둘 죽어부리니까.

102012 #3 오남때 작은 아덜

102012 @ 지금 다 잘 컷다예

102012 #3 지금 큰아덜은 외국에 나가 있고 작은 아덜은 이제 여기 와네 그냥 같이 이제 무싱 거 허멍 살고 있고 딸덜은 또 딸덜대로 제나름대로 그자 지네,

102012 @ 딸 셋예?

102012 #3 딸 하나 작년에 지금 저 어디 육지에 나강으네 저 무싱거니 절간에 스님으로,

102012 @ 오 정말마씨?

102012 #3 그 작년 재작년에 돌아갔나? 큰 스님

102012 @ 큰 스님 돌아가셨고예 어느 절에 이신 건 모르고예?

102012 #3 울산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막 시집살이 허고 막 이런 건 어서났수과? 할머니가 좋으셔가지고 막 구박허고 그런 건 어섯지예?

102013 #1 우리 어머니 뉘 아버지 명예만 허니까 임제 고집을 부리지 않아. 순수허게, 뵤어시도 살 어른이주.

102013 @ 사모님도 막 시집살이 당허고 이러진 안헛겠다예?

102013 #1 우리집이 할망은 자기가 주권을 잡고 싶어해. 걸 나가 가만이 전수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세대도 보면은, 딸은 어머니 같애. 다른 집이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가 잘 모르는데도 그 동네 사람안티도 물어보면은, 남자를 구박허는 사람은, 자기 친정엄마가 아빠를 “오늘 어디 가지 말고 꼭 집을 지켜라” 허면은 집을 지키며 견디었다고 해여. 그러니 그 딸도 아방뵤앙 어뵤뵤앙 그거라 그 사람 아직도 동네에 살아 잇는데, 그 동네 사람이 뉘 동네에서 오랏는다, 어떻게 말을 허다가 보니

까 그런 말을 허드라. “어떻게 답안 정 독허구나.”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어머니가 메뉴리 잘 현 거 답수과?

102013 #3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랑이 아니고 누구한테 굴른 말을 헐 사람이어서. 좋고 곳임이 어서 아무도. 춤 누가 무싱거옌 욱을 해도 그자 욱해도 그거 안해도 그거 거니까 춤 곳은 소리어시 아무나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102015 #1 자식들의 결혼은 자기 뜻에 맞추완, 나가 경 왜 경 허느냐면은 부모가 어거지로 부모마음에 들다고 허는 것이 잘못뵈는 것이다. 아 텔레비에,도 보면은 “장가는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프로그 나오던데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본인이 가는 것이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헐 필요가 없다. 게서 뵈든 말앗든 뵈경 내버리자 난 그거 주장을 헐니다. 왜그러냐면 나도 사주 볼줄을 알아. 둘이 마주해가지고 스주 평론헐줄을 압니다. 나 정도로 평론헐 줄 아는 사람도 우리 동네엔 없는디, 이 손가락 이레 돌력 저레돌력 허는것까지도 아는디, 이렇게 해보니까 죽은 아덜 아 등치도 커. 일메다 칠십 등치가 큰 아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자로 살질 못허겄어, 사람을 안봐도 그 사람 성격을 알게 뵈니다. 겐디 영 보면은 돈을 안 애껴. 팍팍 써. 팍팍 쓰고, 우리안티도 춤 애정시럽게 잘해주고, “착하구나 ”이렇게 해서 산 지가 오래뵈는데, 영 보니까 어떤 때는 나안티 의논을 헐 번 허드라고, 부산 아덜이 사는데 회사에 다니명 영 정 현 아이허고 허는데 아버지 헐 번 들어봅서 “좋다” 우선은, 나쁘다고 허면은 안뵈지요. “좋다. 좋지만은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어떻헌 결점이파?” 아가씨가 남자보고 “오늘은 뵈허고 뵈허고 뵈허고 뵈해도 나 말을 들어야 뵈다.” 허면은 “씨발 거 내가 남잔데 각시한테 명령들영 살겄냐?” 해서 마주치면은 불행이 온다. 각시허는 것이 옳다. 허는 것이 순응 해서 허겄다. 허면은 허곡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각시 고집이 너무 좀 강하겄다. 강한 것이 결점인디 그걸 좋게 생각허면은 좋고, 나쁘게는 싸와지면은 불행이 오는 거 아니냐 경허니까 “그럴꺼 같다. 여자가 셀 것 같다.”허니까 “알앗수다.” 경헌디 전화허니까 “이제도 나 우이서 놀젠허는디” 그래서 안허드라고,

102015 @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15 #3 그거 메뉴리허고 사위, 요즘 사람덜은 다 그렇지 안음니까? 우리는 옛날 시대가 뵈노난 집이 왕 허민 어찌어찌 “아 이거 고맙구나” 허명 사는디, 뵈 요즘 사람덜은 우리 생각허곤 아주 틀리니까 씨아방 욱만 안헤면 아 이거 좋은가 허주 게문 어떻헐거라?

102015 @ 막내 메뉴린 여기 살암구나예. 애기덜은 저청초등학교에 다니고?

102015 #3 아니야니 메뉴리는 여기 없고 시에, 시에 살명, 이제 죽은 메뉴리, 큰 메뉴리는 지금 이제 전부 중학교 이상 뵈엇고, 거기는 아덜하나에 뵈 성제 헤가지고 큰 뵈애기는 미국에 강 공부허곡 있고 아덜은 저 파키스탄 대학도 금년 지금 들어강,

102016 @ 파키스탄마씨 아이고 특이허다예.

102015 #3 예. 무역회사에 들어강,

102016 @ 계도 막내 아덜이 가까이 이시난예.

102015 #3 그디는 결혼허건디 멧년 안뵈는데 거기도 삼남매주.

102016 @ 삼남매예? 딸덜은 뉘 살갑게 아버지 아버지 허멍 오곡 험니까?

102015 #3 아 그렇쥬. 죽은 사위는 지금 거 어디고 육지 나간 이시난 거기는 뉘 그쟈 간혹 왔는디, 요즘 그 우리처 병원에 거기에 입원허난 흥번은 그 딸은 지금 씨어머님 때문에 못가난 이거 내일이나 가보카 허는생이우다. 영 허길레 “알앗쥬 ” 험, 셋덜은 시에 살고 조석으로 뉘 짐치 곁은 거 무싱거 헤연 ㄱ정오곡,

102016 @ 가까운데 계도 있다예. 셋덜이에. 겐 뉘 결혼 험 후회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앗겠지만 뉘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건 아까 교회 때문에 허고, 큰아덜이라 부난예, 아픈 거나 뉘 이런 건 어시 잘예?

102015 #3 우리 처는 지금 몸이 좀 불편헤근에 그 사람은 그쟈 뉘, 우리 처도 흥번 그쟈 저 세상 가단,

102016 @ 이밖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나는 전에 보리농사를 지을때는 밧을 통계잡아 와보면은 삼년계획을 험니다. 이 밧에 무엇을 해나면은 다음에는 무엇을 허는 게 유리허다 또 다음에는 무엇을 유리허다 해가지고, 그 달력을 보고, 그 청력을 백종력을 봐서 절대 참고를 딱 허면은 금년은 “비가 많이 오겠다”, “날이 오래 ㄱ물겠다” 이러한 그 기상조건을 쪼금 그 나가 보리농사만 험때는 그렇게 어느정도 내가 참작허는 것에서 맞아들어가. 맞아들어가더니 근래에는 이 기계화가 뉘다가보니까, 기후변화가 안맞아 나가 지내보니까 안맞는데 이것에 이제는 세상흐름에 따라서 그 ㄱ수가 좀 틀렸다는 것을 알수가 이서. 우리 흥 십년 후배 사람이 나보고 형님은 농사짓는 게 남보다 앞섰수다. 이렇게 허거든. 게난 농사는 상강전이 며칠 전에 익으면은 꼭대기까지 잘 결실이 염고, 메칠 안에 들면은 중간백이 욱지를 안해서 수확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고 허는 거. 이것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지금 사람은 그게 아니고, 비료 털세, 농약털세, 물은 지하수가 있으니까 ㄱ물 걱정 안험 물주면 뉘다 나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지하수 해서 이 물이 어서서 물이 먹는 물도 봉천수 고인물 길어다 먹을 때하고 모든 게 하늘과 땅같이 사이가 멀게 변해노니까 게니까 요지금 농사짓는 젊은 사람덜 허는 것덜 몰라.

103002 @ 아주 옛날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보리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은 돛걸름이 가장 필요합니다. 돛걸름이 가장 필요하는데 돛통에다가는 돼지 길루는디에는 깊이 우물을 파거든 땅속에. 아뭏 못해도 일미터이상은 땅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돛도고리를 놓고, 돼지를 거기에 돼지 집을 이렇게 짓고 해서 허고, 소를 매면은 소똥, 소 먹다 남은 그 풀을 전부 돛통에 가져다가 담아. 담아서 돼지 밭로 드리 밟으거든. 그래서 디딜랑이라고 해가지고 변보는 데를 만들고. 게서 그 변을 돼지가 먹고. 경해서 “제주도 똥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입동 시월절, 입동 시월절이 되면은 보리를 갑니다. 보리를 갈라고하면은 그때 막 그 통지를 그득여 논 거름을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데로 허고 힘이 약헌 사람은 힘 썩 사람을 빌어가지고 그놈을 내어가지고 마당에 확 허대겨 놔. 허대겨 노면은 주인이 보리씨를 내노민은 보리를 그 걸름더레 막 뿌려. 걸름더레 막 뿌리면은 이제 소시랑으로 그 걸름을 이렇게 이렇게 막 섞어. 막 섞으는디 검질이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왕상허거든. 그러면은 쉼을 두 마리나 이제 흔마리나 으신 사람은 흔 마리 경 안허면은 두 마리정도 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막 밟어. 돌면서 밟으면은 이 소 그 뒷다리가 어떻게 멀어도 앞다리 들여난디 거기만 들이지 다른데 안허거든. 그러면은 쉼석을 심어서 등기면서 쉼영덩이를 잡아밀려서 따르는데도 불르라고 불란 디만 그디저디 뵙아야 될 건디 잡아 밀리멍 이렇게 해가지고 막 뵙린다음에는 이제 또 모두와서 오름ㄴ치 쌓여놓아. 그러면은 그디저디 뵙아야 할 건디 잡아밀려서 모두아 가을들민 나룩씩 벵짚을 해가지고 맥을 줄아. 해마다 맥을 즈라야 돼. 맥을 줄양 그거세덜 담아가지고 쉼 질메를 지와가지고 쉼에 시끄곡 지곡, 해서 밭디가서 이제는 그디저디 이제 쏟아놓으면 부인덜은 굴채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굴채레 담아 놔 이걸 이렇게 막 허대겨. 막 허대겨 놔가지고, 쇠로 이젠 갈아. 쇠로 밭을 갈면은, 병뎡이가 나면은, 낭토막 이런 것에 즈룩 해가지고, 병뎡이 다 두드려, 문짝허게. 문짝허게 두드령 그렇게해서 보리가 나. 걸름에 씨가 붙어그네 그네 나서 경하면은 보리가 한걸이 돌르고, 봄나면은 부인덜이 이제 그 검질이 요즘처럼 하질 안해서. 살살 뎡기면서 그자 검질을 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가 텃고, 익으면은 그렇게 해서 호미로 비엿 그 보리로 비엿 그 보리로 묶어. 그 보리로 묶어가지고 쉼에 시꺼당 쉼에 시끄는 건 흔 짝에 열뭇씩 조그만씩 묶으고 스무뭇이 흔 밭이라. 쉼에 쉬영 집이 오랑 보니까 클 쉼영헌걸 훗탕 도깨로 두드령, 경혜근에 왜정때는 바치고, 왜정때가 끝난 다음에는 그저 물방애에 물적져그네 둥글이면, 일년 먹을 양식을 팔월절이 들면은, 뎡로 팔월절이 들면은 느나어서 정미허거든. 정미해가지고 방에 담양 놔두니까 게서 그것이 일년 먹을 양식을 농사라. 요지금은 그때그때 사떡주만은 그렇게 해서 일년 먹을 농사를 그렇게 저장해.

103002 #5 비료, 씨,

103002 #4 그때 비료 셔시냐.

103002 #6 옛날엔 비료 어섯수다. 나 곧건 들읍서. 쉼걸름은 돛통더레 담양 도세기똥 막 사고 흐김 도세기 물 굴르민 그 물 적성 바까터레 내청 첨 씨 뿌령 쉼로

사람으로 막 불황 돼상 불황 다시 걸름착에 담으면 지고 시그곡 행 밧디 낱 그거 영영 그거 행 뿌렁 감니다.

103002 #4 오즘 저당 오즘 저당으네 저 무싱거 박세기에 비왕, 혼 푸대 혼 번 혼푸대 혼 번 매 푸대에 즐락즐락 즐락 허게 주어야.

103002 #5 비료가 어시니까.

103002 #4 그 먹은 보리 까무룽허게 올라오고 안 먹은 보리는.

103002 #5 노랑허고 크지도 못허고 사람이나.

103002 #6 그건 걸름은 오즘마씨 오즘.

103003 @ 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보리걸름?

103003 #1 응 게서 막 밟으면은 그게 그 막 검질 그 또 오래 담가서 먹으니까 막 검질 쉼밭에 찢어지주게. 찢어지민 풀이 되가지고 씨를 거기에 탁 달라부트는거라 걸름에. 탁 달라붙으면 요렇게 데머웠다가 이제는 걸름 담는 걸로 걸름착이라고 허거든. 걸름착더레 쉼시랑으로 영 해서는 양쪽 두 개를 해서 영 들러봐서 짐작으로 양쪽 ㄴ르게 헤영 툭툭허게 덕경 불랑 탁 덩어리지게 행 겔 쉼을 딱허게 식경 밧디 강 불라.

103003 #5 꺾세 곧듯이 오즘 해영 주고 골채에 담양 이추록 뿌렁 착착 걸름 저당 얼렁 혼덩어리 된 생전 거르지 못허민 골채에 골르멍 부비멍 담양 그걸 하나하나 허리에 찻수다.걸 다 뿌렁 경허멍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시카부덴.

103003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3 #5 걸름에 걸름에 닥닥 보리가 되는 거라.

103003 #4 걸름더레 잘락잘락 헤영.

103004 @ 보통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소로 밧을 갈지예?

103004 #1 예.

103004 @ 밧을 갈고 거기에다가 아까 여자덜이 골채에?

103004 #1 아니 아니 이렇게 그 걸름을 갖다가 밧에 노면은 예를들어 영 허면은 요디도 뿌리고 이디도 뿌리면 이걸 밧디 다 뿌려. 뿌려 난 다음에 밧을 갈아야 혈 때 무더지거든 무더지곡 무더진 다음에는 이따가 그때는 보리는 즈는때 아니 갈고 밧을 므른 때 갈아.

103004 @ 비 온다음 가는 게 아니고, 즈를 때 갈아?

103004 #1 아 비 온때 가는 건 안되어. 보리는 므른 때 갈아. 아니 힘이 들지. 이제는 병뎡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나와 그놈의 병뎡이는 곱베라고 해서 이제 두드려서 밧을 췌췌허게 멘들아 가지고,.

103004 @ 아아 곱베로 두드리는게 중요허구나예?

103004 #1 예 보리 간 다음에는 야튼 어떤 집이던지 남녀간에 밧 간 다음에는 딱허게 다 두드려야 돼. 이따가 즈췌, 흐췌 병뎡이가 아니라도 흐췌 높은 디는 툭툭 두드려서 벨라가지고 어느 정도 영 췌췌허게 집마다 곱베라고 허는 거 병뎡이 두드리는 거는 없는 집이 어섯주.

103004 @ 그처럼 해난 다음 곶배로 두드리고 갈고, 그 다음 곶배허고 그 다음 여기 썬피도 했수과?

103004 #1 아니 썬피는 안 허고 썬피로 썬는 거는 모멸갈 때.

103004 @ 아아 보리는 썬피 안 허고 모멸갈 때는 썬피를 허고?

103004 #1 예.

103004 @ 아까 불치 때문엔가예?

103004 #1 그렇게 끄서야 물어지거든. 부각헌 밧이난 여러 번 갈아노니까. 게니가 옛어른덜 말이 그러거든. “므멸은므멸씨 혼말지기에다가 아홉 번 갈고, 불치를 아홉바리 낱 갈면은 아홉섬이 난다” 이런 전설이 잇수게. 밧을 여러 번 갈아서 부각부각허게 허닥지 좋은거라. 그러면 그거 한기도 덜허곡, 몰라야 한기를 덜허여. 밧이 즈늘앙 진때에 비 오라 난때에 농사는 어떤 농사던지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면은 한기를 덜타. 한기 덜타는 것은 밧을 므르게 갈아사 한기를 덜타.

103004 @ 게민 어쨌든 그 섞어서 보리씨는 다 뿌렁거다예? 걸름은 여자들이 현거, 그 다음 밧을 갈고 그 다음 곶배 두드리고,

103004 #1 곶배 두드리고 게민 썬이라.

103004 @ 썬예. 아아.

103004 #5 슬오리도 잇고

103004 #6 슬오리는 냉중이고 걸보리허고 맥주맥.

103004 #4 슬오리? 걸보리 갈보리.

103004 #5 걸보리, 맥주보리 말제라가난 고주메기여 무싱거여 드러 나오라도 우리 혈때는 걸보리광 맥주보리, 슬오리 그거

103004 @ 세개예?

103004 #5 음 세가지 헨 허고 이제 막 오래살아가난 호주애기여 무싱거여 막 드러 나완.

103004 #6 슬오리는 냉중사 낫수다.

103004 #4 슬오리 난지도 오래지 앓허고, 맥주보리 난지도 오래지 앓허고.

103004 #5 우린 옛날엔양 슬오린 친정에선 슬오리 갈앙 먹어신디, 시집은 오란 보난양 맥주보리만 갈고 걸보리만 가는거라,

103004 #6 밧이 그거배끼 안되니까 그거주.

103004 #5 나 허는 말은 시어님네ㄹ라 곤는 말이 “무사 이거 걸보리 맥주보리 갈암수과?” 허난 밧이 나빠부난 경험젠. 게도 이젠 슬오리를 혼번 갈아 본 거라 나 이디 온후제 슬오리를

103004 #4 아 슬오린 밧 벌린덴 헤났져게.

103004 #5 게도 슬오리를 이제 갈아 봤수다. 가난 여점 되는거라. 게난 그루후제 우리 씨어머니네도 슬오리 하영 갈고, 춤 맥주보리도 갈고 허명 했주마는 아이고 세상에.

103005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103006 @ 끝예. 아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슬보리여 맥주보리여

103006 #1 뭐냐하면은 슬보리보다는 처음에는 맥주보리를 하다가 쌀보리가 나오니까 쌀보리를 허주게. 게니가 그게 단점이 뭐냐면 맥주보리는 단점이 뭐냐면 그 저 물방아라고 등글이는데 그 저 꺾데길 벗기는데 맥주보리는 훨씬 힘이 들어. 힘이 들고 슬보리는 힘이 들고 슬보리는 이제 꺾데기가 알루니까 정미 돌방에 등글이는데 아주 쉽게 튀니까 쫄이 더 많고 게고 쫄이 더 많고 겐디 잘해노민 맥주보리밥이 맛이 더 좋아 풀이 좋고,

103006 @ 맥주보리는 맥주 만드는 보린줄 알아신디 맥주보리 밥을 해 먹었구나예?

103006 #1 예 게서 해노으면 쫄은 그레에 놔서 반 벌러.

103006 @ 게민 밥이 양이 만헙니까?

103006 #1 쫄이 빨리 익으니까.

103006 @ 빨리 익으니까 밥행 먹기에 양도 많고예?

103006 # 결혼할 때는 다시 그 방애에 가서 또 해여 그렇게 해서 결혼할 때는 그 밥을 통보리밥이라고 허여 통보리밥이라허민 우글우글해가지고 팔 줌 놓고 허면은 결혼할 때 주는 그 통보리밥이 어떻게 맛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던지 그 통보리밥을 좋아했지.

103006 @ 아아 집에서는 통보리밥을 오래 걸리니까,

103006 #1 통보리밥은 잔치 때.

103006 @ 잔치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3006 #1 맛중으면 확 허든 좋은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가 약헌 사람은 소화 조금 힘들어. 쌀이 크니까.

103007 @ 이제는 보리밭 밟기, 이제 겨울에 이제 푹푹허민 뽕잖아예?

103007 #1 예 그것은 왜 뽕냐면 겨울에는 요지금은 땅이 혼어서 얼지 않허는데 이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땅이 그냥 얼러. 얼리민 앙상이 흠이 들러져예. 소금싸가지고 들러지면은 그래서 그걸 뽕아주는 거시지. 뜬게 아니라. 겨울에 그 우에 있는 땅이 바짝 얼러서 이렇게 들러지는데 얼러난 땅을 뽕아주는 것이지 얼리지만 안으면 뽕을 필요가 엇주지. 게난 요지금은 그렇게 땅이 얼러서 착 허질 안허니까 봄이 나가지고 보리 불르는 법이 없어. 게 모든 농사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흐는 거.

103007 #5 이딘 보리 불리지는 안허여예. 옛날부터도 이디는 땅이 되니까 보리 불리는 거 엇고, 뜬 밭디 간 사람은 보리 하나하나 다 즈근즈근 즈근즈근 그 댕기 멍 불리주마는 저 이 혁밧 된밧은 안 불려도 어떻안허여.

103008 #1 보리 브리지는 안 혁밧된디는 안 불려도

103008 @ 검질매는 거 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1 그거는 그 농사 짓는 사람마다 틀려. 부자 허는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허민 경 그라 다 드려 다 드려. 매는 등 마는 등 해가지고 빨리 이 밧 전

체를 일시에 빨리 해 불러 이거여, 빨리 해부러야 잘 똑같이 자라라. 겐디 야속해서 허는 사람은 이디는 한없이 메가다가 보면은, 여기에는 검질 한티 짜어가지고 쟈쟁 허니까 ㄹ지를 못해. 아이고 거 야속도 저 급급허게시리 험쥌. 이 휘휘 두르는 사람은 너미 야속헌 사람이엔 나무래여. 겐디 사람 성질 그 보고는 내불지 못헤영 허 당보면은 여기 몬여 멘 디는 곡석이 잘 자라는데, 나중에 멘 디는 곡석이 뭐 죽지 안은 뿐이렌 그 일허는 방법이 다 저만씩, 자기 주장만씩.

103008 #5 혼 번 매른 될 거고 보리검질은.

103008 @ 보리검매기는 혼 번, 세불검질은 안매도 되어예?

103008 #5 예 죽헌 보리나 식불 땀수다.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릅니까?

103009 #5 진풀이고 사시레기고 저실 검질은 그거라.

103010 @ 보리는 베기, 묶기, 가리, 베어서 묶으는 거 못이 커마씨? 안을 수 있을 만큼?

103010 #1 그 보리를 묶으는 것은 무엇으로 묶으느냐허믄 그 보리로 묶어. 맥주 보리 맥주맥 ㄹ치 보릿대가 진 놨은 좀 크게 묶어도 되는데, 쌀보리는 그렇게 키가 크지 못허여. 그러면 그 그걸로 좀 긴놔으로 해서 묶으도록 그렇지 않허민 뱃짚을 사다가 뱃짚을 사다가 또 묶으기도 하고

103010 @ 겐 묶은 거를 집으로 날라와예?

103010 #1 그거는 집이 오랑 늘어도 쌀보리는 못이 크며는 놀지를 못허여. 이 여물이 커노니까 자쳐지거든 바깳더레. 맥주보리는 등치는 슬지고 꺾이 ㄹ느니까 마음대로 늘어지는데 쌀보리는 누는데 많이를 못늘어.

103010 @ ㄹㄹ리가 이신 체 늘어마씨

103010 #1 예.

103010 @ 아 그냥 클로 영 헤그네 뭐허지 안험니까?

103010 #1 아 이렇게 데며지며는 널리 츠지허니까 동긱허게 요펜으로 돌아가멍 속속 빠면서 해야지 이걸 쌓아야지 빠가지고 이걸 놀지 않허민 마당 죽양 되어게.

103010 @ 아 하나씩 빠멍 클에다가 클 틀에다가 이렇게 ㄹㄹ리허곡

103010 #1 그건 흘트는 거

103010 @ 흘트는 거예? 흘트는 것도 해 냐구나예?

103010 #1 아이구 난 다리 아파 못허니까 난 늣 빌영만 헤연, 어떤 사람은 흐루중일 ㄹ만이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허는데, 난 경 못해. 그 사람 빌어가지고 흘타주고 난 못허여.

103010 @ 사고나난 다음

103010 #1 아니 사고 나난 전이거든. 겐디 나이 만헌 분이 이 동네 저지서 온 사람이 잘 허는 분이 이섯는데 그 사람 빌어가지고 예향 흘타주게. 난 경 못해 다리가 뺏뺏해버리는데.

103010 #5 수확게 비는 건 하나하나 호미로 다 비어서. 하나하나 호미로 다 비

어근에 미끈 곶알 저 우리 죽은 아덜이라 혼 일곱술된때라. 혼고지 비영 허대기지 말라 무사 허대검시니게. 죽아부니까 어린 생각에도 너무 그거헌 생이라. 허대건 경 허멍 해나서 아이고 우리 사는 게 감저 갈양 좁고, 감재 절간해영 그거 다 뿌리고.

103010 #4 일본시대엔 다 공출했져.

103010 @ 보리 묶으는 거는?

103010 #5 묶으는 거는 하나하나 새도 허영 깨허영 묶우고 그냥 보리도 확 오그령으네 허영 묶우고 경해연 옛날엔.

103010 #6 보린 진 보린 보리로 묶어져도 졸른 보린 보리로 못 묶었수다. 새허영 영영 틀렁 묶었주.

103010 #4 이젠 비료 주니까 보리가 미끈허주만은 그땐 비료 없으니까 하올하 올허고 하나하나

103010 #5 춤 멘적은 너르게 갈아도 열매 되지 안행 계난 침 입에 풀칠허기가 부지런했수다.

103010 #4 계난 지둥 트멍에 쥼짜나서

103010 #5 개왓트멍에 줍진 보리로 살암짜. 어떻햄짜. 얼마나 힘들게 살아시카 부덴.

103010 @ 지둥 트멍에

103010 #5 지둥 요디 개왓트멍에 세운 보리가 얼마나 하게.

103010 @ 개왓은 뭐짜?

103010 #6 못뚱에 지둥, 그 지둥트멍에 보리를 데멍

103010 #5 이제는 저 지둥 세우듯, 저 지둥 세우듯 요 침 무싱 거 이 에어컨까진 안했주기. 그 트멍에 세왕 얼마나 하게.

103010 #6 저 쥼 뒤에 얼마나 너릅네까? 그 트멍에 쥼전 우리 먹영 살안

103010 #5 그냥 데멍 낭차 데멍

103011 @ 흘트민 도깨질을 험니까? 그 다음은 보리가 털어져마씨? 보리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훤기, 도리깨질 등)

103011 #1 경허민 영 마당에 널언 막 몰라 몰라사 바삭바삭 부서져 ㄹ시락이엔 현게 안떨어져. 아이고 계니까 그 유월절 전이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이 해야지. 유월절이 넘으면 더워서 모가지가 그냥 헤싸질 정도로 까락까락. 계난 처음에 할때는 도깨로 두드리다가 그 다음엔 기계가 나니까 흘타노면은 그거 기계 ㄹ정강 신광기 걸어가지고 영 저 글쟁이로 올려 노으면, 기계로 두드리니까, 그게 더 췌안하다고 나가 그게 이젠 지나니까 바인다로 비어가지고 이제 요만씩 바인다로 비영 묶어지면은 그걸로 해서 딱로 탈곡기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가 이젠 지나니까 이제는 바로 비면서 두드리는 는 시상이 나노니 보리 장만허는 것도 여라 번 변허주게.

103011 @ 도깨질도 해봤수과? 무사 도깨아덜이엔 헛수과?

103011 #1 도깨아덜, 그 나무해서 영 오그린건 도깨틀레, 도깨어시 도깨틀레, 도

깨아덜 게 요즘 사람덜은 거 뭐신지 몰라. 우리세대에도 우리동네에 흔 서너너사람
백이 어서.

103011 @ 무사 도깨아덜이엔 해신고예?

103011 #1 게메 거 어떻산디 옛날어른이 도깨아덜, 아덜이 말허자면 맞추게. 이
거허는 건 어서, 어서 말허자면 부모, 부모ㄴ라 어시엔 허지 안허여게 왜 사람도?

103011 @ 부모가 어시렌 험니까?

103011 #1 예 부모가 우리 말로 따주면은 부모가 어시라. 어신디 어시에 부모에
아들이니까 그것에 따른 거니까 그것에 아덜이예 허는게 아니냐 그게 조그만하게
즈룩은 소낭 종낭같은 거 게별고 그자 도깨어시광 도깨아덜은 저 윤누리, 윤누리가
그게 나무가 훌씬훌씬허면서도 요물친 낭이라. 우터레 탁 부쳐도 벅작 몰라도 허여
도 탁 격어지는 성질이 훌씬훌씬허니까 그게 그런걸로 허주, 다른 낭 미려운 낭으
로 그걸 멘들면은 기운 쥬 탁 허면은 꾀뎡이로 벌러져볼주게. 연필깎으듯이 꾀뎡이
를 요렇게 깎으면은 글로 경 줌체로 벌러지는 것이 어시니까,

103011 @ 옛날에 누가 만들엉 이걸 헛손과? 동네사람 중에? 삼촌도 만들고 이
거 ?

103011 #1 아니 나도 잘 알주게.

103011 @ 아아 윤누리 낭으로예? 집에 이런 거 있수과? 쟁기여 뭐?

103011 #1 아니 그전에는 야숙헌 사람은 바꿨디 가가지고 나강 우영 너른 사람
은 싱그는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서지고 뭐허고 이제 개간허고 뭐허고, 목
장도 자왈로 더꺼지고 헤노니까 윤누리 낭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

103011 #5 옛날은 도깨로 두드렸어. 도깨로 되나마나 두드렸어

103011 #4 아 낭채 낭채.

103011 #5 예. 도깨로 두드령으네 웨삭 가르척 웨쌍허멍 웨쌍보고, 작대기로 웨
삿닥 가르춧닥 허멍.

103011 #6 냉중에는 훌트기로 훌탄

103011 #4 아니 오래지 았헛수다게.

103011 #5 클나게 되난 오래지 안해신디 클도 동그락헌 거 나오고 말젠 판장쌀
영 나오란 그것도 양 놔두난 문딱 가져 간 게. 그것도 고물로 ㄴ져간 생이라.

103012 @ 경헤난 다음 도깨질하민 맥에다 담고 고평에 놓고 연자매, 멧뜰, 물방
애는 여자덜이 식구덜이 강으네 청수에는 물방애가 멧개 이섯수과 줄서멍?

103012 #1 물방애? 반당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라. 게난 요동네에선
요동네에서 하나 만들고 요동네에선 요동네에서 하나 만들고, 요동네에서,

103012 @ 멧개가 이서시코예? 무슨동 무슨동 청수리에?

103012 #1 여기도

103012 @ 지금은 다 았어졌지예?

103012 #1 예. 주로 그 동네 고분데기 이런 데 해가지고 집도 짓고 헛는데 질

확장하면서 왜 들어버리고 그것을 이용을 안해서 기계화가 되다가 보니 없어져 버리니, 이놈의 돌을 어느새에 도 남모르게 또 확 가져가부는 수도 있고 주위에서 또 폴아부는 수도 있고 이용이 안되니까 케니가 그 위치가 다 없어져분거지.

103012 @ 물방애가 어머니영 강으네 소가 이릅니까? 물이 험니까?

103012 #1 보통은 소가 허는디 허고 물을 가져 있는 사람은 물로 허고 물이 더 빠르니까, 물이 없는 사람은 집이 빗갈쨌로 해가지고 사람손에서 혼련 허니까 그 쨌로 허고.

103012 @ ㄹ레는 안갈아보고예? 어머니 멧시간 갑니까? 그거 하루종일

103012 #1 ㄹ레 ㄹ는 거? 아이고 하루종일, 하루종일 어떻허여 그거 뉼 혼 두서 너말 서너말정도 해가지고 이제 거 곶아서 대체로 치거든. 대체로 쳐. 거기서 흐쨌 거기서 흘근 거는 아주 흘근 거는 또 두 불 치고 두 불 곶고,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이제 반 벌려 진 다음에는 흘근 쨌은 흘근 쨌데로, 중간에 쨌은 중간 쨌데로, 또 거기에서 ㄹ루 나온 거는 ㄹ루데로, 그 ㄹ루 된 거는 건 또 즈베기 행 먹고, 즈베기 육지사람은 즈베기엔 안허여(웃으며) 수제비라고 허지 안허여.

103012 #5 보리쨌은

103012 #6 연자방애에 정,

103012 #5 방애, 뱅뱅도는 방애에 쇠 매왕 물 낱, 물 놓고,

103012 #4 에이구 저 옛날엔 남방애 정 먹었쨌.

103012 #5 남방애도 정 먹었주만는 게도 흐쨌 경해가난 방애에 정, 잘 사는 사람은 부제 사람은 두불 지고, 쨌 안헌사람은 초불 정 꺼글꺼글헨 보리 그냥 ㄹ레에 멧돌에 곶앙.

103012 #4 멧돌에

103012 #5 곶앙으네 이제 채로 행 대체로 쨌 그 아멧 건 이제 먹는 곶로 허고, 우에 건 다시 곶고, 불리가 이만씩 듣는 거 듣는 거 ㄹ시랏 님은 불리 듣는 거 허 영 먹고, 경허멍 살아서 옛날은.

103012 @ 게난 쨌매영 막 연자방아 돌리는 건 조지예?

103012 #5 조도 허고 보리도 전. 옛날엔 보리도 전.

103012 #6 보리도 집니다게.

103012 @ 거 차지허젠허민 청수리엔 멧개가 이서신고예 연자방아, 물방아?

103012 #5 여러 개 션 방애. 조 코ㄹ리 둥글이젠 허민 미룻덜 몬 저당 놔된 쨌 곶에 해당 몬 방애에 얹으민 츠레로 둥글일거난 경허멍 득투멍덜 헨 옛날 헨 살아 완.

103012 #6 조ㄹㄹ리도 둥그리곶게 츠지허지 못행.

103013 @ 쨌 밥행 먹고 밥도 해봤수과? 보리밥?

103013 #1 나 아니 나 허준 밥 얻어먹었주. 게난 조는 필수로 해주게. 쨌쨌을 쨌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쨌쨌만 봉그멍 먹젠해여. 쨌쨌이 그렇게 맛죵고, 폴폴허고 막걸리 행 먹었거든. 잔치때도 해서. 조 해서

103013 @ 조는 이제 나중에예. 그믐 보리 게믐 미숫가루 솟뚜껑에 얹엉 봐났 수과?

103013 #1 볍앙, 개역은 보리 볍앙으네 집이서 놀민은 솟디서 볍앙, 이젠 옛날 에 소금 흐쌀 놓아그네 소금 흐쌀 놓는 사람은 봐. ㄹ레에서 곶앙으네 이젠 그놈을 또 줌진 체로 쳐. 줌진 체로 이제는 쳐가지고 거기서 흘근 거는 또 곶아. 흘근 거는 또 곶앙 거기서 또 흘근 거는 이제 그릇에 놔둬서, 솟구락해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행 허면은 슬강슬강 또 젊은때엔 그게 또 사까린 옛날인 흐쌀 놓고 해연 곶거든. 곶앙 허면은 이제 들미롱허고. 개역에 이젠 또 사까린 놔가지고 설탕이 어려완 사까린 유행되니까 놔그네 허면은 들코름허영 물 낱 확 탕 먹는 사람도 있고, 게난 우리동네도 ㄹ른개역 닷되먹는 하르방이 셋젠허여

103013 @ 하하 하루양이?

103013 #1 하하 그게 죽은 분량이 아니주게. 데싱 두뉘가 닷뉘나네.

103013 @ 그 하르부지는 정말 개역을 좋아했다예?

103013 #1 식량이 좋았주게 그때,

103013 @ 체격이?

103013 #1 체격이 물론 좋아야 통이 크게마련이주게.

103013 @ 그 하르부지는 뭘 잘 헨마씨? 몸이 좋았나부다예.

103013 #1 우리 그 하르방이 언뜻언뜻 기억이 나는데 어린 때 돌아가부렀어.

103013 @ 얼마나 먹었으면 닷되 먹는 하르방이엔 해시코예? 재미있는 이야기다 예?

103013 #1 이제 닷되 먹는 하르방 이셋젠 허여

103014 @ 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릿짚?

103014 #1 보릿짚은 불도 숨고, 그 다음에는 쉼 걸름 내나면은 쉼막에다가 그 걸름내난데 밑에 깔아주고, 깔아놓으면 다음 걸름을 낼 때에 이제 땅에다가 그 쉼똥이 붙으질 안해가지고 살살 그 짐 돌아가가지고 나오게 하곡.

103014 @ 도세기통에도 넣고,

103014 # 예. 도세기통 화장실, 그

103014 @ 굴묵도 짙고, 그믐 놀 눕니까?

103014 #1 예. 뭉엉 놀어야주.

103014 @ 아아 뭉엉예?

103014 #1 뭉어서 댕집 우이 주로 놀어.

103014 @ 예?

103014 #1 돼지 집 우이 놀굽을 멘들아서 놀어.

103014 @ 아아 무사마씨?

103014 #1 거기 허면은 빠다가 돼지 걸름허영 바로 빠서 집더레 돼지 집더레 노민 빠다가 돼지도 겨울 딱시니까 돼지도 딱시고 허니까, 크게는 아니해도 댕집우에 쓸만큼은 이제 놀거든예.

103014 @ 다른 데 다른 그건 콩깍질 안 허는디 보리짚은 도세기집 우이 논다 고예?

103014 #1 예. 콩깍은 콩깍이라던지 이 콩대 때려난 거는 도깨로 때려난 거는 전부 해다가 집에 갔다가 놓여가지고 건 소양식, 소 맥이고, 또 팔월이 되면은 이 풀 베어다가 물리민 놓었다가 놓았이라고 허거든, 놓 누는 장소가. 놓았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감자땡구리도 므른 거 해다가 놓고, 좃대도 놓고, 콩깍질도 놓고, 그 고 구마줄거리도 놓고 해가지고 곡식해난 거는 이 요즘은 밧벼라고 허는디 옛날에는 산디, 산디찍도 놓고 해가지고, 전부 쉼겨울양식으로 이것저것 이제 주거든. 감젓줄도 주고 감재줄 한번 줘나면 콩깍질도 주고 새꿀도 주고. 풀 비어난 것이라 새꿀이라고 허는데.

103014 @ 보리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보릿ㄴ시락 들어그네 뭐헌거라든가 미숫가루 만드령으네 비올 때 뭐헌거라든가,

103014 #1 보릿ㄴ시락은 뭇로 쓰는고 허니까니 굴묵에 놔서 당그네로 그 굴묵에 이렇게 해서 불을 부치면은 안트레 들어가면서 구들이 따듯하게 그렇게 허곡, 일부는 길삼 혈 때에 마당에다가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깍짱허게 놔서 가지고 불을 부쳐가지고 그 내 우에 옷 멘들 때 민영옷 멘들때에 그 풀 맥여가지고 슬슬 쓸면서 허는데 그거 물리는디 놔뒀다가 그것도 쓰고 주로 굴묵 쓰고 민영 질삼 거의 대부분 다 한번씩은 길삼 양이 많이 안들어가고 겨울내냥 방 때는 거 ㄴ시락, ㄴ시락 막이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그걸 보관해 놔두는 비 안맞게.

103014 @ 아아 어디 굴묵 속에마씨? 바깥디 ㄴ시락 막

103014 #1 ㄴ시락막이라고 해서 이제 담 다와가지고 우에 영 새로 비안들어가게 담았다가 굴묵에 슴빱 모아 남거든. 그디 헛다가 그거 때면은 불채 저레 불채통이라고 해서 또 옆이는 불채 내크는디가 있고, 흥쪽에는 ㄴ시락 농곡 그렇게 해서 오줌단지 무똥에 놔서 오줌을 싸노민은 그 오줌을 불채드레 강 비우거든. 불채에 강 비와야 걸거든. 오줌이 질소 오줌오자 요소나 만찬가지라. 그러면 그 불채는 주로 어디다 잘 쓰는고허니까 메멸농사 혈 때 메멸농사를 잘 써. 메멸농사를 잘 허는 사람은 메멸씨에다가 그 불채에 이제 버무려. 옛날은 비료가 어시니까. 그렇게 해서 좁늬이라고 해가지고 밧을 ㄴ멸밧은 아홉불을 간다고 허는거라. 갈았다가 밧이 부각허게 그렇게 허면은 이제 축축허거든. 축축허게 오줌이 자꾸 들어가니까 ㄴ르지 안해서 자꾸 마르지 않아서 집안에서 그거 바깥드레 퍼내가지고 모멸씨를 버물려가지고 이제는 굴채에 춤 밧을 갈아 노면은 집어 놔. 불채 씨에 이렇게 툽툽툽툽 부인덜이 싸가지고 밧디 쪽 해 놓으면은 섬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쉼로 짝 ㄴ시면은 ㄴ멸이 그렇게 잘 되거든. 옛날은 비료가 어실때니까 불채를 큰 비료로 사용을 해서. 케니까 모멸이 그렇게 잘되거든.

103014 @ 모멸이 잘 되었구나예 꽃도 예쁘게 피고예?

103014 #1 요즘은 비료가 있어부니까 불채는 뭇고 요즘은 화학시대라노니까 옛날 해난 거 젊은 사람덜은 모르주게

103014 #5 불 솟았주기게 그 검질은 거 다불 솟안 살안.
103014 #6 조낭은 소맥이고.
103014 #5 조는 쇠맥이고 보리찍은 불 솟안 옛날은.
103014 @ 또 다른 거는마씨?
103014 #5 뭐?
103014 @ 눌엇당?
103014 #5 눌엇당게 좇대 눌어듬서 빠멍 줍아텡경 빠고, 줍아텡경 빠고 허멍 해연.
103014 @ 보리찍은 불 날 때 와다와다 별로 좋지 안치 안헙니까?
103014 #5 빠닥빠닥 행 허민 불채가 파릉파릉 만 늘고, 해도 해 불내기가 엇주 그거 말재라가난 저 유채도 행 두드리민 유챇낭도 저당 불 솟으민 헤양케 재가 스 못 헤양케 집이 해도.
103014 @ 보리 까그라기는 뭐 췌수과?
103014 #5 보리카그래기가 뭐여?
103014 #6 돼지 맥엿주게.
103014 #5 아 보릿채 도새기 맥영 질랏주기게.
103014 #4 아이고 도새기도 굽음만 해영 아이고 불쌍허여.
103014 @보리 낭쟁이엔 헙니까? 보릿낭
103014 #5 보리찍.
103014 @ 보리찍이엔 헙니까? 보리찍을 불 솟고 다른 거는 또 통시에도 이렇게 놓고?
103014 #5 도새기집 지고 걸로 그 걸름으로 갈랑갈랑 물에 댕기당 듯집에 가민 지어주니까, 듯집 소곱더레 보리낭 아정 담아주민, 그디강 뉘 살고 돼지도.
103014 @ 집집마다 이견 핫갯다예?
103014 #5 예. 집집마다 이견 도새긴 질랏주게.
103014 #4 쳇, 돈 나올 거 어시난게.
103014 #5 통 놓고 이젠 화장실 햄주마는 옛날엔 영 담 다왕으네 통시에 도새기 길루고 듯집 행 이레 트로 듯집 해영 그레 강으네 허꼭 이레 나오민 걸름 혼밭디 댕기멍 이젠 갈랑갈랑 댕기고, 새끼 내놓고 허민
103014 #4 매 집이 새끼 나와져시냐? 부젷집이만 내왔주.
103014 #5 경허민 옛날은 경헨 세상을 살아완.
103014 @ 보리눌은 도새기집허고 가까운디 눌엇수과?
103014 #5 혼어시 멀진 안허고, 마당 안에난
103014 #6 예. 가까운디 눌언. 몬딱.
103014 @ 도대체 눌이 멧개라? 보릿눌?
103014 #6 보릿눌, 출눌, 셋골, 조찍, 감젷줄, 콩꼬질, 다 늘고 따시 이제보릿낭 행 늘고.

103014 @ 마당이 좁으쿠다게.

103014 #4 계난 막 널르게 했지.

103014 #5 이제 저 봉춘이아방 사는 디 살때에 보리 홀타네 장만허단에 이맹이 빌영허당 불난에 보릿낭 불부터가명 스뭇 오쭈허벽이 다 올라가고 벨 재간 다 해나서. 해볼래기가 어시 그 아니 아이 그 메태기 영 해가난 저레 불이 펼록펼록허게 무신 저 그냥 불습아가민 불 때명 풍풍허게 거 무신 내통으로 나나서게. 그게 어땡 해영 보리낭 곱에 가난 그게 일어나기 시작허난 양 와랑와랑 부트난

103014 #6 너미 베르싸난거 아니?

103014 #5 이맹이레 게매. 경헨 혼 번은 춤 잘도 얼떡어나고.

103014 #4 아이고 아이고.

103015 @ ㄹ시락 들영 뭐허거나 생각나는 거 이시민 나중예라도?

103015 #1 계난 어떤 사람은 그 ㄹ시락을 그냥 혼 바띠 낭 불 케왕 불채로 문 만들고, 도 저 가을 들민 쉼똥 물똥 이걸 주워다가, 그 ㄹ시락막에 굴채에 담아당, 굴묵에 낳으네 방때는 거, 조끔 거 활동력이 좋은 사람은 목장에 가 가지고 쉼똥 말똥 그걸 므르면은 주서다가 가을에 들영 주서다가 그냥 걸 집에 데멧당 요지금은 보일러나 현다 그때는 순전 방때명 겨울 살앗주.

103015 @ 쉼똥 물똥 다 허는 줄 알아신디 게벼왕 좋고,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안허영?

103015 #1 아 가리지 았허영 가과도는 가면은 가과도, 쉼똥주서다가 말우이서 밥행 먹었다허여.

103015 @ 가과도 가민, 그대신 빨리 안말린다고 허드라고예. 거난 말똥은 빨리 말리니까?

103015 #1 쉼똥은 비삭비삭허거든. 힘이 약허여 쉼똥은 잘 물리면 딱딱허거든 숯모냥으로 딱딱허니까 불에 오래가거든 불에 오래가니까 또 방도 뜨시고.

103015 @ 게믄 삼촌도 이런 거 주워봤수과?

103015 #1 하이고 줍곡말곡 그때는 푸대가 아니고 가마니, 푸대는 뭐 신식푸대 주게.

103015 @ 몸이 지금 몸 삼촌 몸은 쯤금 일은 잘허션마씨?

103015 #1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고 우리 할머니가 키가 작고 우리 어머니 키가 작고 우리 아덜덜은 크고 팔십센티 우리집 손지는 더 크고 우리 손지 제일 일메다 팔십구센치니까 군대 가젠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키큰 보통 군대를 곁은 찢로 만 갔다 왔는다.

103015 #5 보리 저나른 ㄹ시락 담아당으네 ㄹ시락집 맨들앙 막 맨들앙 담 다왕 이제 그레 낭 이 저 느람지 더경 행 낮당 거 과당 굴묵짙고.

103015 #4 ㄹ시락막 해주게. ㄹ시락막.

103015 #5 예. ㄹ시락막 했수다게.

103015 @ 꿩독세기 봉그고 뱀보고 생각나는 거나?

103015 #5 옛날엔 처음엔 두릴 땐 거 봉가와신디 욱은 후제 어이구 저 늙은 어른덜 굳는 거 “ 썩의 가슴 매의 가심” 허난 아이고 얼마나 저 새끼 일르민 을큰햄 꾸나 허난 새끼.

103015 #4 우리 메뉴리도 “그 썩알 줍지맙서예 썩알 줍지맙서”

1103015 #5 경해여 “ 썩의 가슴 매의 가심”끼 아프덴 , 매의 가슴헌댄허난 사람도 애기 일르민 가슴 아프는 걸.

103015 #4 썩알 줍지맙서. 경헌디 썩득새기 봉가지민 잘도 지껴져.

103015 #5 경헌디 두린땐 봉가와신디 욱은후젠 그 말을 들으난 아 저.

103015 #6 썩마농 캐레 탕기고.

103015 #4 경해도 영 이녁은 경헌 슬쩍 물러서된 내부럿당 가보민 나중에 강 보민 웃더라.

103015 #5 날라가고게 문딱 주서.

103015 #4 아니 사람 문직아 나면은 날라가고 ㄱ만이 들으민 어떻 안허고.

103015 #5 예. 나 하영 득새기 내비어서. 봐지민 아이고 임시 지껴정 주시민 가심 아프덴 허는 걸.

103015 #4 고사리 꺾으레 강 보민 어서 어서.

103015 #5 겐 다시양. 썩득새기 우리 저예 하우스 한 밧디양 썩득새길 경 잘나게.

103015 #4 아 기계석방 막 그 스방은.

103015 #5 막 새끼 잘 납니다게. 강 보민 새길 나뉘 “아이고 내불주기 내불주기” 그 사람 봐나난 ㄱ딱 안땡기는 거게. 그 득새기가 다 ㄱ려도 양 그대로.

103015 #4 겹나민 안되는건 다시 안 오고, 겹 안나나민 다시 오라근 물어가고.

103015 #5 경험디다게.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 농사를 헐라면은 미리 밧을 갈양 놔둬야 되여. 것보고 번헝이라고 허여. 밧을 번헝이라고 허여. 갈양 놔두는 거 보고 번허는거라고 허여. 파종을 허지 안허고 빈 밧을 갈양 놔두는 거 ㄱ라 밧 번한다고 허는디, “밧 번해사허컬” 게서 날이 좋암직헐때 밧을 가는 거라. 그 왜냐허민 밧은 갈아 가지고 햇빛을 많이 맞아야 그 밧이 걸어. 농사가 잘 되니까 비료준 것모양으로 허니까 밧이 힘이 찬다고해서 이렇게 봐서 날씨가 농사꾼도 사흘천지는 봐야 된다고 해여. 파종허는 것도 비 오람직 헐때는 파종을 안허고, 날이 메칠 좋암직해야 파종을 허는 거고.

103016 @ 요즘 옛날에는 하늘 보명 다 해실거라예?

103016 #1 파종해서 비가 마지면은 종자가 움직이질 안아.

103016 @ 눅눅해져볼고 또 곰팡이 슬어볼고 경헌다는거지예? 그른 이거는 또 보리허고 다르다예?

103016 #5 건 조는 그냥 줍씨 으정강으네 밧 갈아낱 줍씨 뿌렁,

103016 #4 아이고 거 불리젠허민.

103016 #5 불리져 다시 이제 섬비질허져 섬비는 낭 허여근에 애끼여그네 그 왕 상헌 거 해영 애끼영 영 해영 이디 베 걸영으네 독지에 두러매영 끄성,

103016 #4 끄서서 아니 불르민 녹아불어.

103016 #5 돌을 막 해영 밧을 논나. 이추룩 담 막 하영 주서당그네 그 섬비 이 마니 이거민 이마니 크게 널둥 섬비레 돌을 막 시경 끄시민 죽을락 살락 끄시민 거 시기도 맨딱허여. 맨딱허민 그추룩도허꼭 다시 거줌 밧을 드르 불려도 녹고, 흐쫄 내까이 이신 사람은.

103016 #6 쇠 불려야주 불려야 존.

103016 #4 두루 불르민 녹아부러. 줍 나가민 문딱 녹아부러.

103016 #5 요즘은 비료시난 확허게 허난 녹지 안해도, 옛날은 비료 어서부니까 경허면 녹아서.

103016 #4 이젠 비료노난 불를 어이어시 커부러.

103017 @ 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보리하고 다르구나예? 걸름 걸름 조밭 걸름?

103017 #1 조밭 걸름은 므른 때 가는 거.

103017 @ 아아 이거는 걸름 안해마씨?

103017 #1 걸름서게 어디

103017 @ 아가추룩 도새기 허는 거 어시.

103017 #1 아 그건 도새기 걸름은 보리 갈때만.

103017 @ 그른 때만 조팍 걸름은 안허여마씨?

103017 #1 조팍 걸름은 안허고. 경허니까 조팍은 헐라고 허면은 나는 그렇게 했 어. 어 미리 밧을 갈앙 놔둔 거. 날이 어느 날 좋아서 막 카. 밧 갈앙놔둔 게 막 해 밧 맞아서 허면은 검질이 예방되어. 풀이 풀이 제대로 발휘를 못허거든. 그렇게 해서 밧이 숨이 차는 거라. 밧도 토양성분을 막 이 햇빛 일광을 많이 받아야 그 좋아 지니까 요지금은 기계로만 둘러부렁 너미 산성화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고, 비 가 오라가지고 씨 과종을 헐 때는 비가 오라가지고 날이 부슬부슬허게 줍 좋아야 너미 진때 즈는 때 안허고 경해서 씨 날을 봐서 날이 좋암직허다 했을 때에 과종허 꼭, 밧을 갈아낱 씨를 뿌리면은 소나 말로 말같은 거 가진 사람은 전문적으로 밧 불리레 텅여. 밧을 모양으로 잘 불려. 그렇게 해서 날이 오래 좋으면은 전문적으로 밧 불리 날이 운이 좋으면은 마가 지었다고해서 검질이 일절 안나고 조만 나가 든.

103017 @ 마가 지었다? 마가지?

103017 #1 응 마가지, 마가지 좇팍은 빗주제만 걸쳤다고 허며는 부끈다허거던. 그렇게 흐룻밤 지나면은 팍팍 올라와.

103017 @ 빗주제만?

103017 #1 비가 흐쓸만 오라주면은 팍팍 올라와. 검질은 안나고 그제 성장허니까 이제는 밧 임제는 초불검질이라고 해서.

103017 @ 팍팍 올라와예.아직 검질 안 들어갔수다.

103017 #5 그냥 걸름은 그자 윈 이제는 어떻사 험신지 몰라도 이제 비료 빼엄 실거라. 전인 비료도 안빼영 그냥 풋놓고 대죽놓고 해영 그거 갈양으네 경헨 끽꼭 불리고 허문 그거해영 검질매영 식불검질깁장 매영 비영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조는 어 절기상으로 봤을 때, 소서유월절 중심을 해서 파종을 험니다.

103018 @ 소서유월절이민 양력이파 음력이파?

103018 #1 양력으로 칠 칠팔일 될꺼라.

103018 @ 아 세상에 조는 전 봄에 파종허는 줄 알았수다.

103018 #1 그 봄에도 파종을 허기는 허는데 거 것보고 봄같이라고 허여 것 보고. 우리말로. 봄같이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검질은 풀은 실컷 매야 되어. 봄에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풀이 계속 자라는 시기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103018 @ 봄에도 같고 칠월달에도 같아신디

103018 #1 겐디 그 봄에 가는 사람은 멧사람 안되어. 멧사람 안되는데 노는 시기에 좀 일을 헐라고 조금 허여서 허기는 허는데, 조는 뜨게 크고 검질은 빨리 성장을 허니까 조금 뒤 일력을 줄이는 사람은 봄에 조는 절대 구십프로는 봄에 조를 안 갈아.

103018 @ 그믐 유월절 지나면

103018 #1 유월절 전후를 중심 삼아 가지고 허는데

103018 @ 음력으로 하면은 오월 되켜예? 고사리 나는 칠

103018 #1 소서 유월절이면 말하자면 소서가 양력으론 정해져 있지만은 음력으론 들락날락 허거든. 경허니까 소서라 허는 게 따지고 보면 유월 초후루라고 해도 파언이 아니라. 게난 양력으로는 칠월 칠일 칠월 칠일인가 규정되어 있어. 양력으로는 절기가 규정되어 이서. 경허기 때문에 요즘 사람은 그걸 몰라. 우리는 24계절을 험 공중에 짝 알아지거든. 동지로부터 허민 동지 소한 대한 소서 대서 입하 소서 대서 한로 상강 다시 상강허면은 바로 동지로 들어가는데 그제 이십사절인데 소서는 유월절이니까 말하자면은 유월초후루라고 생각을 해도 될 철이라. 게민 칠월을 나민 칠일인가 칠월 칠일인가 어느정도 될거라. 겐디 나는 그거를 떠나서 파종허는데 음력은 들고나고 허기 때문에 유월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세어. 나는 마가지를 주로 기본을 허젠 허주게. 마가지를 기본으로 허는디 언제든지 마가지를 기본으로 허는디

103018 @ 마가지가 무슨 뜻이파?

103018 #1 파종을 해서 날이 계속 좋은 거. 비가 오지 안해서.

103018 @ 아아 마가 짐직허다

103018 #1 마가지뽕직허다는 거는 “비가 아니오라가지고 좋다” 허는 말이라. 게서 비가 탁 오라노면은 물마가지라고 허여. 물이 오면은 파종해서 얼마어시 재계 파종허는 뒷날이라도 여차해서 삼일 전이 비가 오라부리면은 검질은 성허고 조는 늦게 허니까 그거 못해도 일주일 이상 날 좋을 거를 천기를 봐가지고 나는 씨를 뿌려. 씨를 뿌리는데 상강까지 씨 뿌리는 날로 메칠이나? 씨뿌리는 날로 상강까지 구십일 이상 구십이삼일이 되면은 조가 끝에까지 결실이 아주 잘되어. 잘 되곡 구십일이 하루라도 안되면은 중간까지는 가는데 곳까지 읊아주지를 안허는 거. 농사라 허는 거는 절기를 절대 무시하지 못해. 게서 나는 그렇게 허니까 늬이 봐가지고 “아이고 그 밭디 조 좋아라, 조 멧섬 나시니?” 이렇게 해서 남보다 나는 수확을 더 내와. 나는 파종할 때 딱 상강까지 씨를 뿌려. 상강이 금년이.

103018 @ 상강이 뭐과?

103018 #1 절기 돌아가는 거. 구월절이고 상강은 구월 주기라. 상강 상강이라고 허민 서리 상제 내릴 강제, 이제지금 이제되면은 저 대관령은 서리내렸젠 허지 안 허여. 그것이 상강이주게. 상강이 구십호룬가 안되면은 읊아주질 끝까지 읊아주질 안허여. 등치만 읊아. 구십 하루 이삼일 흐루 이틀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

103018 #5 조가 이제 저 무싱거 행으네 유월나민, 유월들 나민 존 같아야주게

103018 @ 음력 유월예?

103018 #5 예. 갱 갈곡, 콩도 그때되민 콩도 같고, 그 여름농손 그때되민 다 허는 거.

103018 #4 막 끝나사. 유월장마 끝나사.

103018 #5 계난 유월나가.

103018 @ 유월장마 끝나사예.

103019 @ 경행 빼영 좁씨를 뽕 때 어떻 뿌립니까? 여자덜이 남자덜도 뿌리고

103019 #1 하 남자덜이 뿌리야지

103019 @ 남자덜이마씨?

103019 #1 남자덜이 뿌리는데 사람마다 뿌리는 방법이 또나. 흐좁을 딱 짜며는 이렇게 열 다섯번까지 손으로 허는 사람이 이서. 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너다섯번이면 흐좁을 다 뿌려.

103019 @ 여자덜도 허긴 허지예?

103019 #1 아 힘이 모자라. 남자가 없어서 놉 빌어 가지고 밧을 갈 경우에는 여자데로 뿌리는데, 여자가 뿌리면 두고지나 세고지를 고지를 고지로 뿌리는데 뿌리다가 어떤디는 이렇게 돌려정 아니 뿌릴 수도 있는데 우리 남자덜은 우리는 천상씨라 해서 머리 위에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던지면은 뭉텅뭉텅 떨어지지 안허고 싹 뿌려져 나가거든. 조 불리는 식으로 싹 골루루 나게. 많이 가는 디 적게 가는 디 아니허여.

103019 @ 어떻게마씨 해봅서?

103019 #1 요렇게 착 뿌리면은,

103019 @ 나 머리위로 머리위로 이렇게 짹혀게,

103019 #1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뿌리면은 스그라니 가는데, 뿌리는게 자기만씩 허는데, 완작해서 많이 부자 사람덜은 이렇게해서 너이 뿌리거든. 삼십메다 짹혀게 나가게 이렇게,

103019 @ 뭣 천평 사람이 힘으로 허젠허민 엄청허겠다예?

103019 #1 게난 밧을 타면서 허는 게 아니주게 일부는 밧을 번헌다고 갈앙 놔두는 걸 번헌다고, 번허영 놔뒀다가 또 풀이 나가지고 덤방해가면 또 갈앙 놔두어.

103019 @ 아아 한달 있당 줍씨를 뿌려마씨?

103019 #1 갈앙 놔두고 밧디 농사허는 방법이 보리 가는 밧은 여름에 그렇게 쉬와. 밧을 보릿그루에 다, 밧이 많은 사람은 밧을 번헌다고해서 놀고, 마진더레 가면은 목장도에 방향밧이라고 이서. 방향밧은 흐 해에 소가 목장에서 나와서 물 먹고 들어가면서 똥 오줌 싸고 그디서 쉬고 이렇게 허니까 그 밧이 건다고 해서 이제 삼년에 흐 번은 농사를 안 해서 놀러. 겨울에는 쉼똥 싸고 쉼오줌 싸고 허는 밧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밧을 비가 폭 오면은 족족헌딘 밧을 못 갈아. 막 땅이 지나까. 비가 팍 왔을때는 폭허게 갈아가지고 담 딱 다아서 들어가지 못허게 헤영, 그냥 밧을 부쩍이 케와. 케운 다음엔 담을 올라서 이제랑 “너는 넘어가다가 쉬고 가라”해서 소가 그디 들어강 이제는 담아가지도 못해. 그렇게 해서 보리가 잘 되어. 비료 밧을 번허여. 농사허민 지미진다고 허는 건 잘 안되는거. 지미진다고 허는데 자구 놀러줘야 헤여. 밧을 쉬어 줘야 흐깁 낫지. 게서 갈랑놔두는 건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거는 모양이라.또 좋은 밧은 좋은 밧은 또 연작을 계속해도 되고. 보통 밖에 나강 너커리 바깥디 나가는 밧은 쉬워 요세ㄴ치 그냥 이거 끝나면 다른 농사허고 다른 농사허고 그런게 아니고.

103019 @ 게민 좃밧은 씨는 그렇게 뿌리고 그믄 줍씨 뿌릴 때는 아까처럼 금방 갈앙 메칠 있당도 허고?

103019 #1 아니 줍씨는 갈 때에 갈명사라 씨뿌리고 씨뿌리고 뒤에도 뒤에서 밧아야 되어.

103019 @ 갈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마씨?

103019 #1 다 갈아놔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갈고,

103019 @ 또 흐 번 갈아줘마씨?

103019 #1 갈면은 씨뿌리는데 소서 유월절 그 전후시기에는 갈면은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되어.

103019 @ 한 번 갈앙 놔당?

103019 #1 그 전에 보리가 갈아 가지고 놔당 보리 비어난 다음에는 보릿그루가 나면은 우선 갈앙 놔뒀. 풀땀에.

103019 @ 아아 놔당 수웁 놔당,

103019 #1 놔다가 시기가 되면은 날이 여러 날 종암직허다 헌때 그런데 여기는 일기 창으로 어떻게 허느냐 산방산이 있어, 산방산에 산방산 갓을 썬와. 모자쓰듯

이. 이것이 바다쪽으로 서쪽으로 내리면 비가 오고, 한라산쪽으로 이렇게 날이 산방산 갓 쓰는 거를 기준 삼고, 말 들어 보면은 두모 신창, 한경면 바닷가에 잇는 사람은 아래서는 저지악에 안개가 폭허게 이렇게 찌면은 저지악에 삼일이면 좋게다고 이렇게 해서 천기를 그렇게 봐. 그렇게 보고 여기서는 한라산이 하르방형치라. 하르방형치데 그 농사시기에 까망헌 구름이 이렇게 갓찌고 대가리만 이렇게 나오민 아이고 하르방 야개기 즐바매영 비오켜 호호호.

103019 @ 하르방 야개기,

103019 #1 야개기 즐바매영 비오켄. 여기서는 농사꾼이 보는 게 많아요. 저 한라산 준둥이 밑으로 저 검약 오름쪽으로 거멍헌 구름이 탁 찌면은 바람철 쌓다고 해서,

103019 @ 바람철 뭐 쌓았다고마씨?

103019 #1 바람철 쌓다고 해서 대풍이 불젠허는 생이여. 순전이 경험상식이거든 경험상식이라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걸 살피고, 해 저갈때에 해 저갈때에 벌경헌 구름으로 영 찌고, 영 검은 구름도 더러 잇고 해서 그 구름사이로 해가 빠지면은 해 지기가 안 좋으민 날 우침직 헐 생이여.

103019 @ 해지기가,

103019 #1 해가 떨어지는 지기가 안좋으니까 날 우침직허다.

103019 @ 안좋으니까 날 우침직허다?

103019 #1 게난 이레 보는 게 삼스방으로 보는 게 다 ,과학적으론 닻지 앓은 말 인디 웃어른덜이 저거보라 “해지기가 정허연 날 우중침직허다, 한라산 야개기 날 우침직허다. 산방산에 갓이 우트레 올랑 날 좋암직허다. 알러레 내령 비오람직허다.” 요새 젊은 사람 거 하나토 몰라.

103019 #5 즈씨는 그냥 췌영 그자 혼 번 영 흐쉴 췌민 열두번씩 빼여 열두번씩 빼는 사람은.

103019 #4 경 하영 안헌다 혼으시.

103019 #5 우리 아버진 허는 거 보민 열두번씩 뺨디다 혼번췌민.

103019 #4 건 손으로 허난.

103019 #5 즐꾼 췌영 그자 드르 빼여. 열두번씩 뿌려고 열두번씩.

103019 @남자가 주로 뿌립니까?

103019 #5 예. 주로 남자가.

103019 #6 여자가 뿌리는사람도 있고, 남자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

103019 #5 남자으신 사람은남저, 여자가 뿌리주만은 여자 할 일이 더 하거든. 밧 불리져 징심 출리져 무싱거 해 오져 허당 보민, 게난 남자가 하영 뿌리곡.

103019 @ 게민 한쪽에서는 밧 같고, 한쪽에서는 불영 걸 뿌립니까? 갈명 뿌려?

103019 #5 몬딱 갈아 낱도 뿌리고 게난 하영 허는 사람은,

103019 #4 갈아 낱, 갈아 낱 뿌려.

103019 #5 갈아냥 뿌려사 씨도 골르루 다 흔들음 다 빼어그네 다시 그추록 블리고.

103019 #4 씨가 하노민 알려레 녹아불카부덴.

103019 #5 굽에 뿌리는 건 녹으카부덴 지프게 들어가렌 저 초불 뿌렁 갈아 낱다시 두 불 뿌렁 이제 불렁 경허는 거. 경해연 그후제 초불매역 두불매역 식불 매영허민 마지막으로 허영 놔두민은 이젠 익을 거 아니라? 익으민 존 조대로 비어오고, 풋은 풋대로,

103020 @ 조밭은 뿌리고 어떻게 밟습니까?(말때, 남테나 돌테, 끄게)밟아주어야 되잖아예?

103020 #1 집이 여유가 신 사람은 남자는 밧을 갈고, 갈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또 물테우리라고 물 많이 가진 사람 청해서 밧을 어느때 웨민 걷지 못허니가 물을 수십마리 들고 와가지고 이삼십마리 물고 와가지고 다리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허곡 짝 조는 그렇게 밟아야만이 흔들리질 앓허영 든든하게 잘 되어.

103020 @ 노래부르는 것도 있겠다예 월러러?

103020 #1 월러러 들들 헤헤헤헤

103020 @ 무슨 노래 불를 땐?

103020 #1 흔저덜 블리라 뭐 어평허고 저평허고 그냥 경해사 거 밧블리는 사람은 막걸리라도 먹고 트명에 어떤덴 일이라도 빌영 허곡, 목찬 거 허민,

103020 @ 이렇게 노래 잘허는 어른들도 청수에 이섯지예? 옛날에 할아버지덜 예?

103020 #1 다 돌아가불언, 이젠 밧 블리는 소리 모르는 사람 천지주게.

103020 @ 이렇게 노래 잘 불르는 분 아직 살아 계신 분 어시카예?

103020 #1 우리 우에가 어서노난게. 게난게 소리 허는 사람이 엇주게. 웃고 장사 지낼때만 해도 그 흙 파다당 그냥 그 허는 소리 불르는 사람도 이서나신디, 웃고 요지금 사람덜은 소리 허는 사람 허지 안해서 장의사덜 오랑확확 해부난.

103020 @ 진토긋 파는 소리? 테이프 틀어놓고예,

103020 #1 그 저 뭐 하간 뭐힐 때 옛날모양으로 축 고허는 사름덜도 웃고,

103020 @ 노래 잘 불르는 분 아직 살아이신 분 어시카예?

103020 #1 우리 우에가 어서노난게. 죽고 허는 사람도 웃고

103020 #5 물로게 물이영 쉼로영,

103020 #4 아이고 게난 이녁 믱쉬 시민 허고 어시민 아이고 밧디 블리젠 허민 어디강 쉼 허나 빌어당 뜰매영.

103020 #5 밧블리는 게 경 힘들언 경 힘들언.

103020 #4 중싱이 어서시네게. 어선.

103020 #5 아니 물조름에 조치나 쉼조름에 쫓창 계속 블려나도 잘도 못전더.

103020 #6 그렇게 힘들 수가 어서 하루종일 그 쉼.

103020 #5 진짜 못전더. 멧 천평사 걷는 건지 계속.

103020 #4 흐루해원 건주기.
 103020 #5 어량하량 드러 따들겨 땡기명.
 103020 #6 두루 몰암젠 옥듣고,
 103020 @ 노래는 기억, 남자들이 불렀수과?
 103020 #5 아니 여자덜도불렀주. 어러러러러 허멍그자.
 103020 @ 불러봅서?
 103020 #5 “어러러러러 어러러러” 허멍 그자.
 103020 #4 어량하량 어량하량~
 103020 #5 경허멍 그자 죽짱 불렀주게.
 103020 @ 남테나 돌테, 꿈게 이런 건 안들어봤수과?
 103020 #5 그런 건 안 들어보고,
 103020 @ 섬피만예?
 103020 #5 섬피허고 그자 불리는 건만 우린 해봤주. 다른 건 몰라.
 103021 @ 개민 이번은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1 식불도 메곡, 식불도 메곡, 네 번도 매고.
 103021 @ 저 보리보다 김질메는 게 어렵수과?
 103021 #1 예. 개난 마가지가 잘 돼면은 흔 식번정도 매도 간단간단허게 그 너 무 좇인 거 너무 좇인 거나 중간에 빼고, 준 거나 빼부러서 일정허게만 살리는 거 해서 뭐 김질은 별로 가끔 잇주마는 김질에 큰 신경을 안써도 되고, 김질 비나 맞인 거는 김질도 많이 나고 경허니까 일덜이 더 들어가고,
 103021 @ 김질 땀 때 막 김질이 지시민 막 힘들어마씨?
 103021 #1 아이고 뭐 그 비나 맞앙 험 건 김질 나노민다가 김질 열 개민 조도 열 개민은 그거 뭐 살리젠허민 조도 메져불고,
 103022 @ ‘김질’이 조허고 비슷한 김질이 뭐렌 합니까?
 103022 #1 이디선 조밭에 나는 거 재완지라고,
 103022 @ 여름에는 재완지가 짓엇구나예?
 103022 #1 요지금은 외국 뭐허다가 보니까 세상 본디 어신 김질이 풀이 막 나와.
 103022 @ 조밭에는 재완지허곡 또 무신 김질이 있습니까?
 103022 #1 주로 재완지주게 그게 워낙 씨가 많은 거라노니까.
 103022 @ 조하고 비슷해마씨. 재완지가?
 103022 #1 처음 날때는 요 이파리 하나나고 둘 날때는 비슷비슷허여. 그다음부터는이거는 줄 벌는 종자고 우터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완지엔 험 건 줄 벌는 종자고,
 103022 #5 조밭딘게 여름김질 그자.
 103022 #6 재완지.
 103022 #4 재완지도 나고 안 나는 게 어서.

103022 #5 겨곡 이젠 비료 써가난양 더 검질이 더 잘남신게.

103023 @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베기, 묶기 등)조를 벨 때 틀러마씨?

103023 #1 여하튼 호미로 비어사주. 이제 호미로 비고 이제 ㄱ마리를호미로 톱 아. 호미로 톱으면은 메타기라고 헛 게 이서. 중간에 메타기 올려서 기계로 두드려서 채는 채대로 놔 두고 쓸 나온 거 해가지고.

103023 @ 메타가 어실때는 조클 옛날에 어실때는 조클.

103023 #1 그거는 들방애에 놔가지고.

103023 @ ㄱ마리채? 타작은 안허고 도리깨는 안하고 딱리지 안허여.

103023 #1 조는 도리깨 안허고 꺾데기가 궤양 술만 빠져. 그 꺾데기가 소양석으로 다 따로 해영 해가지고 큰 맥에 혼쪽에 딱 데명 췌가 그렇게 잘 먹어.

103023 @ 가마니에 이렇게 낫당, 헛간에 낫당,

103023 #1 분당채가 이서.

103023 @ 소만 주는 게 아니고 도새기도 줘예?

103023 #1 돼지주둥이에 붙으고,

103023 @ 누까는 어디서?

103023 #1 채 솟 싯인 물 밥해난 물,

103023 @ 쓸 시신 물은?

103023 #1 구수허주기게.

103023 @ 누까?

103023 #1 므른 채 가루로 나오거든 그것이 누까지.

103023 #5 비영 묶영,

103023 @ 보리허고 똑같아마씨?

103023 #5 예. 그거 묶영으네 집이 지어올땐 너뭇도 지고 닷뭇도 지고 허멍 게 속 저다 낱,

103024 @ 덩드렁마께 전쟁이겠다예?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이삭 따기, 도리깨질, '덩드렁마께' 등)

103024 #1 딱 지켜사서 순번을 메겨야 되어. 지키당 보문 너도나도 그 수확을 허젠허문 다 이용을 허젠

103024 @ ㄱ릅서. 경행으네 그렇게 이용해서 하고 자기집의 소 몰가져서 허곡,

103024 #5 이젠 하나하나 이젠 굴리멍 호미로 톱양 이젠 담양 이젠 담양으네 몰ㄱ래에 강으네 이젠 춤 차례 모녀 간 어떤 사람은 강 어떤 사람은 차례보기로 행 그거 허영,

103024 #6 췌 이신 사람은 연자방애로 돌리고 경 안 헌사람은 도께로 두드립니다.

103024 #5 도께론 경 하영 허젠 허문 아이고 도께로 두드리는 것도

103024 #4 아이고 해끄만 헛 거는 마께로도 못고게.

103024 @ 덩더렁마께로 못고? 들방애로 차례차례예? 소 어신 사람은 소 빌령이

라도? 뭘 줘니까? 소 빌리민

103024 #5 출 해당 맥이고, 스몫 저.

103024 #6 일력대신 해주곡,

103024 #5 쉼 하나 빌리민 하루 강 일해내고.

103024 #4 아이고 쉼 장남 빌어나민 사흘, 쉼 장남 빌어그네.

103024 #6 장남 빌린 역시 사흘 해주난 어떤 사람은 도끼로 두드려. 마끼로 두드리고,

103024 #4 마끼로 두드리는 게 줘네다. 이녁 자유라. 마끼로 딱딱딱.

103024 #6 사흘 간 일 해주는거슨 집이서 한결이 이녁냥으로 허니까.

103024 @ 많으면은게 문제는 많았을 때가?

103025 @ 줘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26 줘쌀로는 무엇을 합니까?(조밥, 조침떡, 감주, 술 등) 줘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던 거 기억남수과?

103026 #1 줘쌀은 주로 쟁소에는 밥에 섞어 먹고 보리밥에 섞으면은 그렇게 밥맛이 좋아. 풀풀해영,

103026 @ 보리밥에 그다음 떡은?

103026 #1 경허곡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메기 그 저 ㄹ레에 문짝 글양, 저 떡을 멩글양 영 동글락허게 영 가운데 고망 뚫라지게 행으네 떡을 멩글양 무큰 삶양 그거 식으면은 누룩 낳으네 막 저서그네 해영 술을 당그거든. 술을 담으면은 흐김 오래되면은 막 독해영 우에 뜬 거는 청주라고 해서 아주 지름 등갈등갈헌 거 그거 딱로 걸렁 놔두고 잔치때도 경해. 아쟁이는 막걸리로 해서 툽툽허게 해영 먹영 좋고.

103026 @ 아쟁이는 막걸리로예. 툽툽허게.

103026 #1 요즘 동동주렌 안허여.우에 꺼 뚫르민 아주 곱고 지름이 등갈등갈 트고,

103026 @ 예 그 고소리 닭은덴 허지 안합니까?

103026 #1 아니 그거는 고소리 닭으지 안허고, 오메기떡해서는 고소리 닭으지 안허고 고소리에 닭으는 술은 보리, 보리를 해가지고 삶양 보리를 삶아 가지고 그 시장통에 가면은 그 약이 있어. 약을 사다가 허꺼가지고 이제 그 ㄹ랫방석 헌 거 곱은 거 해서 탁 덮으면은 거기서 곰팡이 피어서 열 받으면은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는 물 낳, 저 누룩 놓고 해가지고 이젠 향에 담아. 향에 담아 가지고 이제는 막 독기가 올라오거든. 누룩은 막 그 알콜성질로 막 성질내우는거니까 독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영 먹어보면은 독기가 막 올라오랐으면은 그때는 솟디다가 이제 그걸 걸여놔가지고 솟디 걸여놔서 이제는 고소리를 아쟁 그 솟광 그 고소리 새에 가로부친 거 해가지고 딱 막양 저 막아가지고 받는 것이 바지쟁이라고 해서 고소리 좇더레 ㄹ저 강 찢르면은 그레 그 수증기라 해서 쟁더레 소주가 빠지거든. 그렇게 해서 소주를 해 먹는 거고. 오메기떡해서 허는 거는 그 닭으질 안허는 거. 막걸리로

먹고 우에 끼는 청주로 해서 고급손님이나 집이 제사때에는 우땡으로 해서 이제 제주로 쓰고.

103026 @ 우땡으로 제주로 쓰고예? 밑엿건 아쟁이가 막걸리로 텃텃해가지고 그것이 오메기떡해가지고 그른 영 잘 알았수과? 어머니가 해 권마씨? 아니면?

103026 #1 어머니가 그걸 쪽 했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 그룹이 너인디, 저쪽동네사람 한사람 요쪽 동네사람 한사람, 우리는 요기 살 때 한 사람, 이 동네 사람 한 사람, 너이 해가지고 그 한걸현 절리에는 돌아가면서 먹어. 이 집 이서 먹으면 요 집이서 먹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허면은 집이 오고 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 허니까 잘 알주기. 고소리가 우리 집이 있어.

103026 @ 고소리가마씨? 사진 한 장 찍어야 되쿠다?

103026 #1 우리 집 고소리가 있는디 난 필요가 없거든. 술을 안먹으니까 술을 안 먹고, 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술 담배가 필요어시난, 셋아덜이 제주시에 사는데 “아버지 이거 나 가져가쿠다” “ㄴ져 가라게” 계난 이제 시에 강 이서. 고소리에 딱 붙어져 이서. 구역리에서 제주시에 강 이서.

103026 @ 거 나중에 박물관에 라도게 기증허면?

103026 #1 계난 울에 물 놔가지고 딱 붙어지고 그거 유리 두둑허게 동글락허게 해다 낵 딱 낵 이제 집이 이서.

103026 @ 그런 것들이 장식품으로 이제는 뭐허긴 허는데,

103026 #1 지금 고소리 이신 집도 멧 어실거라?

103026 @ 엇수다게. 아무도 박물관에나 강 보든,

103026 #1 그 고소리를 어디서 만든 거고허니까 허면은 구역리에서 만든 거라.

103026 @ 아아 이렇게.

103026 #1 고소리 그릇멘드는게 전문이랏주게.

103026 @ 그 분들도 전문을 이으니까.

103026 #1 구역리 것이 있구나게 경혜그네 예펜삼춘은 전문.

103026 #1 고소리 드물거라.

103026 @ 경 혜근에 구역리에 것이 있구나게 오메기떡은 예펜삼춘이 잘 허진 못했고?

103026 #1 우리 어머니가 허여.

103026 @ 계난 메뉴리는?

103026 #1 우리 어머니가 허여. 아 메뉴리는 못허지게. 우리 어머니가 살아 이 시민 백 열 일곱이라.

103026 @ 그거를 살아 이실 때 전수 받아시든 문화재 될 건디 성읍에도 그런 거 하나 이서예.

103026 #1 우리 집 사람이 온 때는 그런 막걸리를 설러부린 때, 아버지 돌아가셔불고 나니까, 나는 술이 필요 업서.

103026 @ 봐난 거렌 얘기 할 수 있는 거로구나예. 많이 봐나난,

103026 #1 아 집이서 해난거 자꾸 봐나니까 게서 우리 어머니 혼자고 누님덜은 어시니까 나가부니까 “저디 강 저 그릇 ㄹ져오라 저그릇 ㄹ져오라”허니까 주위에서 나가 허니까 그거를 사실을 잘 보니까 그건 서툴지 않혀주게.

103026 @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감주도 어머니가 잘 해났수과? 감주 감주, 감주는 어떻 허는지 알아져마씨?

103026 #1 알아지주게. 감주를 헐라면 굴이 좋아야 되어.

103026 @ 보리골예?

103026 #1 보리 잘 만들어서 잘 말리면은 그냥 우리가 씹어 먹어도 들꺾롬흐거든. 게민 그걸 곱아.ㄹ레에. 곱아

103026 @ ㄹ레에?

103026 #1 같아. ㄹ레에 곱아가지고 이제 오메기떡 오메기떡.

103026 @ 걸로 오메기떡을 만들어마씨?

103026 #1 오메기떡을 삶아노면은 그게 식어. 식영,

103026 @ 이거 보리쌀이 아니고 좁쌀이파?

103026 #1 좁쌀로 허는거주게. 오메기떡,

103026 @ 아 좁쌀로 물 영 노민, 싹이 나는것파?

103026 #1 그 좁쌀로 허면은 오메기떡을 허면은 가운데 요영 동글락허게 요렇게 만들어.

103026 @ 네 손가락 꼭 찢르지 안옵니까?

103026 #1 손ㄹ락만 헐 게 아니라 손ㄹ락이 돌아갈 정도로 만들어. 구멍을 크게,

103026 @ 구멍이 보여마씨?

103026 #1 으.

103026 @ 아아 담고망처럼,

103026 #1 구멍을 이정도는 맨들아, 이정도는 맨들아가지고 요렇게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솟데다가 삶아. 솟데다 삶으면 삶아난 물도 풀풀허여. 그러면 장태에 다락에, 요즘.

103026 @ 장태가 나무파? 나무.

103026 #1 옛날은 장태주게, 장태는 이 흙으로 만드는데 향 만드는 것 같이 요지금 곱으면 다라, 다라같이 만든 거 더운 때는 안 섞어. 시그면은 곱도 섞으고 누룩도 그 누룩이 또 좋아야 되어. 누룩이 밀누룩이 좋다고 해여. 보리누룩보다 보리누룩은 약허고 밀누룩이 좋다고 해서 밀재배를 허거든. 토종밀, 옛날은 토종밀 해가지고 그거 곱아가지고 물적셔서 이제는 확허게 확 볏아가지고 다다 떠내면은 그 놈을 이제는 딱신디 검질 소곱 같은디 팍 문영 놔두민 곰팡이 피어서 들르고 썩고 허거든. 곰팡이가 피어 게서 잘 되면은 소곱에 잘 된 거는 빨강케 꽃이 피어 누룩에도. 꽃이 피영 ㄹ르면은 그놈을 이제는 마케로 뺌사. 마케로 뺌사가지고 누룩섞으고 곱 섞으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삶아난 물 도ㄹ리에 놓고 그래서 이제는 물을 더 놔가

지고 문득하게 알맞은 향망데기 망데기레 다 놔두민 바글바글 막 독기 올라 막 올
른 다음에는 성질이 남 다음에는 가만이 가라안자. 보따리 보따리 고운 거해서 딱
뭉어가지고 공기는 흡수되게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향아리 단지채로 더깅 덜어
놔뒀다가 한 참 오래시민, 우에 뜬 거는 거려가지고 딱로 놔뒀. 그거는 아주 일류고
급주거든, 일류고급주라. 게서 밑에거는 그냥 막걸리로 먹는다, 너미 되면은 그걸
혼잔 술 먹는 사람은 “하 좋다” 수염이 돋은 하르방 많이 이실때라. 수염이 이렇게
덤방허면은 그 바농상지에 가위해다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거 거울 뺨, 경 안한 사
람은 걸쳐져. 탁배기 먹어나민 흘긋 빨아먹어.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같애. 요렇게
빨아먹어.

103026 @ 아아 감주는 달콤허난 술이 아닌 줄 알아신디,

103026 #1 그거는 감주는 딱로 좁쌀허면은 그거 골 놓고 행 허면은 막 딸려. 딸
려서 그디 쪼끔 건더기는 해 두고 양이 많아. 물 놔서 허면 잘 딸리면 감주를 먹으
민 들미롱허영 좋고, 덜 딸린 감주는 먹으면은 설사허여. 게난 감주는 딸리닥이 더
맛이 좋고, 그거 흐썰 덜 딸려졌다 허면은 배탈난다고 허거든.

103026 @ 이것도 좁쌀로 탈리는것봐?

103026 #1 예. 감주 좁쌀로 탈리주.

103026 @ 좁쌀로 그냥 보리 골 놔가지고?

103026 #1 응 골 그것밖에 아니고 골허고 좁쌀 숭아 가지고 그거 행 막 무르췌
영,

103026 @ 좁쌀 숭앙으네예?

103026 #1 응 그걸 막 드르 무르췌여가지고 잔때에 담으면은 건더기는 빠지고
물로 막 남을 거 아니라. 그럼 그걸 그냥 막 딸리는 거라. 게난 요지금 사람덜은 근
쌀로 해가지고 허니까 식혜, 그 쌀 그냥 막 들어가는다 옛날 감주에는 그런 쌀이
들어가지 못허게 자루를 맨들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짜버리거든. 짜서 그러니까 그거
드는 거는 골이 좋아야.

103026 @ 달다예. 골이 좋아야 달콤하다는 말이지예?

103026 #1 우리집이 할망이 우리 셋아덜이 관광버스 몰거든 관광버스 하나 사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103026 @ 아덜이 네명이과? 아덜이 몇?

103026 #1 응? 아니 다섯인디 둘은 죽어부난 셋인디, 둘째아덜이 관광버스 허는
디 어머니 감주 같은 거라던지 소주 만드는 술 뭇을 걸 아니까 가이도 아니까 험센
허니까 “험서 허면은 장사는 될거우다” “에에 아니 나 안허켜”

103026 @ 어머니가?

103026 #1 이제는 메뉴리 쓰러져부난 춤 나도 골친디 모든 걸 우리집 사람도
술허고 감주허는 거는 잘 알주게. 잘 아는디 이젠 오락가락해노니까 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 술 그런 걸 좋아해나니까 항상 뭇 허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항상 메뉴리를
칭찬허고 “는 손맛이 좋아 너는 손맛이 좋아.”영 해나서.

103026 @ 아깍다예.

103026 #1 놉 빌영 일을 허젠 허면은 “내불라 나허켜” “이런 든 술을 누게 주느니?” 이렇게 허면서 이제 살아왔주게.

103026 #5 술, 저 감재 썰어낱 밥도 행 먹고, 다시 이제 그거 물 켕 곶아당으네 방애 강 곶아당, 백심잉가 곶민가해당 이젠 곁로 오매길 해영 퀘기도 허고, 식계도 허영 침떡허영 식계도 허고, 그곁로 다 아니 헛게 어서 다 그곁로만 행 살앙.

103026 @ 좃팝, 떡, 감주, 술?

103026 #5 감준 다시 좃팝 해영 낫당, 그레 콩 섞영, 물 낱 젓영 낫당, 혼 혼네 놉두민 흐썰 브그레기 퀘어가민 먹어보민 들궤툼허민 이젠 곁러, 이젠 채로 반앙 문딱 하나하나 다 거 줍썰에 꺼 문딱 빠지게 거죽만 냉경 문딱 줍썰아 으정, 이젠 그곁 이제 솟디 담앙 이젠 더 딸리는거라 알로 불슴앙 계속 짓고, 경허멍 허는 거.

103026 @ 떡은 뭐 침떡?

103026 #5 침떡도 행 먹고, 줍썰론 침떡도 행 먹고, 영장밭디 가젠허민 돌래도 행 가고, 침떡도 행 가곡, 경허연 옛날엔 그곁로만.

103026 @ 좃팝만 행도 먹어났지예?

103026 #5 좃팝만 행, 살락 살락, 우리 이 청수는 저 땅이 웨니까, 경 허지 안허는디 땅 식은디 조팝은 모여 너미.

103026 #6 요 웃동너렌 모녀 백상 먹어야웨여. 맛시리곶은 건.

103026 #5 살락살락 우린 경은 안해봐신디 그추록 뜬 밧디 밥이고 보리밥이고 안해신디.

103026 #6 조로가 조로 맛시린 완전 저.

103026 #5 조시린 막 흐리고, 조시린막 흐려.

103026 #6 조시리도 흐리고 마께시리도 흐리고, 병데기도 흐리고,

103026 @ 조시리, 마께시리.

103026 #5 검은 조 노랑조.

103026 #4 아이고 검은 조 나건디가 언제라 게난 건 찍도 잘나고, 맛도 좋고, 옛날은 맛시리 모은조,

103026 #5 강들와리, 모살시리, 게도 강들와리가 제일 맛좋아. 제일 맛좋아.

103026 #6 덩데기, 덩데기는 막 흐린 거.

103026 @ 덩데기는 막 흐린 거 아홉가지가 있덴헛게 정말.

103027 @ 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짚?

103027 #1 조짚도 농사에 해난 꺾데기는 전부 소양석이라 .

103027 @ 소양석? 조짚도예 늘 늘어났당?

103027 #1 다 늘어났당. 마궤리 토다 노으민 그거 일일이 깨끗하게 잘 들령가지고 잘 놀영, 놀암지 더경 딱 허게 보관했다가, 그 밧디서 풀 베어 들린것도 주고, 트멍에 그것도 주고, 콩꼬질 콩겍데기도 주고, 감자냉쿨도 들렀다가 주고, 이렇게 해야지. 소가 골고루 먹는다고 한가지만 맥이질 안해. 사람도 이것도 트멍에 먹고,

식당에도 흔 번 먹고 집이서도 먹고 돈 아까운 사람은 집이서만 허여 먹는 사람도 있주만은, 이제 직급 우리가 다니다가 영 식당에 가보면은 가족단위로도 먹고, 못전 디게 일허다가도 회식도 허고, 이렇게 허는데 못허는 사람이 많주게.

103028 #5 건 걸름허영 지근지근 보리갈앙,

103028 #4 아이고 먹고 말고 배고광,

103028 #5 조찍 어성 못 먹주 어성.

103027 @ 어성 못 먹으면 이거 통시에는 보리짚을 놓주 이거 아까우쿠다.

103028 #5 아니 그냥 아니 쉼 먹어난 등치 먹지 못헐 건 그거해당 통더레 담는 거.

103027 @ 조찍은 그거 쉼아니문에 그거 걸름예?

103028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코마리가 드랑드 랑허다 뭐 어른덜 조에 관한.

103028 #1 조팍이 잘 되면 처음에 조를 흔춤 비영 영 허면은 들렁 영 허면은 밧이 전체 흥갈 흥갈한다허는 말이 이서. 조가 흔뽕 흔뽕반씩은 나가든. 잘되면은 그러면은 이눔이 이레 열거지고 이눔이 열거지민 이렇게 허니까 흔춤허면 낭 식개 아니민 너개 흔춤이 막득아불어. 이눔을 이렇게 등기민 밧전체가 흥갈흥갈한다고 허여. 겐 얼른 뜨질 못허여. 호미 놔두고 이디선 호미를 낫이렌 허주게 호미 요렇게 놓고 버금에 요렇게 놓고허면은 고고리가 영 되면은 버금에 요마니 해논 다음에 딱시 다시놓고허민 망탱이 맥 갖다다 이레 놓아가지고 툽툽툽툽 비는 남자는 이것 도 묶어야 쉼뻬여야 되니까 비마찌민 안되여.

103028 @ 흐김행 마마리 튼아허고 흐김행 마마리 튼았수과?아니른 다.

103028 #1 다 튼는디 가끔 이따가 트명에 수 가 있어, 튼앙 데껴주고 쥐가 들어서 막 놀영 놔두민 찢라부러.

103028 @ 계난 아 더경 놔뒤야.

103028 #1 놀영 놔뒀당으네 소.

103028 @ 주고.

103028 #1 겐디 보릿낭은 그때 잘 안 먹어서. 보릿낭은 잘 안먹는데 소걸름을 내영 그레 길면은 이따가 흔장내지 두 장은 먹어도 보릿낭은 쉼양석이 안되는데 조, 콩 ,감젓줄, 이제 벳짚, 곡식에 대한 그 녁쿨은 겐부 소양석으로 버릴게 하나도 없어. 게서 겐부 쉼양석 먹어나민 겐부 통지에 담아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거.

103028 @ 진짜예, 하나토 진짜예., 그런 걸 배워야 환경애기가 나올건디예.

103028 #1 한 육십대미만은 잘 모르주게.

103028 @ 몰라마씨. 공부 공부 공부가 뒷산디 농사는 짓지말라 어려우니까,

103028 #1 우리는 밧가는 잠대까지는 만들야.

103028 @ 아.

103028 #1 계난 요즘은 난 흔 번 보민 다 허여. 다 허는디 그걸로 나갈질 못했 어. 난 아픈 사람 침도 쥐. 어떤 사람은 사람은 택일 볍씨 택일 빨리 날까 안 날까

알아져. 늪이 허는 거 흔번 보민 다해.

103028 @ 두루두루 시선이 있으니까 솟도 구워났수과?

103028 #1 아이구 모슬포 훈련소 있을 때 4.3사건 끝에.

103028 @ 그건 나중에 들으쿠다 이장님 솟 구워가지고 교수님이 와가지고 삼촌도 같이 해났수과?

103028 #1 계난 그것이 아이구 우리도 솟을 많이 구워 팔았어. 솟을 구워서 가마니에 가마니에 솟을 가마니도 스톤 가마니가 있고 5톤 가마니가 있거든. 큰 것이 있고 5톤 가마니가 제일 큰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췌에 시경 모슬포에 가면은 군인가족들안티 풀주게, 군인가족들안티 풀고, 군인가족도 어신사람은 솟을 사서 가족에 쓰고 얹은 군인 가족살림허는 사람은 나무, 장작을 해서 사가지고 불 때어서 밥해 먹고.

103028 @ 겨문 뭐가 된나부다예? 참나무가 좋아마씨 솟은?

103028 #1 참나무가 솟은 제일이주게. 게 솟을 굵 솟 잘되고 못되고 기술적인 문젠디, 솟을 잘 된 것은 과란 꽃이 피고, 솟이 잘 안된 놈은 거명헤여. 시커명만 허고. 솟이 잘 된 놈은 내려강 보민, 과랑허면서 솟을 문직아가면 이레 놓으민 쇠소리가 나 상글상글상글 허는 소리가 읊은 소리가 나고, 솟이 잘 안 된 놈은 데끼민 픽삭픽삭해가지고 소리가 죽은 소리가 나거든. 게 솟에도 그 변화가 있어. 겨난 요지금은 잘된 놈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덜 집안에 딱 놓는디 그게 솟이 잘 된 솟이라야지 잘 안 된 솟은 그런데 나갈 즈신이 안되여. 색깔도 죄 틀리고 모양도 죄 틀리니까.

103028 @ 계난 뭐 아카시아 낭이여 소낭이여 다 솟을 구웠수과?

103028 #1 다 하는데 솟이춤나무 낭이 강한 낭이거든. 겨고 이따가 술이 약헌 나무는 때면은 삭아불기가 쉬와.

103028 @ 참나무는 도토리낭이 참나무지예?

103028 #1 도토리, 예. 도토리낭도 가지낭이라고 이서. 가지낭 있어. 가지낭이 도토리낭중에 참나무디 그냥 도토리 잘못허민 종낭 도토리열매가 드랑드랑 여는 거, 종낭 종낭 약허여. 약허니까 미려운 낭은 도깨어시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요물질 못허니까.

103028 @ 종낭은 도깨어시로 많이 써마씨?

103028 #1 예.

103028 @ 아 가벼우니까.

103028 #1 겐디 그놈의 나무가 미럽게 잘 크지를 못허는 나무라. 가다가 허민어 이거 스망일엇져. 도깨어시 좋다. 가벼우니까 가볍고 낭이 그렇게 요물지 안허니까.

103028 @ 윤누리낭은 도깨아덜을 쓰고, 종낭은 도깨어시로 쓰고.

103028 #1 윤누리는 그렇게 슬찌는 나무가 아니라. 대같이 그냥 쪽쪽 빼만 나가지고 뻗고, 그렇게 춤 건드리지 안해가지고 여러 십년 되사 흐쨌 도깨어시같은 모

습 그렇게 요쁜 나무는 손이 아파.

103028 @ 근데 도깨아덜은 윤뉴리로 쓰고.

103028 #1 예 그 나무가 요쁜 낭이이까, 요르면서 흘썩흘썩허니까, 반동이 있어 가지고 딱 붙으면 땅이나 탁 붙으니까 뻗뻗허질 안해서.

103028 @ 아이구 경험이에 대단허다예.

103028 @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검질매명 막 베었져, 뭐 조작뻗디서 무싱겨 고생했져 그런 거?

103028 #6 검질매명 사대, 노래 부르명 매는 거 그거.

103028 @ “어기녀랑 사대로다.”허명

103028 #5 어기녀랑 사대, 앞명에랑 들어오라.

103028 #4 잘 알암신게.

103028 #5 어기녀랑 사대 앞명에랑 들어오라.

103028 #6 어기녀랑 사대야

103028 #4 노는 트명이 어디서 검질매젠 허민

103028 @ 사대야? 그 월정에 가면

103028 #6 “굽은 쉼로 여의명 가게.” 건 굴쟁이로 메겐 말이주.굽은 쉼.

103028 #5 굴쟁이로 꼭꼭, 굽은 쉼로 꼭꼭 매명가라.

103028 #4 아이고 그 비나 안 온 때 여름에썸에사 아이고 스몯.

103028 #5 늣덜 빌영 이견 딸뻗 춤,

103028 #6 노래소리에 넘어가주 버칭 못 매여.

103028 @ 누가 그 노래를 불릅니까?

103028 #5 버치니까 검질매명 버치니까 검질 이기젠 그자 사대부르명 사람덜 하영 늣 빌영덜 수늘영덜,

103028 @ 계도 못 불르는 사람은 노래 못 불릅니께 그냥.

103028 #5 계도 어기녀랑 사대로다. 그자 그추룩허명 가는 거라.

103028 @ 돌림창으로 아니면?

103028 #5 이제는 여자가 경험주마는 옛날은 남자덜이.

103028 #6 문딱 흔꺼번에 또 불르고 냉중사람은 문딱 흔꺼번에 불르고, 처음에 는 흔 사람 불르민 다음사람.

103028 #5 “앞명에랑 뒷명에랑 무너나라” 허명 그자 노래부르는 거 그자.

103028 #4 놀 어이가 어디 셔.

103028 @ 노래 흔번 불러봅서?

103028 #5 불러봅서.

103028 #6 불러봅서게.

103028 #5 뭐? 어기녀랑 사대로다.

103028 @ 말로 말고 소리로?

103028 #5 소리 것도 좋아사주 윈.

103028 #4 흔.번 험서게. 듣게.

103028 #6 “어기녀랑 사대로다.” 이건 늦은 소리 있고, 빠른 소리 이십네다. 게난 나 곳세 부른건 늦은.거.

103028 @ 빠른 건?

103028 #6 빠른 건 나 아까 몬저 불른 거.

103028 @ 겐 이어근에 흔번 해봅서. 소리 좋은게마씨.

103028 #5 어떻 곶아봅서.

103028 #6 “스대불령 요 검질 매자. 어기녀랑 스대로다. 곱은 쉼로 여의명 가게.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어기녀랑 스대로다.”

103028 @ 빠른 거?

103028 #6 빠른 걸로 헤헝 니 아프고 무싱거 허연 니 안 아파시민 잘 불를컬.

103028 @ 누구마씨?

103028 #5 이 어른 삼차신경이라부난 이디 아판. 이디 게난 하간 체맨 여름에도 영 체매영댕기고,

103028 @ 겐디 소리 좋수다.

103028 #5 아 소린, 이 어른 소리 막 존 어른.

103028 #6 옛날은 잘 불러났수다.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옛날이사 콩농사허민 농약을 해시카,

103029 #4 콩 용시가 제일 빨라.

103029 #5 콩씨 뿌령 밧디 강 콩씨 뿌령,

103029 #4 그건 불리지도 안허고, 그계 지일 존거.

103029 #5 이젠 쉼로 갈앙, 그자 병에나 시민 병에나 두드리고, 경허명 그건 쉬운 게 그놈의 병에,

103029 #4 쉬운 거.

103030 @ 쉬운 거.

103029 #5 쉬운 게 그 놈의 병에. 조가 지일 사람 못전디게 허는 거 조가.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은 여름농사는 장마가운데 장마중심에 콩을 주로 갑니다. 유월 양력으로 허민 양력으로는 유월이십오일경에 보통 콩농사가 적격이엇젠 허여.

103030 #5 것도 유월나민, 마 낫나가민 이젠 콩도 같고 조도 허곡.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요즘은 콩비료라고 나오니다. 콩비료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저 씨 뿌리고 갈기만 허믄 되여.

103031 @ 옛날에는 씨뿌리고 갈기만 헨 마씨.

103031 #1 예. 게서 밧을 짚이 갈면은 안된다고 해서 밧가는 장남을 장 안준다고 하여예.

103031 @ 예?

103031 #1 밧 가는 사람을 장을 안준다고, 잘 먹어 노면은 힘차게 밧을 짚이 갈아 버리면은 이 나질 잘 못허니까 알게 어떻게 갈게 허기위해서 밧가는 사람보고 장남이라고 밧가는 장남 장 안줘야 밥을 실패 먹지 못허게 배고픈 듯해야 씹씩씩하게 여진다 해서 허허 옛날 속담이 그렇게 되어예.

103031 @ 예. 너무 너무 깊게 갈면 안되는구나예. 콩은.

103031 #1 예.

103031 #5 그때는 걸름이 어디 셔. 그냥 씨만 빼영 갈았주.

103031 #4 그땐 비료어서부난 지금은 비료봐도,

103031 #5 옛날에 콩씨 뿌려근에양, 그 갈지 안해도 웹데다게.

103031 #4 비오랑 묻어 지주게.

103031 #5 아니 기실왓인디 콩씨뿌령 자게 비오랑 갈지 못허난 내부난, 콩은 막 나난 이젠 해볼레기 어시난 내부난 거 콩 돼어예?

103031 #4 아 돼여 돼여.

103031 #5 스뭇 흥쉴 꼬달꼬달은 해도.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는 흥쬂 췌어가지고 씨부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게. 힘 줘서 착착 뿌려야 떨어지면서도 떨어지면서도 둥그렁나가고 뭐 해서 뭐허주 그냥 즐락 즐락 빼면은 이 저 무드락무드락 멍쳐정 나가니까 춤춰서 땅에 탁탁 부트게 허면은 두 개 시개가 멍쳐졌당 둥그려 나가지고 흠어지니까.

103032 #4 겐 영 작작.

103032 #5 그냥 두러메영 그자 줍씨빼듯,

103032 @ 여자도 뿌리고예?

103032 #5 응, 여자고 남자고 그자 뿌리고,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3 #1 콩밭 김매는 거는 머 검질 매는 거는 그 조팍같이 만치 않치예. 한 두 번정도 메면 끝나는 거고, 콩이 커지면은 그늘이 탁 쳐지면은 검질이 힘을 못쓰니까.

103033 #5 두 번만 매민 돼여. 콩검질은.

103033 #4 두 번 해지는 사람은 허고 못허는 사람은 흥 번 행 내불고,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릅니까?

103034 #5 콩밭딘 무싱거 안나는게 이서게. 여름검질은 안나는 거 어시 다 나.

103034 #4 제완지 옛날은 제완지가 보통이라.

103034 #5 이제는 요즈음은 다시 췌비늬 무사 남광,

103034 #4 그땐 제완지, 계난 민영허명이라도 제완지방석,

103034 @ 제완지방석? 제완지방석은 무사 제완지방석?

103034 #5 민영허영 몸빼행 입영 이젠 몸뻘디 그뻘 갈중이, 갈중이 행 입영 저
검질 행 말로 이건 갈중이 저 검질 방식이엔 허멍,

103034 #4 제완지 방식.

103034 #5 제완지 방식이엔, 갈중이해연.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꺾기, 도리깨질 등)

103035 #1 콩 수확은 옛날에는 골갱이로 꺾어.

103035 @ 아아 호미로 꺾으지 안행마씨?

103035 #1 호미는 중간에사 했주. 아주 옛날에는 골갱이 웨골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는 거 해서 허지. 겐디 옛날에는 공구 어서가지고 어서노니까 호미로 허
미는 청실로 해서 얼마 안있어서 호미가 무껴버리니까 그걸 골라고 허면 힘이 들거
든. 옛날에는 골갱이로만 콩을 꺾었수다.

103035 @ 아이구야 처음 들어보는 소리우다. 경혜영 콩 꺾으민? 거를.

103035 #1 꺾으민 명석을 바께가서 흔뻘더레 가운데 중심 부껴가지고 콩낭을
치와 똥 그레 명석을 흔 메칠 쪽허게 낄앙, 그레 가져다 놔가지고 이제 도깨로만
두드리거든. 호로깨.

103035 @ 도깨를 호로깨렌 해마씨? 호로깨로 두드려예 밧디서예? 집이까지 안
왕?

103035 #1 집이 어뻬 가져가?

103035 @ 명석을 아예밧 디 가정강?

103035 #1 그거는 북대기가 커 노니까 집이 가져 올 수가 엇찌게. 밧디서 해서
두드렁 밧디서 해야 콩먼지가 아주 걸주게. 이제 쪼금만 현 건 어데 저 흔 두츨쪼
똥 거는 집이 오랑 행 허면은 질레 나가가지고 브름 바른데서 불리면은 그 콩 먼지
질레 버려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허거든게. 경해서 굶은 거는 굶은 것데로 그 콩
꼬질이라고 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눌워듬서 맥이고, 즈진 건 그 강맥이 털어진 거
는 또 큰 맥에 담아다가, 저 쇠막 흔 쪽 구석에 조찍같은 걸로 이렇게 쪼 에우싸면
서 담양 ㅁ룩이 놔똥당, 그걸 골채로 담으멍 쇠 쥬 맥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엇주게.
쉐 먹어난 다음에는 이제 동시에 거름으로 담고, 굶영 굶어서 안 먹을 꺼 남은 거
는 부인들이 부엌에 가지다 놔가지고 불때고, 콩대가 빠닥빠닥헌 높은 밥행 먹는
데 불때고.

103035 @ 콩수확은 도깨질예?

103035 #1 예. 밧디서 즈팍으로 불리고.

103035 @ 밧디서 다 즈팍으로 다 불리고.

103035 #1 그 얼맹이라고 얼맹이로 해가지고 얼맹이로 이제 흔 사람은 치고, 처
놓으민 바람에 불려서.

103035 @ 푸는 채도 허고예?

103035 #1 기계가 전혀 없어노니까 사람 어깨에서만.

103035 @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지예?
 103035 #1 예. 어머니네가 웃세대가 고생을 많이 해십주.
 103035 #5 껍영,
 103035 @ 어떻 껍습니까?
 103035 #5 그냥 똑똑 문딱 똑똑 껍어냥, 이제 이레 무싱거렌 허느니 퀘.,무신 새,
 103035 #4 새 매어당.
 103035 #5 새 매어당 뱅뱅 들렁 퀘 해영 이디 냥, 마주 묶영 마주 노명 해영 묶영, 경행 서못 썩 두못썩 지어오랑,
 103035 #4 무신 서못져지느니게. 두못지민 혼 짐이주.
 103035 #5 우리 씨어멍네 거 서못 저네 저 웃답디 가네 이넝꺼 강구장네 집이 강 강구장네 어멍네 밧디 강으네 산디 비영 시꺼다된 아이고 이젠 할망네 밧디 강 봐사주긴 ㄹ로 넘으멍 뛰멍 강 보난,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이제 묶으는 서눔햄선게 이제 그거 묶영 서못해영 지어으정,
 103035 #4 아이고 쟈쟈허게 묶엇져 게문,
 103035 #5 서못해영 지어으정, 두못은 질고, 우이 혼 못은 흘치고 행 묶으고 집이 오란, 아 답을 넘젠 혼난 답이공ㄹ록해가난 이제 튀엇어. 그걸 진 양 튀거라. 답은 돌아져 가는 거, 탁 튀난 그게 발 ㄹ모깐, 아 잠팽이 어멍신디 강 잘도 퀘레 땡 켓수다마는 나 원.
 103035 #6 잠팽이 어멍도 췌니까?
 103035 #5 그 어른 췌테다게. 게난 나 잘도 퀘레 땡겨나서.
 103035 @ 저 손으로만 껍습니까? 호미잡앙?
 103035 #5 호미로게 호미, 호미 영,
 103035 @ 옛날엔 글갱이로도 껍으곡.
 103035 #5 글갱이로도 허곡 호미퀘영 줍아텡기곡 껍으고,
 103035 #4 예에, 호미로만.
 103035 @ 다음 도깨질?
 103035 #5 도깨질은 게 해다 냥,
 103035 @ 집에 왕.
 103035 #4 집이 왕 마당에 와사.
 103035 @ 어떤 사람은 밧디강 멍석 폐와냥 했덴도 험테다.
 103035 #5 예염엔 문딱 다른 뭐 멍석이나 행 문딱 무싱거 허고 허고 혼가운데 마당에 냥 때려가민 그디 가른 콩 튀카부텐 경헨.
 103035 @ 하용허든 밧디셔도 허고.
 103035 #5 밧디선 못해.
 103035 #6 이 근천 밧 즈가부난예 경 하영 농스허는디가 엇수다. 저 어드레 대 정더렌양 혼 두섬지기썩 석섬지기썩 밧이 널르니까 밧디셔 허곡 이렌.

103035 #4 매 아저 왕 마당에 오랑,
 103035 #5 이젠 밧은 정리허는 브릅에 널릿주기 춤 옛날엔.
 103035 @ 도깨도 수눌영 험니까? 사람덜 오렌 헨?
 103035 #5 수눌언 이녁도 강 늬의 거 해주민 그 사람 빌영 해질 거, 이녁이 안 해주민 그 사람은 해줄 사람이 어서.
 103035 #4 수눌영 수눌영,
 103035 @ 도깨는 누가 만듭니까?
 103035 #5 게,하르방이 맨들주게 어떻허여.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나물, 메주, 두부, 콩가루 등)
 103036 #1 계난 요즘처럼 많이 해서 풀젠 가는 게 아니라 된장허고 곶아서 ㄹ레에 곶아가지고 콩국도 끓영먹고.
 103036 @ ㄹ레에 곶앙예, 콩국도 끓영먹고,
 103036 #1 옛날에는 이 농사지은 걸 판매를 목적으로 허질 안했거든 먹고 갈기만.
 103036 @ 콩나물이나 뚝비나 이런 거 허는 거 봐봤수과?
 103036 #1 이디서 콩나물은 대부분 집이서 놔서 먹거든예. 제사때라던지 이제 가절 때 뉘험때는 집이서 놔가지고 자꾸 물주멍 질겼주게. 요지금은 사다가 먹으니까 옛날 콩나물은 즐겨험주게.
 103036 @ 콩나물을 청수에선 뉘렌 불릿수과?
 103036 #1 콩지름.
 103036 @ 콩지름예?
 103036 #1 콩나물 보고 콩지름, 지름이 아니라 주름이주게 콩주름
 103036 @ 콩주름, 메주 또 뚝비 이런 거 봐봤수과?
 103036 #1 예. 메주 뚝비는 뉘 어디 무신 집이 일이나 허젠허든 허주 췁소에 그 답아먹진 못험수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던지. 집이 뉘 행사나 있게 되면은 이제 그 딱 ㄹ레에 곶아가지고 솟디 낱 췍서,.
 103036 @ 메주 당그는 거 콩 솟앙
 103036 #1 예. 콩 솟앙 허면은 막 발로 뚝아 발로 뚝아가지고, 요지금은 하꼬짜에 싸가지고 그레 놔서 짹짹 누르뜨서 험주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떡모냥으로 빵떡모냥으로 흑허게 해가지고 콩꼬질 같은 거 영 놓고 뉘짚 곶은 거 영 놔가지고 그레 영 행 낱 줄어지민 누르뜨지 앓허게 헤그네 경행 탁 더깁 놔두면은, 이제 그 곶팽이가 피어 누룩모냥으로. 곶팽이가 피면은 이제 그거 장담을 때는 물에다 담가서 관칙허게 곶팽이 씻어두고 소금물에 해서 장 당그고,
 103036 #5 뚝부허고 주름콩허고,
 103036 #4 죽도 췁 먹고,
 103036 #5 곶아당 이제 이전에도 어디 저 기계 강 곶암주마는 ㄹ레로 뉘뉘로 곶아 혼 방울 혼 방울 드리치멍 곶아그네,

103036 #4 계난 밤이 놀 어이가 셔계.
103036 #5 살아온 역사를 말허민,
103036 #4 밤이 콩 굴젠허민, 뉘 잘 어이가 셔.
103036 @ 물에 적션 곶아야지예?
103036 #5 아니 아니 모른체게, 혼방울 드리청 맏돌로 맏돌로
103036 @ 그 굵은 콩이 맏돌에 갈려마씨?
103036 #5 예. 계민 ㄱ루 나오랏양. 하영 안 해영 혼방울 툽 드리청,
103036 @ 아이고 힘 들어가켜예?
103036 #4 아니 그때 ㄱ레가 셔. ㄱ레 ㄱ레,
103036 @ ㄱ레 계난,
103036 #5 이젠 문딱 우린 저 무싱거옴 허느니? 나 놀레에는 ㄱ레는 어섯수다
마는, ㄱ레로 곶아그네,
103036 @ 계난 ㄱ레?
103036 #5 난 원래 ㄱ레는 어섯수다마는,
103036 #6 모멸떡 허는ㄱ레 정ㄱ는 ㄱ레,
103036 #4 모멸떡 허는 건 조그만헌 계베운 거, 정ㄱ는 건 막 큰돌헤영 무싱거
허는 건 양손으로도 곶아봣닥 ,호호호
103036 @ 콩이 어려우쿠다예? ㄱ레 곶뎨
103036 #5 ㄱ레 곶뎨 마주 아장으네,
103036 #4 사름 신태는 마주 아장,
103036 @ “이여 이여 ”
103036 #5 잘함신게. ㄱ레 곶때는
103036 #4 이여 이여 ㄱ레ㄱ는 거 혼번 험서보게?
103036 #6 이 아광 안함수게,
103036 @ 삼촌 슬슬슬슬
103036 #5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그추룩 허멍 콩은 곶
앗주게.
103036 #6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 말도 말아근 곶라.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경허멍 곶앗주기.
103036 @ 좋수다게. 가시어멍 강당장칩이 이런 거 남방애 질 때 혹시 나와났수
과?
103036 #5 응, 남방애 질 때도 그 소리주게.
103036 @ 가시어멍 강당장칩이 식콜방애
103036 #4 남방애 질 뎨 뻔르게게 이여이여
103036 #5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식콜방애 새글럼서라
103036 #6 요건 동더레가 잘 험네다.방애,
103036 @ 아 동더레에 남방애는, 남방애도 짚어났지예 여기도?

103036 #5 아이고 남방애 전 먹엇주기. 보리도 남방애 정 먹언.

103036 #6 이딘 헛자 그렌 저 물 영 낱그네 허질 못허여. 그냥

103036 @ 보리 남방애 찢뎨 물 놓네까?

103036 #4 물 낱 물 낱게,

103036 #5 보리는 물 낱 지고, 조는 그냥 모른 채 지곡

103036 #6 나룩이엔 헨 헨 그 산디, 그건 몬 남방애만 찢고,

103036 @ 산디도 물 놔?

103036 #5 아니게 모른 채 모른 채

103036 @ 가루만드는 거잖아예?

103036 #6 아니 아니, 게민 이젠 거기 거죽 뱃겨놔사 다시 막 여러 번 저가민
그 쓸 난 후제도 그 까진 걸 요라 번 저사 그 가죽우이 가죽이 비늘가죽이 벗어져
불민 밥이 좋고, 그 비늘가죽 안벗어전 이제 저 무신 선민가 거 무싱거추룩 그추룩
허멍 금방 그 까징 건 그 현미추룩

103036 #4 아이고 경해도 들르민 그레에서 쓸내왕덜 먹고,

103036 #6 저 뭐 맹 올거 안 매영 와져서게. 저 남방애 그 나룩 산디지렌허난
다심뜰인디 쓸 두방울 입더레 톱 노난, 쓸 거 먹엄젠 남방애로 탁 두드리난, 아이고
세에 그 쓸 논냥 에앵헤영 죽으난, 그 꽃으로 피언게. 꽃 핀거 그런 거 꽃 성게마
는 그거 하나 맹 올건디, 안 매영 와져서게.

103036 @꽃으로 핀 게 산디꽃이 아니고 무싱거마씨?

103036 #6 죽으난꽃으로 환생허연

103036 @ 그 꽃이름이 뭔지 모르쿠과? 전설인게

103036 #6 다심애기꽃

103036 #6 다심 뜰인디 남방애로 꽃으로 피언게.

103036 #6 옆인 보라색이고 이 가운데 영 꽃 두 개가 저 나룩쓸닭은 거 톱 꽃
두 개가 나룩쓸 닭은 거 이십테다게.

103036 @ 아하하하 그 꽃 흔 번 진짜?

103036 #6 우리어머니가 이거 무신 막 고운 꽃이우다. 허난 거 다심어멍 꽃 아
니가? 다심어멍 꽃이 무시파? 다심어멍이 그 다심뜰신디 나룩찌렌허난 저 찢명 하
도 찢단 버치난 아장, 쓸방울을 두 개 톱 주서서 세러레 톱 입더레 노난, 방애끼로
탁 두드려부난 오꽃 죽으난, 세 여영 현냥 죽으난, 그 꽃으로 환생돼시네. 건 수놓
는말 해난 옛날 말.

103036 @ 아이고 정말 계난 그 꽃을 꼭,

103036 #4 우린 몰라.

103036 @ 이런 말이 중요헌거.

103036 #5 우린 그런 말 안 들언.

103036 #6 그걸 하나 맹 올 건디 말제 강보난 그 날 쉼 완, 바깳쉼 있는 밧, 바
깳쉼 깨와난 편쩍 어십디다게. 그거 매레 강 보난, 갈거

103036 @ 메주, 콩주름, 콩ㄱ루 이건 저번에 막 얘기했잖아예? 콩주름은 아무 때나 해서 먹진 안잖아예?

103036 #5 아니 건 이넉 그냥 기리우민 그냥 승키로도 낱 먹언.

103036 #6 콩주름은 막 먹음네다.

103036 #5 시리에 낱 물 드러 계속 물줘가민 경 콩 자라낱 ㄱ득안

103036 @ 제사 때나 먹주게.

103036 #6 아무 때라도 먹어.

103036 #5 아니 그거 키우멍 건정 흐쫄 줍아낱,

103036 #6 간세허는 사람 뵈허지 흐김 낱 먹어.

103036 #4 것도 콩드는 거란 혼에 물줘사,

103036 #5 계속 물만 주믄 자라.

103036 #4 물 안주민 플라 불고,

103037 @ 콩쩍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까 말했지예 콩쩍? 콩꼬질.

103037 #1 콩꼬질 아 콩꼬질은 집에 쳐다가 그 소맥이고, 물 있는 사람은 말도 맥이고 타는 물 잇는 사람은, 옛날 속담에 물이 콩꼬질을 흐루즈녁, 혼 놀을 놀영놔 둔 거 다 먹고 싶어도 딱ㄱ망 아플 거 생각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허여. 이 물은 먹 으면 먹은 데로 소는 소화가 되는데 말은 소화가 잘 안되여. 소화가 잘 안되영 그냥 나와버리니까 무한정 먹는 거 이거. 배탈나는 법이 없주기. 먹어가면서 배출돼 버리니까 소먹다가 남는 것도 어느정도 말은 더 먹으니까.

103037 @ 예. 톨한틴 어느 정도만 주는구나예. 그믄 콩꼬질은 놀을 하는거로구나예? 느람지 낱 놀예?

103037 #1 콩꼬질은 놀어야 되고, 그디 거 잘게 부서진 거 그 콩 담아져 난 각 지에다 뵈헌거 그런 거는 또 둥글려다가 딱로 맥에 담아다가 이제 쇠막에다가 혼펜 더레 딱 데메뚱서 굴채로 담으멍 소 맥이고.

103038 @ 소 맥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때 콩 꺾으멍 힘들었수과? 재미보다도예?

103038 #1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경을 쓰진 않헿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에 서 지배를 받아서 허는 것도 아니니까 자유자재로 쉬고 줌 싶으면 쉬고, 줌 허고 싶으면 허고 이렇게 허니까 누구안테 충격받아서 일 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짓는 겁주. 자기 먹을 거니까.

밭벼 농사

103039 @ 이제는 산딕로 갔쿠다.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산딕 허젠허믄 뵈 영 거름을 내거나 보리처럼 뵈 준비안해도 되마씨?

103039 #1 옛날에는 준비헿 게 없는거주게 밧이 열필이 있으면은 그디서 혼 서 너너필은 항상 쉬어. 밧을 갈았다가 갈았다가 풀 잘 만나게. 게서 노는 밧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우마가 많아요. 집마다 질루왔으니까. 밧디 들어가서 텅기고 풀 다듬아

먹어붙고, 무싱 거 우마가 똥 오줌 싸고 밧을 쉬우면은 쉬와야 농사가 잘 되지. 그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은 조가 탄 거 허민 지미진다고 허여. 병들어서 그냥 멜락 자우라져서 결실이 안 되니까. 밧을 힘을 돋굴라고 허면은 그렇게 밧을 일년 갈면서 햇빛 마추고 풀 못나게 해서 쉬우고, 또 옛날에는 부지런헌 사람은 이 옛날에는 소 먹는 물이고 사람 먹는 물이고 과므라서 물이 다 빠지면은 허리가 드려 부지런 허민 그거를 파다가 높은데 가져가서 물이 빠져 편편허면은 그놈을 맥에 담아다가 밧데다가 뿌려줘. 그러면 밧이 그것이 일등 퇴비라.

103039 #5 뭐 그것도 굿사 조허듯게 조허듯,

103039 #4 아니, 산디는 산디는 인척해사.

103039 #5 게메 인척이 흐쓸 흐끔 인척은 허주마는,

103040 @ 산디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40 #1 산디는 산디농사는 봄에 빼국새가 올때는 산디씨를 뿌립니다. “빼국 빼꼭” 해 가면은 “어 산디 헐 시기가 됐다” 요새 사람덜은 그런 거 모르주게.

103040 @ 예 멋잇다예. 어떻게 갑니까? 이것도 뭐 아까처럼 콩처럼 깊게 가느냐 덜 가느냐 이런 거 어서마씨?

103040 #1 산디는 갈아서 조처럼 밟아줘. 밧이 펜펜허게. 논밭도 울퉁불퉁 허민 안되지예. 펜펜허게 해서 허듯이. 산디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밧을 펜안허게 높은 디 앞은 디 없이 펜안허게. 췌로 뽀리면은 높은 디 밟으면 뽀하고 덜 불좌지는디는 사람이 뒤에 쫓아헿기면서 발로 툽툽 두루차가지고 우마가 밟을 수 있게. 이 우마는 췌지에만 불르지, 높은데는 뽀지 말라고 허니까. 어떻게 눈이 앞뒤에서 오는지 딱 슬퍼서 앞발 가난 디 뒷발만 가게 되고. 돌이고 췌고. 앞발이 이렇게 가서 뽀허민 뒷발이 툽 거기만 강 밟아. 게니가 뽀뽀 돌암서야 이게 어슴비슴이슴허지 다덜 구작 불려가지를 안해서 이렇게 췌 항상 돌아가야 되어. 돌아가야 이제 자국이 여러 개 니발 돋은디가 니발 불좌지지 구작 밧가는 식으로 구작가면은 앞발 가난디 뒷발도 밟아 버리니까 그만큼 동작이 느려.

103040 #5 그건 봄이 가는거난.

103040 #4 봄이 봄이.

103040 @ 봄 몇 월?

103040 #5 3월들에.

103040 #4 3월들에.

103040 @ 음력 3월에?

103040 #4 그것도 불리곡 산디도 허민.

103040 #5 멘네광 산디는 저 3월들에 허는 거.

103041 @ 산디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옛날에사 산디 걸름이 이셔게.

103041 @ 보리처럼 안헿구나예?

103041 #1 불치같은 거 허면은 저 요새 감자, 옛날은 지실이라고 허는디 지실

놀때나 쓰주 또 경안해서 노는 사람은 사람마다 메밀 농사는 안허주마는 메밀 농사 허는 사람덜은 그 오줌 모두왔다가 오줌항이라고 잇서. 바깥데 오줌항 가득 단지해 가지고 뭐허든 그레 막 모두왔다가 불채에 낫다가 거 가서 놓는 거 줍는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을 줍아서 놓는다고 해서 줍아서 놓는 거니까.

103041 @ 불채 뿌릴 때? 오줌 뿌릴 때?

103041 #1 씨에 버무리면은 밧을 갈아노면은 이렇게 탈탈 허는 거 보고 줍는다 고 해여. 줍아서 논다는 말이지, 줍는다고.

103041 @ 불채하고 씨 섞은 거를 줍는다?

103041 #1 예. 게 불채가 축축허거든. 자꾸 오줌 행 니까 벧 마치지 았허고 가 만이 이제 더경 놔두니까 이제 축축헌때 너무 물르면은 또 물이라도 어떻행 축축하 게 해가지고 허면은 불채에 씨에 버무리지면은 이제 헤싸지진 았으니까.

103041 #5 걸름 안허고.

103041 #4 건 걸름 안허는 거.

103041 #5 건 그냥 산디씨 빼영 갈양 그자 불류민 되는 거고.

103041 #4 검질, 검질 네번 매사허여.

103041 @ 이것도 불려사 돼여마씨?

103041 #5 예. 막 불려사 산디 녹아불어.

103041 #4 녹아불어

103041 @ 아아 들 빌영 아까 보리, 저 조 불리듯이,

103041 #4 응. 그레 그레.

103041 #5 조 불리듯이 막 불려사. 지각, 디각 불리우민 어떻 글로 춤 땅 땅 팡 온달로 어떻 행 솟앙 잘 나오라. “끼작끼작끼작끼작”

103042 @ 아아!

103041 #6 경 불려던 아니 죽고, 아니 불려진딘 다 나왕 죽어 불고.

103041 #5 녹양게, 녹안 녹아불어.

103042 @ 아이고 신기허다예.

103042 @ 산디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산디씨도 뿌리는 거 콩씨 뿌리나 그거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뿌리니까 다 비슷한 동작이지예.

103043 @ 밧벼, 산디는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5 식번.

103043 @ 이것도 식번, 조허고 똑답다예.

103043 #5 예.

103044 @ 산디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릅니까?

103044 #1 제주도 검질은 옛날부터 재완지. 유명허는 게 재완지허고 복쿨, 복쿨 이라는 검질은 중간 우마가지면은 옆으로 막 벌이니까 자손 많은 사람은 막 벌이니까 그래서 걸 복쿨이엔 허여 우마가지면 막 좋아하니까 막 벌기니까. 옛날은 복쿨,

재완지, 그래서 “재완지 방식에 아꼐다”. 부인들이 “재완지 방식에 아꼐다”

103044 @ 검질 지꼐다는 뜻이지예?

103044 #1 예. 재완지라는 검질이 씨가 워낙 많은 거라.

103044 #5 그냥 건 조빳디 나는 거나 그디 나는거나 마찬가지로.

103044 #6 재완지 더 대개 그건 재완지.

103044 #5 보통은 재완지가 해주게. 상디상출도 잘나고,

103045 @ 산디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베기, 도리깨질 등)

103045 #1 호미로 비어가지고 그거를 묶어당 집이 오라그네 거 가래기쇠 영 현 거 해서 흘트주게. 흘탕 도깨로 두드려야 되어. 것도.

103045 @ 가래기쇠가 이게 보리클이 아니고

103045 #1 보리클에.

103045 @ 보리클에?

103045 #1 예. 보리클도 그 저 굵은 놈이 있고, 좁진 놈이 있거든. 굵은 놈은 주로 보리하고 좁질게 좁 부튼 놈은 산디 곁은 걸 영 흘타야,

103045 @ 그믐 두 가지를 만들영 집에 이십니까? 보리클 따로 산디클 따로?

103045 #1 예 주로 경허주.

103045 @ 산디클이엔 험니까?

103045 #1 하나로만도 되긴 됩니다. 쪼금 뭇헌 사람은 보리 둘 걸어가지고 보리도 흘트고 산디도 흘트고,

103045 @ 보리클을 산디클이렌도 험니까? 산디클이엔 양허지예?

103045 #1 산디클이렌 딱로 이름은 안허고.

103045 @ 클 클 클예?

103045 #1 예.

103045 @ 이것도 도깨질험니까?

103045 #1 방법이 어시 도깨로 딱려사.

103045 @ 이것도 조처럼 물방애로 등글이는 건 아니구나예?

103045 #1 예. 그럼 쓸 나오라부러.

103045 @ 조가 물방애로구나.

103045 #1 예. 조는 그 많이 놔서 그 쇠 물고 뒤에서 소 모는 사람이 부지런허 주기. 막 멩텅이 저서 나오민 동물이 가야지 경 안허민 동물이 얼떡으니까 부인네 덜이 부지런해야지.

103045 #5 그건 도깨질도 허고 방애에 강 등글임도 허곡 허난,

103045 #4 산디? 아이 산디 옛날엔 좁게 해그네 흑흑흑흑 흘타났져. 헤그만헌 건,

103046 @ 흘타마씨?

103045 #5 이렇게 이렇게 낭께기로 헤영 영 낭 영 좁쩐 화려룩허게 흘트고, 영 허연.

103045 #6 경 행 들렁 헌디도 싣고, 또 췌망, 췌망 들렁 흘트는 디도 싣고,

103045 #5 자르륵 자르륵,

103046 @ 좁게허곡 췌망예? 자르륵 자르륵. 도깨도 허곡?

103045 #5 예.

103046 @ 벨뎨 호미로 베곡예? 보리 베는 거 허고 똑같아마씨?

103045 #5 예.

103046 @ 산디쌀로는 무엇을 해서 먹습니까?(밥, 떡 등)

103046 #1 예? 아이고 이 산디쌀로는 생일밥이나 해 먹고 식계때나 해 먹주. 게 옛날에는 잔치때 보리밥 이렇게 곁이고 그 우에 혼숙구락해서 싣 허게 영 허면은 이게 전부 쓸밥인가부덴 행 보면은 우에는 옷입진거라 옷입진거라. 숯구락을 딱 땡 보면 밑에는 보리밥이라. 게난 그때는 잔치때 아으덜 울어가면은 “울지 말라 근밥 주켜” 허면은 눈물 확 싣고 안 울어. 거난 지사람은 경 굽디다. “제주도 처녀는 시 집갈때까지 쌀 닳되를 못먹고, 시집간다”고 거 얼마나 나무렛수과?

103046 @ 게난 떡도 해 먹어나신가예? 산디쌀로 떡?

103046 #1 떡허면은 근쫄 제펜이라고 허거든 근쫄 제펜. 제펜만 쥐도 아주 그냥 옛날 산디쌀은 흐리지 안허여 모여. 모허여도 좋아하고, 이 생활수준이 남군과 북군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같아예. 북군에서는 우리 북군에서는 칩떡을 해도 알바. 입으로 끊어먹기에 한걸허는데 남군엔 꺾어서 먹어야지 두께가 10센치정도 두껍게 허여. 모멸같은 것은 돌래떡이라고 서양. 돌래떡 크게 만들고 우리 모관에서는 하나 해서 두 개 붙이지도 안허고 즐아 대정사람덜은 나무래여.

103046 @ 즐다고예? 나무래여. 대정이 더 못살지 안헤마씨?

103046 #1 아 떡 맨들아 놓은 거 보면 대정은 부촌이고, 북군은 게 거 장사때 고적이라고 허는데 고적이 아니고 고죽이주게. “돌아볼 고제, 전래 적제” 고적이 아니고 고죽이주게 친족끼리 돌아본다는 말인디 사투리로 “고적 바찌라” 허는데 대정에는 멧놈의 치, 우리는 “흔 합 두합”, 흔 합은 좀 먼 친척, 두합은 가까운 친척, 경 해서 여기 떡 경행 흐는디 남군 사람은 오면은 “두 합 흔 합이 뭐여” 경허곡 “멧놈의 치” 거기서는 그렇게 허드라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성 다른 형제가 이서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간 때 행 보니까 즈손덜이 막 여러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멧합인가 허니까 오 그것에 송뵈디다 “멧합이 뭐냐고? 우리 멧 놈역, 멧 놈역, 멧놈의 치” 행 곁앗다고 영 허는디 “서른 놈역 해오랏져 마흔 놈역 해오랏져” 허는디 여기는 흔 합이여 두 합이여 허니까 통허질 안허여.

103046 @ 멧합은 뭐짜 아까? 멧합?

103046 #1 흔 합은 말하자면 열빚, 두합은 경해실거우다. 하엿튼간 이 제주도 풍습도 요라짚이라.

103046 @ 대정은 열빚 이런식이 아니고 더 많이?

103046 #1 이제는 떡 또 옛날에는 그 못 살아 노니까 떡 받는 거를 아주 뭐허고, 세력 있는 아이덜은 그 사람 봐가지고 어디서라도 떡을 주면은 가이는 버치는

디, 불쌍한 아이는 아이고 주는 아이신디만 가. 부모 세력을 봐가지고 아이고.

103046 @ 반 탈 때에? 멧질날도?

103046 #1 제주도 풍속도 여러 가지라. 성산포 오조리 우리 일가에서 사돈을 했는디 그디는 부모가 죽으면은 초상은 딸이 전부 책임진다고. 아 그릇이건 뭐고 전부 책임진다고 허드라고. 게서 나신디 오라가지고 삼촌 영 정 헌덴허는디 어떻허고 마씨? 허कु데 “돈으로 대라” 어데 철에서 한라산 너머 그릇지고 사람대고 돼지잡고 쓸 뭐하다 하간 먹을 꺼 당해가지고 어떻게 허는냐고 이디서 사람 빌고 “안된다 안되니까 돈으로 델테니까 거기 풍속대로 경비는 내가 물테니까” 허라해서 딱 강 경했주.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여. 제주 그런 게 없어. 초상은 무조건 딸이 책임진다는 거라. 아덜은 상제질만 헌다는 거여. 이런 풍속도 여러 짚이라.

103046 #5 밥도 행 먹고, 떡도 허고, 식계 멧질헐땐 걸로 멧쓸도 허곡, 걸로 다시 침떡 허영으네,

103046 #4 아이고 옛날이사 오죽 어려왕,

103046 @무슨 침떡?

103046 #5 그냥 해양헌 침떡.

103046 #6 침떡, 제스때에나 제사때 멧질헐때나,

103046 #4 막 멧심헐땐 허곡,

103046 #5 스몫 옛날은 침떡도 즈쓸떡 이제 우이 헤영케 흐깍씩 입진만 했어.

103046 #6 반착씩 즈쓸 반착 쓸 반착,

103046 #5 이제는 흐쓸 입정으네 고달 입정,

103046 #4 고달 낱,

103046 #5 고달 입지명, 경허명 옛날은 허곡 저 켜당침이 집이 영장이나 나민 브딘 촌은 스무빳행 가곡 다시 이제 먼 촌엔 흐 합행가고, 너미 브든 촌은 식합도 허곡 경허명 해서,

103046 @ 산디쓸로예?

103046 #5 즈쓸로 허곡, 산디~

103046 #4 즈쓸이 보통이주기. 산디쓸 어느제.

103046 @ 산디쓸 해져?

103046 #4 산디쓸 어느즈틀에.

103047 @ 산디찍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7 #1 산디찍은 소 맥여 것도. 이 곡식대는 주로 다 소.

103047 @ 또 이거 짚신 맥이나 안헐니까? 산디찍으로.

103047 #1 그거는 저 강정 법환이나 해안 도로 가가지고 논밭디서 나룩찍이라고 해서 사다가 맥도 좃고 신도 삼고 이디는 비작비작해서 팔아. 므른 밧디서 큰거라노니까 흐번 블랏다허민 막 부서져불고 허는데, 논밭디서 나가지고 물 잘 쥐서 현 거는 두드려그네 물 풍풍허면은 흘랑흘랑해가지고 맥농스 다 해변서 지어. 게난 옛날 속담이 그렇지 았으파게? “검약사람이 해변 사람보다 튀는 피기를 므저 먹었

다”고 그래. 제주도에는 일강정 이법환리 해서 논밭을 제일 세련되거든에. 일강정 이법환리 거기서 먹음직한 고기를 낚은 것을 검악놈이 몬져 먹었다고허여. 검악이 축산단지가 되서 옛날도 부자라노니까, 강정 법환리 좋은 논밭은 검악놈이 가졌다는 거여. 검악사람이 가져노니까 “그 밭을 날 벌게 해줍서” 검악서는 못 벌거든. 해줍서 헐러면은 먹음직한 고기 큰걸 낚아지면은 볶기 전이 옛날 걸어서 다닐 때에 걸어서 와서 그냥 밭주인을 사귄다고 허여. 제주도에서 소문난 땅 아니우짜? 일강정 이법환리. 거긴 신이 왕성허여, 베염이 번졌다고 허여.

103047 #5 옛날은 그거 두드령 신 삼양 신엇주게. 옛날은,

103047 #4 베도 꼬고게, 맥도 좃고 뒤 산디찍으로 못허는 거 서시냐 멍석도 좃고?

103047 @ 멍석도예? 산디찍은 삭삭 삭아부난 나룩찍은 별도로 상 햇덴도헝디다. 나룩찍히고 산디찍이 급이 다르덴,

103047 #6 좋아 작아 작아.

103047 #4 줄르곡 산디찍은 야리고, 나룩찍은 질기고,

103047 #5 옛날은 그거 행 조리삼고, 신도 삼고 허연,

103047 @ 경해도 신도 삼고, 베도 꼬고, 멍석도 이걸로 허고

103047 #5 조리도 습고게, 아니헌 거 어서.

103047 #4 신도삼고 옛날에사 산디찍으로 습양 살앗주.

103047 #6 나룩찍 사례 가지 못허난게.

103047 #4 고무신이 이섯수과게? 고무신 난 지 오래지 안헝수다.

103047 #6 나도 나냥으로 습아져. 저 신도 습아지고 조리도 습고,

103047 @ 4.3사건때도 다 짚신 신엇수과?

103047 #5 그때 다 그때 초신 신영 살앗주.

103047 #4 초신 신영가민 스뭇 발축이 몬 벗겨불고 으호호,

103047 #5 거 무싱거옌 허느니? 그것도 흐쫄 들썩이 저 뒤척일 들썩헝게 혼 사람은 허고, 손 맥 쥘 막 등경 혼 사람은 뒤척이 잘 뎡겨노민 발 몬딱 벗겨정

103047 #4 손에 들렁 뎡겨져 들렁,

103047 #5 맨발에 거 꼭 신은 들르고 경 행 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시, 우리 살아온 인생이 너무도 헝허고,

103047 #6 짐대중 아방이게 그 아흔에 조리 중에 낭주리, 조리사 탁탁 두드리멍 걸어 뎡기고 맨발에 걸어뎡겨젠 눈위로 그냥 헤얏게, 경수지 지위도?

103047 @ 일본 조리짜?

103047 #5 일본말로 옛날은 조리옌 헤낫수다

103047 #6 게다, 게다 게다,

103047 #5 낭으로 헝 게다,

103047 @ 보통 찍으로 맨들앗수과?

103047 #6 예. 찍으로덜 여자덜은 찍으로 맨들앗수다.

103047 @ 짝으로 쓰리빠처럼예?

103047 #5 쓰리빠추록

103047 #6 게다 게다

103047 #5 우린 저, 우리 오라방 조서혹교, 일본글 헐 때, 조서혹교 간 어떻헤네 무싱것사 헤신지 구즈베기 빠네 운동화를 아다로 허연, 강 오란 이젠 보난 여자 운동화라 요마니헌게 헤양케 앞이 허곡 헌거 그런 운동화를 타오난

103047 #4 하도 지꺼젓주기.

103047 #5 우리 아버진 그 돈을 열매사 주켄 헤신지 석조아덜 셋아덜신디 걸 풀켄 헛던 모양이라. 게난 우리 오라방 허는 소리가 풀지 못허게 아버지라 풀지 못허게 행 신으렌, 오라방이 그 신이 죽아났던 모양이라. 죽으난 안 신영 날주난, 날라 풀지 못허게 행 신으렌 경 허멍 헤연, 그때 막 군인헝깁 그거 탕 신은 후제 군인덜 오랑 이디 일본군인덜 오랑 막 살고, 지레대비덜도 나고, 그때 그 시절에 경 헛게.

103048 @ 산디허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산디쌀 헤영고팡에.

103048 #1 도시락은 어떻 싸주멍 보리밥만 실피 먹어도 좋주. 왜정때에는예. 밧 면적에 의해서 딱 허라고 허면 우리도 열두가마니를 해서 풀아서. 돈은 준지 만지 뭐 이건 어가지로 해서 이렇게 허니까 안하고는 매맛을 건디 게서 바찌부리민 그래서 바찌 기가 막혀 돼지도 잡아먹어불고 돼지채를 맥여서 돼질 살렸거든. 솟시신 물을 주고 돼지를 맥이고, 게난 밧디 가온 때에 가지고 그런 일을 행 들어 붓데가? 밧디 강 들어오면은 세수를 헤야돼여. 세수헤영 손 발 시신 물을 버리지를 앓허여 옛날 버선 그 물에 빨아 그때야 버려. 아이고 큰 때는 봉천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고산가서 질어당 먹고 서림까지 가서 질어당 먹어났수다. 여기서 그만큼 앓앙 부엌에서 물 탁 틀민 나올 줄 누가 알아서?

103048 @ 소중한게 생각해야 됐는데예.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 농사를 헐려면 고구마 감자구덩이라고 이서. 감저 수확헐 때에 구덩이 땅 짚이 일메다 짚인 파가지고 새로 이렇게 영 담앗당 겨울에 양식으로 도 먹고 거기서 보관헛다가 봄 나면은 이제 헝깁 요지금은 헝뽀 빨리허주마는 그때는 비니루가 없으니까 헝뽀 늦어서 드신 철 나가지고 그 고구마 심어가지고 영 나가면은 오즘 같은 거 모두왔다가 요즘은 비닐이주마는 그런 걸 주로 해서 감젓줄을 키우면은 왜정때에는 우리 할머니도 헛 고지에 석줄을 보통 싱거. 석줄을 싱그면 면사무소에서 면직원이 와가지고 두 줄은 메불고 가운데 싱그면은 농사양성을 일본놈덜이 정치로서 무싱거 경헛 허면은 그때는 왜정때도 절간감자를 헛어. 절간감자를 해서 정부에서 돈은 열매나 줘디 돈 기억은 안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때

만 해도 감자냉쿨을 떼가지고 바치라고허니까 그 어느깁정사 갔는지 건 모르지.

103049 #5 감젓줄게. 감재 매 낱,

103049 #4 감재 매 낱게,

103049 #6 땅에 싱경 감재 싱경, 줄 나민 강으네 그레 싱경,

103049 #4 노릇노릇노릇 낱으네 그거 노민게,

103049 #5 오즘 주명 키왕 낱, 밧 갈앙 다시 하나하나 이젠 줄줄이 드러 싱경,

103049 #4 싱경으네 벳나민 죽어불고, 비나 오민 살고

103049 #5 잘 누르뜨명 싱경, 따시 것도 이실짚에나 비어당은 다 죽어 다 죽어.

이실 털어지민 그 감젓줄 비어당,

103049 #4 아니, 벳이 안나민 살고, 벳나민 죽어불어.

103049 #5 이실에 현건양 흐깁 벳나민 죽으크랑게. 이실짚데 혼 건 이실이 잘도 독하는 거 곱앙게.

103049 #4 이젠 이실도 어서.

103049 #6 무사, 어제 춤 하영 저십테다.

103049 #5 어제 이실 하영 저십테다.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는 주로 보릿그르에 심주게. 것도 이자 여름농사가 되다 보니까 보릿그르에 그 소서유월절 직전에 유월절이 넘으면은 더우니까 잘 죽어부려. 소서유월절 전에다가 조농사는 유월절 넘영도 허주마는 콩하고 고구마는 유월절 전이 유월 십오일에서 이십일경에 주로 고구마는 심고.

103050 #4 조 빌 때.

103050 #5 조 해가민 감재도 같고, 싱글 댄 유월에 싱그고,

103050 @ 싱글댄 유월예.

103051 @ 고구마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51 #1. 옛날에사 걸름이 서게 비료가 전혀 어신때난.

103051 @ 아까 오즘? 오즘은 메밀 혈때가 오즘?

103051 #1 경도 허곡 메밀 안 나는 사람은 걸 모두왔다가 보리왔다 가 가지고 이제 쪼깁만현 바가지 해가지고 보리 뿌린 데만 툽툽툽 툽주기계.

103051 @ 그걸 툽툽툽툽 줄때가 어느만큼 클때마씨 보리가?

103051 #1 보리 트지 않아서 봄 나가지고.

103051 @ 봄 나가지고?

103051 #1 보리라는 그 식물이 (기침)

103051 @ 싹 나면 오즘취마씨?

103051 #1 입춘 정월절 드는 해에 요즈음 이월 사일이 입춘아니파? 딱 드는 시간 청력에 보면은 입춘이 드는 그 시간이 잇어. 그 시간에 보릿밭을 매봐.

103051 @ 보리 뿌리?

103051 #1 보리를 하나 매어 봐. 매영 보면은 뿌리가 그 시간에 “딱 하나가 나

느냐 두 개가 나느냐 ”그것이 딱 허민 이제는 셋철이 들었다 안들었다. 시간이 딱 들기 전엔 뿌리가 안 나와. 시간이 딱 되면은 입춘시간이 저 청력에 딱 시간이 나와 이서. 딱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이 쪼끔 지난 듯 행 딱 강 보면은 뿌리로 빠주룩이 하얗게 나와. 그것을 봐서 보리가 “나무가 나겠다 나무가 쪼르겠다” 그걸 영 허면 그자 이월달 나가지고 보리가 그자 요정도 타박타박햇을 때에 꺾 나명사라 그 걸름에 간 거니까 습기 찬 데 그때 영 봐 가지고 약해베듯 현 딜로 허벅에 정 가가지고

103051 @ 그때 흔 뿌리 두뿌리 좋은게 걸 좋은 게 몇 개 나아 좋고?

103051 #1 그 흐끔씩 즐락즐락 주니까,

103051 @ 뿌리가 하나가 나면 풍년이고 두 개가 나면 뒤희고

103051 #1 두 개가 나면 기후천리 수분이 많겠다든 거주. 계난 옛날에는 말에 싣주게. 뒤희고 비결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봄에 봄에 상갑절이레 비가 오면은 “신선입시” 현다고 해서 “신선이 갓을 쓰고 들어온다 ” “비가 많이 온다” “하상갑에 하우허민 적시천리 현다” 고 뒤희어이서. 적시천리 봄을 적제, 따지천리가 불 붙은다 꺾 물양. 요새 사람은 그런 거 몰라. 또 추상각에 가을에 칠월 팔월 구월 가을아니파? “추상각에 하우허면은 이제 곡두생각현다”고 해서. “곡석이 빨난다” 이거라. 가을에 비가 많이 와불면은, 계고 겨울에 “시월 동지섯달에 그 갑자이레 우마가 동서현다” “겨울이 춥다”는 거여. 계서 그렇게 되는데 요지금은 기후가 화허게 그 불덩어리에 둘러가지고 기후가 안 맞아.

103051 @ 기후가 안 맞아예.

103051 # 1 옛날 법이 그렇게 되는데 아 30년 전까지 어느 정도 그게 구십프로는 맞아 지금은 안맞아. 나가 경험해 보면은,

103051 @ 어머니는 입춘 전 날 입춘날에 뿌리가 하나가 나면 풍년 두 개가

103051 #1 여자덜이 허는 게 아니고 남자덜이 남자덜이 딱 그 시간을 봐가지고 어디던지 그때는 모다져 가지고 다 매보는 거를 기본으로 현다고,

103051 @ 셋절 드는 시간에?

103051 #1 예 그 시간에 보리뿌리 매보는 걸, 옛 어른들은 기본이라. 날추룩 스뭇 명청현 사람은 그냥 넘어 가는데, 좀 학문에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모여지면은 그 시간에 한 너댓사람이 모여져. 아랫사람보고 “흔 번 강 매어보라 시간 든 것 닻다.” 그 시간보고 옛날은 그 저 시계도 잘 엇고 허니까 짐작 시거거든. “시간 거의 된 거 닻다 매보라. 흐나 메영 꺾져 으라 보져.” 영 행보민 딱 난텐 되민 노시 딱 셋절 들엇져 이렇게 해가지고 경현때는 거래도 안허여. 빛을 무나 뒤희나 받는 것은 뒤희현디 그 해에 빛을 물면은 무정 벗어진다고 허여 입춘도 드는 날은 출납을 금지시키는 거. 요지금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주게. 계난 일년 열두들치곡 입춘 드는 날은 빛을 물지 안허는 거.

103051 @ 보리 뿌리가 두 개가 좋을 거라예? 하나보다 그런 뜻이고, 남자분들이 했고, 음 그른 보리농사허고 이 셋절 드는 날은 관계가 깊은 거다예. 다른 농사

보다 겨울.

103051 #1 하하하 예 그런 절기에 허는데 보리 매는 것은 보리뿐,

103051 @ 계난 입춘허고 관계가 제일 깊은 거 담수다.

103051 #5 이젠 비료, 그때가 비료셔게. 그냥만 밭 갈양 그냥만 싱겨주게.

103051 #6 비료주민 맛 어십니다 이제도.그냥 싱겨사 맛좋아.

103051 #4 그땐 비료어시 살젠허난 사람이 못전당,

103052 @ 그른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고구마의 걸름은 별도로 안허고예?

103052 #1 옛날 걸름 허젠허든 셔게. 통지에 걸름허민 보리에만 힘써버렸지 그 외에는 나위도 없고 겨울에 굴묵도 짓고허서, 불채 나오는거 가지고 지실, 감자 놀 때 대부분은 허고, 그자 허당도 흐쓸 여유가 이시민 뭇허곡 놀 허고 고지강 쇠똥 똥 주서당 캐와근에 불채허는 수도 있고, 그 농사 그거 허면은 농사갈겠다 그거 를 잘 췌다 허면은 지실이라도 많이 놓겠다 허면은 그걸로만 솟디 불 습아난 거 허고 그걸로 허고 믫지레면은 허고 믫시락같은 것도 허다가 남으면은 불채와 가지고 ㅁ만이 모영, 밧디 갖다 뿌리면은 조 갈 때. 조 갈때는 그 불채를 갖다다가 살짝 허게 뿌려주면은 그 조가 그렇게 불채를 좋아허여. 농사 중에는 조가 불채를 제일 좋아허는 거. 그 준 보람이 이서. 요지금 비료 뿌려서 농사헌 거허고 안뿌려서 농사 헌 거 모양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불채를 그렇게 중요허게 생각을 해주기.

103052 @ 언제쯤 줍니까 불채를 주는?

103052 #1 조 할때는 줍씨 빼면서 밧 갈아노면은 뿌려가지고 밟으면은 이게 영 무더지거든.

103052 @ 예 그때 불채를 ㅁ치

103052 #1 예 경허든 조가 나서도 참 그

103052 @ 불채하고 씨를 섞으지 않허고 씨 뿌려난 다음 또 그 우에

103052 #1 예 줍씨는 줍씨대로 뿌리고 불채는 불채대로 여자덜이 뿌리고 그 불 채 뿌리민 날 때부터 조가 작박이라고 허여. 이파리 영 헤영, 작박이 버룩버룩 허게 그냥 나오면은 뿔췌종자 옛 어른이 경허거든. 뿔췌종자 종자 췌췌작박으로 안다고.

103052 @1 무슨 종자?

103052 # 허허 제주도 말로 췌췌작박으로 안다고, 어린아이도 뭔가 훌룡허게 뿔 뿔은 어릴 때부터 탁 뛰어나가지고 보는 상태가 다르다고.

103052 @ 뿔 종자 췌췌작박으로 안다고, 작박은 조가 처음 나는 모습예? 아아

103052 #1 예. 버룩허게 난다 ㅁ늘게 꼬지락이 나오는데 불채 먹은 것은 버룩 이 그,

103052 @ 불채 먹은 거는 버룩이 난다고예?

103052 #1 요새 아이덜 약먹는 솟가락모양으로 버룩허게 허허 그렇게 됩네다. “아 금년 그 밧디 조 좋커라라.” 허영 날 때부터 그런 평가를 허는데 그렇게 됩니다.

103052 @ 계난마씨.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103052 #1 밭간 코쿨이 중심으로 부각한 밭이난 그자 꺾꺾 꺾르민 뒤

103052 @ 글갱이로 팡예?

103052 #1 아 글갱이 안허고, 고구마 심는 밭은 흐 번 밭을 갈앗다가 다음 줄을 싱글때는 두 불 갈아사허니까, 밟아지지도 안허고 딱 그 처음 갈면은 쇠나 뒤나 들어가지 못허게 밭을 딱 에우거든예. 다와. 요지금에는 밭을 막 터놓주마는(전화) 고구마 싱근 밭은 밭 갈아 논 다음에는 넘어가는 소라도 들어가지 못허게 담을 다 다와 요 지금은 들어갈 모쉬가 없으니까 텅 내부는디, 옛날에는 농사헐 밭디 짐대 블러블민 안되니까 병탱이 정 안되니까 밭을 다음 파종헐 때 좋게 딱허게,

103052 @ 두 번 갈앙 바로 꺾꺾 꺾릅니까?

103052 #1 예. 두 번 갈앙.

103052 @ 오늘 밭 간 다음 바로 밭 부텅으네 고구마를 꺾꺾 꺾릅니까?

103052 #1 게난 흐 번 너무 질지도 앓허고 므르지도 앓헐 때, 므르듯 현 때 밭을 갈아. 밭을 갈면은 이게 밭이 북삭북삭허거든. 다음 갈아도 북삭북삭허는디 아주 그 고구마 심을 밭은 아주 즈는 때에 물이 많이 오랑 허는 때에 갈아가지고 따시비나 탁 부찌면은 밭이 탄탄허여부러. 탄탄허여 버금 갈아도 병탱이로 와글와글허니까 밭가는 거 이제 물맞창 갈아사 헐다고.

103052 @ 그른 비 와난 다음 갈아마씨?

103052 #1 비가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므르게 갈아 가지고 헛별 맞인 밭은, 비가 많이 왕 밭을 갈아도 밭이 흠이 사라사락허여. 사라사락허니까 너무 많이 온 때민 아니헤영 흐쉴 물빠질만 행 가면은 밭을 갈아 논 데는 부각부각허여. 겐 뜬밭모양으로 검은 것 신 거 모양으로 그냥 ㄱ저당 꺾꺾 꺾르민 싹싹 들어가.

103052 @ 날씨나 이런 거 중요허구나예. 글갱이 어시도 꺾꺾 꺾렁 들어간다는 거다예? 김매기는 흐 번허고

103052 #5 게 ㄱ사추록 때 낫당, 비어그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지 밭갈앙 따시 이제 그거 현 사람은

103052 #6 영 감재 이제 쪽 갈민, 영 손으로 팡, 그레 감젯줄 탁 낵, 영 허우자 청, 깐깐 누룻명.

103052 #5 겐 멧말지기씩,

103052 #6 겐 두루눅전 그냥 지두는 책만 현 사람은 다 죽어불언 안삼니다. 쪽 잘 싱거야 꺾꺾허게

103052 #5 겐 상호어명 저디 육지사덜 오랏관데 원 어명사 행 싱건디 반장 베퉼려보난 “아이고 무싱거 싱그미파?” 돌아반 “이거 무싱거 싱그미파 이거 다 살아집니켄”정허명,

103052 #6 거 싱경으네 그 위로 이디저디 싱경으네 그 위로 밋밋 넘어가난 글릉으로 몬딱 혁은 걸어져부난, 다 파져부러주기.

103052 #5 경허난 그 해에 그 사람덜 다 망해실거라. 감재 원 안 웨언게. 웨질

안허연게 그때에,

103053 @ 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53 #1 그거 흔 번 정도 매면 뭘허고 경해서 옛날은 풀의 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해서.

103054 @ 고구마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다?

103054 #1 옛날에는 재완지 뭐 했는디, 진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디 요지금 진풀재와서 못살아. 제초제 해서 크기 전이 드르 잡당 봐도 나는 건 그놈의 검질, 옛날에는 그 검질이 그렇게 없었는데.

103054 @ 어어, 요즘은예.

103054 #5 것도 재완지. 재완지가 제일 한거.

103054 #4 밧디 나는 거사 다 나누게.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줄베기, 파기 등)

103055 #1 고구마 수확은 줄, 옛날에는 그 많이 경작을 안허니까, 주로 식량이 주게 식량, 주로 식량이니까 구덩이 파가지고 늘어.

103055 @ 줄을 뽑니까 먼저 ?

103055 #1 호미로 베어. 호미로 베어서 영허고 뒤에서 쇠시랑 끝은 거나 이제 영해영 쪽 그차가면은 호호 헤여그네 영 등겨주면은 그디서 영도 허고 손으로 주우고, 옛날에사 장갑찌는 법이 어디서? 장갑어시 그냥 맨손으로 그냥 행으네 손에 감아정 못 들르민 얼른 씨러지지도 았허고 그자 오랜 공으로 돌 내는 거 영 막 밀영 손도 씻지고 경행허면은 그거 쉼 영 갈아노으민 그거 쳐당 감재구덩이레 바로 놔.

103055 #5 밧 갈양 줄비영, 갈양, 이젠 그 집이 이젠 멧사람 줄음에 조차가명 주시명 메와냥, 다듬양, 이젠 옛날엔 이젠 맥에 담양 이젠 시꺼당 구덩이 팡 놓영, 늘어듬서 이젠 브근브근 늘어듬서 주쟁이 더그고 노람지 둘러그네 헛당 저슬들민 하나하나 파당, 그 트멍으로 파당으네 이젠, 무싱거 솥양도 먹고, 게 솥양 먹는 게 핫주기.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감젓눌)

103056 #1 바로 낱 그거 영 행 봉했당으네 느람지 들르고 주쟁이도 영 주쟁이라고 해여 우이 썩우는 건. 주쟁이 영 트라지게 허여. 공기 나가게. 너미 드시면은 더웁 썩고 더웁 썩고, 너미 추워도 추웁 썩고 허니까 ,이게 짐작으로 영 허민 날이 좋은 때는 영 열고, 추운 때는 조금 더꺼주고,

103056 @ 땅 팡 주쟁이 영.

103056 #1 땅 팡 해가지고 땅 우에도 요렇게 늘 요렇게 느람지라고 해서 새로 엮은 거 영

103056 @ 마당구석에마씨?

103056 #1 마당구석에가 아니고 우영밧디 흐쫄 드신디. 드신디 영 썩풍쳐지듯이 영 흐곡 땅 짚은디 게서 일미터 짚이 파져야 경행 뭘허고 . 또 관리가 심허여. 눈이 팍 오라가지고 이거 탁 썩우면 눈소곱인 그렇게 뜨셔. 게 눈 오라냥 눈이 많이 오

랑 뭐해가면 이 눈을 자꾸 걷어자청 느낌지 나오게.

103056 @ 계난 이제 딱뚫힌디서 놔둬야 썩지 않헌텐 해영 집 속에 놔뒀던 거 닳아 할누니느 매일.

103056 #1 집에도 이제 चु지도 않히고 덤지도 않히고 헌디 감저를 해영 집안에 우리도 씨 헐거 쪼끔 방에 나두는디 영 헌 옷 같은 거 영 행 더경 영 행 허면은 약간 초근허듯 허면은 이제 저장이 잘 되고 므르듯해서 몰라도 썩어붙어, 너무 건조해도 썩어 붙고,

103056 @ 고구마는 감저눌해서 보관한다는거다예 ?감저눌

103056 #1 예.

103056 #5 놀, 놀, 구멍이 파서, 땅을 파서, 둥그락케 팡 보공 옆으로,

103056 #4 굴, 굴 팡,

103056 #5 막 굴 파듯 둥그락하게 동글락하게 팡, 그레 요 옆으로 보곡 문딱 어욱으로 보곡 낱 그레 으저다 논 감재줄이랑 슝빠 ㄱ득영 낱 이젠 혁 지치명 너르게 행 이젠 슝빠 혁 지쳐노민 우트렌 다시 느낌지 둘렁 그 원단에 주쟁이 썩왕 경행 낫당, 파단 그 우으로 느낌지 아사똥 몰아똥그네,

103056 #4 잘못허민 썩어 붙고,

103056 #5 우리 씨아바님은양, 뵤려도 거 잘헨게. 담더레 놀민양

103056 #6 드시믄 안 썩어 드시민

103056 #5 우로 파지 아니 행 굽우로 팡데다. 땅곰으로, 땅곰으로만 북북 팡, 경허멍 팡데다.

103056 #4 브름들카부덴,

103056 #5 원 어떻헌 구분사 햄신지 경 잘헨게.

103056 @ 감젯눌예? 우에 주쟁이 더끄고,

103056 #5 느낌지 썩왕 주쟁이 더꺼,

103056 @ 느낌지 썩왕, 느낌지

103056 #5 느낌지 에긴거 낱양 더경으네 우트레 다시 주쟁이 썩왕, 경행 놔두민

103056 @ 느낌지는 옆에 꺼고 꼭대기는 주쟁이로구나예. 완전 많이 다르구나

103056 #5 예. 경해그네 보관허는 거, 그거 완전 보관허는 거.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절간고구마, 씨고구마 등) 절간 고구마, 씨고구마로는 빼대기?

103057 #1 감제 빼대기는 정부에서 빼대기를 해서 받아가겠다고 해사 허는 거 주 경안하면 빼대기를 허지 안허여.

103057 @ 언제쯤 빼대기헨데가? 절간?

103057 #1 빼대기는 혈때는 감저 수확하면서 처음에는 출비어당 출그루에 가져다 놔가지고 썰어서 이제 허대졌는데, 나중에주게 막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멧클 가마니씩 받을 때는. 계난 한참 그 절간고구마를 해서 멧백가마니씩 고산 근방 곶은 요 삼사백, 오육백가마니ㄱ장 헌 사람덜도 그 밧디서 갈아가지고 그

बाटै서 썰영 널엇으니.

103057 @ 겐 그 옛날에 일제시대 녀영 빼대기가 있었던거지예? 삼춘 멧살때쫘?

103057 #1 이 일제시대에는 정부에서 헌텐해도 그 뉘 어땡것산디 모르는다 그 때는 절간으로 쫘금 해서 받았는다 그 돈으로사 받았는지 소수야 메사름해서 다 일반적으로 허지 안허고, 일반적으로 4.3사건직후로 여기에 와가지고 절간해서 일제 솟구워서 모슬포장 풀고, 장작은 한림 강 풀고 ,주로 일부는 모슬포 군인덜안티도 풀고, 군인가족 장작도 해서 뉘나무도 풀고, 겨우 거기서 이제는 쫘 흐김 사가지고 와서 해서 흐곡 와서 누룩낭이라고 해서 누룩낭 불리 파서 즈베기도 행 먹고 수제비, 이제 어려운 사람은 강제전분주시, 그 당시 강제전분주시 구십프로, 구십프로는 마을에서 청수 저시 구십프로는 강제주시 안먹은 사람이 어서. 그거 해서 주먹만씩 지붕 꼭대기나 담 같은데나 이렇게 이렇게 놔뉘. 놔두면은 게스가 독허거든. 게니까 비오고 바람 불고 이제 밤에 이슬 맞고 허면은 그 게스가 증발해부러. 증발해도 내가 쫘금 나는데 그걸 먹고 살았으니 그걸 먹고 사니까 뉘가죽이 늘어나가지고 가죽이 이제 종이짱ㄱ치 알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살기가 좋다가 보니까 전부 뉘가죽이 두껍고 문딱 그것도 혈압이라 비만에 걱정허는 세상이 돌아와서. 이런 세상 돌아올 거 누가 알아서.

103057 @ 게난마씨. 좋은 세상 불평불만이 많고, 점점 그런 것도 있고예? 겨문 이 고구마가 삼춘 어렸을 적부터 고구마가 이섯수과?

103057 #1 우리 어렸을 때에는 토종고구마 토종고구마는 맛은 좋은데 수확이 아주 작아. 요즘은 기술시대로난,

103057 #5 솟양 먹는 게 주로주게.

103057 #4 에이고 복삭 속아노난 감자가 주작이라.

103057 #6 주로 양식으로 먹영 살앗주기에.

103057 #5 그거 솟양 먹고, 콩국이나 끓인 사람은 거 잘 해논거고, 장국 끓영으네 느멸 드르느멸캐당 낱 장국 끓영으네.

103057 #6 ㄱ세느멸 캐당,

103057 #5 그거 낱으네 국 끓영 그거 먹으면, 입이 츠락츠락헤여.

103057 #4 아이고 거 4.3 스건 때, 일본시대에 강제 어시민 못 살아. 비료어시 난,

103058 @ 지실보다 4.3 사건때 강제지예?

103057 #6 응. 지실은 서러레 많이 낱수다게.

103057 @ 이렌 별로고예.

103057 #6 안덕면더레,

103057 @ 게민 절간고구마 빼대기 했수과 여기.

103057 #5 아이고 빼대기 오족 했수과? 이레.

103057 #4 아이고 빼대기, 허당도 버쫘지.

103057 @ 어땡 했수과? 건 어디서 받기 시작했수과?

103057 #5 이추록 밑에서 이젠 반양허민 조합에서 오랑 문딱 검사허영, 경헨 따시 차로 문딱 시경, 경헨 하나하나 다 시경으네 다시 보관허는데 어디 저 신창 조합에서 감신지, 어디사 감신디 어디사 강 데멤신디 경헨허난 그건 아멩해도 어디 술 공장에 가는거 곶아. 이녁 생각엔,

103057 @ 빼대기 어디 막 지붕우에도 널고,

103057 #5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밧 옛날엔 처음에는 절간 행 썰민, 그거 담아 다 낱 출베어난 출그루에 출왓디 쉼퍽이젠 출왓디 뿌리단, 말제에는 밧 간 밧, 그 밧 갈양으네 그 밧디서 썰언 그레 노난 그게 더 좋안게.

103057 #4 겨난 조팠디 모난 철에.

103057 #5 경 모전디게 저네다보난 그기가 크기 부작으로 경 헤신지 말젠 그냥 썰영 널어도 너미나 잘 므르고 경허는 걸 경,

103057 #4 게민 주심이 힘들주게 주심이.

103057 @ 멧명이 햇수과 이런 거?

103057 #5 아이고 요라이 햇수다. 멧명사 헤져신지, 요라이 해서.

103057 @ 고구마는 다 심엇잖다예 다털예?

103057 #5 예. 뭐 백가맹이여, 뭐 백오십가맹이여, 이백가맹이여 허젠허민 스몫 야개가 다 그쳐정,

103057 #6 감재를 헛고게.

103057 #5 하나하나 다.

103057 #6 비오람직허민 밤이 다 주섯주. 애기덜도 다 이녁.

103057 #5 창곰은 창곰대로 줍고 말제 피죽은 피죽대로 줍고허멍 경허멍 해당 풀양.

103057 #6 그때까지 헛주.

103057 @ 4.3때 멧슬때썸 햇수과? 삼촌네는,

103057 #5 아이고 나 그때가 열두어슬 돼신가? 일본시국예.

103057 #4 오래해서 멧탱이

103057 #5 아니, 저 4.3스건,

103057 #6 4.3스건은 열다섯꺄장,

103057 #5 난 열다섯 안 난, 열두어슬

103057 #6 열식슬 열두슬꺄지

103057 #5 예.그때 나서. 그때 경헨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58 #1 고구마 줄기는 거 쉼양석이주기

103058 @ 것도 쉼예 돼지도 주곡예?

103058 #1 고구마 줄기는 돼지는 안허고 소, 농사줄거리는 뭐던지 다 소.

103058 @ 소예.

103058 #5 그건 물리와근 쉼퍽이고, 묶어당,

103058 #4 쉼 어신 사람은 불도 습고게,

103058 @ 불도 습고예?

103058 #6 쉼 있는 사람 쫓수다. 많이, 일 빌영 허젠,

103058 @ 놀도 놀어마시?

103058 #5 예, 아이고 놀고 말고 감젓줄놀민 2층만씩 놀어.

103058 @ 동글락허게 말앙?

103058 #5 빙빙 느람지로 다시 문딱 더경, 우로 다시 주쟁이 더경, 그 우인 즐
냥 줄로 더끄곡.

103058 @ 빠젠허민 하나씩 한뭉음씩 속속 허켜예?

103058 #5 묶영 문딱 묶은거난 뱅뱅 문다 묶은 거난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구마 막 큰
결 파났거나 감자덩구리 주서 먹어난 거,이런 거 어렸을 때, 씨감자를 흙청 먹었던
가 재미난 얘기 엿수과?

103059 #1 그거는 그 가끔 눅으거 도둑질해서 먹은 사람은 이서 가지고 점 찍
어서 그 자손대까지 오다가 보니까 다음세대에도 손검은 것이 나더라고, 이게 유전
성인 모양이라. 게니까 옛날에다가 돌아가신 분 거니리왕상허고 이권 아주 눅으거
흙쳐먹는다는 것이 도적질 뒷에 드는 것은 아주 거 나쁜 것이라. 우리동네 그런 뒷
이 있는데 즈손이 그렇게 허고 이서. 지금은 그 허던 사람이 떠나 버렸는데 옛날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도둑질도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되어. 감재를 한 집에 늘
어서 해 놔뒷는데 눈이 폭 오랏어. 눈이 폭 오랏는디 그때 추우니까 조용헌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가서 팡 ㅁ져 가불엇단 말이며. 간 ㅁ져가불어서 팡 ㅁ져가불어
서 아침에는 눈을 치우라고 간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거든 빼 먹엇어. 빼 먹은 거
보니까 한집에 발자국이 짝 이섯거든. 그러니 이제는 동네사람 멧사람을 해서 이러
게 뒷으니까 나혼자 가긴 뒷허니까 우리 다덜 동조해서 가서 보자 가보니까 곱져부
니까 안 보여. 안방이라고 헌디가 창고라. 일년 먹을 양식을 놔두는 창곤디 창고 속
에 들어서 안에 항 속에 담양 두경을 탁 닫아부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항
속에 두경을 탁 닫아부니까 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는데 다음 아들 세대에도 그
손 검은 것을 하더라고. 게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건디가 오래뒷주마는 얼굴은 알아
지는 분인디.

103059 @ 그제 감재 파 먹당 감자 먹당 버려분 밧에 콩다리들 헤먹으레 어렸을
때?

103059 #1 아 그때는 그거는 이삭 줍는다고 거.

103059 @ 이삭 줍는다고, 거?

103059 #1 이석주서다가 뒷 허면은 그런 거는 주로 사람이 먹젠 앓허고 돼지
곶은 거 먹으면은 돼지가 살찌주게. 살찌니까.

103059 @ 돼지 이삭 줍는덴 허는구나.

103059 #1 그런 거를 이제 반 썩는 거라든 가다가 못 봐가지고 비가 오라나면

은 어디서 조금 보이면은 파나 그거라 이석줍는다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주서다 먹고, 여유있는 사람은 주서다가 돼지도 맥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삶아 가지고 술을 해여 술. 술을 해가지고 허면은 그 저 고소리해서 닭으주게. 누룩낭해서 게민 그 그때는 그 뭔가 그 약이 있더라고 티우는 약이. 그런 거 해서 삶아서 약 버무려서 탁 가마니 더껴 놔두면은 곰팡이 피면은 그거 이제 누룩 놔가지고 또 그 술 닭아 허면은 한참은 감재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당시 그냥 그 세무서에서 막 나와서 조사 다니고 뭐허면은 경헨는디 요즘 4.3 사건 후제 감자술 많이 먹었는데, 한참은 그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장염이 한참 유행이 돼서. 간장염 수술 헌 사람 뭐 엄청나게 많았주기. 썩은 감재술 먹어가지고 간장염 걸린 그거 먹어서그 수술해서 여러 사람 죽어 버렸어.그 수술해서 배 그릇난 사람 혼 멧 사람 이서.

103059 #5 아니 범벅은 혼어시 안헿 먹고, 감재 그자 삶앙 먹는 게 하. 썰렁 밥에.

103059 #6 감재술 곶아당 떡도 헿 먹고, 개역도 헿 먹엇수다.

103059 #4 즈베기여, 감재 즈베기영 무신. 감재 범벅이여.

103059 @ 감재 즈베기.

103059 #6 돌레떡 그걸로,

103059 @ 감재로 돌레떡도?

103059 #6 돌레떡 해먹엇주 많이, 맛이서.

103059 #5 것도 식으민 들지 않허여.

103059 #6 듯듯헌 때.

103059 #5 곤 헿뎨 질긋질긋 드는디, 식으민 게삭게삭헌게 경 맛이 업서.

103059 #6 베고픈 때 영 강 왕, 어디 드르에 강 오랑 영 혼나썩 먹어봐 오죽 드느냐.

103059 #5 이제라도 헿 막 들암직은 안허여. 생각헤보난,

103059 #6 이젠 입이 실프난,

103059 #5 하도 먹언 경헤진 생이라.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0 #1 이디는 원예농사는 안허여예

103060 #5 이젠 수박은 그자 먹젠 멧개 싱그난 헿주,

103060 #4 수박 곶은 거 이레 하영 안헿난,

103060 #5 멧개 사단 이넉 먹젠 싱그는 거배끼 그런 건 안허여.

103061 @ 참외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1 #5 춤웨도 이넉 먹는 거 풀진 안허고

103062 @ 고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2 #1 고추 농사 그런 거 잘 안허는디 어느정도 저지는 조금 허는데 여기

에는 그런 농사는 안하고 요지금 유행되는 마늘이나 마늘도 이제는대부분 설러 버리고 쪼금 허는 사람덜 있고.

103062 #5 고추도 상 먹엉 뗏개 안하고, 그쟈 임시 뗏개 싱경으네 그쟈,

103062 #6 싱그는 사람은 하영 싱경 폼네다.

103062 #5 풀고친 먹젠 흥쓸 싱검지,

103063@ 배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3 #5 배추 농사도 흥는 사람은 흥고 ,안흥는 사람은 상 먹고,

103064 @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4 #5 늣뵀 바로 그거 상 먹어,

103065 @ 감자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5 #5 감자도 그거, 지실도 상 먹고,

103066 @ 피 농사도 안하고예?

103066 #1 피 농사 안허여.

103067 @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7 #1 메밀 농사는 가끔 이쟈 쪼금씩 허거든.

103067 @ 메밀은 언제 씨 뿌릅니까?

103067 #1 메밀씨는 어느제 뿌리는ㄴ허니까니 백중 칠월 보름 ㄴ리가 그 백중 이라고 허지 안헙니까?

103067 @ 예.

103067 #1 그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비만 오랏다고 허면은 메밀씨는 파종을 헙니다. 거 제일 늦게 파종허는 농사지예.

103067 @ 무사 제일 늦게 파종을 헙신고예?

103067 #1 무사산디 그거 농사는 시기적으로 메밀은 제일 늦게,

103067 @ 메밀은 수확은 또 겨울들겿다예? 가을?

103067 #1 예.

103067 @ 메밀은 냄새가 남니까? 빨강헙니까?

103067 #1 하얗치예.

103067 @ 꽃은 하얗고?

103067 #1 꽃은 하얗고, 알맹이는 꺾시롱허고,

103067 @꺾시롱허고예?

103067 #1 알맹이는 검은 거는 잘 된 거, 노린 거는 덜된 거.

103067 @ 아아 게민 이것도 비어서 도깨질해마씨 뭐해마씨?

103067 #1 예. 옛날은 도깨로 때려서예. 도깨로 때리는데 요지금은 탈곡기로 때려.

103067 @ 이거를 꺾데기는 어떻 베껴마씨?

103067 #1 옛날에는 ㄴ레에 그 ㄴ레에 허면은 그 ㄴ레착 아래엔 나무가 요렇게 박양 있거든.

103067 @ 그걸 뭐렌 험니까? 나무 이름?

103067 # 나무 그 저 가지냥 같은 거 춤나무이름

103067 @ 이름? 저 월령에서는 좃둥이여,

103067 #1 옷착에는 그망이 영 있으면 이렇게 해서 허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메밀농사할때는 이 속에다 흰벽이나 딱 놔가지고 딱 붙으지 안허게 공굴굴 굴해야 이게 돌아가면은 살살살살 그레굴듯 그루허듯이 허듯이 우알착이 돌면은 안돼니까, 우알착이 요리 자울 허면은 모멸이 이제 별러져. 별러지면은 그거를 또 이제 저 푸는채로 쳐서 껍데기는 날라가고, 이제 쓸을 쳐가지고 쌀은 쌀 빠지면은 껍데기 너무 굵으니까 우에 뜬 건 다시 놔서 또 그레에서 이렇게 돌리고.

103067 @ 모멸예? 켜 모멸떡이랑 이런 거 많이 했었지예 여기서예?

103067 #1 모멸떡은 뭔가 그 경사때에 그런 때에 뭘 허고 거기 해난 저 하썰, 합하썰이라고 해서 논쟁이라고 해서 그걸 범벅해서 껍데기도 곱아지면은 가루허고 구분 못허는 거 구분을 할 수가 어서. 껌시근 현 거 논쟁이 범벅이라고 해가지고 범벅해서 먹어나서, 그것도 좋다고. 하하

103067 #6 이딘 그런 거 안허여 저 대정더레 허주.

103067 @ 모멸?

103067 #6 쪼금씩쪼금씩 우리 먹을 것만 허여.

103067 @모멸은 옛날에 많이 하지 안했수과?

103067 #6 저 화순더레 저 감산창천리레 모멸을 서광에서 마흐나문섬씩 했주마는, 나도 그레 친정이난,

103067 @ 창천리 많이 헛텐 햅디다예.

103067 #6 예. 나도 그레 친정이난 알아.

103067 #5 그디가 뜬땅이니까 모멸농사를 잘허는 쟁이라.

103067 #6 그레 모멸 설나문섬 마흐나문섬

103067 #5 창천, 감상리,

103067 #4 옛날 득리 송당더렌 모멸촌,

103067 #5 옛날 밥허믄 모인덴 뜬밭이니까 안웬덴

103067 #4 뜬밭이니까 안돼 안돼.

103067 #5 모멸덜 뜬밭이니까

103067 #6 피방애 득리송당 .

103067 #5 득리송당 큰애기 피방애 쪼는 소리

103067 @아, 건 어디 남방애소리로 나옴니까?

103067 #6 범벅범벅 모멸범벅, 창감산의 모멸범벅

103067 #5 창감산의

103067 @ 창감산은 뭐짜?

103067 #5 그레 뜬땅이난 창감산 고향,

103067 @ 창천리허고 감산허고 모을이름,

103067 #5 건 밭을 이름,
 103067 @ 무신범벅?
 103067 #6 밭벌범벅
 103067 @ 창감산 뜬 범벅?
 103067 #6 밭벌범벅 창감산의 밭벌범벅 드리송당 피 범벅, 드리송당 큰애기덜
 피범벅,
 103067 #5 피방애 찢는 소리
 103067 #4 피방애, 피방애, 피, 그딤 혁이 식으니까,
 103067 #6 창감산의 밭벌범벅 노래 싯수게게?
 103067 @ 게 밭벌 농사는 어떻습니까 밭벌 농사?
 103067 #6 밭벌 농사는,
 103067 #4 지일 나중에.
 103067 #6 옛날은 저 재, 불 습아 난 재 그거 다 메와그네 막 섞언
 103067 #5 오줌이나 비와농곡 헨,
 103067 #6 서꺼근에 이제 툭툭툭툭 줍아놔. 경 이디추룩 같지 안헨,
 103067 #5 이제들은 빼엥들 잘도,
 103067 #6 옛날은 경 툭툭 줍아놔, 야 그 밭벌 그 재 날르젠허믄 아이고 그 밧
 이 혼 스무나문섬 노는 밧이주기게. 워낙 킨 이디 사민 저 멩에 바리지도 못허는디
 그걸 날라 날르렌 그 재, 경헨 여러이 나르는디 그 혼자 날라집니까 재게 막 날
 르렌 “도르라 도르라” 하하하하 경허멍 나 얼메겨나서
 103067 #5 아이고 옛날 사는 것사, 옛날 사는 것사.
 103067 #4 춤 목숨 살으난 살앗주.
 103067 #6 경허믄 그디 밭벌 멧사람 허는 거 이 두드려난 도깨 텐 탁 지와보믄
 은 올해 멧섬 헨겘 알아.
 103067 #4 원체 밭벌ㄴ단이게.
 103067 #6 밭벌은 원체 만헌 세마 혼섬씩,백섬씩 허는 집서 백섬씩,
 103067 #5 저 산업도로로 가멍 보난 밭벌밧 하영 바전게.
 103067 #6 경 헨거우다. 저 광평더레 경 하영 가난
 103067 @ 무사 밭벌은 제일 늦게 가는 농사가 웨어신고예?
 103067 #5 다른 농사 안웨민 그거 가는거라.
 103067 #6 풋도 하영 갑네다 풋, 풋도 막 하영 같아. 저 광평더레
 103067 @ 모멸은 뭇 행 먹어마씨?
 103067 #5 게 굿사 곶양 논쟁이 ㄴ루혜영 범벅도 혜영 먹고, 쓸은 강 풀고 거
 돈나는 거렌, 모멸허영 떡혜영그네 곶양 식께명절에 중디약게허고, 세미허곡 그런
 거 해주.
 103067 #6 그거 복삭 늬삐 썰어그네 그 혜양헌 ㄴ루곶아당 늬삐에 썰영, 섞영
 ㄴ루에 섞영양 침떡허민양, 이 근떡보다 완전 맛죵니다,

103067 #5 그렇게 맛좋아, ㅋ싱헌게
 103067 #6 그건 흔 사람이 흔 빗씩 먹어.
 103067 @ 맛이성? 흐랑흐랑?
 103067 #5 늪빼 낱 먹어도 부담 안가고,
 103067 #4 징기가 어선게,
 103067 #6 경허난 하영 먹어지는거주기게.
 103067 @ 빙떡같이예?
 103067 #6 빙떡도 많이 허곡
 103067 @ ㅁ멸채는 뭘로 써마씨? 비게
 103067 #5 베게, 옛날은 거 베게만,
 103067 #6 베게로 장에 강 막 풀아 강,
 103067 @ ㅁ멸채로 베게허고예. 그믐 ㅁ멸 이런 거, 대, ㅁ멸대론 그런것들은
 뭐해마씨?
 103067 #6 그디 저 옷드리 물 먹입네다 물.
 103067 #4 불도 습고게.
 103067 #6 불은 안 습아.
 103067 #5 ㅁ멸낭 습아난 재혜영으네 옛날은 빙도 없고 현 때난 ㅁ멸낭 습아난
 재로허영 옷덜, 소게바지 저고리 튜영 부병, 술양, 그게 어이구,
 103067 #6 ㅁ멸낭 습아난 재허영 부비고, 숯혜영 부비고 그 잔치집이 도세기궤
 기 혜양허렌 그거 맥여나서 완전 옛날에,
 103067 #5 저 숯ㄱ루레 혜영으네 다시 무싱거옌 흐느니? 조 곶아냥으네 그
 103067 #6 그거 맥영 ㅁ멸 ㄱ루, ㅁ멸 곶아놓고, 저 숯 곶아놓고, 그 ㅁ멸체혜영
 쉼영 맥이민 궤기가 혜양,
 103067 #5 겐 오래 질룰 도세긴 경 못헌덴헨게.
 103067 #6 ㄱ 잡아먹을거, 흔 들내에 잡아먹을 거,
 103067 #5 그것도 너미 먹으민 못전디는 모냐인생이라.
 103067 @신기허다예.
 103067 #6 완전 옛날게, 우리 나 여나믄술에, 여나믄술에 우리 웨할아부지 광평
 살명 쉼 물 막 하영 헨, 흔 이백ㅁ리 질루왓수다, 겨난 양훈장 저렇게 행 살렌 양
 방송 드럿 드럿 전이 나낫수다. 경허민 쉼 물헨 풀민, 저 강정드르에 강 덴 노름만
 경 하영 혜연, 우리 어머니도 물 스무개ㄱ장 물러와낫ㄱ렌 험니다.
 103067 #5 부잔 부자여서. 딸을 물을 스무개씩 물려주난 부잔 부잔게.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이제는 소,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2 @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털 색깔, 뿔 모양 등)

104002 #1 쉼의 종류는 새 세상 나니까 미국 브라마털이 올라가지고 흰쇠여 검은 쇠여 올라가지고 잡종털이 그 전에는 순 토종이니까.

104002 @ 털색깔 뿔모양?

104002 #1 쉼 색깔은 주로 노랑쉼을 좋아하고 그 검은 쉼 노랑쉼, 저 또 속쇠 노랑쉼면서도 이 검은 종으로 뿔고 화초그린 거 모양으로 불긋불긋 괴약시럽게 석쇠는 끈조가 또 있다고 하여. (허허허)

104002 #5 손계 그자 드르에 저 드르에 강으네 풀 맥이고, 물양 텅기멍 풀 맥이고, 줄 매고 다시 어두우민 강 몰아당으네 물맥영 몰아당 쉼 막에 매영, 출 빵 주고 경

104002 #6 여름엔 밧디 강 놓곡, 저슬들민 출 해당 조쪽도 맥이고, 출 베어당 놀영낫당 집이 매고 경했수다게.

104002 @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털 색깔, 뿔 모양에 따라서 소의 종류가 잇수과? 털 색깔 이름 뿔 모양에 따라서.

104002 #3 응. 얼룩송아지렌 현 건 알거고.

104002 @ 무신 색깔마씨?

104002 #3 누렁이에도 허고 황소엔도 허고 검은 쇠 황소 제일 무신 쇠색깔은 그 저 속쇠.

104002 @ 누렁현 거, 속쇠?

104002 #3 저 속쇠엔 우리말로 속쇠엔 했는데 그게.

104002 @ 무신 색깔마씨?

104002 #3 그게 이 저 노랑건디 검시그롱 터럭 하나씩 박아진 거. 그게 이제는 그 옛날엔 속쇠허민 저거 아주 몹쓸놈의 쇠렌 해난디 지금은 완전 최상위라마씨. 고기가 경 맛좋다고 허대.

104002 @ 이제 없잖아예?

104002 #3 아니 지금도 이서마씨. 육지엔가 제주돈가 어딘가 혼 번 텔레비전로 본 거.

104002 @ 속쇠 뿌에 따라가지고예.

104002 #3 그전에 이디 토종허곡 부라마 들어오고 아이고 그건 기억 못허켜. 부라마 들어오고 또 저저저저 것그라 뭐엔 헛져마는.

104002 #5 얼룩쉼.

104002 #4 검은쉼.

104002 #6 검은쉼, 누런쉼,

104002 @ 누렁쉐,
 104002 #6 속쉐.
 104002 @ 속쉐는 뭇파?
 104002 #5 속쉐가 지일 폐랍는생이라.
 104002 #6 속췌 저 빨그룽헌 터럭에 검은 터럭에 흰 터럭에 섞어정, 독허게만 생긴 거.
 104002 #5 막 독허여, 그런 속쉐가 독허여.
 104002 #4 이젠 검은 췌도 엇고, 속췌도 엇고,
 104002 #5 텔레비전에 보난에 검은 췌 막 나오는 거 십데다.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 #1 소는 길루는 거는 여름에는 목장에 놓고, 겨울에는 집이 마곳간에 매고 소를 많이 허는 사람은 이제 목장에 야우라고 해서 놓고, 눈이 많이 와서 추운때는 소 먹을 풀을 저다가 주인이 올르면은 소가 알아들어서 어디 강 사람신디레와. 눈 위의 줌 출 얼마간 풀어주민은 그거 먹고, 겨울에는 고생해서 털도 막 추위만 타니까 허열게 막 지치고 봄나면 살찌고.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밧 갈 때?
 104003 #1 소는 이용허는 거는 밧 갈고, 짐 저들이고, 똥 싸는 거는 퇴비로 이용허고.
 104003 #3 소 소 이용허는 거, 그 옛날에는 주로 이디서는 밧갈이로 주로 이용허고 그걸로 마차, 소의 마차, 무슨 저 뭐 그 밧블리는 거 이 블리는 거, 그 소도 여러 가지가 있주. 그 춤 소로 안허는 게 이서마씨. 옛날엔 다 헤십주.
 104003 #5 췌 질황게 밧 곶앙 밧도 사고.
 104003 #6 옛날엔 췌에 질메 많이 시꺼 왓수다. 출왓디 강 시꺼오고, 밧도 갈고,
 104003 #4 옛날이사 췌어시 살아젼수가.
 104003 #6 밧도 블리고 췌 완전 못전디게 굴엇수다게.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소 길들이는 거.
 104004 #1 길들이는 거 코를 꺾가지고, 어 이제는 췌 멩에를 멩에를 썩위가지고 뒤에다가 돌멩이 구멍 뚫버서 드라메가지고 질레에 뎅기멍 허는 사람 있고, 경 안허른 낭 토막, 낭 토막을 헤가지고 검알 강 박앙 밧디 들어강도 밧디 드러 강 빙빙 돌리면은 밧가는 형태로 돌아매가지고 막 해서 수굴수굴 말 잘 들으면은 그때는 밧가는 잠대 돌아매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보고 이끄렌 해근에 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은 이끄지 말렌헤영 그냥 허렌행 밧가는 거 그르치고,
 104004 @ 삼촌도 길들여 났수과 밧 길들여 났수과?
 104004 #1 여러 개 가르쳐서 소는 해서 한 오 육년 이상 되면은 늙어서 또 정리허고 다시 쓸만헌 늙으로 굴라가지고, 가르쳐서 그리고 짐 시끄는 것도 질메지우면은 막 들러퀴니까 저 출 한 못이나 두 못 헤가지고 질메 트멍에 살랑살랑허면은 막 돌아멩기고 허면서 해서 츠츠 질들영 허면은 하영 시끄고, 또 구루마 혈때는 사

람 더 빌었으네 구루마에 행으네 탁허게 딱 잡거니 구루마에 태왕으네 심영 영 한 질에 덩기곡, 돌이나 남이나 영 끄서오랑으네 멩에 썩 등겨나는 줄 알면은 “아 주인이 영 시키는구나” 행 시킨 말 잘 들어.

104004 @ 도저히 말 안들었구나 실패헌 경우도 있수과?

104004 #1 그런 거는 죽어. 에 막 혈 때 어떻게 허느냐허면은 들어줘도 일어나 질 안허거든. 막 뭉 부려서 주인보고 “죽여라 죽어도 좋다!” 허는 식으로 안만 때려도 일어나지를 안허여. 어디 낫선 사람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이 놈의 소 그냥 돌로 지들황 놔두민 일어나겠지 해서 즈꿏디 돌 지들황 놔두니까 집이 오랑 강 보니까 죽어버렸어.

104004 @ 쓸모가 없는거주기게.

104004 #1 게난 소가 잇당 보민은 지독헌 게 있어. 가르켰는데 쉽게 말을 잘듣는 소가 잇고, 곤조 옆이만 가가민 곤조만 부리젠만 허고, 발로도 차불젠 허고, 반아불젠만 그 놈의 성질은 사람이나 동물은 자기 타고난 성질은 변함이 없어. 게니까 그 몰방애 발질을 막 사름 뒤 차버린 사람은 몰방애 거꾸로 이렇게 때어사민 이렇게 돌아간거거든. 몽똥이로 툭 뒷발을 건드리민 탁 이걸 차고, 툭 건드리민 이걸 탁 차고 이거 돌이거든. 발토메기가 피가 탁탁 나도 두드리민 찬다는거여. 허허허 허 “이놈의 똥 아프면 안허겠지”해도 그냥 막 차는 수가, 타고 난 성질 버리지 못허는 거.

104004 @ 길들인 소는 또 자기가족보다 더 소중허게?

104004 #1 아이구 구루마에 우리 채와봐도 다음 거기 드리살거로구나 옆으로 가도 탁허게 드러산 바로 딱 상 싯고, 겐디 나도 밧갈소 마지막으로 그 쉼 부리당 뛰허니까 이제 기계화가 돼불고 허니까 소 설러부렀는데, 그 소는 말 안 곶을 뿐이여 곡석밧디 콩 밧이나 태역밧이라 곡석은 까닥 건드리지 았허고 출만 먹어. 그렇게허고 밤이도 옛날에는 큰 질이 아니라. 큰 질이엔 해도 쪼금 죽은 질이었는데 배수로가 영 잇고 해서. 구루마 탁 채와가지고 집이 오랑 거기서 잠이 들어. 젊은 때니까, 쉼가 가질 안허는거라. “식”해가지고 이제 쉼가 “식”허면은 움쩍해서도 ㄱ만이 사. 보민 마당에 와 이서. 질 옆에 ㄱ랑착에 빠지는 법이 어서. 딱 중심으로만 펠소에는 질 난디로 가는데 구름나 채우면은 안 가는 뵈이 양 바퀴가는 일이 어서. 딱 정직허게 그 소는 아까운 소 풀아부렀는데 늙은 소도 늙으면 머리가 허양해부러 검은 쉼디.

104004 @ 아이구 경허민 다 고기로 가는 거잖아예?

104004 #1 그 소는 새끼도 잘 낫고, 일도 잘헤주고, 멀리 가지 안해서 딱 길거리에서도 먹는 스방만 덩기고,

104004 @ 삼촌은 소의 이름도 지어봤수과?

104004 #1 여기서는 소 이름 지으는 법은 엇고 누구던지.

104004 @ 겐디 자기가 키우는 소 잡아먹고 이러진 안헛구나예? 풀기는 풀아도?

104004 #1 가끔 그런 사람덜이 잇긴 잇주만은 자기 집에서 우리 성질엔 안돼여.

풀아버리민 다른디 가서 춤 잡던지 뭐허던지 소는 다 사람 밥으로 태어난거니까 다 잡아먹긴 잡아 먹는데, 내가 그렇게 일 헐라고 허면은 곡식도 숯아서 그냥 맥이고, 일을 그렇게 해주고 허던 것을 풀아불민 풀주, 난 집에서 잡아 먹는 것은 싫어.

104004 @ 아이구 자식만큼 그런 것들이 있구나예? 소 길들이는 게 여기 청수리 분들 중에는 여러 명 다 잘 길들여마씨? 경행 막,

104004 #1 전문적으로 그 말양 허는 사람도 이서. 경허곡 이녁냥으로 헐 수 있는 사람은 늠이건 안하고 이녁냥으로 이녁소를 허젠 허는 것도 있고 허는데 남을 빌어서 해서 성질이나 나면은 소가 너무 얼뭅여버리는 수도 있고 허니까, 주인이 자기대로 훈련을 가르키고 싶은 사람은 자기대로 허고, 못허는 사람은 그 뭐하나 연장이 상회에서도 자기대로 고치지 못허고 허는 사람은 늠 빌어서 해가지고, 이자 길들영 일당주고,

104004 @ 삼촌, 늠이건 안해보고 자기소만 헐수과?

104004 #1 예. 나는 처남이 즈꿏디 있으니까 힘이 좋은 뭐가 있으니까니 그 와서 손도움 해달라고 해서 나는 늠보다는 소를 좀 뽑아서 헐으니까 만만치를 안헐 주. 나도 춤 그 소로 해서 죽을뻔도 넘어갔는데,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3 아 소 길들이는 건 내가 그 이디서도 여러번 해 주웠주마는 그 야 매로 이디서도 치 박는사람, 우리 어디 덕수 이 사람이 쉼을 그르쳐 주면은 이빨을 박아주켄 허길레 “거 이레 그져오렌” 헐 딱 그져왔는디 하룻만에 그 길을 들여야 되어. 하룻만에 길을 딱 들여놓고, 뒷날은 밋가니까 밋갈아져. 아 요거 이젠 나는 밋 그르치는그 무싱 거 뜯 사람허고 아주 틀려. 뜯 사람덜은 밋을 밋 그르치젠 허면은 헐 열흘 보름 허는디 난 딱 하루 하루 딱 티왕으네 그 날 그 날 멍에 썩왕으네 밋도 갈때가 이섯고, 그 뒷날 당장 티와그네 밋을 밋 그르치는거는 춤 일이라났 주. 계난 거 이빨을 허는 디 그 사람이 사흘만에 “쉐 왕 이경 가시오” “거 뭇 소리냐”고 “쉐 다 그르쳤덴” 허난 “계른 나가 강 밋갈아보켄” 헐 그 사람은 그 거기서 딸딸이 텅 이디 왕으네 쉼 퍽허게 썩와놉 이제 “밋갈아 보렌”허난 “아 제법 졸졸졸 졸 가거든.” 겨난 아 이 사람이 “이거 밋그르치는게 이렇게 쉬운 건가.”겨난 사흘도 막 익숙케 질 그르쳐노난 계난“ 아 이추록 쉬운거로구나”그때 이빨 박았주만 딱 그때 처음에 사흘만에 돈 백만원 이빨 박젠허니까 백 백 멧 야매로 치과에서는 이백 인가 이백 멧십만원 헌디 백 이십 만원인가 백삼십만원 드렌헌 거 쇠그르쳐 준거 그져가난 딱 사흘만에 그 돈 벌어와서 배락돈.

104004 @ 어떻 걸 가르칩디가?소.

104004 #3 멍에 썩왕 멍에 썩와가지고 쉼은 혼변 키우게 되면은 쉼은 그 멧메다 못 가. 이 저 뛰는 말처럼 뛰질 못헤영 멧메다 못강으네 500메다 사이에서 불락 불락 해가민 그자 그 발로 강으네 계난 멍에 썩왕으네 그 조름에 돌을 돌아매나 나무를 돌아맹 했수다. 그 쉼 그 그르치는데는. 경해영 허게되면은 그 멍쓰는 쉼도 있긴 있주마는 갑자기 튀어 겁절에 튀으네 그 뭐헐때가 있는디 그 겁절에 튀어 나

가게 되든, 앞으로 내뺄는 건 쉽고, 이건 뭉 썩 바닥드레 드리눅는 건 이건 뭐 힘이 들고, 이건 어디 그자 혼 오백미터 튀어 내불민 헬렐레 해가민은 빈 밧더레 들어강 으네 고지수정을 세는거라양. 고지수정을 세당 잠대ㄴ져당 떡허게 매영 쟁해영 졸 졸졸졸 해가민 아 이거 될로구나 행으네 나도 새 쉼 ㄴ르쳐가지고 돈 꽤나 벌었수 다. 근데 새송애기 받아그네 그자 하루 키왕으네 밧가는 걸로 폴아먹어으니까 쉼값 허고 꼭 같은 손디 밧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허고는 그때 멧배 차이가 나니까 경 허니까 그제 혼번 돌아다가 탁 돌아뻘다 허면은 이삼일이민 딱 ㄴ르쳐그네 밧가는 걸로 폴아먹었주. 그거는 아니 그거는 춤 특이허게 난 밧을ㄴ르쳐십주.

104004 @ 이거 어떻 누구한테 전수를 해야 되는데?

104004 #3 전수했자 요새 누계가 ㄴ르칠 사람 어디 이서? 이제는 기계로 다다 다다 허는 때문에,

104004 @ 소의 그 생각을 읽고 그런 걸 다 이제,

104004 #3 아니 처음에 헐 때 이거 강 드리눅던가 무싱거 허던가 어시 와당탕 허게 혼꺼번에 튀어야 되어. 경해그네 멧메다 쉼가 폴락폴락해가민 튀어가민 “아이 고 이건 되었구나.” 해여그네 촌촌이 그렇게.

104004 @ 소 와 워 허는 거 다루는 노래가 이섯수과? 이레가 허싯끼 해봅서?

104004 #3 어 그거 이레저레 돌아가라 무싱거 허라 계난 워낙 익숙은 것덜이고 이 서춘서더레는 그걸 말허지 않허고 늙은 하르방덜 밧을 갈젠하민 명에 지레 가근 에 쉼 돌리명 영 잠대ㄴ정 돌아사명 허명 그때 흐쉴 쉬는 소리로 “이 송애기 저 송 애기 ”

104004 @ “워털러러러러”

104004 #3 그건 밧블리는 소리,

104004 @ 밧블리는 소리 게민 “이놈의 쉼야 와어”

104004 #3 옛날 하르방덜 허는 거 그건,

104004 @ 소리 좋아서예? 옛날 하르방덜에게난 쉼덜이 잘잘 따르명

104004 #3 계난 쇠덜이 “오로롤롤롤롤롤”해가민 그 뭉생이덜도 그냥 영 쉼덜도 그자 뭉생이덜은 그 주장 하나만 허민은 이건 꼭 말 알아듣는 거 모양으로 이건 주장 하나만 허민 요레저레 이쎁 땡겨가민 빙빙 돌아땡기고 쇠들은 그제 아니고 야개 기에 걸러 매영 영해그네 이레저레 영 땡기고.

104004 @ 소도 워러러러 헛수과?

104004 #3 이송애기 저 송애기 선장가는다 고불고불 걸어가라 무싱거 영허라 정허라 그건 봉가당 허는거난

104004 @ 게도 그런 말이 중요헌주마씨 말이 몽고에서 왔져 뭘했져 “워러러 러”도 말을 다루명

104004 #3 말을 다루명 와 이펜더레 돌아사라 쇠덜은 말은 “와 워러러러” 그레 사지 말양 요레 돌아사명 이레 오라 “와 워러러러”

104004 @ 신기허여예 옛날 어르신들

104004 #3 쇠 굽은 거는 경 말 안들어마씨. 몰덜은 주인소릴 알아들엉으네 그,
 104004 #6 ㄹ레착 ㄸ성 버릇 ㄹ르쳐.
 104004 @ 하하 ㄹ레착 ㄸ성 허허,
 104004 #5 경안허민 다시 이만헌 낭에 다시 거 말장 박안 그레 췌 무싱거옌 허
 느니 멩에 씨왕 그 멩에레 다시 그레 돌아매영
 104004 #4 췌 불쌍허게 살앗주.
 104004 #5경허옌 췌 허나 죽여낫수게. 저 충훈이 아방,
 104004 #6 건 요자기고게. 옛날
 104004 @ 남자가 길들이지예?
 104004 #5 남자가 몰양 땡기고,
 104004 #6 남자도 아무나 아니 젊은 사람, 경 췌 ㄹ르치는 사람이 십네다. 몰
 ㄹ르치는 사람 췌 ㄹ르치는 사람 따나.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5 #1 소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오촌이 제일 오래 질렀다고 허는디, 스물세
 살까지 스물세살까지 게니까 병만 안들면은 오래 사는디, 여기서 암소는 새끼를 안
 나민 나이 들면 새끼를 못낳거든. 새끼 못나가면은 처분을 헤부리. 풀아부리. 보통
 12살이면은 풀아버리주게. 세 살에서부터 그 밧갈기 시작허민 성질이 좋고 기력이
 좋은 췌는 허 십년 밧갈췌허민 풀아버리고, 경안허민 뫼헌 췌는 허 칠 팔년이면 뉥
 겨버리고 새로 마련허고,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뫼년 삽니까?
 104005 #3 글췌 소나이가 거 경 길지는 앓허지 앓허여.
 104005 @ 끝가지 키와 본적은 없잖아예?
 104005 #3 응 끝ㄸ진 안 키와반 거 여기도 아까 권식이네가 제일 오래 질루긴
 질러낫수다. 그 췌 하나로 그 집이 부자뫼텐 허는 집인디, 그 소가 허 십 허 칠년이
 상 질러실꺼라. 소 나이가 옛날 하르방덜 듣기론 허 그자 스물에서 스물두술에서
 그 나이 더 이상 가질 못해여. 늙뜨도록 살아 허다가
 104005 #5 건 뫼술사ㄸ장 살암신디,
 104005 #6 집이 안 질롭네다. 풀아불영,
 104005 #4 스물ㄸ장 질롤꺼우다. 췌 스물, 들은 서른 경헌텐 험디다.
 104005 @ 췌 스물, 들은 서른
 104005 #5 들이 허췌 잘 뫼안한ㄸ라,
 104005 #6 값 하영 주난 재개 풀아봅니다.
 104005 #5 췌올렛당 낫뫼가민 안나오민 좃이레 땡기고,
 104006 @ 췌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췌기가 잠대?
 104006 #1 잠대옌도 허고 췌기옌도 허고, 처음옌 잡는 것이 양주머리, 이렇게
 딱 잡아서 허는 게 양주머리, 그 다음에 보섭 찢르는 거는 무쿨, 잠대무쿨, 그 다음
 에 큰 거는 잠대성에 진 거, 지러기 진 건 잠대성에, 중간에 이제 와쿠 짠 헌 거는

설진, 그게 영 서 있는 거주게. 아래 영 가고 이거 영허민 이레 영 웬 거니까 이게 설진, 설진, 그 다음에 고망똥랑 영 혼 건 벳 바드랭이, 벳 바드랭이, 이제 또 이제 일로 콧덩이 영 현 건 들벳이빨,

104006 @ 들벳이, 달팽이를 들벳이렌 허는구나예?

104006 #1 예. 응. 들벳이빨이엔 허주게, 들벳이빨 그것에 이제 쉼 명에 현 걸 걸려서 영 등기는거라. 그 다음에는 보섭 찌르고 벳 들르고, 벳 들른 다음에는 벳 틀레 요렇게 찢르는 것이 영 현 것이 벳틀레가 있고, 경허면은 그 잠대에는 명칭이 다 들어간 거.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쟁기가 잠대?

104006 #3 잠대라는 건 쟁기.

104007 @ 그 다음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1 예? 질매? 쉼질매엔 허는디, 질마,

104007 @ 쉼질매예?

104007 #1 질마는 앞에 영 오그라진 나무는 앞가지, 뒤엿거는 뒤에 허면은 공쟁이가 두 개가 있어 공쟁이가 두 개 그렇게 해서 셋냥 양쪽에 두 개허곡, ㄴ는 냥 가운데로 찢렁으네 게거 그 새에는 옛날에는 너덩으로 딱 묶어, 너덩, 고지 가면은 너덩 줄거리가 잇는디 그게 아주 질경 존거라,

104007 @ 신사라보다도 더 질겨마씨? 신사라만큼 질겨마씨?

104007 #1 아이고 옛날에사 신사라도 요 중간에 나온건디, 그 너덩이라고 현 것은 뻗뻗하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꺼죽도 두꺼운디 이거 깨와그네 거죽 베경똥 뭘 허면은 이거는 비가 맞아도 불어나지 안허고, 물라도 데각 ,젓어도 데각, 허는 거니까 그 너덩이 아주 그 좋주게. 꺾테기는 폴도 막 좋고 그걸로 행 딱 묶영 허면은 그 베 걸면은 뒤에 시끌때는 그 베가 그 공쟁이레 강 걸어그네 탁 도메시키는 거주게. 공쟁이가 질매 하나에 두 개가 딱 붙어 잇는 거, 바로 영 현 공쟁이 멩글양 딱허게 딱 베 걸영 벌어지지 않허게.

104007 #3 지르매렌도 허고 질매, 짐 시끄명 썩우는 거.

104008 @ 명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8 #1 명에냥은 항상 부드러운 냥, 여기서는 주로 명에냥을 헐라고 허면은 머구냥, 머구냥이 이제 가뻑고 줌 슬이 무른 냥인디, 쉼야개기에 가니까 야개기가 덜 아파. 게서 머구냥으로 주로 기본은 허고, 그기에다가 줍게, 줍게 두 개를 해서 쉼서 ㄴ망똥랑 명에냥에 고망 두 개 똥랑 윤뉴리로 주로 허거든. 윤뉴리로 줍게 헤가지고 허고 솜비줄이라고 해서 줄은 저 소리 냥 소리냥 깨어가지고 줍지롱허니 새끼 그걸 꼬양 전문으로 허는 사람 삼각드령 상당히 요물게 오래 가거든 경해서 뒤에는 벌레냥해서 콧덩이에는 걸고 벌레 벌렛냥인디 벌렛냥이렌 허고 옛날에는 소가 죽행으네 뒤 들벳이 빨에 걸리는 거 오리목 오리목헤그네 걸면은 성에 끝에 오리목 허면은 딱 묶영 해나신디 중간에 들영 허니가 그런 것을 그 옛날에는 비가맞아도 끊어지지 않허고 불어나지 않허고 질긴 쉼가죽 늙은 쉼가죽해가지고 가운데로 고망

뚝령 영 행 췌영 딱 해가지고 즐마멧주. 밧 갈 때.

104008 @ 지금 잠대 그런 거 집이 없지예. 뱃이.

104008 #1 잠대? 기본은 이서.

104008 @ 멩에?

104008 #1 멩에 멩에도 큰아덜 손비줄도 삭아불고 버려불고, 잠대만 영해서 영 현 거 이것만 이제 창고에 걸어져 이신디 이젠 소용 어서. 뱃이 이선는다 뱃은 밖 거리 어떻행 불나버리니까 카버리니까 뱃도 못 쓰게 되고, 이젠 보섭은 덕수 안덕 면 덕수리에서 보섭제작을 허주게. 보섭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플레 오면은 그 새 당, 그디보고 새당이라고 허는다 믱을 보통 새당보섭이라고 해가지고 괴양 질들이 민은 그거 좋고, 글씨 후제 쇠로다가 이 저 철물점에서 푸는거는 그거 얼마 안 가 고 느실지도 안허여. 새당 보섭이엔 현 거는 칼날ㄴ치 느시라. 여긴 새당보섭을 썼 는데 새당이엔 현 디가 덕수리주게.

104008 @ 예. 불미허는디예. 거기가 주로 플레 오는구나예? 사례 가는 게 아니 고?

104008 #1 예. 플레 오는거.

104008 #3 그 저 밧갈멍 씌우는 것ㄴ라 멩에.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1 청수목장은 공동목장이주게

104009 @ 옛날도 마씨?

104009 #1 예. 옛날에 공동목장이니까 들어가는 코스에 살문이라고 해서 살채기 문, 나무로다가 저 이렇게 짜가지고 더끄고 열고 경해서 해야 목장에 있는 소는 이 농장에 나오면은 까딱 잘못허면은 농사밧디 들영 피해를 주니까 게서 그 살채기 맨 들영 딱 놓고, 이제 보통으로는 곱이 들어가면은 곱안에 들어서 먹당 나오랑 마지 물이렌 현데 물 먹으면은 바로 안터레 자기 자기 먹는 선이 있어. 우리 목장에 영 들어가면은 이디 영 난 질이 있고 이디 영 난 질이 있는디 일로 가는 소는 일로만 가고, 일로 가는 소는 일로만 가거든. 자기가 먹고 사는 지경이외에는 잘 안가.

104009 #3 목장은 그 그전에 그 목장관리는 누가 벨도로 해가지고 그 목장을 관리하지 않고, 소덜을 목장에 올려노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도량에 먹는다고 이 겨난 우리 그 목장에 가면은 도량이랑게 있고양. 어느 도량 어느 도량 어느 도량 그 도량명칭이 이서. 그것도 제주대학에서 적어간 거 무싱거 이실건디, 도량명칭이 있는디 도량명칭을 도량명칭도 그 권식이 잘 알아마씨양. 그 도량명칭허게 되민 “우리 췌는 어느 도량에서 먹나 우리 췌는 어느 도량에서 먹나” 영 허게 되면은 딱 그 쇠덜이 와그네 물먹으레 나올 시간이 되근에 주인이 갑주 그 물에. 그 물에 가 면은 그 물에 미릇 강 아진 사람덜은 “느네 췌 멧시에 물 먹영 들어갔져. 느네 췌 뫼 어떻했져” 해근에 아장덜 서로 소문 듣고 무싱거 허멍 현디 아진 물에서는 못 따라 물 뱅이레 못따라 가게되민 그 도량에 강 사람 몰양 나왕 물 뱅영 안트레 들 여보내고 현디 그거 ㄴ진홀 물인디 ㄴ진홀 물이 그거 물이 아니라십주.

104009 @ ㅁ진흙 물마씨 그거 어디이싱거 마씨?

104009 #3 ㅁ진흙 ㅁ진흙헌디 그 우리 목장안에 이디 잇수다.

104009 @ 지금도 이서마씨? 지금도 그거 먹으멍 컷겠다예?말덜이 소가

104009 #3 이제는 그 목장안에 그 저 수도가 들어가긴 했는디 이제 그 지금 목장안에 소들이 엇수다. 이디 이창명씨라고 그디가 목장 주변에서 물덜 혼 멧마리 키우는디 그 물덜은 그 물 안 먹영 수돗물 뺏으네 통막아그네 통에서 먹고 허는디 그런 날은 그 물이 겨난 소가 육은 소는 아침이 일찍완 아쟁이 골라안진 물을 먹고 날7치 멧팅헌 거는 그자 아무딜로 나오당 왕 비려보면은 견디 그 물을 사람덜도 먹었수다. 그게 물반 오줌반이라 그게. 쉼덜이 그디서 나와그네 그디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해논 거를 해노으민 사람덜도 목이 ㅁ르면은 급허난 어떻힐거라 집7장 나오젠허민 사람덜이 뤼힐꺼라 견디 우리 나도 그 목물라도 당추 그 물을 먹지를 못허커라.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 삼촌 멧살부터 물 맥이레 가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것과?

104010 #1 이거는 초등학교 땡길 때부터 집이 겨울에 쉼막에 뭇 허면은 미리 학교 갔다 오게되민 “오는 시간내에 소 물통에 가서 물맥영 몰아당 매라” 쉼막에 들어가면은 석이 매여정 있으니까 쉼석이 있으니까 쉼 탁탁 매고, 겐디 쉼가 멧팅헌 거 답아도 주인을 다 알아.

104010 @ 어릴 때부터 그추록 쉼 물도 맥이고.

104010 #1 집마다 다 그거라.

104010 @ 소 잃어 불영 울고불고 그런 일은 어섯수과?

104010 #1 소 잃어부는 건 도둑놈이 도둑이 들영 그냥은 소가 잃어버릴 수가 없주.

104010 @ 도둑 들언,

104010 #1 잃어부는 거는 이따가 그 소가 뤼허다가 소가 싸와가지고 팍 쓰러지나 뤼 혈때 일어나지 못허면은 그 자리에서 가끔 죽는 수도 나도 그렇게 그 하나 죽언 세 살난 소가 죽어가지고 철수부진 허당보니까 한쪽 삐뚤어진 디서 다른 소가 탁 받아부니까 탁 쓰러지니까 대가리가 구부러진디서 몸뎡이가 지들좌지난 죽어불언 하나 있는데 도둑질 맞지 앓고는 잃어버릴 수가 없주.

104010 @ 소 새끼날 때 이런때 봐봤수과?

104010 #1 소가 새끼 날듯허면은 보지 말양 피해 불어사,

104010 @ 아예 삼촌도 어시 혼자만 낳게?

104010 #1 예. 사람이 보이나 뤼허나 새끼날 때 탁 쓰러져 늑거든. 누웠다가 대가리가 나오라가면은 과작 일어살 때는 딱 떨어지니까 그때 즘들어불면은 에미가 고통받는다 헤여. 게니까 자기 혼자 게니까 쇠가 집이서 밧가는 소도 새끼 날라고 허면 같이 쉼가 여러 개 잇당도 자기만 살짝 빠져 나가가지고 조용헌 데로 가거나 게니까 새끼나는 거 새끼날 그 눈치가 나오면 부모네라도 “소 새끼 날라고 허니까

가지 말라 ” 겐디 그 반종 와가지고 미국 소들이 나왕 그때는 와가지고 그때는 종자 개량이 되다보니까 커 버리니까,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어. 조금 나왔을 때는 이 앞밭 대가리 이렇게 벗어 나오는데 심영 땡겨 줘야지 안허면은 에미가 죽어 버리는 수가 있어.

104010 @ 지금은 소 키우는 사람들 없잖아예 목장이나 안하면? 저기 젓소나,

104010 #1 소 질루는 사람이 축산혜 가지고 딱 허게 해서 뭐허는 사람이 혼두 사람에게 불과허지, 뭐 이제는 뭐, 경허니 사람이 살아가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

104010 #3 소 기루는 무슨 춤 느끼고 허는 건 엇고 소는 혼번 허게되민 돈똥 싸는거 왜 그러냐면 부랭이 하나 나면은 그때 돈으로 최고가를 받았으니까 뭐 요즘은 계난 소 혼무리에 십만원갈때부터 백만원이상 혼 이백만원깃장 갈때깃장 우리가 소를 길루왔으니까 계난 그 췌는 낫다허게 되면은 그전에는 그 소 하나 낳게 되면은 밧 한판이 들어오겠다 워낙 부랭이새끼 하나 나게 되면은 밧 한판이 떨어졌젠 해근에.

104010 @ 부랭이가 수컷이지예? 암컷보다 수컷이.

104010 #3 그 아주 돈 차이가.

104010 @ 밧 가는 것 때문이지예?

104010 #3 아니아니 그것도 했는디 옛날은 슬통으로 왜 그러냐허민 부랭이 나게 되면은 모슬포 근방에서 모슬포 근방에서 완 그 부랭이 사다가 슬통으로 키와가지고 육지레 나갔거든.

104010 @ 슬통이라는 건.

104010 #3 슬통 슬통 슬찌가지고 이 비육신이라고 비육우, 소를 슬찌게 만들어서 계난 모슬포에서 말양 한림항깃지 물리면은 돈이 얼마라는 걸 쇠임자가 주어. 계름 소 물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두 마리도 몰양가고 소 혼 마리 몰양가는 사람도 있고, 혼마리 몰양가당 털리는 사람도 있고.

104010 @ 털린다는 건 뭐짜?

104010 #3 털린다는 건 그 소를 소 도망쳐부는 거. 경해근에 막 우리 혼번 그 소몰이 허는 사람 우는 것도 봐서.

104010 @ 못 찾앙?

104010 #3 아니 좃기는 좃아 왜그러냐면 소가 가다가도 자기가 늙는디 먹어난디 좃게끔 되어마씨.

104010 @ 도둑놈이 이션 그런 건 어섯꼬예?

104010 #3 그런 말이 이서예. 그 모슬포에서 그 소를 맥영 길루면서 소한테는 개를 잡앙으네 딸령 소 슬치와근에 돈 멩글라고 개같은 거, 베염 곶은 거 뭐 들영이 짐승 소를 맥여마씨.

104010 @ 물 딸린 물을 준다는 거지예?

104010 #3 딸린 물도 주고, 그 저 목초에 섞어그네 무싱거에 계난 그거를 개를

숯아네 짐은 풍풍나고 아방은 방문 열앙 영 특 받아아장 “애야 그 개괴기 혼 멧점 만 ㄴ정오라 나 혼 점 먹저”, “ 아버지 먹으민 돈똥싸지쿠과?” 요치록 했대요. 아버지가 이 췌기를 먹으민 겨난 그 모슬포에서는 부모가 췌마니도 못 모여앉앙덜 이제도 그런 얘기 해여마씨. 모여들민 이제는 경 소 물던 시절도 지나가 불렀주마는 소앤 현게 저거 춤 잘 되면은 침 돈 벌어지는겁주. 그 옛날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들쟁이야납주.

104010 @ 들쟁이가 뭇짜?

104010 #3 이 저 밧ㄴ라 들쟁이 제주도 사투리도 동촌말하고 서촌말하고 저 서 귀포 저 남군 다 틀려.

104010 @ 들쟁이가 밧이란 뜻?

104010 #3 예. 밧.

104010 @ 아이고 춤, 송애기 이렇게 낱고 이런 거 받고 송애기 나민 뭐 삶아주고 뭐 그런 거 봐났겠다예? 마소의 먹이?

104010 #3 삶아주는 거 엇고 보리 가루 방앗간에 강 그거 벧경 감아오면은 소에 섞영 맥영으네 봉오릇허게 올라오면은 육지에서는 소 숯앙으네 짐 풍풍 나는 거 주는데 제주도는 짐 풍풍 나는 거 이빨 상헌텐 워낙 촌 짐 풍풍 물기 있는거라부니까 얼어부니까 소덜이 먹질 못허영 그자,

104010 #5 우린 췌 질루당 그 새끼나명 막 죽고, 거 질 빈나게 사온 췌디 처음엔 저것이 어디로 나오란 민보아방네집으로 사온 췌디 경헐.

104010 #6 어떻 행 죽언?

104010 #5 죽진 안행 살앗수다마는, 막 아판에 어떻산디 풀 이제 그 저실이란, 어디 강 프리롱헌 거 봉가다 쥐도 영 먹질 안헐디다게.

104010 #4 아프난게 아프난,

104010 #6 야가기 건 거 아니?

104010 #5 아니 아니 이제 계난 저 완준이신디 풀앙 놔두난 완준인 어디 저 어디 서리눈 풀안에 우리집 딸말이 서리눈 십디텐, 우리 췌끼젠헌난 췌가 막 즈들인 생이라. 경 행 해신디 그 서리눈 가네 그냥 저 질람서렌.

104010 #6 저 아픈 거 ㄴ천.

104010 #5 예 병 ㄴ천, 계난 우리 즈들리젠헌난 췌 집이, 췌끼젠헌난 경헐난거 닳아. 인도산 숫췌가 영 출 안먹어노난, 우릴 계난 경헐 폰 후제 일절 안헐수다. 생각이 어선 그.

104010 #6 어느 사람은 췌 질롭단 저 원 체 안먹으난 손드밀아네 영 보난 저 나일롱 꼭따리 야가기에 간 걸려전.

104010 @ 아이고

104010 #5 이디서 은 짐에 췌 저 췌떡이레 갓단 죽어나수게. 경헐 보난 호박씨 그 비니루에 쌍 데껴부난 그거 봉강 영영 행 씹영 누리우난 요딘간 겨난 허파에 간,

104010 #4 비니루난게 비니루.

104010 #6 경허난 손 디밀양 빠췌시몬 사는건디?

104010 #5 경 현줄 알앗수과 이젠? 우리가 췌멕이레 갈 날인디, 거 췌 간 범췌 보레 가젠 췌 간 이제 문딱 들양 나오난 “췌 내웁서 내웁서” 헨 나오난 부춘네 췌 가 올레에 오난 탕허게 들어누원게. 부춘네 올레에 오난, “아이고 이견 무사 이거 영 햄신고” 영 들안 다시 검부난칙까지 몰아가난 다시 가난 그디가난 탕허게 다시 들어누원. 아이고 이젠 안뻐켄 집이 저 집이 간 “아이고 이만저만 헨 췌 올레에 오난 누워성게” 다시 들양가난 건부낭칙안에 드러누원 “저 췌 어떻허든 줍네까 살지 안으쿠다 ”헨 허난 경헨 그 췌 죽엇수게. 아시날 췌 맥이는 사람이 거 맥인거고, 뒷날은 췌 맥이레 가난 그추룩,

104010 #6 경허난 나이롱 곶은 거, 저 푼파리 곶은 거 먹이든 경 야개 걸영 죽어.

104010 #4 하도 배고팡게.

104010 #6 그런 걸 경 잘 빠넵데다게. 경 췌 아픈 거 잘 알고 몰락 경 버릇 잘 그르치고,

104010 #5 아시날 벌써 반 오랑 드무난 강 허난 ,그 야개거난 오죽 못전디실거 파?

104010 #6 요즘은 그런 사람어서부난 경

영104010 #5 경허난 경헨 줄도 모르고 분수몰랑 “아이고 어떻허든 조오리 어떻허든 조오리” 가단 텅 드러눕고 가단 텅허게 드러눕고 해가난 “아이고 아매도 이 췌 저 영영 헨 안뻐엄직허우다.” 허난 겐 그때 잡아 먹언.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와봤수과?

104011 #1 아니 나도 말, 열댓스레 서너마리 사당 우리 아버지가 4.3사건 공비 털 잡아 먹어 버리난 없어지고, 말도 질루는 이 사람 보면은 그런 우마를 타고난 사람이라야 되어. 케니까 이 사람 손을 보고 무시 태왓텐 허여. 손을 영 허민 혈관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 여기에 몰 발톱 그려졌다고 해서 혈관이 돌아간 사람보고는 이 축산이라고 허는 게 타고나야 잘되는 모양이라. 축산을 태우지 않은 사람은 자꾸 실패가 이서.

104011 #5 들은 그자 그냥 내밀양 내불민 고지 강 내불민 췌 그자 이녁 구질때 나 돌아오고 고지 드리청 목장에 드리청 맥이고,

104011 #6 산에 높이 오랑 눈 한라산 그치 문엄직허민 돌아오지 안해도 집이 다 들어웁네다.

104011 #4 물 질름이 질 좋앗주.

104011 #5 질 펜안헛수다게.

104011 #6 우리 저 옛날에 물 질화보민 경 눈 하영 오람직허민 와당와당 밤이

허는 소리 나 “무신 소린고?” 허민 몰덜 집이 다 왕게. 게민 뒷녁날은 보민,

104011 #5 우린 물은 안 질와 받.

104011 #6 우린 웨할마니네 경 질황게, 막 경 췌도 질루고 몰도 질루고.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털 색깔, 모양 등)

104012 #1 종류야 제주도야 주로 조랑말인디 중간에서 이제 왜정 때 직후에 야 호마가 생겨가지고 종자개량이 많이 되고 뒤했지 그 전에사 주로 조랑말인디 조랑말 중에서도 한참은 그 숫말 옷매라고 허는데 “옷매” 육지 수출을 한참 했주기. 한참 헐 때 가다가 좋은 놈으로 해서 몰보는 거는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물을 잘 본다고 허여.

104012 @ 예?

104012 #1 “개를 잘 보는 사람 물을 잘 본다”고 어디 모든 디 나가서도 요지금 경마를 허나 뒤했나 허는데로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딱 어릴 때도 봐서 “이놈은 사 능허겠다. 이놈은 똥개지 아무 죄도 못써, 괴기용백이 잡아 먹을용백이 안되다” 허는게 개 잘 보는 사람 물을 잘 본다고 해여 게난 어릴 때 물을 놔서 영 허는 거 보면 이 물은 커서 “경마용으로 가겠다. 타는 몰용으로 가겠다” 허는 걸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잘 본다 이거주.

104012 @ 몰 털색깔 따라서 이름 알아지코과?

104012 #1 몰, 일청춘, 이가래, 삼적대,

104012 @ 일청춘 이가래 삼?

104012 #1 삼, 일청춘 이가래 삼적대, 빨경헌 몰.

104012 @ 아 빨경 무사 일, 이, 삼으로 나뉘수과? 제일 좋은 말이 일청춘?

104012 #1 예. 청춘의 물은 어떤 몰인고 허니까 어 흰 털이 절반, 이 뒤했야 붉은 털이 꼬끔 섞어지고 해서 좀 희뚜룩헌 거, 스뭇 흰 물은 아니고 게서 어른덜이 곤는 게 일 청춘, 이가래 이가래 검은 몰, 삼적대 적은 붉을 적제니까 벌경헌 몰이주기. 켄디 해양헌 물은 뒬에 들어가는 지 몰라. 우리덜 곤는 말은 일 청춘 이가래 삼 적대.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운반, 밭밟기 등) 몰방애?

104013 #1 아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이용허는 것은 뒬냐허면은 결혼 때에 신랑은 말을 타고 종 드라서 말 이끄고 가고, 신부는 가기메라고 해여 가기메, 가기메를 해서,

104013 @ 가마가 아니고 가기메렌 했수과?

104013 #1 예. 가기메, 가매가 있고 가기메가 이서. 가매는 소서가 그 아주 산뜻 허게 만들어진 게 가마고, 가매해서 옆으로 크쨍헌 나무 행 두 개 찢르면은 옆에 요새글으민 광목, 몸통해가지고 즐라메서 영 독지에 매서 신부를 매영 가고 가기메엔 헌 것은 이제 물을 앞엿 물은 실헌 물을 쓰고, 뒬엿 물은 아주 약헌 물을 해가지고 먼 거리에는 신부를 저 운반허는 거라. 요새 차 탕 가는 식으로, 경허면은 뒬에는 왜 약헌 물을 흐느냐면은 앞엿물이 힘을 써서 짐 실러서 뒬에 잇으니까 혼어

시 힘을 못 쓰고, 뒤에 말은 꼬성 가야지 뒤통물이 실허면은 뒤사 옆으기 시작 뒤통물이 들러귀영 감당을 못한다고 경해서 뒤통물은 아주 약헌 말을 쓰고 앞엿 물은 좀 센 물을 해가지고 딱허게 헨 사람이 이제 딱 잡아가지고 신부를 먼 거리는 그 물로 이용을 해서.

104013 @ 물도 잘 알았수다예? 밧 불리기 허고 집에서 키와마씨?

104013 #1 아이 물은 보통으로 키우지 안허고 혼 부락이면은 혼 뒤통물 서너의 사람만 뒤통물 경안헌 사람은 그자 하나이나 둘이나 해가지고 그자 심심소일로 탕도 댕이고 그자 뒤통물허주 보통 물은 질루지 않허여게. 보통은 어느 맛을 갔던지 보통 질루지 않허고 그냥 불과 혼 땀 사람.

104013 #5 물은 밧 불릴때나배끼 원그건,

104013 #6 밧 불릴때도 허고 방애 그건 방애질때도 거 험네다

104013 #4 건 마르쳐사,

104013 #5 어진 물은 허고, 독헌 물은 방애도 못지고게.

104013 @ 운반은? 마차 구루마로는

104013 #5 구루마는 보통은 쉼이 해주. 물은 하지 안허여.

104014 @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나이소보다 오래 삽니까?

104014 #1 소보단 오래 살주게. 오래 살주마는 말을 경 오래 키우질 안허주게. 허곡 말이 그냥 그 쓸모없는 것은 고기용이니까 너무 늙으면은 고기가 질겨서 허허허. 늙은 말 잡는 걸 좋아허지 안허주게.

104015 @ 말을 가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5 #1 말을 뒤통물 나도 혼 열땃술에 허여댕기난 뒤통물 혼 이삼년 그놈의 말이 혼 편으론 착허기는 해여. 겐디 열땃술 즉끔 타는 말이라. 사람 마트민 즈글름 탄다는 말로 광을 이렇게 놔가지고 나가 올라 상 물을 등기면 이놈의 말이 광 즈끗딜로 썩 들어가 썩 들어사면은 물을 안장도 안찌고 맨등에 탄단 말이여 툭 타민 즈글르니까 와들랑와들랑 들러귀어. 들러귀민 아래 털어져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봐. 이렇게 보는데 가만이 생각허민 어이가 어신 노릇이라. 일어사가지고 또 이제 그 광우이 올라사민 물이 썩 들어사. 그걸 보민 안 들러귀어. 그러면 그거를 타아정 댕겨난 것이 기억이 남는디 하하하하.

104015 @ 아버지도 다 풀아 불고,

104015 #1 이 준둥이에 가면은 탁 들어가면 즈글우니까 와들랑와들랑 털어져부러. 안장을 지와시민 안털어질건디 게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

104015 @ 색깔은 즈랑말예?

104015 #1 예. 즈랑말 노랑말이라난디 결국은 내비여두고 소게 해변드레 강보니가 산꼭도 허는 늙덜이 잡아먹어부러서.

104015 @ 4.3때였구나예. 에이구 참.

104015 #5 우린 쉼 질황 경 풀양으네 춤 밧도 사곡 헛주마는 저 물은 우린

104015 #4 물 하영 안질루와.

104015 #5 물은 안 질루난 어떻게 해연,
 104015 #4 매 사람이 안 질루주기게.
 104015 #6 물 질름이 더 즘네다.
 104015 #4 화순더렌 경행으네 물 하영 햇젠힘니다 이딘 물,
 104015 #6 옷드리 내불언 내불민 지네냥으로 떡곡 살곡,
 104015 @ 잃어부렁 그런 건 업고예?

떡이

104016 @ 마소의 떡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떡이는 다 똑같은디, 물은 밖에서만 집안에 매질 안허고 밖에서만 매여서 그 풀을 주고, 소는 쇠막안에 놔서 득시게 살리고 물이 아마도 추위에 강헌 모양이라예.

104017 @ 떡이는 똑같아예 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아니 출은 옛날에 농사짓지 못헌 밧은 전부 출왓이거든. 농사가 잘 돼서 흙이 짙은 밧은 농사지어서 갈아먹고 흙이 작은 밧은 전부 출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그걸 비어가지고 음력팔월 말이면 구월 말고비지 구월 말 고비에는 그 출을 비어가지고 날 좋암직허면은 비어서 호미로 비었지. 전부다가 눅 빌어서도 비어가지고 흔 메칠 말리면은 그거 이제 묶어 가지고 모두왕 집이 쉬어당으네 딱 눌엇당 눌엇당, 겨울에 빠명 맥이주. 빠명 맥이는디 새짚 흔 두어번 주면은 제일 양이 많으니까 조쪽도 흔 번 주고, 산디쪽도 흔번 주고, 감자줄도 흔 번주고, 콩대꾸리도 주고 허면서 가울리면서 입맛이 돋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로만 계속 주지 안허고 그것 저것 나눠서 주고,

104018 #5 출은 비어근에 느나어서 그자게,

104018 #6 드룻밧디 출왓 출왓 출왓 만듭네다. 곡석농사 안허영,,

104018 @ 풀 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베는 거 출베기 호미로 출베기?

104018 #1 예. 눅을 빌어서 빌라고 허면은 장남이라고 해서 남자를 처음 앞이 앞양 에염으로 비어 가. 그 사람이 딱 앞더레 나가거든. 나가면은 줄 지어서 다음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쪽 나가지. 다른 검질매는 것 모양으로 사람이 코 쪼려게 나가질 안허고 단계적으로 흔 사람이 이마니가면은 흔 사람이 이마니가고 버금사람은 이마니 가곡해서 게서 영 빙허게 영 돌아오지. 출베는 사람은 눈중난중 이렇게 새 떨어정 앞아야지 꼭 그치가면은 이게 호미 늘을 놀틸때가 이게 어울리면 안돼여. 안돼니까 앞에가는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잘 베는 사람이 앞에서 죽 나가면 다음 사람 나가고 여기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이제 장점이라고 허면은 여기가 키가 크니까 호미를 막음대로 스몫 굵으로 안비어도 삭삭 나갈 수가 있고, 가운데는 브트니까 오래니까 촛촛이 가는 사람으로해서 이 원도 죽으니까 이 사람이 흔 바퀴 이렇게 돌민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고,

104018 #3 출비는 거 그거 무싱거 그것도 뭐가 있고양. 여기는 호미 낫 호미 ㄱ 정 강 허게 되면은 동네사람덜 데령 강 출밧디 아장 출을 비어예. 출을 비면은 그 집이 그 출 비는 장남, 그 장남은 남자ㄱ라장남이렌 허여 호미 ㄱ는 장남이 호미를 잘 글면은 그 출비레 간 사람이 상당히 수월하고 오ندي 그 호미를 못 ㄱ는 장남이 나 가민 어깨 아파가지고 출을 못비니까 호미 ㄱ는 것도 옷ㄱ는거고 놀 세왕 ㄱ는 거 보곡 옷ㄱ는 건디 그 저 영 세왕 ㄱ는 거하고 영 늑현ㄱ는거 허고 늑현ㄱ는 거는 하루에 두 세 번만 호미를 글게 되면은 사람이 아주 수월하게 되고 옷ㄱ는 거는 흔시간도 안되영 무껴부러. 어떻 자꾸 글렌허민 이사람은 허리아팡 글지도 못허 켜 허고 이 농촌 살젠 허면은 첫째는 요령, 요령 내영 어떻어뎡 그냥 무턱대고 허 켜허당은 아예 뭐 이건 한도 끝도 엇주. 자기 보람은 보람글이 엇고 게난 농촌 살림이렌 현 건아주 힘들어.

104018 #6 호미로.

104018 #4 호미로도 비곡 기계로도 비곡.

104018 #6 기젠 이제사 낫주. 기계 그때 나수과계.

104018 #5 돼나마나 장갑도 안찌고 그 맨손에 호미로 그 작산 출을 다 비영 물리왕, 마주 묶으멍 허영,

104018 #6 그 백바리씩 이백바리씩 출덜허영 너릿수다. 쉼 하영 잇는 집인.

104018 #5 스뭇 다시 그거 ㄱ져당 글묵짓젠허민 ㄱ져오고, 불 습젠허민 쉼 앞이 켜 언주와오고 정허멍,

104018 #4 아이고 아이고.

104018 #6 똥주시레도 하영 뎅기고.

104018 #5 똥주시레 무사 안 뎅깁네까?

104018 #6 난 똥주시레 하영 뎅겨져.

104018 #5 난 집에서 저 친정에선 흔 어시 똥주신거 닙지 안은디양 이디 오랑예 저 청수,

104018 #6 똥주시레도 하영 뎅기고, 저 머리 어진 오름에 낭 허레도 하영 뎅기고,

104018 #5 어디? 머리 어진 오름에?

104018 @ 머리 언진 오름이 뭐짜?

104018 #4 이딘 경 안허연 요 하오머리.

104018 #5 저 아래 똑 머리 언진 것추록 산업도로 가당보민 빠져.

104018 @ 이름은 모르고마씨?

104018 #6 글른오름게 글른오름.

104018 @ 글른오름이라? 거기 잣다완마씨?

104018 #6 옛날엔게. 고사리도 꺾으레 가고, 솔똥도 주시레가고, 막 뎅겨수다.

104018 @ 솔잎?

104018 #5 솔잎도 글그레가고 안현 거 어서.

104018 @ 거기까지 간마씨?
 104018 #6 예. 친정에 살 때, 저쪽에.
 104018 #4 이디션.
 104018 @ 친정이 어디파?
 104018 #6 저 창천계.
 104018 @ 창천이나 거기 간겨주게 판사람은 거기 갈 이유가 엇주게?
 104018 #5 어떻게 거기까지 강 지어옴은 험광 어떻게 그자 즈꿏디서 솔잎 묶엉
 쳐들이고 헛주기,
 104018 @ 저지오름?
 104018 #5 아니 오름 안 강 저지오름까지도 아니고 저 소낭밭디 강으네,
 104018 #4 저 고지.
 104018 #5 고진 낭허레 가고, 솔잎은 이 등퀴에서 솔잎 극고,
 104018 #4 아이고.
 104018 #6 이 우론 못허겁디다. 알 막 어지런,
 104018 #5 당 알 나ㄴ튼 건.
 104018 #6 어지런 어지런 그 후로 나 멧번 올라가반.
 104018 #5 멧시 뤼신고?
 104018 #4 영장밭디 갖다그네 즈미로 그 다,
 104018 #5 멧시 뤼수과??
 104018 @ 멧시까지 갈것파?
 104018 #5 12시만 뤼민 나강으네 12시 넘어서 오랑 먹을티 밥행으네,
 104019 @ 출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출웅 배면 걸 어떻 묶
 영 어떻게 집으로 강 늘을?
 104019 #1 그거는 어떻게 허는고허니까 잘비는 사람은 녀즘 비어서 놓으민 혼
 못이고, 못 비는 사람은 여섯즘 비어야 혼즘이라. 여섯즘 일곱즘 비어놔야 혼 줌이
 라. 경허면은 이거를 다 묶으면은 한쪽에 스무뭇씩 마흔뭇을 이렇게 ㄴ져다 놔. 가
 져다 노민 쉼을 이렇게 ㄴ져당 딱 노면은 양쪽에 ㄴ져다 놓으민 쉼이 ㄴ만이 사.
 다 ㄴ르친 쉼니까. 이디 사면은 새 쉼같은 사람은 이거 하나 심영 삼도 허고 이걸
 시꺼. 쉼빼라고 해서 질메에 베가 열두발정도 해가지고 딱 질메에 놓으민 딱허게
 끌렁으네 딱허게 시끄주기. 갱 시꺼그네 허면은 석을 우트레 탁허게 쉼석을 지치면
 은 돌면은 집이 구짝 와. 두 개고 세 개고 이녁 집이 시꺼가는거로구나. 해서 뒤에
 서 사람만 돌면은 집이 구짝오면은 마당에 퍼 놓으면은 늘왔이라고 잇어. 늘왔디
 와가지고 늘었당 겨울내낭 그 쉼을 맥이주게. 쉼을 맥이고 봄나가지고 물웃이 날때
 는 물웃을 맥이레 또 바깳디 네왕 헤나면은 지친 쉼은 툭 부서. 툭이 입에 들어가
 는 엇고 하도 기운이 약헌 쇠는 툭 엇고 먹을 때 춤 뱉는 사람은 그 물웃 날 때 아
 니 내놔서 입하 스월절이 들어야 게도 옛날에는 청명에는 물이 배 불고 입하 스월
 절이 들면은 쉼이 배분다고, 입하 스월절이 들어야 쉼은 놓고 방목을 허고.

104019 @ 청명에는 물이 무시거마씨?

104019 #1 청명에는 물이 배 불고, 많이 먹으니까.

104019 @ 배불고 아아 입하 스월달은

104019 #1 입하 스월절은 쉼이 배불어. 풀이 넉넉이 나니까.

104019 @ 네. 풀이 넉넉이 나니까. 그믐 놀 놓는다는거다예?

104019 #1 계난 쉼은 알니만 있고 물은 우알니가 있으니까 경허니까 물은 일찍이 놔도 웬마니 낭가지 끝은 거 이제 흐김 생긴거 있어도 딱딱 앞니로 씹어가지고 끊어먹고 쉼은 이파리 잇빨로 우트레 치켜서 끊어 먹거든. 쉼은 웃니가 엇고 물은 우알니가 잇거든예.

104019 @ 출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3 아 출 운반하고 저장이면 그거는 그 저 구루마 있는 사람은 구루마, 경안허믐 주로 구루마가 소 지르매지왕 한 쇠가 지어오는 거를 흔바리그래 계난 쇠가 흔바리 지어오고 두바리 지어오고 허는데 보통 못허는디가 허곡 열댓바리라는 건 열 다섯바리, 소 한디는 흔 스무바리 설나믐바리 막 하영 현 디는 마흔 쉬나믐 바리 쉬나믐바리는 쉼바린디 그 경해그네 만약에 겨울 야우 야우 먹이젠 허믐 출은 허면은 바짝 물러 물러가지고 그걸 묶영 집이 와근에 놀을 누는거라예. 놀을 놀영 우에 느람지 더끄고 우에 주쟁이 헤그네 텃영 소를 저 무싱거 해십주 뭐냐 저장해 십주. 출 놀영으네 무싱거 주쟁이 텃영,

104019 #5 출 구루마에 시경,

104019 @ 소에?

104019 #6 소에도 시꺼오고. 구루마에도 시끄고,

104019 #5 소에도 시꺼오고. 구루마에도 시끄고, 지곡 지영

104019 #6 막 하영덜 정도 오고 흔 걸립니다. 출허젠허믐

104019 #5 그거 들러아정 밤이 오랑,

104019 @ 소 키우는 사람만 그거 허지예?

104019 #6 예. 집보다 더 커. 놀이,

104019 @ 이게 제일 큰 놀이로구나예?

104019 #4 아이고 놀 시간이 어디 셔? 8월나믐 검질 낫나믐 출허젠 허믐 스믐,

104019 #5 하늬브릅 나가믐 스믐,

104020 @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5 소 먹는 여물은 여물 주는 건 출이 주장이고 밧이나 갈젠허믐 쉼것 숲양 맥엇주 경안허믐 쉼 곡석 ,

104020 #6 밧이나 갈젠허믐 감젯줄 그거 양념이랏주. 우리 끝으믐 근밥,

104020 #5 보리 무싱거 둥글영 낫당 무싱거 헛당 보리 밧갈고, 쉼출헤오고 그 자,

104021 @ 출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출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104021 #1 출 비젠 허민 나는 호미 ㄱ는 사람이 하나 지정이 있어야 되어. 여러 사람 비영 홀라고 허면은 하루종일 호미 갈아야 되어

104021 @ 그자락예.

104021 #1 출 빌새가 으시 하루종일 갈아야 되어. 이 앞이 사람 갈아가민 다른 호미 ㄱ져당 이레췌 이사람 갈고 이사람 갈아뿔 이사람 갈고해서, 게서 곳에 사람 갈아나민 또 저 앞에 사람 갈아줘야 되거든. 게난 여러사람 빌영 할때는 혼 사람은 부지런히 하루종일 호미만 갈아야 되어. 게서 그런 인사도 쓰지. “이제도록 호미갈젠 허난 속아서.” 하하하하.

104021 #3 삭다리는 코췌코췌 장작 화목.

104021 #5 추억은 뭐 출만 비난 다른 추억은 엇고,

104021 @ 밥은 어떻 먹음니까 그럴 때 조벨 때?

104021 #5 옛날은 차룽착에 밥헤영 보리밥 허영으네 여라이 갈뻔 양착에 다 걸영 닥 미주 탁 부청 가근에 웬장국 헤영 그것에 밥먹고,

104021 #6 웬장국 헤영 몹치게.

104021 #5 몹치에 반찬허고,

104021 #4 몹치

104021 #6 남자덜 둘이 주젠허민 저 무싱거

104021 #5 반추지에.

104021 #6 반추지에 그 웬장에 놓고 여자덜 영 찻이멍 그 몹치가 큰 반찬이랏수다.

104021 #5 잘도 맛종양게 옛날은 맛종아신디, 이제는 어떻사 할지 몰라도,

104021 #4 그때엔 구진게 엇더라.

멜감

104022 @ 멜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1 멜감 멜감은 어떻허는고 허니까 이제 ㄱ을이 들어가면은 술섭 그늘에 가거든. 술섭 그늘에 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디 하간게 많허니까 준농사가 많이 허다가 보니까 가까운데 좋은 거는 해변사람이 오랑 다 끌어 가불어. 게문 두불 털어진 것도 허고, 고지 가까우니까 고지 여름에는 이 봄이 나면은, 이 음력 이월들이 나면은 방화를 부찌거든. 소 방화를 부찌면은 진드기 방지허고 출이 맛조니까 잘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왈 ,자왈에 불이 부트면서 죽은 나무덜이 많이 생기면은 그 죽은 나무를 이제 가서 해오고, 소낭 밧디 가면은 죽은 가지 곱은 거 갈꼬리 이렇게 해서 오그라진 거 든든헌 낭 행 걸령 줍아둥기민은 꺾어지면은 그거 헤영 그것에 그 속에는 이파리도 글경 술잎글쟁이라고 해서 허고, 경해그네 고지 강도 해 주성 곤냥 삭은 걸로 므른 걸로 해오고, 소낭 밧디서도 더러 주서오고, 집이서 이제 췌쇠 먹다 남은 거 좃대, 조췌대 같은 거 곱은 조췌, 췌가 정 안 먹는 거 곱은 거는 불습고, 한참 유채혈 뻔 유채대도 불 습고.

104022 #6 빨감?

104022 #5 장작.

104022 #6 장작이 어디서서게?

104022 @ 삭다리? 장작도.

104022 #6 요 소낭밧디 강으네 그 삭은 가쟁이나 지더쭈.

104022 #5 우린 늬의 밧 벵작행으네 지들커허영 험디다게. 우리 아버지넨

104022 #6 솔잎 헤영 글경오곡,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3 소똥은 말똥 연료 말똥은 소똥은.

104023 #5 소똥 주서당 굴묵 짓고, 말똥 주서당 굴묵 짓고,

104023 #4 아이고, 일본 시덴엔 소똥도 어서. 공출이나 허곡,

104023 #5 ㅁ시락 저당허곡, 다시 허당 버치난에 무싱 거 솔똥 주서당 굴묵 짓고, 다시 이젠 옛날엔 춤 소까이 간 때쯤은양 다시 조쿠르도 다 해당 습아서 조쿠르도.

104023 #6 4.3 시커리에 거고게.

104023 #5 조쿠르도 다 매당 불 습어나서.

104023 #6 물웃게 물웃 밧,

104024 @ 나무, 솔가리 걷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잎 꺾는 거 남자덜은 안허지예?

104024 #1 아이고 무사 안허여게.

104024 @ 아 솔잎도 해서 놀

104024 #1 아이 나도 솔잎 글경르네 꼭 봉강으네 꼭 봉강, 혼 식개 영 별경 나무 삭은 가지 요렇게 놔가지고 솔잎 영 꺾영, 옆으로 툭툭하게 글갱이로 두드리멍 행 영 행 딱허게 묶영, 묶영 흐썰 크게 허고 흐썰 죽게 해그네 우트레 낱 저으정 집이 오주기. 요새사 짐 안져부난 모르주만 옛날에는 문딱 등땡이에 짐정 땡기는 거 보통.

104024 @ 아이덜 친구덜이 같이 가마씨? 솔잎 글그레 여자도 가곡.

104024 #1 여자덜 주로 가고, 여자덜이 주로 극주기. 여자덜이 주로 가고, 남자가 가면은 꼭도 씌 걷어다가 허곡 또 그 관 나뭇가지 곁은 것도 어떤 땡 올라강도 꺾영 내리청으네 헤영 그 솔썰 묶으젠 허민은 꼭 영 그 몫이신더레 노민 이레 낱으네 묶곡, 저를에 짐 출려주고, 혼디 글금도 허고.

104022 #5 솔잎은 털어진 거 끈어 오곡게.

104024 @뻬솔 때부터 여자덜끼리?

104024 #5 여자덜은 기자,

104022 #6 우리 혼 여실곱솔 나난에 솔잎은 끈어서. 강 묶으지 못허민 그냥 맥에 담양 저 와난,

104022 #4 맥에 담양 정 오라나서

104022 #6 어린때 난에, 묶으지 못헤영

104024 #5 코짱허게 묶으민 아까와.

104025 @ 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허기헌다는 말이 삭다리 끊는 거가 나무허기 아니?

104025 #1 어떻헌거?

104025 @ 장작 그런 나무를 톱으로 벨 수 없지예? 삭다리나 끊으레 가주.

104025 #1 아니 경도 허고 옛날에는 그 산림법으로 법에서 안되니까 해서 소낭 밧이라고 이제 그 헌 밧을 그 대부분 다 가정 이서. 돌 솔 뿔허민 즈진 거 보민 톱으로 끊어. 끊영 뿔허고 또 나뉘도 제 무끼가 되지 앓험직헌 거는 끊어가지고 동즐랑 딱딱허게 화목으로 이마씩 동즐라가지고, 도치로 깨가지고 딱허게 행으네 집이서 놀어. 놀영 느람지 둘렁 행 나뉘다가 그러한 나무는 어떤 때 쓰는고 허니까 잔치때나 집이서 상사난 때나 그 일때에 쓰고 경안허민 제사때 그러한 그 분에 나가헐 때는 그 훑은 장작은 그런 때 쓰고, 잘잘헌 삭다리는 그자 쟁소에 밧해먹을 때 쓰고.

104025 #5 나무도 그추룩허연.

104025 #6 소낭가쟁이 삭은 거 강으네 돌아정 꺾언,

104025 #4 잘도 꺾어낫수다.

104025 #5 갈쿠이,

104025 #4 갈쿠이,

104025 #5 갈쿠이 행 영 걸영 양허게 등기민 꺾어지는.

104025 #6 혼디 뉘갈라지곡 헤헤,

104025 #5 혼디, 거 행 사람도 너러정 뉘갈라지고, 아이고 아이고 옛날은 살아온 역사를 생각허믄,

104026 @ 그 다음 숯 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숯 굽는 것?

104026 #1 숯 굽는 거는 작대기 숯이라고 해여. 세워서 허는 거. 세워서 허는 거는 작대기 숯.

104026 @ 작대기 숯예?

104026 #1 작대기 숯은 세워가지고 요만씩 등 즐르면은 한 삼단계 정도 쪼금 많이 허는 사람은 혼 구멍이가 삼단계 정도로 이렇게 쌓아 올려.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훑을 올리면서 열포 돌담 쌓아가지고 아궁이 아궁이를 혼 크면은 혼 네군데쪼 아궁이를 내가지고 혼쪽으로는 그 구멍을 요렇게 내가지고 가운데까지 구멍을 내서 그디 팡냥 놓으민 그디서 불을 질렁 불이 저쪽구멍으로 불이 활딱활딱해가민 널랑 그 구멍을 막고, 이쪽으로 활딱활딱 불이 나가면은 해서 다 양쪽으로 다 그 어귀찬 델로 불이 나오라가면 어두벨랑 경허곡 그디 허다가 굽에 거는 또 숯이 되영 도막 안 다음에 한 이틀 있당 그 숯을 파내영 잘된 놈은 가마니에 담양 풀고, 밀엿거 굽에 잇는 거는 냉밭이라고 해가지고 숯이 되다가 안된 거, 안된 거는 곰숯이라고 해서 이제 녹져서 영 재영 덮영으네 또로 불질렁 허는 것이 곰숯이엔 허고, 냉밭이

숯을 저 재생하는 것이 곰숯이라고 하여.

104026 @ 숯 굽는 터나 이런 거 잇수과? 어디강 숯 구워마씨?

104026 #1 그거는 그 냥 허는 그디서 뒤편서 흠이 충분이 이신 밧에 우리 농사 지어난 밧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겐디 이만이 높으게 허면은 이디 흠을 준비해서 돌 세기 두둑 파가지고 이걸 완전히 덮어야 되니까 흠 없는 데서는 안 되주게.

104026 @ 지금 그런 거 구경 못허지예?

104026 #1 이제 낙천 관광지 개업허는 날은 시장 해봐야 형식적이주, 숯이 즐바로 되어게.

104026 @ 삼촌 혼자했수과? 풀아도 밧수과?

104026 #1 그 때는 숯을 구워야 생애유지를 허젠 허니까 처음에 헐 때는 들이서 그냥 뒤편 나무를 막 부시대경 고지 강 부시대겨 처음에 헐때는 실패를 여러번 했어. 다 삭아부러서 예에 안뒤편겏다고 해서 실패를 다음에는 또 한 친구가 “내가 숯을 잘 허니까 틀림없다 ” “게민 시키민 시킨 말 잘 들으켜” 허 참 잘 되드라고 그때는 허는 공식 틀렸어. 뒤편서 나가 먼저 헐 거 경허난 그거 막 익숙우니까 이제 산에 공비가 거즘되니까 이제 저 출장소 근무를 했어. 근무를 허니까 이제 마을에서 밥해다 주면 먹고 손님들과 같이 보초사고 순찰돌고 이렇게 하면서 군대 가불엇는데 여러 남관을 겪엇주.

104026 @ 그믐 숯굽는 참나무나 저번에 말했듯이 참나무도 해야되고 소나무 무순나무 다 되어마씨?

104026 #1 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아주 좀 약허여.

104026 @ 약허고,

104026 #1 약허니까 소나무 숯을 구울라고 허면은 소나무만 허는 게 좋고.

104026 @ 구울라면?

104026 #1 나무가 거의 있다가 아주 슬찌고 좋아베도 슬이 약헌 나무 부드러운 나무는 들면은 다른 것까지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 불에 약허니까. 경 안허믐 비슷 비슷 헐 나무로만 해지는게 좋주.

104026 #3 쇠가지가 이서 말숯 작대기숯.

104026 #5 숯은 저 고지강 냥 그찬,

104026 #6 남자덜만 그거 해나난 여잔 확실히 몰라. 게도 숯 굽는 거 알아져 나도. 땅 헉깁 파그네,

104026 #5 그레 과짜 세완,

104026 #4 이레 사람덜은 경 다 숯 안 구웠수다.

104026 #5 소까이 간 온때나 한 흥해 헛주기,

104026 #6 과짜 세완 옆이 굴뚝 내연

104026 #5 이마니 굴뚝 내연 그렌 불 짓는다, 지더근에 문땡 그거 열만허민 그거 빵 다시 고망 네완,

104026 #6 막 지들왕 헉으로 막 지들왕 고망 막고, 막 지들왕 막 짐 나카부덴,

104026 #5 두루 헤지민 불 식어근에 문딱 삭아불곡,

104026 #4 계난 말이 으서게. “숯 문은 높은 즘을 못 자고, 아방 죽은 높은 즘을 잔다”, 뒤 흐 해에 거 어디 불독 막지 안허민 오갓 삭아분덴, “아방 죽은 높은 즘을 자고 숯 문은 높은 즘을 못 잔다.”

104027 @ 땀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삭다리 하레 잣당 칼씨움하고 놀고 이런 건 없잖아예?

104027 #1 그런 거 허레 강 칼씨움은 어떻 그 우리 왜정 때에 우리 키정도 된 소나무 그 우에 나가민 이정도 일년생이 크거든. 계면은 학생덜이 그걸 찢라가지고 가운데로 요렇게 칼로 끊엉, 요딘 모작안으로 끊고 요건 모작 밖끄딜로 손잡을 만 큼 허곡, 칼자루 모양으로 요디 막작 있는디 울로 칼로 그쳐서 마개로 독독허게 봄에 봄에 백인 안돼어. 물 올른 때 가을이 되면 안되거든 독독 두드려서 이렇게 허면은 쪽 빠지면은 이것이 일본놈 일본도 모양으로 해서 장난으로 이렇게 허고.

104027 #6 그거주기게. 그거 낭 가쟁이 든은 거 헤영 그레 걸령 등경 그거 탁 꺾어지민 사람도 헤뜩 갈라지고, 낭도 꺾어지고,

104027 #4 그때 낭도 하지 안했수다게. 낭بات이 어서.

104027 #6 계난 낭은 경 때서게. 검질로 뗏주.

104027 #4 검질로만 네가 팡팡.

104027 #5 낭 으시 무싱거 질것 불만 습양 살아노난 굴묵짓고 그거허고,

104027 #4 집안이도 네가 습빱,

104027 #6 몬지도 습빱,

사냥

104028 @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28 #1 사냥요즘은 그런 가노루사냥 꿩사냥 지달이사냥 총으로 노루허곡 군부대에서 빌려옥 지서에서 빌려 다녔고 조금 엽총 노루사냥.

104028 #5 사냥 그건 이디 흐 시 안허난,

104029 @ 꿩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9 #1 꿩은 중간에 그 가느다란 철사가 전선이 일본놈의 전선은 가느다란 전선이 있어. 그놈 있을 때는 그거를 꺾데기 베겨뒀으네 꿩코를 놔가지고 이제 꿩질이 이서. 이 새 비기 이전 끝은디 밀림지대에 영 가면은 그 풀이 이렇게 있는디 겨울에 득신 딜로 꿩질이 이서. 꿩질에다가 코 놔두민 글로 넘어가는 놈은 백프로 걸리거든. 계니까 아이덜이 전문으로 허는 아이덜이 이섯고, 계서 여러 개 걸린 때는 꼭는 아이덜도 있고 그렇게 했고.

104029 #3 조금 무싱거 행으네 현 사람덜은 엽총, 꿩총 그 사냥총 그걸로 행으네 노루사냥도 주로 했는디 이 우리 촌에서 꿩사냥은 코 코 꿩코 코 놔가지고.

104029 @ 코예 꿩코예?

104029 #3 코 놔가지고 야개기 걸령 죽는 거.

104029@많이 해봤수과?

104029 #3 그거 스촌 이제 돌아가부렀수다마는 스촌 그 흐를 겨울 이때부터 꿩 코놓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음력 11월달 음력11월달에 우리 집안에 그 제사가 많은디 그놈아 살아있을 적에는 그 꿩 꿩 행으네 젓갈 젓갈허젠 게난 그 날ㄴ라 형님 혼번 그 저 꿩코 노래 글렌허길레 간 ㄴ치 가그네 똑같은 그놈의 새끼 코에는 드는디 나꼬에는 전혀 들지 않하여. 아이고 이거 당추 안허켜. ㄴ치 요거는 나신디 벗허젠 벗을 헐라고 ㄴ치 글렌 헐 거 아이고 경허당 나코에 하나가 장끼가 하나 딱 장 꿩이 하나 들었는디 간 급헌 바람에 확 좁아댕기당 줄로 허영 나 손도 끊어서. 겨난 그디 오래간만이 하도 반가운 바람에 확 강 심영 좁아댕기니가 손을 문착 끈차 낱 꺼 촛촛이 헐 거주 무사 경 바쁘게 무사 경.

104029 @ 멧살 때 얘기마씨 거는? 언제

104029 #3 중학교 중학교에 들어갈때ㄴ장 그거 했주기.

104029 @ 어머니 뭐했겠다예? 병원은 안가고예? 재미있었다예

104029 #3 그때 병원이 어디서게?

104029 @ 재미있었다예.

104030 @노루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0 #3 엽총 그걸로.

104031 @ ‘지달이’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1 #1 지달이 사냥은 그 것도 유전성이 이서야 되어. 지달이라고 헐 놈이 들굽날굽한다고 허는디, 급허면은 구멍에 들어가서 막은 창에도 들어갈 수 있주만은 지달이 원질로 사는디는, 들어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피헐라고 나가는 비상구가 잇어. 거 있젠허고 게 지달이 사냥 가는 사람은 아그랑작쉬라고 가지고 다녀야 돼. 개가 개사냥개가 요런디 와서 영둥이 들르고 이렇게 하면은 벨놈이 개도 덤벼들지 못한다고 허거든. 게 그때는 아그랑작쉬를 쓴다는 거야. 아그랑작쉬는 뭐냐허민 몽둥이 흐 발 지러기헐 거 이마니 헐거 해서 가서 각 누르뜨면은 그때는 개가 탁 달라들어서 물어서 해제키거든.

104031 @ 브이자로 된거 영.

104031 #1 응 확허게 아그랑작쉬라고 해서 지달이는 이 앞발, 이빨이 무서운 거 거든. 게서 영둥이를 요렇게 디물고 이렇게 허면은 못덤벼 든다는 거라. 게서 지달이는 개가 탁 달라부틀 때 혼번 이걸로 콧 이렇게 세와 놓고 치면은 겁나서 덤벼들지 못한다고 허거든. 게서 개가 주인 있으니까 딱 캉캉 주끄면은 뭐허민 돌아나지 못허고 ㄴ만이 있을때는 아그랑작쉬를 확 누르며. 게서 잡는다고 허고.

104031 @ 지다리에.

104031 #3 지다리 사냥은 안 해봐서. 지다리 사냥은 안 해봤는데, 우리 동네에 침 그 어른도 돌아갔수다마는 그 사람은 지달이 사냥을 개 하나로 하여 게난 그 개가 열네살에 난 돌아 죽어신가 멧살 낭 죽어서. 겐디 열 살 먹어가난 니빨 빠져불연. 야튼 그 지달이 구멍에 강 들이치민 그놈의 갠 들어 강 쪽 그걸 물영 나왔으니

까

104032 @ 족제비 밧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1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족제비, 족제비 밧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족제비는 어디로 다니느냐 물로 다녀. 물 물질로 큰 비가 왔을 때는 물 흐르는 디는 그 잣 구멍이 많아. 그런 그 물 흐르는 근처에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담을 너르게 쌓아가지고 쪽허게 해서 물이 천천히 넘어가도 좋겠다하는 길에 자락 넘어강 흙 끄서붙지 않허게 그런 뒤가 잇으니까 드시고 흙진 부분으로 그 족제비가 가니까 그런 부분에 족제비 밧을 노면은 나도 하루 식개씩은 잡아봐서. 그 당시에는 족제비 받으레 땡기는 사람이 이서. 게서 그거는 경험이 있고.

104032 @ 족제비밧?

104032 #3 족밧도 우리 잘 놔줍주. 족밧 일년에 족제비 잡아근에 즉 혼미리허면은 그 사탕값도 족밧도 요라반디 놔난.

104032 @ 삼촌도 해반마씨?

104032 #3 나도 그디저디 왔는데 요라반디 놔난 바로 그 우리집 마당에 족밧 견디 죽도 그 족제비도 이 봄나근에 털같이헐때는 안되고, 그자 겨울 들어 강 음력 시월달나근에 죽밧 놔근에 허게되면은.

104032 @ 털이 고운가보다예 풀아마씨오일장? 사는 사람이 이서?

104032 #3 어 그 그때는 족제비 털이, 그 견디 족제비도 그거 색깔이 여러 가지라. 검시룽헌 거 검은 완전 검은 거 검시룽 희미룽헌 거잇고 검시룽헌거 거 잇고 빨강케 아주 색깔 고운 거 잇고 빨강케 곤 거는 헌 거는 돈을 더 주고, 희미룽헌거 나 검시룽헌 거는 건 돈을 덜 주고 헐, 거 춤 우리 어렸을 적에는 들에 나강 이제는 들에 나강 타먹으레 해도 안먹는데 즐갱이 타먹으레 뒤 이 저 폭 타먹으레 즐갱 이영 뒤영 무신 삼동 지금도 삼동은 건 아주 좋은 거라예 삼동.

104032 @ 탈.

104032 #3 탈같은 거 그런 것만 주로 우리 어린 때는 그 참 그 간식이 바로 그 거랐으니까.

104032 #5 밧 멘들아그네 꿩이나 영,

104032 #6 요추룩헌 가쟁이 행 여간 여깡으네 이 안에 거 저 무싱 거 꿩이 들 아메그네 영 강 놔뒤당, 그거 꿩이 강 툯 툯아먹으민, 그거 탁 땡라정.

104032 #5 이제 족제비도 잘 못 봐, 옛날은 그 족제비 잡아난 족제비,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33 #1 제주도에는 지금 말들어 보면은 멧돼지가 잇긴 잇는디 우리 옛날전 설에 의하면 돛순빌레가 있고 돛 죽은 물이 잇는디 그것은 아마도 멧 백년전 얘기 인 거 같고 제주도에서는 우린 멧돼진 안 봐서. 지금 한라산에 가면은 많이 신 모양이라.

6. 의생활

명주

106002 @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2 #4 그거 저 준글레기 닳은 거 해당 저 일곱종제 해당으네 일곱종제 현 거는소미, 요마니 현 거 일곱종저 멩글락멩글락 현 거, 영흔거 ㄱ져당 영 뇌두민 그 것이 보골보골 난, 보골보골보골 나오민 이젠 웨박, 웨박해당으네 그 칼로 막 줌질 게 썰영 켜 영영영영허민 먹으멍 요마니 크당 요마니 크당 요마니 크당 문 크민 막 요마니 바글바글 바글바글 해당 저 거 무싱 거 박해당으네 츄츄츄츄 요마니 그거 막 익어노민 이제 요만큼 그거 이제 싱경으네 요물이 싱가 어싱가 허당 이제 그 똥 문딱 싸불민 문딱 싸불민 그놈을 심영으네 제지낭 제지낭 제지낭 저 ㄴ물 해당 제 지낭 우이 올리고 이제 그놈이 입으로 실네우멍 그 고치를 헤여근 내왕 막 곱게 맨 들민 두글락 두글락 거 줄줄줄줄 네우랑, 거 ㄱ져당 이젠 거 쪼그만헌 솟디 쪼그만 현 솟디 헤영 그것에 꿰우멍 그 실을 늙은 할망덜이 한바다기엔 해도 이만이 헤여. 이마니 허여, 경허민 이젠 그걸 해당, 늘곡 이젠 매곡 타곡허민 멩지가 돼지.,

106004 @ 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4 보통은 저성 장옷, 남자는 도폭.

106004 #5 중의젓삼 ,바지저고리, 치매저고리,

106004 #4 멩사람 못허매. 어신 사람은 못허여.

106005 @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5 #4 민영은 저 밧디강으네게 멘네씨도 뿌리고, 비료도 빼곡 행 뇌두민 나 주게 나. ㄱ죽ㄱ죽ㄱ죽 나주기게 이젠 이거 키왕 검질메영 키왕으네 커가민, 우막아 사 헤여 우막아사 이제 팔록팔록 이제 크민 타당으네게 물레에 불랑 이젠 물리영으 네 이젠 타당, 그거 어디 저 기계에 강으네 태왕 태왕 영영영 정밀영 영영영 바롱 바롱바롱 쌍 영 착 하하 영영 착 하하하하

106005 @ 노래도 해났구나예?

106005 #4 해났지. 해났지 영영영 싹 헤노민 이제 이만큼 허여, 이제는 그거 열 개, 열 개 헤영으네 뿍앙 솟디 이제 영영 뿍아당으네 영 낱 이젠 매영 이젠 탕,

106005 #5 멘만 허민 좋주기, 그거 헤영으네 이제 늘앙 이젠 그거 헤영 다시 이젠 무싱 거 영영허영 무싱 거,

106005 #8 풀 잘 맥영 실 멩글앙, 그걸로 옷헤영 입고,

106005 #6 잘차는 사람이라야 흐루 흐 필 서른자, 마흔자,

106005 #5 마흔자, 마흔자가 흐필이주게.

106005 #4 아이고 흐필 못헉네다. 스무자.

106005 #6 잘차는 사람은 그거 흐루 흐필 차.

106005 #8 멩지는 흐 필 절대 못짜.흐루종일 헤사 다솟자백끼 못짜.

106005 #6 멩진헤도 민영은 경 차낫수다.

106005 #7 예 민영은 잘 허는 사람 혼필헤나도 멩지는 경 못허여 줌진거난 경 못,

106005 #4 당취 멩지 멩지 얼마나 줌지카부텐,

106005 #7 우리 어릴 뎨엔 멩지는 안헤나고, 민영 뎨네 헤그네 민영 식필씩 허 영 폴아났수다게.

106005 #4 나 씨어멍 멩지 차단 놔두시킷돼 못허여고 못허여.

106006 @ 누에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6 #6 누에고치 거 벌거지를 질루민 누에고치가 됩네다게. 크민 막 크민 그 게 벌거지가 누에 맨들안, 츠레로 곱릅서게 게민 거꾸로 굳지 말앙, 벌거지 크게 질 루왕 저레 무신 나무에서 저 유채나무에 올리민 그게 씨를 맨들앙

106005 #4 입으러 실 내왕,

106006 #6 응, 실 내왕 그거 영영 벌거지가 고치를 맨들앙, 경헤연 그 벌거지 맨들앙, 그걸로 많이 헤낭 그걸로 많이 헤영 우리가 숲앙 그걸 뽑아내영 이제 뿔드 레 감앙, 감앙으네 멩주실을 둥글락허게 맨들아 낭, 그거 딱시 베클에 낭 그걸 딱시 자 맨들아 낭 베클로 짱, 짜민 그거 멩진 흐루 멩자씩 못헤났수다.

106005 #7 줌진 거난거난,

106006 @ 뽕나무가 어디 생 그추록 누에를 했수과?

106006 #5 곳이 강 곳이 강,

106006 #7 집집마다 뽕나무 질루왕,

106005 #8 질루는디가 어디 싯수과?

106006 @ 청수에도 많이 했수과? 청수에도 많이 허연?

106006 #7 노인덜 다했지.

106006 #5 많이 안헤나서.

무명

(#4: 이오생, #5: 오옥희, #6: 김춘선, #7: 강영래, #8: 고성이, #9: 박성요, #10: 오행순)

106007 @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에 대해서.

106008 #7 민영은 뎨네로 헨거 민영 누에헤영 허는 건 멩지.

106008 @ 민영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8 #4 갈중이영 갈적삼이영, 보선이영,

106008 #5 바지적고리영 다 뎨들앗주.

106008 #7 다 민영,

106008 #6 감들영 감옷을 했수게. 감옷

106008 #7 아니, 감 안들영 검은 물도 들이고, 검은 물 들영 앙,

106008 #6 검은물도 들이고 또 저 뭐 밤색갈도 들영, 그걸로 옷 뎨들앙 입으민, 그걸 고급옷으로 어디 갈뎨 입영가곡,

106009 @ 토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09 #5 토목이 그거라.
 106009 #7 토목이 이제 민영.
 106010 @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5 예. 광목이 너븐거고, 네베기 요메니배끼 안헌거고,
 106010 #4 제주도는 민영뿐, 민영뿐,
 106010 @ 제주도는 민영뿐?
 106010 #5 예. 옛날은 민영만 했수게.
 106009 #7 민영허고 멩지,
 106010 #5 혼 사람은 멩지허고 민영이나 했주, 이디선 광목이엔 현 건 일절 어
 서난, 우린 올라온 거,
 106010 #4 이 제주도선 광목 못 입언,
 106010 #7 저 모멘 모멘은 이제 저 옹포, 옹포 모멘공장 있으니까 옹포에서 모
 멘공장허언 모멘덜은 옹포서 모멘공장 셔나고,
 106011 @ ‘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1 #5 홍세미녕은 새시방 새각시 시집갈 때, 홍세놔주는 거 시집이서
 106011 #7 춤 그거 민영 곱게 짜그네 옛새목이엔 허언 막 춤질게
 106011 #5 일곱세민영이나 옛새, 일곱새
 106011 #4 옛새가 보통,
 106011 #7 춤질게, 곱게 짱,
 106011 #4 경험 두 개 행 ㄱ짱케 놔그네 행 함에 담양,
 106011 #5 함에 담양, 그래 저 거 무싱거엔 곧느니 함 씨고 함이라고 글 써놓곡
 행 그래 ㅎ정강,
 106008 #4 경험연거 민영 트멍에 거 무싱거 예장 썩. 예장 썩으네 그 우트레 더
 썩,경험 드러낫주기.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네용시?
 106012 #5 멘네 씨해영, 무싱거렌 허느니 옛날은 그 멘네도 쉼똥허언 쉼똥에 부
 병으네 다시 불채에 부비곡 헤어나서,
 106012 #6 밧디가 갈양, 씨 갈양, 그건 비료가 안나니까 그건 걸계힘으로 쇠똥
 에 부비고, 불치해영 스똥 버부령으네 그거 갈양 네왕, 걸 키워 그거 이마니 크민
 우이 툃툃 그차똥 그 드레기가 많이 저 만들기 위해서 우인 그차부러.
 106012 #5 검질매영, 드레기 메는 것도 저 알로 혼멧개, 그자 우막아사 허주, ㄱ
 장 피젠 낭이 이만이헛젠 우막으민, 젓순만 남양 생전 드래 안여는거랑게.

모시

106013 @ 그 다음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3 #5 모시는 여기서 혼어시 안허여.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5 중의적삼계.
 106014 #4 제주도선 모시 못봐.
 106014 #7 여름에 입는 거.여름에 입는,
 106014 #5 지일 고급옷이라. 겐디 죽음에 노민,머리에 즈손덜 머리훤덴헤여.
 106014 #7 경허여근 모시이제 ,죽음에 안 입는 거.
 106014 @ 호상옷으로.
 106014 #7 예. 그걸로 아니쓰는 거.
 106014 @ 멩주가 좋다는거지예.
 106014 #7 예.멩지는 좋고,
 106014 #6 베는 허여도 모시는 안협니다.
 106014 #5 모시는 죽음엔, 절대 죽음엔 안 놔.
 106014 #4 즈손덜 머리훤덴,
 106014 #5 즈손덜 머리헤영헌덴,
 106014 @ 재미잇다예.
 106014 #4 즈슨이 이렇게 헨다고(훤머리 할머니 가리키며)
 106014 @ 계도 곱기만 허우다게.
 106015 @ 모시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6 #5 삼에 혼어시 삼에 대헨 혼어시, 삼 행으네 갈앙 그거 헤영 홀트멍 헤
 도,
 106016 #4 흥쌀 이빨로,
 106016 #5 그건 꼬아그네 신 늘삼고, 그런 건 헛주, 옷에 대헨 건 안헤반
 106017 @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5 그것도 중의적삼허곡, 중의적삼이 제일이주.
 106017 #4 남자덜은 두루막 헛주, 모시두루막.
 106017 #6 옛날은 물레도 어시난 치지, 치지나무 키왕, 그것에 열매 열앙,그물
 들이민 노랑허민 그게 고왕, 그게 고운 옷으로 베옷을 만들앙 경헨 해 낫수다.
 106018 @ 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8 #5 삼재배는 하영 안허고,

도구

106019 @ 씨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6020 @ 물레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6020 #5 물레는 멘네 영영 헤가민 저레 블라지멍 나가곡허민 그걸 블라가지

고, 이젠 그걸 테우민, 와가지고 다시 이만이 정글양
 106020 #6 이만큼씩 행 소계 태우는다 강 만들아오랑 이렇게 이렇게 부비멍,경
 헨 그거 정이엔 합니다. 스랑허게 멘들양 우리 실빠는 게 정,
 106020 #4 영 허영 영 착,
 106020 #6 경헨 그 실행 만든 거는 꼬리, 그거 꼬리엔 행으네 하엿튼 옛날 사람
 106020 #4 가레기에 꿩안, 가레기에 꿩연 영,
 106020 #6 그 실을 가레기에 꿩안 영영 둘러가민 실이 영혜영 영 나옵니다. 그
 례 경허튼 그걸 영 보제기 맨들양 기계로 죽 감아지게 만들양 영혜영 죽 감아지곡,
 106020 #5 물레에 가레기 꿩어서 그레 영 헤여서 영영 허여서 영 행 다시 올리
 고 경헨 다시 올리고 영영 허멍, 뉘민 뽑아서 가레기에 다시 이제 저 어욱, 어욱고
 장 저 산에 어욱고장 그거 해난 거 허영, 그런 거 그거 다시 가레기에 꿩연 다시
 영영 올령, 하나 뉘민 이젠 빵, 빠서, 이제 다시 하나 찢령 다시 영영 그득이민 다
 시 빠고,
 106020 #4 열 개, 열 개.
 106020 #5 열 개를 행 다시 솟디 청, 그거 행 이제 열 개 가레기 꿩영 허영 그
 거 열개 씨를 문딱 뽑아그네 경혜영 문딱 실 뽑아네영, 그거 다시 문딱 헤연 다시
 낀 다시 놀양, 놀아 낀 딱시 풀 맥영,
 106021 @ 베틀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6021 #6 꼬린.
 106021 #5 풀 맥여사 저 찰건디,
 106021 #6 이렇게 이렇게.
 106021 #5 건 꼬리 감는거고.
 106021 #6 널어낵.
 106021 #5 아니 거 무싱거엔 끈느니 그 저 베틀에 허는 건 저 무싱거께 문딱헨
 그 무싱거 저저,
 106021 #7 놀아낵.
 106021 #5 놀아낵사.
 106021 #7 득꼬마리에 감양,
 106021 #5 게메 득꼬마리에 감기전이 문딱 놀아낵사, 그걸 이렇게 이렇게 허멍
 춤 허당, 하나하나 다 헛당, 그거 이젠 문딱 그레착에 그레착 농곡 이디 강 놔둬서,
 조롱조롱 등기멍, 이디선 풀 맥이멍, 비로 영영영영 다 찢멍,
 106021 #6 감아놔야 그걸 멘글앗지게.
 106021 #5 끈건 들읍서게, 그디 게난 브디에 게난 문딱 보디에 꿩여 낵,
 106021 #6 보디 그걸 헤지냐 말이여.
 106021 #5 고긴 영영 감는 거가 고기고,
 106021 #4 네중에 허는 거, 말제허는 거.
 106021 #5 지일 말제허는 거.

106021 #6 지름칠 해영 고기 감아?

106021 #5 풀칠허는 건 드드마리허여근에 브디, 브디망 두 개 웨어근에 저 무신 브디집 행 착착 해여근에 허게 웨어사, 보리 담양 숲양 물에 들이청 숲양 건정, 이제 다시 고무빡드레 들이청, 이제 무신 그거 요영현 거 나오지 못허게 해팅, 이제 그걸로 착 저레 강 착 두들리고, 저레 강 착 드리청 브디집 착 동기민, “하하하하하” 그건 마리 마리 질 말제에 허는 거.

106021 #5 보디집 물에 들이청 숲양 건정 이제 들이청 브디집 착 질말제 보디집 탁 동기민, 물에 드리청 숲양 건정,

106021 #7 순선이 어명이 츠레로 곶암수다게.

106021 #5 요마니 무싱거 그레 드리청으네 요영현 저 무싱거엔 흐느니 저 꼬리, 베헤영 못나오게 영 무싱거 보디집에 걸로 다시 착허게 보디집을 탁 동기민 이걸 영 동기곡 영 밀리곡 행으네 영 디밀민 총신에다가 저 무신 동기민 일로 착 보디집을 동기민 자지민 일로 착 땡기민 경했수다.

106021 @지금 말씀허시는 건 물레파 베틀이파?

106021 #5 베클, 베클,

106021 #7 베클, 이걸 베클.

106021 @ 물레는 안허고예?

106021 #5 실 싸는 게 물레고,

106020 #6 실 뽑아네는 게 물레, 실 뽑아네는 게,

106021 @ 이것도 해나고 들다?

106021 #7 이걸로 옷을 행 입곡 이불까지 다 이걸로, 이 민영으로 이거 민영으로 제주도는 그자.

106021 #5 민영 문딱 털어가불고.

106021 @ 멧살부터마씨?

106021 #5 우리 옛날엔 멘네 갈양 타 오곡, 무싱거 허곡, 계속 일본시국이니까 일본시국이니까 다,

106021 #6 공출해.

106021 #5 공출행 다 빼가불고, 무신 민영 그걸 곱젓당 네냥 허당 안웨민 문딱 털어가불고.

106021 @ 멧살부터 헛수과?

106021 #5 열 살도 전이부터 나가니까.

106021 @ 예닐곱살에 베클을 허연마씨?

106021 #6 아니게, 숨을 타왔지. 숨.

106021 #5 멘네 타오고.

바느질

106022 @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2 #5 그 옛날엔 저 무싱 거엔 허는니 요마니헌 바구리새끼에 동이 뚫라진 요영 동글락헌 거 바구리 오모록헌 건데, 바농상지 허영 그레 다시 저 가위 돌아멘, 춤, 무싱거니 실쫄레 실쫄레 허는 건 바농께는 거 ㄴ라 신쫄레, 그거 해영으네 그 차롱바위 이디 헨 즐라멩 뇌둬서 바농 씨난 꼭 쫄렁으네 감양 영영 감양 뇌두고, 사람 몸더레라도 쫄를카부덴.

106022 #6 바농은 그 시국엔 없으니까, 옛장시 옛장시신디 무싱거 신착이라도 헌 거주민 그 바농은 쫄수다.

106022 #5 신착 헌 거 내불지 앓허여.

106023 @ 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3 #5 바농질은 뭐 이제도 그냥 바농질은 다 해영 옷 행 입고, 우린 바지저 고리도 다 해나난.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4 #5 줌벵이 갈중이 적삼보다 줌벵이, 옛날은 줌벵이 줌벵이 걸 ㄴ라 “줌벵이 입저사 줌벵이 행 입저사” 행게.

106024 #4 줌벵이 감들여사,

106024 #5 예게. 줌벵이 행 입저사곡, 뺨스나 행 입고, 그자 경허민 중의적삼 행 춤 줌벵이 행 입으민 걸로,

106024 @ 뺨스렌 햇수과 살마다엔 햇수과?

106024 #4 살마다 살마다, 뺨스렌 안허영 살마다.

106024 #6 게고 남자 옷은 이 강알에 밋으신 강알옷을 만들앗수다.

106025 @ 여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5 #6 여자옷은 이레 묶영다녀나서 이마니 넓게 행 . 영 행 걷영 일로 행 걷영 오춤도 싸고 옛날은,

106025 #5 이마니 넓게 멘들안, 이제 곱으민 이추록 입엇수다. 이마니 다리 영 행 다님 감양 영 해영 묶어그네 옛날 할망덜,

106025 #6 경헨 그걸 걷영 글로 영 오춤싸고 여자덜은,

106025 @ 거 곱중이엔 안헛니까?

106025 #4 곱중이 곱중이.

106025 @ 거 곱중이 정말 오춤 싹마씨?

106025 #4 응 오춤도 싸고, 뚱도 싸고, 영허든 막 너른너른허민 궁둥이 나와,

106025 #6 소중이 만들양 입고, 흐쫄 부젯집인 아기덜 소중이 멘들양 입저주고, 가난헌 집인 소중이만들 것도 어선 못 만들어서. 그냥 곱중이만 입주.

106025 @ 아이고 재미지다예.

106026 @ 아이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6 #6 아기옷도 그냥 염색들영 곱게 해영 입지고,

106026 #4 감들영 감뻥상,
 106026 #6 감들영 입지고 부젓집 아이, 흐썰 부제, 흐썰 사는 집이라야 아기 염색호연 경 곱게 헨 입지고, 가난헌 집인 감들영 입지고 경헛수다.
 106026 #4 아니, 갈옷은 갈옷은 아무사람이나 헤엇수게게.
 106026 #6 게매, 갈중인 아무사람이나 헿 입고, 물들영 곱게 헨 건 흐썰 부젓집이,
 106026 @ 갈옷 입엇헨헤도 겨울엔 감옷 안입엇주게?
 106026 #5 물들여가지고 옛날엔 저 차는 민영마다 해신디 꼬리 영 헌것에 무싱거엔 허느니 검은 물들영 꼬리 멘들양, 이제 영 차민 알록달록 알록달록허게 민영을 차지는 거라. 흰꼬리에다 흰 것에다가 검은꼬리를 차노니까 알록알록,
 106026 #6 노랑꼬리도 난 차고.
 106026 @ 노랑꼬린 아까 치자 논거?
 106026 #5 아니아니. 노랑멘네 이서나서 옛날도.
 106026 #7 예.멘네도 두 가지.
 106026 #5노랑멘네는 흰 멘네모양으로 바라바락은 안허여 즈락즈락 어서부난,
 106026 #7 예. 즈락즈락하영 나도 안허고, 방울이 막 즐앙,
 106027 @ 마름질과 옷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7 #5 꺾세 끝이게 여자는 소중이 멘들양 입고, 남자는 저 뻥스도 멘들양 입고,
 106027 #4 살마데,
 106027 #5 뻥스나 살마다 만들양 입고, 다시 갈중이나 헿 입고 그자 그게.
 106027 #6 남자 아이는 이디 이만헌 베 그 즈른 중의로 만들양 입지고, 여자아인 소중기 헿 입지고,
 106027 #5 옛날 사는 게 얼마나,
 106028 @ 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의 각 부분의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106028 #6 바지는 소곶에 무신 헌거나 흐썰 무신 입단 옷으로나 헤영 속에 농곡, 중간에 소개 낱, 경헨 민영으로 허곡 헿 만들양, 저 경호난 소곶에 그 소개를 감추왕으네 소곶에 안 농곡, 바깳디 민영 놓고 경헨 만들양, 어른들은 경헨 입져.
 106028 #5 소개저고리 입지고, 바지 입지고,
 106029 @ 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9 #5 옛날도 단추 이서. 단추도 믹진단추,
 106029 #4 옛날엔 단추 어섯져. 영 곱,
 106029 #6 흐김 만드는 집이라야 그 만드는 그 멘들양 입엇주, 단추, 아무집이나 단추도 만들지 못해서.
 106029 #5 단추 믹장 속곳에도 단추 낱으네 들메기 들메기 허멍 단추들양 영 허곡,
 106029 #6 단추가 어디서?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0 #5 빨앙 푸답 헤여그네,

106031 @ 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5 염색은 웨나마나 민영을 차 다시 검은 물 사당,

106031 @ 검은 물은 어디 강 사마씨?

106031 #5 물레장시가 이서나서.

106031 #6 옛장시신디 옛장시신디,

106031 #5 아니, 물레장시가

106031 #6 방울, 뭐 하간거 다 정 텅기멍 옛도 받고, 비누도 풀아.

106031 #4 아이고 비누가 어디 셔?

106031 #6 옛날은.

106031 #5 옛날은 무명도 허민 재에 솥양, 재는 불 습아난 불경, 재 낱, 스답 솥양, 그거 강 무통에 강 계속 솥양, 물렛닥 빨앗닥 물렛닥 널엇닥 허멍 드러 반복헤영 경 행 다라에 담양,

106031 @ 불채마씨?

106031 #5 예.불채, 그거 허영 푸답허영 다듬양 허믈 다닥다닥 풀마께질허영으네 빈직빈직 다듬양, 나중에 요거 요렇게 허여서 마주 개여낱 꺼네영 다시 경 옷을 만들영 경허멍 살아와서.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2 #3 신발의 종류는 짚신, 고무신, 검은 고무신.

106032 #5 이마니헤게 요만씩허게 허게 헤오민, 이젠 일로이레 들척이헤영 요만씩 다시 아무것도 안헤영 그냥 줄아가곡 줄아야정, 요레가민 신돌벙이 헐 이디가민 다시 이디 강 신돌 영 헤그네, 이제 ㄱ쟁이 꿩영 다시 이제 문딱 이젠 벙허게 허영 이젠 다 못차지면은 어땡허느냐허믈 이젠 다시 신골이 요만씩헌 신골이 잇어. 신골 허곡 뒤척이 허는 거 싯고, 중간에 허는 거 싯곡허민 그것에 마께로 닥닥 다듬영 허영 이젠 잇당, 코쟁허게 곱게 이걸로 무신 신영 신돌로 행 막 영영 문질렁 영영 문지르곡 헤영 문딱 딱 꿩어지민 딱 헤영그거 행 신영 경허멍 살아와서.

106032 #4 경행 그거 신어나민 이디가 벳겨전, 뒤척이 문 벳겨져.

106032 @ 이름을 초신?

106032 #4 초신, 초신

106032 #5 박물관엔 다 초신이서.

106032 @ 짝신이렌 안헤영 초신이엔?

106032 #5 옛날엔 시집 갈때도 시집이서 잘 출려 줄때도 씨아방이 고급으로 이

제 우리 나뭇허듯이 꼭대기 습양으네 ㄹ꺄락끼 곱게 습양 깝 부병 습양 곱게 습양,
눈늘개기 헤영으네 막 싫어하는 사람신디 눈늘개기 헤영 신 삼양 오민 그거 주꼭
해나서 옛날엔, 얼마나 정성들연,

106032 @ 그것도 초신예?

106032 #5 다 초신,

106031 #6 곱게 멩근 건 깝신.

106032 #4 미투리, 미투리.

106033 @ 곱게 멩근 건 깝신예.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
오.

106033 #3 가죽신 그건 우리 세대엔 그게 없었으니까.

106033 #5 그건 몰라. 우린 허는 거 안봐난난 잘 몰라,.

106033 #4 몰라, 제주도에선 안해난,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4 #3 나막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봐서마씨. 보기는 봤는데 그 저 그것도
우리 대엔 없어져불고,

106034 #5 나막신은 낭토막을 해서,

106034 #6 나막신은 낭토막 헤근에 멩글안게.

106034 #5 낭토막 영 허연 벌러 가자고, 이젠 이추록 이추록 벌러가지고, 영 이
마니 헤여 놓으면은 이디 몬딱 파는거라. 요디 네비지 았고, 영 곱게 내비여둬서 몬
딱 이젠 이 소곱을 다 파는거라. 파 낱 ㄹ꺄꺄허게 이젠 발 아프지 안허게 몬들레끼
과냥으네, 이젠 극췌로 글그멍 허영, 그 신더레 디밀양 신영 이젠, 조실이 요렇게
웁거라. 요렇게, 요렇게 웁거난 이거 뒤척이도 있고, 요디 영 디밀민 이디만 나오랏
주. 이디도 뵈이 신거라, 다 썩여진 거라. 그거 신영 나막신이라고 허영 신영, 옛날
은 눈 올 때 그자 그걸 옛날은 고무신도 어렵고,

106034 #4 경해도 옛날은 헤저시냐?

106034 #5 경허난 그것이 지일 고급스러운 거라서. 나막신 신영 텅겨서 옛날은,

106034 @ 비올 땐?

106034 #6 비 올때고 눈 올때고,

106034 #5 눈 올 때 비 올 때 짝신은 신영 텅기다 보면은 젓이민 발 젓영, 실리
왕 못전디고, 옛날 시절은 그렇게 행 살아와서.

106034 #6 게난 그 나막신 신영 텅기당으네, 안으로 막 부트꼭부트꼭 허민 이마
니 너브민 탁 넘어지곡,

106034 #5 이디 신 막 얼령으네 이마니 높아, 경허민 텅기당 지락허민 헤뜍 갈
라지곡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허멍 살아와서,

106034 #4 민들락허민 발 ㄹ꺄꺄고.

106034 #5 경헨 발 ㄹ꺄꺄고 허리 꺼어먹고,

106034 #6 아니 발 ㄹ꺄꺄는 게 하.

106034 #5 경허명 옛날 살아온 과정은 그렇게 살아와서.
 106034 #6 멘 천지.
 106035 @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5 #3 짚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봤는데 우리 해보진 안하고.
 106036 @ 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의 종류는 초신허곡 깍신예?
 106036 #5 고운 신은 깍신, 그냥 허드렁케 신는 건 초신,
 106036 @ 웨젠허난 영덜 모여전예.

모자 등

106038 @ 여름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8 #5 옛날이나 이제나 모자는 밀낭페랭이가 제일 데주했고,
 106038 #4 여름엔 헌벽배끼 못쓰곡,
 106038 #6 게곡 여름엔 페랭이, 하나씩 페랭이 줄아나서.
 106038 #5 페랭이 밀낭 꼬대기 그창, 밀낭 꼬차당으네 영영 짜그네,
 106038 @ 보리짚, 보리짚, 보리,
 106038 #5 보리짚이 아니고 밀낭, 밀, 밀,
 106038 #6 밀짚,
 106038 #5 밀쿠루 밀낭 꼭대기 툷앙,
 106038 @ 거난 밀낭페랭이이파? 아이고 건 몰란 밀낭페랭이 밀낭페랭이해도 보리허는 것이 밀낭페랭인 줄 알앗주게.
 106038 #5 밀짚허여당 즐아가지고 영영,
 106038 @ 아이고게 세상에 밀낭으로 허난 밀낭페랭이로구나.
 106038 #5 게민 이추룩 영 행 짜민, 짜곡 행 짜민, 밋밋 그거 짜지민 그거 옛날인 저 뭐시냐 물레에 민영 짜는 물레에 영 행 문딱 문딱 영영 멘딱허게 허영, 구멍 그걸로 다시 밀낭페랭이
 106038 @그건 보리낭으로 안헤낫수과?
 106038 #5 보리낭도 헛주만은 밀낭이 하영 헤서.
 106038 #6 보리낭으로 1년 쓰는 거민, 밀낭으로 2년 써나서.
 106038 @ 아이고야 게민 이동네에서도 밀이 재배가 뵈다는 거다예?
 106038 #6 밀을 많이 글아서.
 106038 #5 옛날은 밀 갈앙 먹엇거든, 살아온 과정이, 밀낭이 지일이주게. 밀낭 헤영으네 그거 행 춤 떡도 행 먹고, 즈베기도 행으네, 글앙 떡행으네 식계멩질허고 허곡, 다 옛날은 경 헛주.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4 병것 병것
 106039 #5 밀낭페랭이허곡 다시 옛날은 무신 터럭헤그네 병것 멘들앙 써나곡

106039 #4 터럭 병것, 모저는 이제사 난 거라.

106039 #5 예 모저는 이제사 낫주, 옛날은 모저만 어서나서. 옛날에 저 우리 알
아지는 건 뭐시냐문, 휘양, 휘양이엔 헨에, 헌벽 행으네 이추룩 영 이추룩 영 진 헌
벽에다가 요렇게 놔가지고 요영 쥐근에, 영행 썩, 심방모자 썩곡 요영 썩 친 메는
거,

106039 #4 휘향, 휘향.

106039 #5 휘양, 그거 휘양이라고.

106039 @ 휘양이 뭐파?

106039 #5 저실에 쓰는 모자가 그런 모자가,

106039 @ 아 여자모자 남자모자?

106039 #5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써놔져. 한쪽만 주민 이딘 영 벌겨지고 일로
행 썩곡, 옛날엔 그렇게 허멍 살아서.

106039 #8 민영으로 멩근 거 것도,

106039 @ 이건 겨울에?

106039 #5 겨울에.

106039 #4 겨울에 겨울에,

106042 @ 탕건 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꼬리로?

106042 #6 탕건같은 거, 그거.

106042 #4 들충으로,

106042 #6 그건 저 조천더레 가는 거 허영, 이렌 그거 안허여,

106042 #4 한림엔 거 허여.

106042 #6 게매 한림까지는 헛주마는 하영 허는 건,,

106042 #4 이렌 안허여.

106042 @ 이렌 그런 거 안헛고예?

106042 #6 함덕, 조천더레 가민,

106044 @ 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4 #3 도롱이나 탕건망건 같은거는 이디는 자세히 몰라마씨. 그거는 또 이
쪽서촌에서는 주로 동촌에서.

106044 @ 비 올 때 영흐는 우장?

106044 #5 거 마라 뭘생헌다마는 것마라? 그 저 새로 짜근에 초,

106044 @ 비 올 때, 이렇게?

106044 #6 츠롱이,

106044 #4 츠벙이,츠벙이,

106044 #6 츠벙이, 츠벙이,

106044 #5 츠벙이 요영 행 요렇게 둘러쓰민 요렇게 문딱,

106044 #6 등 마추멍 만들앙, 새로 짱,

106044 #5 텔레비에 나오랑게. 것도.

106044 #6 경험 츠벱이 썽 많이 땡겻수다.

106044 #4 츠벱이 안쓰민 못 헤.

106044 #5 비 웃이고 뉘고 아무겻도 어서노난 쉼 맥이레 가젠헤도 거 셔사 허
곡, 톨 보레 갈때도 페렱이만 안썽.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1 #5 밥은 보리쫄 헤영, 보리 방애 저 무싱거에 허느니 보리 갈앙 비어당
굴앙 이젠 톨방애에 강 쉼매왕 몬딱 지어당, 이젠 지어 낱 이젠은 두불 정 먹고 헛
주마는 옛날인 초벌 두불지민 새보리밥허여근에 새보리 그레에 구평으네 밥헿먹어
보고, 그걸로 즽쫄 헿 밥도 헿 먹어보고, 밧디강 오랑,

107001 #6 흐쫄 잘 사는 집인 두불 굴앙 문두락허게 밥을 헿 먹고, 못 사는 디
는 초불만 헤당 그레에 굴앙 그거 해먹엇수게.

107002 @ 밥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2 #5 근쫄도 허곡 보리밥도 허곡,

107002 #6 밥쌀의 종류는 밀밥 많이 헿 먹어서. 옛날엔 밀밥도 헿 먹고, 보리밥
은 그루후제사 보리밥 보리 난 보리밥 헤 먹엇주.

107003 @ 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5 #5 보리밥만 먹어서, 보리밥 조팍,

107005 @ 보리밥 조팍, 쉬영먹고예?

107003 #5 보리밥 헿영으네 왈랑왈랑 막 쫄 익어가민, 즽쫄로 확 들이 칭, 괄랑
괄랑 퀴영 낫당 이젠 톨 제왕낫당 걸여노민 푸들푸들 맛은 좋아.

107003 #8 옛날 보리밥 갈앙 보리 먹엇주. 제사 헿때나 쫄밥 먹주 보리밥 먹엇
주. 보리밥.

107005 @ 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5 #6 옛날엔 산디밥 먹엇주 이거 나룩밥 먹어본 디가 엇수다. 산디 강 밧
디 강 저 굴앙 겻도 하영 갈민 하영 먹어지카부덴, 남방애 정 먹을만이만 정, 저 제
사헿 때 곱은디, 멱질헿때곱은때만 헿 먹엇수다. 산디밥 하영 못 먹어서.

107005 #5 옛날, 옛날은 새각시나시 새각시들어오민 무싱거엔 허연 무똥에덜 사
람덜이 직각허연, 문 열앙 새각시 밥 주민, 손받으민 순꾸락으로 하나 영 테와주민
먹언 물러사고 경허멍 옛날 살아나서, 곤밥이 어디셔.

107005 #4 겨난 새각씨 밥 얻어먹젠 스뉘 막끄티끼지 혼수꾸락주민,

107005 #5 손 받았허민 주문 허주마는 아니주민 춤 그만이 썽썽허곡 허허,

107005 #5 밥이 죽안, 아이덜은 하곡 밥은 혼사발 시난 몬딱 못줘,

107005 # 경헌디 새각시 밥 앵, 앵 허허,
 107005 #5 춤 이제 개것도 고급이주기.
 107005 #8 우리 아기덜 키울 때 “엄마 몇번 뉘자민 식계 헐꺼? 거 들엉 뭐허
 쟈? 곤밥덕젠”
 107006 @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5 조팝도 행 먹어보고,
 107006 #6 조팝은 흐린조팝,
 107007 @ 팔뚝밥도 행 먹고 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7 #5 팻밥도 행 먹고
 107008 @ 피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8 #5 피밥도 행 먹고
 107008 #6 딱시 피범벅도 헤먹엇주. 피범벅,
 107008 #5 아이고 양, 피술은 므연게,
 107008 #6 피술도 모이고, 무신 술도 모여,
 107008 #5 지장도 모여 꼭 지장술 닦아뵈여.
 107009 @ 감저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9 #5 감저밥만도 행 먹고,
 107010 @ 무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0 #6 무는 므멸궤루레 무 낱 범벅 행 먹어. 거 진짜 맛좋아.
 107010 #5 므멸궤루 놓고 지일 맛좋아. 늣뵈 복삭 썰어 낱 므멸궤루낱 범벅허믄
 지일 맛좋아. 소금 놓고 허믄 지일 맛좋아. 반찬이 싯고 엇고, 먹어지난,
 107010 #6 반찬이 싯건 엇건 그건 헤먹엇수다.,
 107011 @ ‘툫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1 #5 옛날은 ‘툫밥’, ‘괘밥’ 혼덴 말은 들어도 허영 먹어보진
 107012 @ ‘괘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6 바당에 고기골은 건 체스헐 때 멩절헐때만 먹고, 이디서 국헤먹은 건
 늣뵈, 다시 이디 배추갈양 배추
 107013 #4 아이구, 드르늣물 캐당
 107013 #6 궤세늣멸 캐당 먹어서. 궤세늣멸,
 107013 @ 궤세늣멸이 뭐파?
 107013 #5 궤세늣멸은 늣뵈늣멸 닦아도 드르늣멸인디 늣뵈 하영 안 든건
 107013 #4 칼칼 찢 거 칼칼 써,
 107013 #5 그거 헤 먹고, 마농 캐당 먹기, 늣멸캐당먹기, 그쟈 영 정 세상살기,
 107017 @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7 #6 그뵈뵈 콩 골아당 늣멸 낱 콩국이 질 고급이라.
 107017 #9 그 누넩이 다통게. 누넩이덜,

107017 @ 누넝인 무신 누넝이마씨?

107017 #6 콩국누넝이

107017 #5 콩국누넝이가 제일 맛좋아 먹어보민.

107017 @ 콩국도 끓이곡 콩죽도 끓이고?

107017 #5 예. 다 즈쌀에 콩가루 글아당 그레에 것도 글앙, 이제는 방애에 글앙 주마는 옛날은 그레에 혼 방울씩 글앙으네 그거 헤그네 콩가루에 즈쌀에 섞으네 이제 물떼가민 죽뽕먹고, 콩죽 행 먹고, 그게 그자 보통,

107017 @ 배와야졌다예 즈쌀이영 사당?

107017 #6 경헌디 쌀 낱 그 저 콩국해사 맛종주, 즈쌀 낱 현 건 까릭까릭헝디다 이젠 옛날엔 그것도 막 맛종안 먹어신디 그거 옛날에 먹어나난 열매나 맛시카부덴 즈쌀 낱허난 아니 맛어십테다. 까릭까릭허연, 혼번허난 말주.

107019 @ 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잔치때에 톨국은 여기 안끓임니 까 톨국?

107019 #5 아니 잔치때에 톨술반앙 국물에 톨 쌀앙, 쌀어 낱 국 허영, 동네칩이 톨 혼사발씩씩 두사발씩 갖다 드리곡,

107020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0 #6 게난 밧고기국은 제사헝때나 식계헝때나 맛밧주,여기 사람덜은 그냥 보통으로 먹어보진 못해서.

107021 @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1 #5 강 헤영 오민 바닷가 이젠

107022 @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3 @ 성계국, 보말국, 넓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107023 #5 보말죽이여 성계영 무싱거영 헤도 성계 곱은 거 보말 곱은 거 허는 거 아는 마지 그자 삭삭 춤 메역이나 국 끓영 먹고, 된장국이나 행 먹고 허명 살앗 주,

죽류

107029 @ 메밀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9 #6 메밀죽 곱은 건 이디 메밀가니깐 먹고,

107033 @이외에 죽을 헤먹엇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뽕죽, 닭죽 등)

107033 #6 뽕죽 헤 먹는 집이 잇당 이녀냥으로 잡앙, 코 낱, 그거나 거 맛종게 행 먹어밧주 경 다른 거 못 행 먹어 밧수다.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4 #5 감저범벅도 행 먹고, 메밀범벅도 행 먹고, 대죽범벅도 행 먹고,

107034 #6 지실범벅도 행 먹고,
 107034 #5 지실로 행 보리쌀 곶아다 낱, 보리 곶아당 범벅도 행 먹고 옛날은 그
 추록 허멍 살아온 게 그게 전설이난 윈.
 107034 #9 쌀 낱 밥 행 먹는다가 어디셔.
 107034 @ 뭐가 제일 맛좋아마씨 모멸?
 107034 #6 모멸이 맛줍니다.
 107034 #5 모멸이 제일 맛좋아. 제일 순허여
 107034 @ 무우 놓고?
 107034 #5 무우 낫던 감젤 썰어낫던, 이젠 고구마엔 허주마는 옛날은 감저,
 107035 @ 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5 #5 쯔베기도 모멸쯔베기가 제일 맛좋아.
 107035 @ 모멸쯔베기는 뭐 썩이라도 봐야 맛좋게 먹지예?
 107035 #6 가끔 흔번이라예. 코 낱 잡아지민,
 107035 #5 난 모멸 하영 헤져싱ㄴ라 우리 아기덜은양, 우리 큰아덜은 경 ㄴ릅니
 다. 나 똥헤가문 “우리 어머니 똥쯔베기 햐져.” 그거 지일 싫어난 생이라. 욱양허는,
 107035 #6 하도 그것만 헤가난게.
 107035 #5 이제 빙 부짱으네 헤도양, 걸 경 반지질 안허여. “어멍 똥초베기 햐
 져. 똥초베기 허허”
 107035 @ 똥초베기?
 107035 #5 모멸쯔베기ㄴ라 똥초베기라고, 우리 아덜, 경허문 게난 우리애기덜은
 흔어시 경 막 모멸쯔베기 그런 거 막 좋아하질 안허여.
 107036 @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6 #5 칼국수도 행 먹곡게 그건,
 107036 #6 칼국수도 모멸칼국이 제일 맛좋아.
 107036 @ 칼국 칼국은 뭐가 달라마씨 쯔베기랑?
 107036 #5 그것도 영영 밀영 공들언 현 거나 맛좋게 생각햐주.,
 107036 #4 그건 막 고급.

김치

107045 @ 갓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5 #6 그런 갓느말이나 캐당 김치허곡, 썩마농 캐당 김치허곡 햐주, 어디
 그런 고급으로 헤영 못먹엇어. 스똥 옛날엔
 107045 @ 동지김치?
 107045 #6 동지가 어디 이셔, 느말이 나가야 동지도 잇지, ㄴ세느말 ㄴ세느말,
 ㄴ세느말이 많이 캐당 먹엇수다. ㄴ세느말
 107045 @ 갓느말이엔 안햐 ㄴ세느말?
 107045 #6 ㄴ세느말 캐당 썩마농 캐당 김치햐 먹고,

107045 #5 갯늬멀도 옛날 드르에 간 갯늬멀은 칼칼 씹 갯늬멀이라. 이제 허는 건 무싱거옴 허느니 그거 경 쓰지 안헨게.

107045 #6 이제 늬멀도 불근 건 씹어.

107045 #8 아이고 옛날이사 밥은 헤어서 드르늬멀 캐당 고구마 처근에 밥은 안헤영 그것만 먹고,

107045 #5 옛날엔 집이서 드르늬멀 캐당 영영 판칙 씻었으네 소금으로 꺾꺾 늘렁 먹고

107045 @ 고춧가루 안 놓고?

107045 #6 고춧가루가 어디서.

107045 #5 고춧가루도 안 놓고, 이젠 허믄 어떻사될지,

107045 #6 아니 이제도 꿩마농짐치에 고추 안놔 소금.

107045 #5 경행와두민 새콤새콤허민 잘도 맛좋아게.

107045 #6 이제도 그건 맛좋아.

젓갈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8 #5 자리젓 멜젓 그자 그거,

107048 @ 것도 아무나 못허지예?

107048 #5 자리젓 멜젓은 아무나 허는디 새우젓은 아무나 못허고,

107048 #6 스몫 옛날엔 못먹엇는디 그루후제 자리젓먹음도 흐썬 그루후에,

107049 @ 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0 @ 멸치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1 @ 아감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2 @ 게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3 @ 자리젓과 멸치젓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3 #5 건 소금만 행 버물민 뒤는 거난 아무나 흘수 잇는 거.

107054 @ '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4 #5 출레는 웨장허곡 그자 고치장, 웬장, 뒤 곳세 젓갈허는 것배끼 안헤 봐서.

장아찌와 회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5 마농지 저 그디 동지 사는 거 해당 요만망씩 설어그네 그거 소금물에 등장 건정 죽어가민 거 건정 비어당 몬딱 물러서 물러근에 식번씩 장 꿩왕 낱지들렁먹엇지.

107056 @ 마농지가 제일 그 마농쫐 그거.

107056 #6 아니 몫치.

107056 #5 묵치 바당에 바싹 묵치 물리왕.
 107056 #6 바당물에 요만식 요만씩 몽크령담양 장 익으면 그 묵치도 익으면 그 거 큰 반찬이랴지, 그거 묵치.
 107056 @ 묵치는 묵 생묵을?
 107056 #5 생묵을 묵 올라오민 파삭 물령 그거 사당 이젠 빨앙 확히게 빨앙 요 령게 멘들면은 썰영 장 담양 장 익으면 그 묵치.
 107056 @ 웬장?
 107056 #5 묵 올라오민 딱 지들황나두민 그게 익으면은 건져네영 썰영덜 간장
 107056 @ 지금도 혹시 해 먹는 분이서마씨?
 107056 #5 지금은 잘 안행먹어.
 107056 #6 옛날추록 묵.
 107056 @ 처음 들어봤수다?
 107056 #5 꿩ㄴ루나 경 맛좋아.
 107056 #6 이젠 맛으십데다.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담을 때 보민 콩 데싱 2웨 혼말이민 물 두 번씩 낱 장을 등갓어. 경허믄 웬장도 맛좋고 간장도 맛좋고 그 묵 치 커도 경 맛좋고.
 107056 #5 경혜신디 이제 장을 등가보니까 메주 혼말 안해도 전이 마니.
 107056 #6 혼 번 두 번 놔야 맛좋아.
 107056 #5 아이고 맛좋은 철이.
 107056 #6 근이 마자사 물 두 번 낱 담아.
 107056 #5 아익.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5 셋들그물문 육지 사람덜은 정월에 장을 등그는다.
 107059 #6 상스데 안존덴허영 정월에 장 안담급니다.
 107059 #5 육지는 웨나마나 정월에.
 107060 @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60 #6 경험 묵치.
 107060 #5 반춘 뉘시냐 허민 마나나.
 107060 #6 굽엿긴 간장 담을 때 담양 질긴질긴 현 거 먹고,
 107061 @ 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쏘니까?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3 #5 영장날 때 비린다고,

떡류

- 107064 @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64 #5 침떡도허곡 즈쌀 백상 침떡허고, 믱말굴양
- 107064 #6 믱말ㄹ루 근쌀 ㄹ루허튼딘 제상에 올리고 믱말ㄹ루 허튼디
- 107065 @ 시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5 #6 혼쪽에는 혼쪽에는
- 107066 @ 송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6 #5 송편은게 보통 혼가지라 그건 여러 가지가 송편은 혼가지, 이레 뿔담
아 가지고 요영요영허는 게 송편이고,
- 107067 @ '빙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 107067 #5 예. 빙떡은 보통 먹어나고,
- 107067 #6 보통도 이제도 허난에,
- 107067 #5 잔치집은 멩심행 허는 딴 허고,
- 107067 @여름엔 안허지예?
- 107067 #5 여름에도 생각허는 사람은 헤도 경 안헌 사람은 안해.
- 107067 @ 무우가 귀해가지고 보통 쉬가 무우만?
- 107067 #5 풋 숲양 백상도 허고, 녹두 숲양 백상도 허고, 쉬담양 싸고,
- 107067 #6 제일 맛좋은은 무우 담아사 노인네 그거 좋텐 험네다.
- 107067 #5 동육이 아방 풋쉬만 담으렌 허곡, 비내고 뭐해도 풋쉬헌 건 먹고 그
냥 늣빠헌 건 안먹어서. 동육이 아방,
- 107067 #6 건 입이 트나.
- 107068 @'상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종류/도구/만드는 법/기타)
- 상웨떡 막걸리 낱 허는거우짜?
- 107068 #5 삼메떡, 밀ㄹ루 헤가지고 막걸리 사다놔서 찝어가지고 놔두민뿔 더
쨍,
- 107068 #6 건 이제고,스뿔 옛날은 지슬, 지슬 숲양 백상, 물 흐쌀 놓고 누룩 낱,
영 놔두민, 와글와글 쨍네다.
- 107068 #5 밥 농곡 헤영,
- 107068 #6 경허른 그거 물 뜰와 낱, 저 모멸 밀ㄹ루레 쨍, 것도 굴양 짓굴양, 밀
굴양으네 ㄹ루에 굴양 거,
- 107068 #5 밀떡ㄹ치 희진 안헤서, 검시근허여 옛날 밀 굴양 헌 건,
- 107068 #6 게난 글아부난 거죽을 안 베껴부난 그게 불구룽허는 거우다. 경허난
그추룩 헨 저 그런 떡을 만들엇수다.
- 107068 #5 게난 소까이 간 헌때는 보리떡도 세미그것도
- 107068 #6 건 이제고게, 그 전이 말을 말든젠,
- 107068 #5 게메, 소까이 간 헌때는 그것도 보통이어서.
- 107068 @ 지실을 무사 경 부계기 경?

107068 #6 옛날엔 지실은 만허곡 다른 건 어려우니까.

107068 @ 감자가 더 맛좋지 안헤마씨 감자?

107068 #5 들꺾흠허주마는 어려우니까 그 철에 따라 감재 어실때는,

107068 #6 이제도 지실로 빵떡 멘들민 완전 맛좋습니다.

107068 @ 지실로 허는 걸 봐본적이 어신디?

107068 #5 지실 허영 그디 낱 막 부벼가지고, 썬가지고 썬, 솟디 썬가지고 거죽 베경 다 여낱 뺌사가지고, 이젠 그루레 낱 막 부벼, 막 부벼 낱 다시 기지 낱 이젠 막 찌는거라. 야일 부게기 행 놔두면, 부게기 퀘민, 옛날에 아기덜이 이제 그거 아사네영, 이제 막 저 무시거엔 허느니? 암반에 낱으네

107068 @ 이름이 뭐마씨?

107068 #6 아까 기주떡

107068 #5 기주떡, 꺾세 곶은 저,

107068 @ 상웨떡?

107068 #5 삼메떡, 삼메떡을 그렇게 행으네, 이제 그거 이렇게 너기반듯하게 들이치곡 다시 저 무신 동글락허게 영 헤그네 낱,

107068 #6 침떡추룩 많이 멘들앗수다.

107068 @ 막걸리 놓지 않고?

107068 #5 막걸리 낱

107068 #6 지실로 쉰다리 멘들고 지실로 그 떡 멘들곡허민 더 맛좋아.

107068 @ 지실로도 쉰다릴 만들어마씨 보리밥으로가 아니고?

107068 #6 예. 강원도에서 만들민 검는다, 지실로 만들민 희여. 겁죽 다 베껴 똥 솥양 까주민 헤양허지 안으니까?

107068 @ 강원도에선 감자떡이렌 행으네 지실로 헤가지고 영 손으로 제주도식으로 멘들민 뭐가 나올건디?

107068 #5 그건은 꿔려보난 지실이 어떻해산디 지실을 썬여가지고 항에 담양와 그네 이젠 그 물 우러나민 뜨르고, 다시 그 물 우러나민 뜨르고 해서, 그걸로 저 지실로 저 무시거 허는 생이란게. 건 썬꺾꺾허여. 전분이엔 현 거

107068 #6 건 전분 지질 전분으로,

107068 @ 완전 오메기떡보다도 더 잘 풀려 거기는.

107068 #5 쉬여 놓곡 향아리 담아낱에 이제 그걸 막 영영 막 저서나두민 우러나민 그 물알러레 글라안즈민 비와 똥 그거 행 비우곡 헤가난 전분 똥는 생이라.

107068 #6 밀꺾루 전분 안웁니다게.

107069 @ 제사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9 #5 침떡, 다시 이제 중계약계엔 행으네 꺾꺾 중계약계엔 헤영 요추룩 행으네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젠 송편으로 햐주마는 옛날은 이렇게 떡을 밀어가지고 칼로 영영 그차가지고 꺾꺾허게 그창, 영 그창, 너기반듯헌 떡허고 다시 정밀어낱 뺌 찍영 다시 반착갈랑 들떡, 그추룩 행 올리고 그 우인 곤떡 행 올리곡, 그

우인 지름떡행 올리고 그 우인 저 무싱거헨 올려근에 허는 거 이디션 옛날에는.

107069 #6 나 궂건 들읍서예. 잘 사는 집인 곤떡으로 중계약게여 웃적이여 다 만드는 디, 못사는 사름은 므멸로만 헛수다, 스뭇 옛날에, 우리 시절엔 우리 아이시 절엔,

107070 @ 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0 #6 들레떡도 해낫수다. 잘 사는 집인 친정에 해 가젠 부모 돌아가민 그 게 들레떡이라고 영 녀삭허게 만들영 바위 두둑허게 만들양 저 스무개 해연 부젠, 영 식개만 허민 스무개허 그거 혼 합 허연 그거 해낫수다. 아버지가 돌아가민 들레 떡

107070 #5 조들레 므멸 들레허영으네

107070 @ 조들레,므멸 들레, 들레도 잇수과?

107070 #6 없는 집인 조들레,

107070 #5 조들레 너미 맛좋아나서, 너미 맛좋아.

107070 #@ 들레떡예?

107070 #5 들레떡이엔 현것광 침떡 현건 영장밧디 저 사람묻으레 간, 사람묻을 때 강으네 허는 거 들레떡이주. 그냥 저 집이 제 올리는 건 그런 거 아니. 그냥 아 까 궂세추룩 침떡 올리고, 그 우이 중계약게헤영 곤떡 그쟈 그런 거 올령 지름떡, 인절미,

107071 @ 설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1 #5 설기떡은 뭐?

107071 #6 설귀? 침떡ㄴ라 설기떡이엔 허주게 옛날.

107071 #5 우린 침떡 경 행 헛주, 설기떡이엔 현 말은 들은,

107072 @ 인절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2 #5 그냥 저 므멸 행 그 중계약게 이추룩 행 니게반듯허곡,

107072 #6 인절민 영 즈은 거 아니,

107072 #5 그건 세미?

107072 #6 크게 스뭇 크게 만든 건 물떡, 즉게 멘든 건 세미, 흥솔 크게 멘든 건 물떡우리 옛날 ,

107072 @ 물떡이렌 헛구나예.

107072 #6 예.

107074 @ '솔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4 #5 솔잎 빠다냥 삼메떡도 싯속 곤떡 그런 건 므멸떡이나 곤떡

니기반듯 중계약게 허곡 경허난

107075 @ 웃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기름떡, 별떡/재료, 도구, 만드는 법)

107075 @ 젤 우에가 지름떡이파?

107075 #5 예, 젤 우이꺼가 지름떡, 옛날은 중계약게는 침떡우이 올리는 게 중

계약계곡, 그 우이 올리는 건 근떡이고, 그우이 올리는 건 지름떡이고 경혜근에 옛날은 다시 그 무싱거옴 허느니? 지짐이허여근에 어떻 저 고망나게 허여근에 우에 올려놓고 경혜난 옛날은,

107075 @ 무사 지짐이 ㄹ망나게 허연마씨?

107075 #5 계란으로 계란 때려가지고 고망나게 영영허연 그런 거 헨 경혜나서.

107075 @ 고달떡?

107075 #6 지름떡이 고달떡이라, 옛날 바위가 다데다데허난,

107075 @ 계란 하나 가지고 저 회장님은 또 무슨 계란으로,

107075 #6 건 웃적, 웃적, 계란으로 동그락허게허는 건 웃적,

107075 @ 웃적, 웃적이라고 헤양 맞을꺼 같다., 남자덜은 잘 모르는 거 님다. 영장밧디 갈때하고 아까 상례 치를때는 똑같고, 영장밧디 갈때는 들레떡이고,

107075 #5 드르에 갈뎀 들레떡광 침떡이고, 이 안에서 집이서 허는 건 다 ㄹ세 ㄹ치 춤 침떡에 저 중계약게 올리고, 다시 근떡 올리곡 그 우이 다시 지름떡 올리고.

107075 #6 절변술변 올리고,

107075 @ 절변술변은 어디 올려마씨?

107075 #6 그 중계약게 허는디레 같이 올라가. 스뎀옛날이우다게.

107075 @ 웃기떡은 기름떡, 별떡이옴 헤신가예? ㄹ달떡이옴 헛수와 기름떡을?

107075 #6 웃적은 계란 동글락허게 만들양 고사리 ㅎ나 놓고헤영 동글락허게 만들양,

107075 #10 어릴 때 보민 드르에 꽃을 싱경 빨강헌 거, 저 그거 헿 고달떡 헿 먹어

107075 #5 ㄹ장 ㄹ다냥 물 헤여으네 것도 잊어비엇수다. ㄹ장 이름도. 잊어비어 신게 원 고달.

107075 #6 이제도 저 어디 ㄹ달꽃 그거 비어나서.

107075 #5 비어도, 이름은 잊어비어서 그 고장이름은?

107075 #6 ㄹ달꽃게

107075 @ 이름이 ㄹ달?

107075 #6 ㄹ달꽃, ㄹ달추룩 ㄹ글ㄹ글헌 ㄹ, ㄹ 님 님양 빨강헌 거?

107075 @ 아 맨드라미?

107075 #5 아니 아니, 맨드라마 아니,

107075 #6 다 틀립니다. 저디 시에 말광, 이디 말광 대정 말광 다 틀려 거.

107075 @ 꽃을 물빠가지고 허는거 고달떡예, 그른 색깔이 어떻힙니까?

107075 #10 빨강, 그걸로

107075 @ 계란 기름떡을 색깔 잇는 걸로 헛수와?

107075 #5 옛날은 계란이 귀혜난거 곱아. 계란 그 물 들영으네 다른 ㄹ루영 물 이영 헤그네 떡을 헌 거 곱아.

107075 #6 웃적이엔 헌건예 ㄹ사리 하나 영 뺑드그락허게 농곡 행 웃적 멩글앗 수다.

107075 @ 무사 고사리 놔신고예?

107075 #6 몰라. 웃적이란건 귀신이 쌍 가는거엔,

107075 #5 그 손 요영 벌려진 걸 헤사 그레 떡을 받앙, 귀신이 쌍 간다해서,

107075 #10 그거 귀신이 지게 같은 거 지게에 정 간다고,

107075 #6 그 고사리 하나 농곡행으네, 귀신이 쌍 ㄹ정가는거렌,

107075 #5 신이 쌍 간다해서 춤 고사리 놔,

107076 @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다대 등) 당은 어디 갑디다예? 저지 갑디다예.

107076 #6 동글락동글락 넘질넘질 뭐 돌레떡.

107076 #5 존존허게 돌레 멘들앙으네 할망디 갈 때 영,

107076 @ 영장 밧디보다는 죽구나예. 존존한 돌레예, 어머니네나 당에 가시는 거 봐봄데가?

107076 #5 우리가 다 뎡겨놔주기.

107075 #6 난 안 뎡견.

107076 #5 당에 가 왓수다. 칠십 넘으난 “안 가쿠다” 얘기헤된 다신 그후루젠 안갓수다게. 야기 이름헤도 안가켄 해부난 그쟈 그치룩헨 나 안 뎡기난 안가,

107076 @ 할머니당이파? 저도 찾아가볼려고 하는데,

107075 #5 할망당 밧으로 들어간는 디난 가기가 구질 건디,

107075 #6 질 뺑 막 너르게.

107076 #5 밧입데다. 원래 밧이라.

107075 #6 게메 밧으로 들어가는디주게.

107076 #5 크쨩헌 밧인디 저 공동리산덜 막 한덜로 쪽 들어가민, 밧으로 들어강 그때 불레낭이영 막 더꺼진디.

107076 #6 물색삼색 석자치,

107076 #5 삼색헤영 ㄹ정가곡 것도 그 삼색허는 사람도 어평헌 사람이냐믄 저 웃허는 사람덜이 그런 거 게 경 안헌 사람은 그냥 다시 지전이나 몰랑으네 혼 멧장 몰랑농곡, 경 메허곡 그쟈 꿰기덜 생각허는냥 적깔 상 으정가곡 경헛주기.

107076 #10 떡은 안 행 가는가?

107076 #5 떡행 갑니다. 술도 으정가곡, 떡도 다 행가곡 난 막 오래 쪽 뎡겏수 다게.

107076 #6 난 가본 딤 어서.

107076 @ 삼촌 저지에서 태어나고 저지에서,

107076 #6 이 동네,

107076 #5 난 원래 우리 씨어멍네가 그디 뎡겨나부난 난 씨어멍네,

107076 @ 정성이 좋은 거 닐아마씨. 정월들에 꼭 가야겏다예?

107076 #5 정월달에도 가곡양, 멍심허는 사름은 잘도 요라번 가곡, 초일똥두일똥, 초사흘 두일똥가메, 열사흘 열일똥, 스무사흘 스무일똥,
107076 #10 경 가, 그디 갈때는 말 저 누게 동네사름 봐져도,
107076 #5 봐도 말 안글아, 인사도 안허곡.
107076 @ 무사마씨?
107076 #5 그디 가민 몬딱 그 심방이 다 곶양 곶으멍 인사 안헤영, 계난 깃딱 그때 줌줍헤영 슬슬 넘어가고,
107076 @ 오는 사람 이서도 그냥 슥 지나가고,
107076 #5 아는 사람 봐져도 그자 줌줍헤영 속속가멍, 알아먹영 출린 거 보면은 다 알양 줌줍헤영 다시 살살 돌아가곡,
107076 @ 계믄 거기 툃다아장으네 허지예?
107076 #5 시간이 있어서 몬딱 하나하나 이름 적으멍, 몬딱 올령, 예명올렛다 두 번다시 혈똥, 그거 허멍 체비줄 줌으멍 몬딱 허영으네 “이 애긴 아무들은 곳다, 좋다” 영허영 몬딱 그디서 말허민 그대로 그자 알양 오랑으네 그자,
107076 #6 나 시에 살똥 그디가 온 떡 먹엇단에 말 몰란,
107076 #5 계난 우린양 으정으질 안험니다. 험난 그디서 떡당 남은 건 다 심방 구덕더레 다 몬딱 으져당 다 그 사람이 으정 강, 동네사름이영 느뵈떡넝헹게.
107076 @ 메인 심방이 엇수과? 엇지예?
107076 #5 이디 심방이 아잠신디 말암신디 난.
107076 #10 심방은 아니고 그 옥길이 각시,
107076 #5 큰 심방이라 옥길이 각시, 옥길이 각시도 허단 뵈던 시에 갓수다. 옥길이 각시도 죽어실거우다게 옥길이 각시도 나이 핫수다게, 아이고 구십은 나실거우다게.
107075 #6 작년깃지도 저지 살앗주.
107075 #5 이디 안 살암수다. 누구엔 허느니 검뎡이 어멍신더레 일임헤똥 갓젠 헤고,
107076 @ 검뎡이 어멍 못봐?
107075 #5 모르쿠다 윈 그 할망도 살아신지 죽어신지 난 봐나질 안허난 난 몰라,
107076 @ 검뎡이 어멍마씨?
107075 #5 그 아덜이 얼굴이 검으니까 검뎡이, 검뎡이 검뎡이어멍 꺾뎡이어멍헤여.
107075 #10 쟁헤도 그 할망 너미 늙어서.
107075 #5 심방질허레 자꾸 뎡깁니다.
107075 #6 것도 큰 심방 아니라?
107075 #5 예. 심방질허레 뎡겨, 검뎡이 어멍은 뼈꾸기 어멍이영 산뎡허멍 심방 질허여,

107076 @ 살아계신지 알아줄 수 잇수과? 살아계신지,
 107075 #6 그거 정월달에 오랑 지경 아무라도 오랑 아집니다게.
 107076 @ 초사흘에 감수과?
 107076 #5 초사흘 초일뵈, 열사흘 열일뵈, 스무사흘 스무일뵈, 그땐 똑 그디 가
 주
 107075 #6 초싱에 틀림어시 아집니다.
 107076 @ 한 멧명 정도 오십니까?
 107076 #5 아이구 사름 함네다양. 시에서도 오고, 어디 서귀포 간 사람덜도 다
 그땐 좇아오고,
 107076 @ 월령심방밖에 잇수게, 서쪽은.
 107076 #5 몰라 어느심방산디,
 107075 #6 저지심방,
 107076 @ 심방잇수과?
 107076 #6 검댕이 어떻,
 107076 #5 몰라 어느심방산디, 할망도 살아신지 죽어신지 만나질.
 107078 @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잇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7078 #5 다시 전병이엔 현건 다시 영영 밀어근에 영 무시거 멧으네 뭇 것을
 멧, 그레 놓는것ㄱ라 세미, 인절미, 옛날은 이제는 송편이 핫주마는 옛날은 뵈나마
 나 세미, 요영 동글락허게 뭇 낱 줍앙으네,
 107078 #6 세미는 영영 밀영, 영영 밀영, 뭇으로 딱허민 동글락허 거 아니짜? 경
 허민 줍앙으네 이 쉬낱 영영 줍으민 그게 세미, 그렌 그렇게 먹읍니다게 안덕더렌,
 경허당 그 가지가 동글락허게 만들민 공들어 거.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소 종류=팔/깨/완두콩/설탕
 등)
 107079 #5 녹디, 풋 다시 이제
 107079 #6 콩ㄱ루 뵈나
 107079 #5 이제 콩볶앙으네 곶앙 그것도 뵈나고, 꿩도 나나고,
 107080 @ 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고물 종류=팔/콩가루 등)
 107080 #5 다시, 중간에 다시 이제 떡 안에 놓는 거, 고구마도 삶앙 썰어놓고,
 다시 지실도 삶앙 썰어놓고, 옛날은 그렇게도 허고, 다 그자 그때 당허는냥 이녁 자
 신에 뵈경으네 누게가 허라 현게 아니고 그자 현거난, 누게가 영 허라헌 게 아니고,
 이녁 자신만씩 허는거난

별식

107082 @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과정 ~ 이용)

107082 #5 므밀ㄹ루 허영으네 는쟁이ㄹ루엔 현 거 허영으네 수에 담고,
 107082 @ 므밀 는쟁이ㄹ루에 수에 담아예? 담아낫수과?
 107082 #6 맛좋아,
 107082 @ 남자덜이 담는 거?
 107082 #5 아니 여자덜이 허여 여자덜이 여긴.
 107082 @ 이장님 만들어나십데다?
 107082 #5 아니 여자덜이 허여.
 107082 @ 말씀도 잘하시고예. 창자 그거 무슨 메역귀 그거,
 107082 #6 똥만 빼영 내불민 여자덜이 다 시천, 냄새 안 한 맛좋고, 깨끗이 씻
 청, 남자덜이 현 건 냄새 낭 못 먹어.
 107082 #5 무싱거엔 허느니 소금으로 시켰더라, 다시 밀ㄹ루 낱 시켰더라 얼마
 나 무르췌영 시치는거라.
 107082 #6 계난 여자덜냥으로 시친 건 냄새가 안낭 맛좋고, 남자덜 현 건 냄새
 낭 못 먹어. 계난 남자덜 시치지 못허게 허여.
 107082 #5 건건만 시치니까게 여자덜ㄹ치 웬장 난 무르췌곡, 뭐 밀ㄹ루 낱 무르
 췌곡 현 걸 안헤영 그자 단순히 소금이나 낱 무르췌영 시시민 냄새 안 날 수가 없
 는 거 아멩글앗자, 계곡 수에가 냄새가 흐쫂 나긴 허는 거, 그레 다시 무슨 메역귀
 도 썰어 놓곡, 간싯도 썰어놓곡 허여근에 수에담고, 아멩 글앗자 겨곡 수에 담고 냄
 새가 나긴 허여,
 107082 @ 아이고 춤예 재미지다예.
 107083 @두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과정~이용)
 107083#5 이제는 빠당 먹엄주마는 우린 옛날엔 그 시절에는 콩글아가지고 콩을
 다시 그걸 물에 불황, 그거 헤영 걸렁 비제긴 비제기대로 빠고, 즈진 건 즈진 건데
 로 ㄹ루를 들게 허영 다시 이제 저 무싱거엔 허느니 솟디 낱 저어, 가메에 막 낱
 숲양 그레에 소금물 간수조절 헤영 흐깁 낱 차롱 영 허영 니기반듯헌것드레 놉그네
 그레 영 헌벽, 큰 형겼 길양 그레 숲은 물을 그레 낱, 다시 보자기 텨영, 딱 놀렁
 고레착이영 막 낱 놀리민 경행 들러네영 두부행 먹고, 잔치집이도 허곡, 것도 잘허
 민 저 부제칩이나 둬비 허곡,
 107084 @ 메밀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메밀가루/이용)
 107084 #5 메밀묵은 다시 ㄹ루로 헤영 허는 것도 잇곡, 쫂로 므밀쫂헤가지고 물
 쫂당으네 이젠 그걸로 이젠 행 짬,
 107084 @ 메밀쫂 청묵이렌 험니까? 메밀묵허곡 청묵은 따로따로?
 107084 #5 ㄹ루로 현 건 묵이고,
 107085 @ ‘청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메밀 즈/이용)
 107085 #5 다시 쫂로 헤영 즈췌는 거는 청묵이고
 107085 #6 글메해도 돼니다
 107085 @ 어느게 더 맛좋아마씨?

107085 #6 청묵이 맛좋주. 하하하.

107085 @ 이건 언제때 먹어마씨?

107085 #6 멥질 때나 제스때나 잔치때나,

107086 @ 미숫가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보리, 콩)

107086 #5 개역이사 보리볶양 먹는 거, 콩 볶아놓고 그거 낱으네 보리 볶아근에 굴민 개역이주.

107086 #6 게도 어떤 집인 꿬에, 찹쌀에 콩에 경 낱,

107086 #5 건 이제 옛날은 그냥 보리볶양 그자 옛날은 보리볶양 그레에 곶앙 멘들주 그레에 곶앙,

107086 #6 콩볶양 곶앙농곡, 찹쌀 낱 곶앙농곡 외방 갈 때 찰리에 창 양식으로 쌍 탕겨서,

107086 @ 어디 갈때에 양식으로예.

107086 #6 양식으로 길가에서 배고프민 먹젠, 혼 수저씩 곶여 먹으면 그것도 양식웁덴,

107087 @ 지짐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적이렌 허지예?

107087 #5 지짐인게 이제는 저 두부에 적갈도 햐주마는 옛날 우리 시대 커가는 과정에는 그 무싱거옴 허는니 그루 곶앙 그걸 카서, 적을 지저서, 그걸 꿬어서 이제 두부 꿬듯 꿬서, 적이 햐주마는 이제사 두부햐당 썰옴 그창 에옴 기햐이에,

107087 #6 아니 두부햐도 꼭 젓갈 그거 적 지지는 집은 지집니다. 지정 영 찰라 낱. 적갈추룩 영 니기반듯허게 썰옴 젓갯지에 꿬옴, 네 개로 꿬옴,

107087 #5 녁점씩 꿬옴으네

107088 @ ‘오매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과정 등)

107088 #5 오매기 술은 즈찰햐옴 곶아당, 그거 햐옴 물햐왕 섞어야 햐는 거, 와 상와상 꿬옴 그거 햐 잘 꿬민, 그 물 거리명 오매기 다 햐옴, 거 햐옴 이젠 거 다 허민, 뉘시냐 이젠 물러레 요만씩 그창 이제 영영영 햐옴, 곶망햐햐 영 곶망햐햐 이젠 영영영 동글락허게 햐옴 요추룩햐옴 곶망햐햐, 이젠물 삭삭 햐가민 하나씩 들이 청, 햐개 들이청, 솟양 건져네옴, 막 문딱 햐어 낱 들햐, 그레 물농곡 누룩농곡햐옴 이젠 영영 달햐, 향아리 담양 놆두민 부구레기 햐옴,

107088 #10 그거 상당히 곶들어.

107088 #6 그거 잘햐민 술이 많고, 두루 햐민 술이 죽고, 경허는 거우다,

107088 @ 아아 남자들은 좋앗다예 술은 여자햐이 허곡, 남자햐은 먹고,

107088 #6 최고, 술 중엔 유술이 맛좋은 남자햐이 햐수다게 .

107088 #10 우리어머니 그거 햐젠허민 그거 뜨거옴 때 햐사주, 식으민,

107088 #6 이햐말로 옳그루,

107088 @ 옳그루, 솟그루? 옳그루가 햐햐? 유있, 햐있?

107088 #5 유있에 햐햐, 햐있에 햐햐, 그것에 햐햐 씨, 햐,

107088 #6 그게 막걸리 중엔 최고, 지름이 등갈등갈허여.

107088 @ 거 어디에다가 놓는 거마씨?
107088 #6 막걸리 든 때,
107088 @ 유씨를 들깨 ㄹ루를
107088 #5 곱아가지고 ㄹ찌 놔가지고 찌어가지고 지름이 둥굴둥굴허여,
107088 @ 유있이 그런 때도 썰구나예
107088 #6 유있이 아니고 ㄴ멸,
107088 @여자들은 안먹지예? 오메기술?
107088 #6 무사 여자도 먹음네다. 먹는 사람은 먹어, 오메기술은 맛이 좋아. 거
곡 스룻 막 술 뒤풀기전에 여자덜은 브글레기 케민 먹어.
107089 @‘쑤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과정 등)
107089 #6 쑤다리 이제 밥만 하여 험 놔 누룩 놔 저 누룩 놔 즈물즈물 험 즈망
놔두민 쑤다리 뽕니다게. 쑤 오늘 험 놔두민 니일이나 모리나 뽕,
107089 #5 닐 모리카진 무신 닐 아척이민 바글바글 케주기.
107089 @ 지금도 먹엄수과? 아까 보리 쑤다리말고?
107089 #5 밥 남으민 곧밥 쑤다리도 뽕여.
107089 #10 더 맛좋아.하하하
107089 @ 곧밥 쑤다리 더 맛좋아마씨?
107089 #6 더 맛좋아. 밥 먹단 남은 거, 누룩흐김 놔 물 ㅸㅸ험할 때 그레 즈막
막 험 놔두민,
107089 #5 물 ㅸ 놔두민, 이제 덤방덤방험놔두민, 아무거라도,
107089 @무신 쑤다리 맛중덴험게?
107089 #6 지슬, 지슬쑤다리. 지슬도 ㅸ양 먹지 못허민 경험 놔두민 경 맛중야.
107089 @ ㅸ은 지실마씨? ㅸ은 지실을 막 ㄴ작는작해서?
107089 #5 감재, 고구마 아무것도 다 맛잇어.
107089 @ 쑤다리 만들면 맛 중다는거지예? 배와시민 중켜 이거.
107089 #5 누룩은 건져볼곡, 곱아온거는 누룩 멘들양 지냥으로 뽕허멍 트민 닥
닥 ㅸ상, 크게 벌어논건 그 저 쑤다리 험 ㄴ 디 건져놔두고 다시 버금험뽕
107089 #6 유순으로 허민 잘 풀릴거우다 사발에 ㅸ민 지름이 노랑허여, 지름이
등갈등갈허여.
107090 @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0 #6 보리누룩보다 밀누룩이 좋아. 최고 존거가 밀누룩,
107090 #5 보리누룩도 허곡, 밀누룩도 허곡 보리 등가냥으네 막 ㄹ루로도 허곡
다허는거난게,
107090 @ ㄹ루를 ㅸㅸ우는 걸로 알아신디?
107090 #5 ㅸ도 테왕허고 다 헤여, 밀누룩허젠허민 물 버무령으네
107090 @ ㅸㅸ왕 ㄹ루로 만드는 것ㅸ? 그냥 가루로 만들어마씨?
107090 #5 ㄹ루도 허곡 그냥 ㅸ로라도 물 쑤 놔두민, 다시 ㄹ루 흐김 놔 저시

민, 멘들아질꺼 아니라 딱딱하게,

107090 @ 그른 보리 싹틔왕허는 건 또 뭇과?

107090 #5 그것도 누룩 저것도 누룩 다 누룩, 근쌀 톱은 것도 누룩, 보리쌀 톱은 것도 누룩,

107090 @ ㄱ루로 톱은 것도 누룩 보리

107090 #5 순 나올수가 없어. 순다리 뿔수가 없어.

107091 @ 옛 종류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1 #5 옛이사게 그냥 꿀내영으네, 꿀양, 다시 좁쌀 이젠 좁쌀이 옛주마는 근쌀이라도 근쌀이나 좁쌀이나 허연 밥을 허영, 이제 어느정도 식으면, 그레 다시 꿀섞언, 더울때허민 꿀이 익어부니까, 허쌀 식건 그레 꿀냥, 저성 더경놔두민 행 더 경 놔두민 그레 허깁 보글보글 췌가민, 계쿰 올라오라가민, 저 좁쌀이나 근쌀이나 이젠 누멸은 빠정으네 동글동글 터, 경허민 그뎨 걸렁 걸 이젠 딸리는거라. 드르 딸리당 즈근즈근 도야지 고기 사다냥 그걸 딸렁 옛허는거,

107091 #6 배아픈 사람덜 익모초

107091 @ 좋다고 느껴집니까?

107091 #5 아맹해도 익모초 냥 옛을 허는생이라.

기타

107092 @ 이외에 이 마을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7092 #5 맛 좋게 옛날 먹어난 거 췌기떡, 췌기떡은 뭇이나 허민 물웃젓당 밀기 좁젓당 췌기떡도 행막어보고

107092 #6 일곱술 나난 밧디강 출빌 때 ㄱ성갑디다게.

8. 주생활

구조

108002 @ 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초가, 기와, 흙, 돌 등)

108002 #3 겐디 이 초가집은 재목이 아무런 무싱거나 해그네 그 저 덮을 거 새만 밀으로 떨어지지 았으게 덮흙만 되는 거고, 기와집은 워낙 재목이 좋아야 되어야 되여. 이 저 우가 무거와노니까 그 저 알러레 깎아안지 았허게끔 서리고 그디 그 무싱거 현 거 워낙 든든해야 되고 기와집은 그런 거

108003 @ 집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안거리/박거리/모커리 등)

108003 #3 안거리, 박거리, 모커리는 그 저 이문간 문간 보고 모커리엔 행는디 거.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구체적으로)

108004 #3 삼간집도 그 저 아니 거 주로 그전에는 그 삼간집이라난는디 이 우

리가 소개된 금방 올라왔을 적에는 이칸집으로 해그네 부엌하나 방하나 해그네 그 살았는디 그 그 다음에 흐썰썰 무싱거 현 사람덜은 삼칸집으로 해넨 그 삼칸은 거 마루방을 가운데 뒤네 영 살긴했는디 것도 마찬가지로예. 이 기와집허고 초집하고 그 저 뭐냐 그 나무 박는 게 초가집은 첩 나무 아무런거라도 해그네 그자 엮어근에 쇠만 안들른 되고, 우리 저 기와집은 워낙 그 재료가 거니까 청수에도 기와집같은 거 못 보고, 흐 두 군텐가? 아 세군데 이서서.

108004 @ 어떤 사람들이 헨마씨 부자?

108004 #3 부자 부자가 허주. 그거 무신 첩 소소헌 사람이사 그런 거 해져.

108004 @ 부자로 잘 살았수과?

108004 #3 돌아가션 다 돌아가부러서

108004 @ 풀아불지도 앓고 자손덜은 다 잘.

108004 #3 자손덜은 지금 이제 동네사람덜신디 욱 듣는 사람도 있고.

108004 @ 경 잘 살단도예. 쫓쫓 자손덜은 다 잘 살았수과?

108004 #3 옛날도 이제 재산관리가 삼대, 삼대ㄱ장 잘살민 삼대, 요즘은 삼대 물려주고 옛날엔 옛날은 삼대홍망이란 건 삼대째 그 저 내려 오던 옛날 할망덜 그

108005 @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5 #3 주춧돌 그건 이 저 초가집이나 기와집 짓는데 그 기둥 받침으로 그 주춧돌허는 거고.

108005 @ 기둥은 기둥이고예.

108005 #3 응. 기둥따로 그 주춧돌 따로.

108005 @ 보, 도리, 서까래.

108005 #3 서까래 그 저 앞에 꺼 난간앞에 놓는 건가? 그 난간더레 올라가근에 가이단 놓는 거 거 그걸 말허는 겁주 거.

108006 @ 외, 산자, 인방, 반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6 #3 가시새에 엮은는 거 가시새에 엮은는 건 고지 강으네 저 낭가쟁이 준준헌 것덜 해당덜 허고.

108006 @ 가시새.

108006 #3 가시새 가시새에 엮은는 거는 저 이 방 가르는 건 데 이 방 가르는 데 그 저 편방이라는게 이서예. 편방 왜그러냐면 이 방을 영 요방 요방 가르게 되면은 요영혜영 벽을 만들어야 되예. 계난 편방이라는 건 흐꺼번에 이디까지 쫓 허 게 되면은 그 준낭으로 엮으네 이 흙 발랑 이 칸을 막젠허민 이거 펠라져버리니까 이 편방으로 박아마씨. 이 저 흐 두 자 흐 육십센치 여튼 두 자정도에 흐나씩 세왕으네 칸 갈랑 가시새를 엮어. 역영 올라강으네 흙은 나중에 블라. 겨난 그 흙질 혈때는 흐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흐사람은 이쪽으로 강으네 영 블랑냥으네 마주 썰 영 올라강 거 편방 막아그네 경해연 이제 그 마감헌 다음에는 두불 개벽이라고 이서예.

108006 @ 두불 개벽 개벽.

108006 #3 초불 바를적에는 그 저 보리냥 썰영 영허고, 두불개벽은 이 저 ㄴ시 락, ㄴ시락을 해영 촌후 그건 촌후 파당 이 저 이디서 식은민 안돼여마씨. 촌후 파 당 세면 대신 문딱허게 해근에 칠허는거라마씨. 그자 판칙허게 경해야 경해야 그디 종이가 붙을 건디.

108006 @ 판칙허게 이거 아무도 말 안해쥬신디 흠바르기가 그런거예?

108006 #3 응. 천장, 이 천장은 그 저 아래에서 엮어근에 우트레 강 짜특허게 페우면은 그건 되는 거고.

108007 @ 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퀘, 이불상, 아랫목, 위목 등)시렁 시렁이?

108007 #3 시렁이 저 굴목 아니라? 백장아래 그 저 거 굴목허여근에 굴목때는 디ㄴ라 시렁이엔 헐건디.

108008 @ 마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널마루/부섭/공간 활용)

108008 #3 마룬 마루방, 그 옛날부터 마루방이렌 상방은 맞아 상방이렌도 곧았 저.

108009 @ 고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항/창곰/안칠성 등)

108009 #3 고평은 이 저 무신 쏘이영 무상 거 하간 거 데밀곳 곳간ㄴ라 고평이 렌 허고.

108010 @ 부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솔/재/물항/살레/찾방 등)

108010 #3 정지.

108011 @ 문설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문얼굴, 돌쩌귀, 문지방 등)

108011 #3 돌쩌귀 돌쩌귀허고 그 걸쇠는 돌쩌귀허고 걸쇠는 문 걸영 증가근에 문 저 도둑들지 못허게 그 박는 것ㄴ라 그 박는 거 그 걸쇠 거는 거는 돌쩌귀고, 그 걸어근에 영 ㄴ리 해영 동글락허게 돌아매영 그거는 걸쇠.

108012 @ 동그락헌 거는 걸쇠, 돌쩌귀 이제 알쿠다. 거문 문 또는 창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문 달기/지계문/상기등 밀/띄창문/창 바르기 등)

108013 @ '호령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서귀포시 지역)

108013 #3 호령창이엔 현 거는 그 저 정지광 방 사이에 켜디 그거 이 주로 이 무신 거는 아주 옛날 우리가 전에 집 지을때는 호령창이엔 현 건 어서서. 우리 아 이덜이 그 우에 계난 그 안에 아자둬서 하르바지 문 그 요만이헌 문 방하고 부엌에 요만이헌 문 돌아근에 영 해영 아자둬서 “이레 뭇 안네라 저레 뭇 허레 가라”해여 근에 호령허는 것ㄴ라 그것ㄴ라 호령창이라고. 옛날이사 여자 이제는 바로 여자덜 이 대통령이주마는 그 옛날에서 “아이구 시집가민 죽으민 다 죽었구나” 허명 살아 야된덴 해그네 스뭇.

108014 @ 재밋다예 호령창예. '굴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14 #3 굴목은 연료, 그게 그 저 ㄴ시락허고 그 저 뭇똥, 소똥같은 거는 이 저 워낙 뭇르기가 힘들어노니까 주로 안허고 뭇똥은 ㄴ저당으네 낱 놔두민 소화가 안되는 거라노니까 복삭복삭허난 그자 그거 허당, 제일 좋은 건 춤 뭇똥이라예. ㄴ

시락은 그자 그 저 쇠 먹어난 디 것 쇠 땃출이렌 헤그네 그 쇠먹어난 거 문지레기도 가져당으네 굴목때고.

108015 @ 어머니가 주로 땃지예? 그른 풍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15 #3 풍채 이 앞가지에 앞가지에 옛날에는 비 오면은 그 집 가지가 땃뜨니까 그 가지를 이은 것이라 풍채렌 험주게. 거기는 별도로 그거는 짝을 앞더레 들아매근에 작대기로 영 바튀 지등에. 바튀근에 비 와근에 비 들이땃지못허게 허는게 풍채.

108015 @ 비 들이땃지 못허게.

108015 #3 예. 막는 거. 것이라 풍채.

108016 @ '물팡'은 마씨.(물허벅, 대바지, 물구덕 등)

108016 #3 물팡 그 저 물허벅해당 그것도 매 집이 어서근에 거 흐썰 있는 집인 그런 거 해당 거 돌이 워낙 고와사 되주게.

108016 @ 아아 돌이 고와사되어마씨?

108016 #3 웬웬해야되주. 이추룩 멘딱해사 물 허벅해당 톡 부리주. 경안허믄 뽀족뽀족헌 것덜은 그런 물허벅 그 구덕을 저당 톡 부리면은 공골락해불민 그게 저 멘딱허게 그게 춤.

108016 @ 거 아무집이나 엇수과?

108016 #3 매집이 어서십주.

108016 @ 오오 게믄 어머니 물 지레 어디 갔다 온 거 기억남수과?

108016 #3 물 지레 청수 흑수물이렌 헌거양. 그거 청수 사람덜 그때는 청수 사람덜 많이 살긴 했는디양 청수 사람덜 음료수로 해서 석달 반내지 녀덜반 그른 거는 그 물이 깎딱도 안허여양. 경헌디 그 물도 여러 번 뽀어나십주. 왜그러냐 허면은 그 옛날에는 그 그름이 하도 와가민 첨 기우제 지내고 무싱 거 뽀허고 했는디 그 물도 여러 번 뽀어고 했는디 왜 물이 그렇게 뿌러났냐면.

108016 @ 뽀어나마씨?

108016 #3 뽀어난 거는 물이 없어졌다는 거.

108016 @ 뽀어난 거 뽀어난 거 그문 거?

108016 #3 그문 거, 물 뿌는 거, 겐 그 물 뿌러지면은 이디 저디서 막 첨 새미왓, 거 새미왓이렌 헌 디 강 새미왓에 그 물 떨어지면 저 두모, 겨난 두모 이 소덜은 두모물를 많이 먹었고, 사람은 두모물 별로, 두모물 혼 번 혼 해가 그물아네 두모물 더러 저당 먹긴 먹어났는디 소물은 드물물 여라 번 저당 먹었주.

108016 @ 그른 대바지 물구덕 게믄 하루에 삼촌 저봤수과 남자 안 져?

108016 #3 무사 남자 안져? 남자도 지주.

108016 @ 땃살때부터 저봤수과?

108016 #3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이 흑숫물이 그물아가면은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질어당 먹젠 곡석도 몬 향도 다 빙고 물지레 경 안허면은 물 질레 천리만 리 가야 되니까. 어떻힐 꺼라.

108016 @ 어머니하고 같이 남자 별로 없었지예?

108016 #3 아 그때는 보통.

108016 @ 보통 그믐 나이트 아버지도.

108016 #3 아니 나이트 어른덜은 안허는디 어떤 젊은 사람덜은 그 저 물허벅도 남자덜도 여러 번 지어나서. 계난 이 물 그냥 그 저 물이 흥건해영 계난 비나 와 근에 물이 하영 굴때는 안허고 막 뿔어갈때는 겨난 스몓 이 동새백이덜 일어난, 이 옛날엔 이 아침 겨난 이 그 소먹이 혈 철썸되어근에 출 비레 갈 때 이 바로 이뻐 주. 이 때 그 출비레 저 어디 저 산더레 갈 때쯤은 쳇 득 우는 쳇 득 우는 혼 두시 반에서 세시되주마씨. 그때 일어난으네 밥 혼 적 그 보리밥 괴양 그거 해그네 동그 랑작에 그거 싸고 무싱 거 다 행으네 그거 행 멩에 갈때는 쇠 질메지왕 쇠에 시끄 고 행 밤에 걸어가야 됩주게. 밤에 걸어가근에 해 뜨기전 밧디 도달 흐썰 성질 급 현 하르방덜은 해 뜨기전 빌만혈 때 밧디 가지민 코삿허곡, 경안해근에 해가 터 올라왕 밧디 도달허는 할망이시민 “이놈이 즈줄이 몽근년 늦잠 자부난 무싱거 했다”고 그 욱지거리 거 무신 이녁도 무싱거 그 할망은 무신 죄랑 새벽이 일어난 밥 현거만 해도 밧디 늦게 도착현 거 할망심영 태작을 태작이렌 현 건 뚜드려 분 거.

108016 @ 아이고 진짜로.

108016 #3 아 옛날 춤 우수한 일 많아서.

108017 @ 아이구 춤말로 올레, 골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형태 등)

108017 #3 올레 골목, 골목길이란 건 그 저 각 동네마다 그자 이 그 고망 저 고 망으로들어가는 것그라 골목길이엔 허기는 허는디, 한길이엔 현 거는 이 그 흐썰 큰 길그라 한길이엔 허였고, 골목길이엔 현 건 동네마다 그 집드레 들어가는 골목 것그라 올레.

108020 @ 돼지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돼지집/함지박/깃 주기/우리 뛰 어넘기/가시담 등)

108020 #3 돼지우리 그거 뭐 통지, 디딜냥, 디딜냥이렌 현 거 알아?

108020 @ 몰라마씨. 디딜냥?

108020 #3 디딜냥.

108020 @ 아아 디딜팡?

108020 #3 응 디딜팡이렌도 하고 디딜냥이엔도 하고.

108020 @ 예 우리 애월서는 디딜팡 아아 디딜냥.

108020 #3 거 디딩 아장으네 거 무싱거 허는.

108021 @ 변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부춘돌/인기척/휴지?/설사)

108022 @ 헛간에 뭐렌 헛니까 제춧말로?

108022 #3 헛간은 그 저 요즘 말로는 창고데 저게 그전 옛날말로는 지들커 들 이는데 헛간, 계난 비왓직허민 지들커 들엇당 영 지들커덜 데머뵤 하간 어지러운 거 들이는데 어지러운 거.

108023 @ 외양간을 제춧말로?

108023 #3 외양간은 쇠막.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가 지붕이기 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제주시 지역/서귀포시 지역)

108026 #3 지붕이는 거 그거 저 새로 이고 각단으로 줄놔근에 그 저 동여매는 것ㄴ라 지붕이는 거온

108028 @ ‘집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진 줄/쯔른 줄)

108028 #3 집줄 만드는 거 그거는 진 줄, 쯔른 줄, 호랭이,

108029 @ ‘집줄’ 만들기에 쓰이는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9 #3 그 저 이 줄 비어나가는 거 그 저 그것ㄴ라 호랭이온 허는

108029 @ 호랭이에. 뒤치기는 뭐파?

108029 #3 뒤치기 그 저 뒤에서 호랭이 해영 줄 어울릴 때 줄 어울릴 때 그 저 이 해끄만헌 거 영 어울러가명 해그네 두 곱으로 행 든든하게 맨들영 영 영 쪽허게 베추룩 꼬아가는 거 계난 뒤치는 거는 그 저쪽에서 호랭이로 영영 둘이 상 비어가 면은 혼 사람은 줄 심영 가운데 이디서 그걸 뒤휐주는 건 두치기온.

108030 @ 평고대에 말씀해 주십시오.(대나무/긴 막대/철사)

108030 #3 아, 평고대 그 저 이 줄 즐라맬 때 초가집 영 쪽허게 행으네 알 가쟁 이로 영 돌아가명 매어야 그 저 줄을 일어근에 묶으는 것ㄴ라 평고대온 허는 거.

108031 @ ‘집줄 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횃수)

108031 #3 집줄 횃수는 그거 뭐 큰 집은 하영 매고 작은 집은 즉영 매고

108032 @ 다 남은 ‘집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32 #3 그건 지들커.

연장

108033 @ 집 짓는 연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33 #3 툃허고 곱자귀 장도리, 대패, 또 저저저 끝, 먹통 것도 곱은 자 곱은 자, 거 상당히 하그에 자귀 곱자귀허고 틀려 손으로 깎은 거거·라 자귀온 허고

9. 신앙

109002 @ 성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2 #3 심방 돌아당 그 성주풀이란 거 나무 땅 무신 옛날은 신,귀신 붙은다 고 해가지고 성주온 귀신 드리는 거.

109002 #5 성준젠 무싱거온 허느니? 떡해 낱 올려근에 저 강태공 쉼목쉬허곡,

109002 #4 거 성주거스리는 거.

109002 #5 게 경 굴암수게.

109002 #6 성주거스리는 거 말헿헿 햄수게. 굴읍서

109002 #4 알아지주게. 헤헤

109002 #5 저 그자 떡헿 올리고, 하간 거 올령 팽풍청 올령 이젠, 드러 이젠 경 그 옛날은 그 무싱 거 해신디 그때 그 무사 ㄱ루는 그 ㄱ멸, ㄱ멸ㄱ루떡 허여근에 ㄱ루를 ㄱ졸ㄱ루산디 ㄱ멸ㄱ루산디 허트는 건고이? 그추륙,

109002 #6 ㄱ멸ㄱ루만 떡 헿 그디 못 올립니께게. 성주가 오죽 멩심헿 허는 거 짜?

109002 #5 게메 경헿 올려 놓고, 우이 다시 ㄱ떡헿 올리곡, 줌팍떡인가 무싱거 영영 누르뜨는 거 싶지 안헿네가? 똑 줌팍만씩 줌팍 철팍으로 멘든 거, ㄱ떡인디,

109002 #6 스랑스랑헌 거.

109002 #5 그거 헿 올리고, 요만씩헿영 음막뫼막 헿영, 경헿 올령으네 드러 헿영, 스뫼 낭 땡기뫼 들영 강태공 쉼목쉬 헿가민, 저 무싱거헿허느니? 거 베로나 민영으로나 헿영 절로 강태공쉼목쉬 식뫼 불르민 절로 오라가민, 그걸로 걸령 등기고, 경헿 그걸로 다시 오라근에, 도깨로 하간디 그디저디 직는 체 헿연 그디도,

109002 #4 직는 책이랑 마랑 하영 직나 막.

109002 #6 팡팡 직어부러.

109002 #5 종이에 물놉으네 뵁지에 물놉 카그네 착착 부시테기고,

109002 #6 천장더레,

109002 #4 것도 심방에 멘다게

109002 #5 강태공 쉼목쉬헿여그네,

109002 #6 제라헌 심방은 경해도, 저 불법에 시뫼은 빌어당 경은 해도, 경 안허여 작작 부치진 안허여.

109002 #5 게도 문딱 저녕헌디 다 부치메..

109002 #4 똑똑이 허는 사람은 경허여.

109002 #5 그 도치 직는 서뫼헿여 농곡, 그레 다시 문딱 그 헿질허는 서뫼으로 헿 헿 그레 강 착,

109002 #4 저 웃산에 그 낭 메당 직는 서뫼허는거라.

109002 #5 경헿 허영게.

109003 @ 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3 #3 문전제 지내는 허는 집도 이고 안허는 집도 있고 집에 제라는 건 제라는 건 어떻 문전제고 제사고 집집마다 가족마다 틀려 문전은 문전제는 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할망덜 뫼해난디 외가에서 땡기뫼 제 벌이는 거 뵁긴 배왔는디 문전이란 건 제사에 옥대 그 어른 덜 ㄴ대접허는 거 그 어룽ㄴ 덜 먼저 모읁 집집마다 틀리는

109003 #5 문전에서 제보는 거난 저 식계때도 문전제허곡 멩질에도 문전제 허곡,

109004 @ 조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4 #10 그 조왕할망이 있고, 문전할르방이 잇주게
 109004 #5 문전에는 문전제 다 올령 그디 문전제를 헤나민 말제는 뉘선이렌 현
 거 무싱거 우이 걸어네언 이제 끝으민 싱크대에 그디 강 영
 109004 #6 조왕은 할망이고게
 109004 #5 문전은 하르방이니까 하르방 먹어난 음식허연 이젠 조왕에 간 이런
 현디강 싱크대 가생이에 강,
 109004 @ 아덜이 아니고 ㅏ방.
 109004 #5 이렌 아방은 문전이고 어명은 조왕이난게.
 109004 @ 아방이 문전이렌 험다가 아덜 먹어난.
 109004 #5 아방은 문전이고 조왕은 아방먹엇단 조왕먹어난.
 109004 @ 어떤디는 아덜이 문전이고 어덜 먹어난.
 109004 #5 조왕할망 먹어난.
 109004 #3 밥허는 디 솟 아찌는 디ㄴ라 조왕.
 109005 @ ‘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5 #3 칠성 뱀이.

10. 세시풍속

정월

110007 @ ‘결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7 #3 결궁했주 결궁 꾸늘난지가 혼 50년 되나 4.3 사건 소개 강 올라온
 안 허당.
 110007 #3 깡맥기 집집마다 들어강 동녕바치 서능행 끝나면은 그거를 행으네
 무싱 것도 이녁 부락 결궁은 이녁 점쟁인.
 110007 @ 뭘 행 갑디가?
 110007 #3 제사출린 거 할만ㅇ디 갈 거 덜영 제숙.
 110007 #3 가정오질 앓허여 심방이 다 가져가불어 그 날 흐루.

4월

110013 @ 초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3 #3 석가탄신일 황세왓 그디.

6월

110017 @ 닭 잡아 먹는 날?
 110017 #3 닭 잡아 먹는 날은 우리 여러번 허는디 하지만 무싱거는 서쪽에서는

잘 지내지 않애마씨.

110017 @ 6월 20날이 닭 잡아 먹는 날이파?

110017 #3 예. 유월 스무날.

110017 @ 유월 스무날 이게 음력에.

110017 #3 음력.

110017 @ 그른 항상 어머니가 항상 닭 잡아 줍디가?

110017 #3 아이고 닭이야 그때는 우리가 이게 무신 토종닭이나 무싱거나 해도 우리가 지금에 그 닭고기 맛을 못봐예. 그 정월에 깨운 거 그것이라 영계라그립주. 정월에 깨운 거 유월 스무날 놔두민 보글보글 병아리가 어느정도 커. 거 잡양허게 되면은 그 죽 혼 마리만 잡아놔도 죽 혼 다두태기는 बे지근헌게 맛이 좋아.

110017 @ 죽 혼 다두태기 다두태기가 뭐파?

110017 #3 다두태기, 말치 웅졸래기 그거 몰람구나?

110017 @ 말치, 웅졸래기.

110017 #3 웅졸래기는 제일 적은 숫.

110017 @ 웅졸래기는 제일 적은 숫.

110017 #3 응. 서두태기는 그 다음 다두태기는 그 다음 말치, 말치는 혼술 큰 거.

110017 @ 웅졸래기, 서두태기, 다두태기, 말치가 제일 큰 거예?

110017 #3 말치가 제일 큰 거 아니라 그 다음은 가마로 들어가주.

110018 @ 삼복(三伏)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7 #3 개 잡아먹는 거 육지에서는 주로 허는디 이 제주도는 개를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잘 참 옛날에는 정월이나 팔월에는 그때 돌아가시면 톨허고 개는 안먹고, 그 저 무싱거 이제는 뭐 그자 아무거라도 그런 거 저런 거 해 먹는 디 그런 거 잘 안 먹어.

7월

110022 @ 모래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장소/효험)

110022 #5 모래찜도 이제 바당에 모래찜허레 가주,

110022 @ 가 뵈수과?

110022 #5 난 안가뵈주마는,

110022 #6 잘 안갑니다.

110023 @ 물맛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장소/효험)

110023 #3 어릴 땐는 물맛이레 저 고산 영알에 땡겼주.

110023 @ 아아 고산 영알에 물맛이레 땡견예?

110023 #3 그때 가면은 고산 영알에 굴 소곱에 들어가민 착착착착 떨어지는 물, 것 강으네 혼 삼십분 맞앙 안지민 입술이 삼동 되불어.

110023 @ 입술이 삼동, 지금도 있수과?

110023 #3 지금도 이서. 경헌디 그 그디 강 아래보민 지금은 이제 문딱 무싱 거 통 박아부린 그 옷틀로 떨어지는 물 맞는 디는 없어져 부렸덴 허대.

110023 @ 아깝다예. 이런 거 완전 문화자산 될건디 고산.

110023 #3 문딱 통 박아불고 무싱거 해부난 무싱거.

110023 #5 옛날엔 다녔주마는 이젠.

110023 @ 옛날엔 어디 물맞이레 뎡겿수과?

110023 #5 고산 당산봉아래 가민 창수 당물이 잇주마는, 이젠 보난 그디 뭐 무싱거 해서라 ㄱ딱 들어가지 못허커라고 물맞이레 뎡겨난디, 우리 물맞이레 뎡겨난디,

110023 @ 그걸 보존해야 허는디 참, 고산도 참,

110023 #5 그디 막 집덜도 막 드리사민 이젠 하간 저 무싱거 관광덜 뎡겨난 허뜩헝크라고,

110023 @ 물이 끊어져 불어실거우다.

8월

110025 @ 벌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여자도 갑니까?

110025 #6 가는 집인 갑니다.

110025 #5 난 벌초허렌 안 가왔수다.

110025 @ 적까지 이런 음식을 마련허지예?

110025 #6 적까지 현 거 강 올리는 집 싣고, 안 올리는 집 싣네다.

110026 @ 팔월 명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10030 @ ‘동지 풋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0 #3 겐디 우리 풋죽을 좋아허긴 했는디.

110030 #6 동지 풋죽은 어린이날은 안 행 먹어도 늙은이날은 풋죽 썰 먹어.

110030 #5 어린동지엔 안 행 먹고 모듬젠 행 먹고,

110030 @ 무사 행 먹어신고예?

110030 #6 감기 들지 말렌,

110031 @ 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1 #3 납평날 납평, 그거 저기 옛 딸려 먹는 거.

110031 @ 아아.

110031 #3 그날 납평날 옛딸령으네 옛날 할망덜 그 부시럼나면은 그저 부찌젠 행으네 사발에 웅겨 놔뒀당 부시럼이엔 현 건 허물 이 저 그런 거 나는 거 그 중기 나는 디 탁 붙이게 되면은 거 좋고.

110031 @ 옛을 붙연마씨 납평날은 그른 옛을 옛을.

110031 #3 허물에 부치는 옛 이름은 갱옛 갱옛이렌 허여.

110031 @ 아아 허물에 부치는 옛을 갱엇이라고 했고예. 아우 잘 알았다예. 남자 분인데도예. 참 난 납평날이 아니고 납평날예 제주도에서는예 그문 어머니가 이 항 상 이렇게 험디가?토끼 익모초 넣거나 옛은 어떤.

110031 #3 그 옛에다가 그런 갱역 만들젠헌 거는 그런 사발에다 그 저 조금 떠 텅으네 그 날 그 다음에는 그 하간거 낱 쫄 낱으네 딸리고 독 낱 딸리는 사람, 깨 곱은 거 그런 거 낱 딸리는 사람 이녁 취미에 맞게끔허여근 낱덜 딸렁 먹고 허는 데 스물네시간 딸려야 돼. 그 옛이 제라헌 옛이주.

110031 @ 아아 저 사모님은 예펜삼춘 못허고예.

110031 #3 옛허는 거 옛날 할망이나 허주.,

110031 #6 건 옛허는 날.

110031 @ 아아 옛허는 날. 무슨 옛 아까추록?

110031 #6 아무엇이라도, 그 날 행 먹으면 약 웬덴,

12월

110033 @ 친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3 #3 친구간은 그 구신이 다 어디레 도망가불 때 이사헌덴 해영 친구간 이제는 어서저불었주

110033 #3 그때는 춤 친구간 되어가민 베라벨거 다 했주. 몬딱 귀신덜 산으로 올라가는지 귀신이 신디 어신지 올라갔는지 안올라갔는지.

110033 #6 친구간엔 이사허고, 뭐 틀어진 거 고치고,

110033 #10 귀신덜이 하늘에 다 올라가분덴 해시니까 친구간,

110034 @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110035 @ 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5 #5 솟단지계, 처음 갈땐 솟단지 으정 가는 거,

110035 #6 솟단지 안에랑 요강 놓곡, 옛날은 꼭 방법?

110035 @ 솟단지 안에 요강 놓는 다는 게 그렇지 안으파?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10035 #6 응 ㄱ치 난,

110035 @ 허허허허.

110035 #10 아주 옛날엔 그 저 시집갈 때, 결혼할때도 그 요강에 쫄 담아근에 가마에 낱 가곡했주게.

110035 @ 결혼할때도 가마에마씨? 뭐허곡 솟하고 요강?

110035 #10 아니 그냥 요강단지에 쫄담앙,

110035 @ 쫄담앙마씨? 하하하 그 쫄을 먹어져? 새요강단지?

110035 #5 아니 사온 거난 것도 방법인생이라.

110035 @ 아아 쫄담앙예. 재미있다예. 새각시가 가정가는 거.

110036 @ 집알이는 어떻게 합니까? 집알이가 집들이 아닌가?

110037 @ 집알이할 때 선물은 무엇으로 합니까?
 110037 #5 그때사 뭐 콕이 제일 필요한 거 끝아.
 110037 #6 성냥이나 초나,
 110037 #5 성냥이 제일 필요한 거 끝아.
 110037 #10 응, 성냥 영 콕허민 콕허게 불 나오라고 잘 살라고,
 110038 @ 절기: 소한, 대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 놀이

111001 @ 예전에는 주로 어떤 놀이를 하였습니까?
 111001 #5 낭에도 잘 올르고 폭도 타 먹으레 올라가고, 그런 짓같은 잘하고, 뽕이 빠레 텅기기 그런,
 111001 #6 폭낭에만 올라가든 일로 올라가든 저 이파리로 알려레 느려가 저프게 놀ㅋ랭이질 헛주.
 111001 #5 놀ㅋ랭이질, 경허당 보난 이젠 빙신뒤언.
 111001 #6 겨난 미깡을 타도 사다리 낡 높은 디 나만 타당보면은 빙신뒤어,
 111001 #4 우리 아덜 나 네비어똥 밧디강 검질 매당 강 오랑 보민 성담 우이 올랑 그 성담 땔라정 막 하간디 부수우고, 원 죽으카부덴 헤도 안 죽어고?
 111001 #5 것도 멩이 메기라사 죽주게, 멩이 시난 살앗수게.
 111001 @ 땡따먹기?
 111001 #5 그런 것도 해나고 다, 방찰락도 해나고, 방찰락이엔 현 것도 해나고,
 111001 @ 예? 방찰락?
 111001 #5 너기반듯헌 영 영 영 방찰락
 111001 #6 밧 따막을락, 밧 따막을락,
 111001 #10 밧 따막을락이 아니고
 111001 #5 영 행 허는 거 영영 방찰락, 방찰락,
 111001 #6 건 남자허는 건디?
 111001 #5 아니 여자허는 거.

숨바꼭질

111032 @ 숨바꼭질(곱을락)은 어떻게 합니까?
 111032 #5 것사게 곱음작기사 뭐,
 111032 #10 숨바꼭질.
 111032 @ 꺽꺽 숨어라!
 111032 #11 머리까락 보인다.
 111032 #5 좃으레 텅기는 거,

111032 @ “다 숨언, 가위 바위 보,” 거 안헤낫구나예?

111032 #10 다 헤낫주기.

111033 @ 술래는 어떻게 정합니까?

111034 @ 주로 어디에 몸을 숨깁니까?

실뜨기

111036 @ 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37 @ 실뜨기할 때는 어떤 손가락이 필요합니까?

111037 #5 저 거시기 무싱거옴 허느니 것마라 무싱거옴 현다마는 영 웨싸근에 영 실현 거.

111037 #6 거 나 잘 헤나짜마는 잊어불언,

111037 #10 이 상손가락으로 웨영.

111037 #5 영 행 걸이고 영 행 걸영 헤나신디 웨실락허멍 헤나신디, 몬딱 잊어 불어신게. 헤나신디 다 잊어불어신게.

111038 @ 들이손가락(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111039 @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공기놀이

111041 @공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41 #5 돌 벌렁 공기허는거? 우린 공간 잘해서,

111041 #4 그땐 어린이집도 었고,

111041 @ 공기는 본전이렌 안했수과? 공기렌 율령에선 본전이렌,

111041 #5 아니 아니, 동그락허게 요만씩 행 다숫개 헤그네, 하나씩 행 줍양 허 당,

111041 #4 영 데견 영, 톡 데견 영,

111042 @ 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행합니까?

111042 #5 돌씩 줍앗당, 버금엔 댓경 낱, 다시 식개씩 잡고, 하나 줍곡, 다시 허 당, 버금은 니개 잡아 다시 영 행 올령 영 행 잡고 경헤낫주기 우린.

111042 #6 경 행 따먹어사 이기주게. 얼마허든 얼마,

111042 #5 옛날은 그런 것만 옛날은.

111041 #4 흘 게 어서.

111042 #5 그런 것만 그자 옛날은 공부허레 갈 웨게도 안허고, 후교 시가지 안 허난 그자 더퍼놓고 그런 거, 그런 짓칼만 허멍 잘,

111041 #6 돌로 므상 멘들양,

111041 #5 다숫개 멘들양,

111041 @ 공기는 제줏말로 또 잇수과?

111041 #5 다숫개 멘들양,
111041 #6 공기, 공깃돌,
111041 @ 다숫개 멘들양 놀안예, 많이 놀앗수과 이걸로?
111041 #5 다숫개 올령 영 행 잡곡,

‘빨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72 #6 뽕이 빠다근에 묶영, 저 내기 청 따먹는 거.
111072 @ 어떻게 내기해마씨? 뽕이 타당 영 잡아땡기는 거 아니?
111072 #5 아니, 이제 새, 집 이는 새, 새 비어노민 다시 무룩이 요마니허게 나민, 그디 뽕이가 나오민, 그거 뽕양으네 묶영 땡기명, 우린 묶언 그 스뽕 그땡 노도 경 어려완, 노 혜영그네 깎아근에 묶영 이추룩 묶영, 으정으곡 늣덜이영 행 강 뽕이치기도 허곡허명,
111072 #6 뽕이치기 어떻 행 헨디 뽕이치기게?
111072 #5 뽕이치기 영행으네 영 찰락 테끼민 이디 영 문딱 다시 이디 뭐가 막 아지민 그레 묶어근에 영 묶영 영 드리치곡, 거찌느냐 못허느냐.
111072 #6 밧이 크민 혼쭈 뉘영 영 노민 혼쭈 영허민 혼쭈 받아내영, 다시 크민 흑 쉼백인 거 못 따먹을 거, 경헛수게. 거 ㄱ망이 막 커노민 막 혼쭈 쉼영 영 허민, 거 문덜 빼사오는 거라, 쟁 행 뽕이치기 해서.
111072 @ 남자덜이 많이 허엇겏다예?
111072 #5 아니 여자아이덜이 주로,
111073 @ 승부는 어떻게 가립니까?

고무줄놀이

111075 @ 고무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75 #5 뭐 “세깍꼬마네 와따구시네”.
111075 @ 일본거로구나예, 한번 불러봅서?
111075 #5 나 몰라. 우린 옛날, “세깍꼬마네 와따구시네” 혜영 경 행 해나서.

줄넘기

1110782 @ 줄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782 #10 저 그 배칠락,
1110782 @베뜰락, 베칠락, 베칠락?
1110782 #5 베뜰락도 해나고 베칠락도 해나고,
1110792 @ 줄넘기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10792 @ 뭐허면서 베뜰락해낫수과?
1110792 #10 “ 요빈 사요 하요로시 하요로시 ..하하하하”

110792 @ 일본말로 아니 제주도말론 엇수과? 하하하하 일본서 와신가?

110792 #5 일본 시국이라노난게,

110792 @ 일본 시절이라노난,

110792 #5 우린, 우리 아버지넌 저 문딱 저 아이덜 여자고 남자고 어린 사람덜, 다 일본 내 보내젠 허난, 강제 징것단 강제도 다 우리 아버지 강제도 다 메어나서. 이거 행 뭐힐거냐고. 아이덜 다 육지, 일본더레 내보내똥 이거 누게가 뭐허냐고 강제도 다 메어나서.

110792 #6 우리 어머니 열여섯에 풀아불언, 저 처녀덜 몬 심어간덴허명, 시집보 내부런 열여섯난 걸,

110792 #6 그 땐 보통 경헛수다게.

110792 @ 거기 가부는것보다 낮주게 정말정말 한 멧허가지고,

110792 #5 이제 그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라게.

110792 @ 일본에선 모른척허곡 지금도,

그네뛰기

111080 @그네뛰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80 #5 추천뛰기,

111081 @ 그네뛰기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리인다리’

111082 @ ‘한다리인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111083 @ ‘한다리인다리’할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111083 #5 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등엿 척, 경허민 지등에 척, 허민 정강이 정강이 줌지곡, 경헛당 “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허영 마지막 가가민 그 “지등엿 척”허민 이제 종에 줌지곡, 경헛 다시 ‘한다리인다리’ 해가민 다시 그 영 행 간 사람은 다시 줌지곡,

111083 @ 재밋게 헤난마씨? 술래정허곡?

111083 #5 옛날은 그런 짓갈만 허명 살아서,

111083 @ 말이 뜻은 뭐파?

111083 #5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등엿 척” 허난, 우린 것도 몰라도 그때 굳는 말로 경 무신말이 뜻은 몰르고,

111085 #5 입으로 주주허게 곱아도 그게 무슨뜻으로 낄는 진 모르지.

111084 @ 승부를 어떻게 가릅니까?

111085 @ ‘한다리인다리’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2. 통과예

출생

112001 @ 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을 때?

112001 #5 조심사 해신지 무싱거사해신지

112001 #6 아기 낳 일했수다.

112001 #10 아기 낳는 날까지 일하고,

112002 @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

112002 #5 집에서 했지. 옛날이사 이제사,

112002 #10 보리낭 낄앙,

112002 @ 보리낭 낄앙마씨?

112002 #10 어 피 많이 낱니께 그 보리낭 낄아사,

112002 @ 방에서마씨? 부엌에서마씨?

112002 #11 방에서 낄앙 북삭허게게.

112002 @ 방에서마씨 부엌에서마씨? 북덕자리엔 헛수과?

112002 #10 방이 그때는 방바닥에 아기낳젠 허면은 그 검질을 낄면은 피가 많이 날꺼 아니? 경허민 그 피가 많이 나른은 아기도 벌어지지 안허여. 경허난에 걸러지곡 이제 아기 나불민 저 그걸 검질로 박박 쓸영으네 허허,

112002 #5 맥에 담앙, 머리말에 비영 누영, 비영 낄당, 삼일첸, 바깳디 강 케왕,

112002 #6 붓집 그디 끊어놓고, 애기 방식도 끊어놓고,

112002 #5 방식, 애기 보, 방식도 그것도 케우는거라, 삼일첸 날,

112002 @ 뱃속에 농곡 비어 저기 애기 난 어명이?

112002 #5 이마니헌 큰 맥에 보리낭 낱 보릿낭 낄앙 그레 애기 방식도 그레 농곡헤영, 경헨 직산헿 늣곡허당, 삼일첸민 어명도 목욕허곡, 그것도 바깳디 강 터진 방에 강 슬고,

112002 @ 터진 방에 강, 북덕자리에서 애기 나난마씨?

112002 #5 이젠 기저귀도 싯주마는, 우리 아기덜 키울땐 기저귀도 어려와나서,

112002 #6 지성귀엔 헌 건, 아방 입어난 거 갈중이 헌 거 행으네, 그걸로 쌍.

112002 #5 난 무싱거엔 허느니? 밀꺾루 찰리 그거 사당 그거 빨아네, 거 헤당 기저귀 경 행으네 마지막엔 헤랏주 윈, 그전인 그냥,

112002 #6 그전인 난닝구에 싸서. 옛날엔 여자웃으로 싸민 팡팡 애기 아랫맥 여성 씨러진텐 허연, 남자 속웃 싯지.

112002 #10 어어 남자웃은 어디 셔?

112002 #6 계난 남자 입어난 갈중이.

112003 @ 태와 땃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12002 #10 땃줄이 잇지, 혼 서너나흘 뉘민 털어지지 안허여, 툭 털어지민,

112003 #5 켓문에 즈뽕, 실로 헤영 돌아메영 놔두고,
 112002 #10 놔뒤. 놔두민 이제,
 112003 @ 무사마씨? 켓문에 즈뽕?
 112003 #5 텃줄 아기 텃줄 툄랑 털어지게 뉘든, 그디 저 배안에 그 텃줄 꼬탕이
 에 저 실로 묶으지 안허여, 묶엇당 떨어지민 그것에 저 켓문 무싱거에 강 걸영뉘당,
 걸영도 놔두고.
 112003 @`메칠잇당 보관도 허곡, 나민 그거 ㄹ새로 꿔음네까?
 112003 #5 실로 묶엇당 걸어.
 112002 #6 그건 어디사 가붙어산디.
 112003 #5 볏아가난 아긴 털아지곡 허난 급헌짐에 실로 묶영 빙원에 그 무신
 주사산지 한림을 원장흐는 소리가, 간호원 흐는 소리 급허민 허곡게, 겁이 바싹 나
 난 경흐ㄹ렌 ㄹ새로 툄착 균 들어가민 어땡.
 112002 #10그 텃줄은 놔두난 채수 좋넨허멍 선보레 갈때도 선 보레 갈때도 그
 거 ㄹ정가곡,
 112004 @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2004 #5 ㄹ뉘ㄹ루 캥 먹어.
 112004 @ ㄹ뉘ㄹ루 즈베기헤영?
 112004 #5 아니 놀 것으로 캥먹고, 피 삭으라고,
 112004 #10 아니 ㄹ뉘 ㄹ뉘 ㄹ미지근헝게 그자 캥 ㄹ훈사발 드리치고,
 112004 @ 놀 거?
 112004 #5 어, 놀 걸로 캥 먹고, 저 목 쭈는 ㄹ루 그걸 ㄹ미지근헝 물에 카그네
 피 삭으렌, 다시 그 버금엔 ㄹ뉘쯈베기허연 메역 빨아놓곡, 지름 놓곡 헝 헝 주믄
 먹곡 경 헤연,
 112005 @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
 112005 #5 삼일뒤에,
 112006 @ 깃저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6 #6 베로 만들양 헝 입지민 등땡이 안 ㄹ릅넨 헤연, 베로 멘들양 입젓수
 다.
 112005 #5 것도 장웃이엔 허영으네,
 112007 @‘할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기나민 생일이나 보시메 상깁지
 깁고 헤낫수과?
 112007 #5 메 식개 걸영으네, 쩍시에 메 식개 걸영, 이디 저 뉘 상깁지나 게믄
 새나 헤영으네 툄허영으네 이만씩 헤영 툄툄 깁양 경헝,
 112007 @ 상깁지나 새, 어욱새나?
 112007 # 5 집이는 새,
 112007 @ 세 개로 헤여 하나만?
 112007 # 5 식개에 다,

112007 #6 젓갸지추룩게, 똑똑허영,
 112007 #5 아멩헤도 춤 할망도 즈분으로 뭐 먹는 시늉허는 거 곶아, 생각에 경
 현 거 닳아 생각엔.
 112008 @ 배넛머리는 어떻게 합니까?(시기/누가)
 112008 #5 데멩이 납닥헌덴허멍 조허영 담양 베개 멘들
 112009 @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병원/민간요법)
 112009 #5 예방은 어떻사 해신지, 옛날은 이디 우두뵈나서 이디 영영 끌경으네
 우두뵈나신디, 이젠 주사 남주마는, 옛날은 우두뵈네.
 112010 @ 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112010 #6 아기난때 웬베광 돌아메영, 그레, 남자 나민 고추 돌아메고 숯 돌아
 매고,
 112010 @ 여자나민?
 112010 #6 여자나민 고치 안 돌아메여. 숯만 돌아메여.
 112010 @ 소나무 안 돌아멧수과? 소나무 소낭가지?
 112010 #6 소나무? 그건 아니,
 112010 @ 여자는 숯만예. 뭐허지 말라 뭐허지 말라, 애기나민 뭐 쑥에도 목욕시
 키고 엄마는 쑥목욕, 속, 속?
 112010 #5 속 숲양, 숲양으네, 아기도 목욕시키고, 어멍도 목욕허곡, 거 깔양안
 고 경헤영,
 112010 #10 고저소리도 허지말렌 허고 하하,
 112010 @ 고저소리가 뭐파?
 112010 #6 주책떠는 소리 허지말렌,
 112010 #5 고저소리도 허지 말렌허민, 그건 고저허민, 아기 좇이 좇뜨나 아기
 좇이 안떡영 즈들리나,

혼례

112011 @ 구식 결혼식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112011 #10 족두리쓰곡 헤영 결혼헛주기, 신랑은 몰타곡,
 112011 #5 밀탕 풍등 썩고헨,
 112011 @ 구식결혼 안하섯지예?
 112011 #5 다 구식결혼헤연, 장옷입곡,
 112011 @ 정말마씨? 사진 없지예?
 112011 #10 사진은 누가 찍어 하하하?
 112011 #6 다 케와불언, 다 카불언,
 112011 @ 족두리 쓰고, 다 중매고?
 112011 #5 옛날사 중매결혼이주, 어디,
 112011 @ 남자집이서 다헤여마씨?

112011 #5 세각시집이 도세기도 잡양 가져가곡, 남자집이서,
 112011 #6 계란도 상 가정 가고,
 112011 #5 계란이영 바닷래기영 강 으정가곡, 헛젠해도 우린 그런 거 받아본 적
 도, 헤본디도 엇고,
 112011 @ 여자는 퀘여 또 뉘 가정가곡, 요강이영,
 112011 #5 경 요강 그자 그런 거 행 가곡,
 112011 #6 어신 사람은 짝방석도 행 길양 가는 사람도 잇수다.
 112012 @ 중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눈 맞앙가곡 그런 일은 엇
 수과?
 112013 @ 막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3 #5 막편지사게 그 저 도세기 다리 혼다리허곡, 쓸이나 혼 말 농곡, 술이
 나 두어뉘 놓고 헤연 경 헨 갖주게.
 112013 @ 결혼 날짜 이렇게 얘기허는 거?
 112013 #5 아무날, 막 편지 가는 날,
 112014 @ 이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품목, 수량 등)
 112014 #6 뉘야지 혼므리 잡아가곡,
 112014 #5 아니 도세기 혼므리 잡아가질 안허곡 듯다리 혼 다리 농곡, 쓸혼 말
 허곡,
 112014 #6 아니, 받는 집은 경 받아서.
 112014 #5 옛날 저 누게고 춘수아바지 풀 때, 조수물 낙천 풀명, 도세기 헤갓
 쉐 행게.
 112015 @ 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품목, 수량 등) 새각시 옷이나 이런
 건 지네가 알양?
 112015 #5 새시방 집이 가문, 벗어 텡 입는 건 새시방 칩이서 내놓지.
 112016 @ 예장(禮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내용, 일화)
 112016 #10 예장 써가주게.
 112017 @ ‘가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참석 범위/음식/부조 등)
 112017 #5 가문잔치엔 현 건 듯다리나 혼나허곡 잔치 넘어나민 쓸이나 혼말허
 곡, 술이나 두어뉘 농곡 행 갔지 옛날은, 잔치해나서,
 112017 @ 아니 가문잔치 언제 허는것파?
 112017 #5 뒷날
 112017 @ 뒷날 허민 사람덜 왕 부주도 허곡
 112017 #5 아니게, 이건 잔치 넘으면은 뒷날 사돈칩이 갈때에 저 새시방칩이서
 새각시칩이 갈 때 행 가는 거 건 우리 곤는 건,
 112018 @ 위요(圍繞)(우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참석 범위, 수, 일화)
 112018 #5 새각시 펜에서 혼 사름. 새시방펜에서 어멍펜에서 혼 사름. 아방펜에
 서 혼 사름 허민 당 사돈 행으네가곡 따시,

112018 #6 새각시칩이서 오는 거 보명, 새각시칩이서 우시가 돈노민, 이 신랑칩이서도 돈 보내고,
 112019 @ 대반(對盤)이나 중방(中房)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일화)
 112019 @ 중방은게 들어오민 새시방보민 그자 저 무싱거 새시방 다른 사름 나가근에 악수허곡 그자 손잡으민 그자 들어오는 거난,
 112020 @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112020 #6 옛날에 막 친혜영 사촌이나 뉘영 근꼴 혼말 헤오곡, 경안흐민 보릿쌀 닷뉘혜영,
 112020 #10 보릿쌀 두뉘혜영,
 112020 #6 게메 그게 닷뉘주게.
 112020 @ 두뉘가 닷뉘?
 112020 #10 두뉘가이 데싱 두뉘가 닷뉘라 소도로,
 112020 @ 닷뉘를 부조한다는 말이지예?
 112020 #6 동네사람은 두뉘가 닷뉘.
 112021 @ ‘암창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암+ 창개)
 112021 #5 ‘암창개’ 건 새시방 안 강 오는 거 ‘암창개’ 건,
 112021 @ 예? 새시방?
 112021 #5 신랑 안 강 여자만 새시방 칩이 오는 것그라 ‘암창개’.
 112021 @ 여자만 새시방 칩이 와, 결혼허는 것파?
 112021 #6 아, 신랑 아방이 죽으나 어명이 죽으나 허면, 새각시 들레 가지 못합니다. 게른 우시덜만 강 그 새각시 모사오는 거가 ‘암창개’.
 112021 @ 아아, 여자만 그냥 그 집이 들어가는 거,
 112021 #6 우시덜만 강 보내영 강 들양오는 거.
 112021 @ 새시방이 안 강?
 112021 #6 집이 어명이나 아방이 죽으민 가지 못허는 거.
 112022 @ 사혼(死婚)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끼리 결혼허는 거 봐봤수과?
 112022 #5 아 저 무싱거 죽은 혼스, 죽은 혼순게, 새각시나 죽으민 새시방이 다시 저집이서 다 죽은 사람끼리 다시 사돈끼리 다시 만나그네, 딸드라 혜영 영흐라 정흐라 허민 게민 아무날 택일 반양 오쿠과? 행 그자 말젠 이불 우알채 행 가는 생이랑게. 새각시집이서 이불 우알채 헤 놓곡, 새시방 그 집더레 귀신을 멜기민 그디왕 다 영장메단 그레 강 깎딱 묻는 생이랑게.
 112022 @이불은 어명?
 112022 #5 이불은게 새시방네 집이 그정가사 스나인 죽어불어도 그디,
 112023 @ 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상례

112024 @ 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12024 #5 거 사람 죽으면 올라 강 혼 불르는 거, 옷 ㄱ정 강 멧 슬난 사람 호 호허멍,

112024 #6 죽은 사람 우잇옷 하나 ㄱ정 강, 그걸로 혼 불러나민 또 그 옷을 그 관우이 더끄는 거라.

112024 @ 죽었으니까?

112024 #6 계난 불령 관 우이 더경,

112024 #5 관 우이 더경 강 관을 딱 묻게 웨민, 그 바깳디 이 무싱거옌 허느니 혁이라도 ㄱ쿨 다 썰영 관을, 혁 썰어뎡 그 우이 개관 더경, 다시 그 우이다 멩경 더경으네 묻는 거.

112025@ 북부르기는 어떻게 합니까?(지붕 위/저고리 처리)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10 아이고 옛날은 흔들씩 막 허드라. 거 산보레 뎡기는 것이,

112026 #5 정시들양 강 그자 하루 강 그자 그레 강 그자 정시 뎡기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거라.

112027 @ 관(棺)과 횡대(橫帶)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8 @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남자/여자)

112028 #5 것사게, 베혜영으네 사위 행 옷행 입지곡, 뜰행입지곡, 메뉴리 행 입지곡, 아덜덜영 입지곡, 손지 방상 다 켜당덜 두건 행 쓰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2 @ 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6 도깨비 걸령, 곱닥헌 여자가 앞이 걸어간, 이제랑 ㄱ치 걸어가주 헤 영 ㄱ치 이젠 ㄱ들ㄱ들 걸어간만 막 즐음에 조차가난 물통더레 침방 빠전, 혼 발짜 국만 가시민 그 사람도 빠질꺼 게.

114002 #4 흘류는 거 아니꽈? 흘류완

114002 #6 도체비 흘련, 여자 곱닥헌 여자 바구리 옆등에 톱 찌고 헨 흔들흔들,

114002 #4 젊은 때 경 허는 거.

114002 #5 나 혼 변양, 인녕이 아시네 마농싱그레 가신디, 막 불아가난 인칙이 갓주기게. 간디 가노렌 허난 저 우이서 차가 오는데 아맹해도 나를 헛개로 본 생 이라. 헛개로 봐싱ㄱ라 그냥 차가 오단 먼퀵 원 오질 안허는 거라. “아 저 사람은 날 헛개로 삼양 정 험구나” 헨 이젠 확 돌아삿주게. 확 돌아사난 옷은 이던 뭐 저 부난 거멍허난에 헛개로 본 생입테다. 계난 앞인 푸른옷은 입엇주게. 푸른 옷 입어 신디 뭐 지니까, 확 돌아사난 웨러보난 퍼렁헌 옷이구나 나가 돌아사난, 사람이로구

나 헌 걸 멀리서 알아싱ㄴ라 차 넘어가ㄴ때 저 사람 날 헛개로 뺨,
 114002 #4 경흐메.
 114002 #5 날 헛개로 뺨 저 사람 경헛고나.
 114002 #4 아이고 옛날은 경 헨덜원,
 114002 #5 경허는거 님음때다게.
 114002 #6 그 옛날 아니도 게 저 저 화북서 경 손을 막 들리난 화북서 대가리
 어신 사람이라렌, 손을 막 들런 딱 막아사면 어쩔 수 어서렌, 차 저레가문 저레가
 고, 이레오문 이레오곡 허난 찰 세우난 찻길에 산디, 이젠 가는 걸 오는 걸 어느 집
 더레 가는지 뵈려보젠 느련 가난, 그 집이 식계햄서렌,
 114002 #5 계난 그 사람 제사난 가단에,
 114002 #6 경허난에 그디 할망이 식계 햄서렌. “영영헌 사람 차탄 와신디, 경흐
 사람 제사우까?” 허난에 “예게, 우리똥 4.3스건에 죽어네,
 114002 #4 오래지 안헨?
 114002 #6 대가리 그차 가부난예, 오래지 안헛수게게, 식계햄수덴” 허멍
 114002 #5 70년 흐 60 멧년 뵈주게.
 114002 #6 경헨 “막 고맙수덴” 허멍 그 할망 저푸게 헤렌, 시경가난,
 114002 #5 옛날 오단보난 가막창신 큰 불덩어리가 박박 우건 어중드랑헌ㄴ라
 가죽신을 벗영 자당보딘 광 해영 그 하르방
 114003 @ 참외나 수박을 서리헛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4 @ 어렸을 때 들엇던 재미잇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뺨
201002	대가리	대강이, 대구리, 대망생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꿀, 숨통, 숨굴
201005	제비초리	생이플랭이, 총대기
201006	머리털	머리결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머리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첸빗(증진 거)
201013	땡다	따우다, 답다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웬가매, 느단가매
201017	쌍가마	쌍가매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댕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빼기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낫[面]	낫, 뺨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멍경,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
201032	뺨따귀	뺨따귀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빼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불빼, 광대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저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저
201043	눈꺼풀	덕개눈
201044	거적눈	거적눈, 쌍거플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꺼멍흐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사이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거머리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초리
201054	사팔눈	사팔뜨기, 돌아진 눈
201055	눈웃음	눈웃임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등땡이, 콧대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닥끄다
201064	콧수염	콧식염
201065	인중	콧난간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씨다
201068	참말	츨말
201069	거짓말	거짓깁(아이덜),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도리하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입방정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吞]	슴키다
201081	가래침	게츄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름
201084	턱받이	톡바지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근니, 오그라진니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양당물다
201099	턱	톡
201100	턱살	톡살
201101	뿔다[稍峽]	뿔아지다
201102	수염	식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차락
201105	귓볼	귀뿔리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오비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녹대석염, 특석염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굽다[顛]	슬찌다
201115	모가지	모개기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이망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덜미

상체

201121	어깨	독지, 우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독지꽁
201123	어깨죽지	우독지, 푸는체꽁
201124	겨드랑이	긋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따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둑술
201131	팔꿈치	폴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꽁
201134	뼈다귀	뺨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얼, 손뚜께,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꼭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거시러미
201145	할퀴다	굽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꼬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조웨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꼬락
201150	약손가락	논예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 손꾸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뜬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명치	멩치팡
201157	명자리	멩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죇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따지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등땡이
201173	가렵다[癢]	ㄱ릅다
201174	굽다[抓]	극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츄물
201178	등마루	*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존등이
201181 잔허리 ㄱ는 존등이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뎅이, 방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뎅이뼈, 비피뼈(새끼똥고냥우이 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냥
201191 더럽다[汚] 덜럽다
201192 가볍다[輕] 가뻘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201195 가래똥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정갱이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동머립
201201 무릎뼈 동무릎뼈, 동모립짱
201202 뼈다[髑] ㄱ목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종애
201206 장딴지 장딴지, 쥐솔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사귀뼈, 복숭아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모가지

201214	겹질리다	젹질르다
201215	발등	발등뎡이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ㄱ롭다
201220	간지럼	근지람
201221	발가락	발ㄱ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발까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까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가운디발까락
201221-4	넷째발가락	눈예기발까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까락

201222	발살	*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티눈이, 말축
201225	고린내	ㄱ랑내, ㄱ린내. 썩은 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축
201228	쓸개[膽]	썰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ㅁ심
201231	곱다[麗]	곱닥ㅎ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죽은 창지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시다
201235	한숨	훈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태
202007	탯줄	탯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터울(므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엽개
202018	엽저지	엽저지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단지,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꺼레기, 오줌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오줌싸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찌렁내, 지린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꾸지람
202029	배냇저고리	벵댓저고리, ,붓디창옷(등 안 골엄넌 허명)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르기(아기 준둥이에)
202032	포대기	걸렁이
202033	보자기	포대기, 보재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보따리

202035	풀다[解]	헤씨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뜨데기
202038	띠	걸랭이(지성귀로 걸랭이 행)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ㄹ장중의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즘매즘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뜨로뜨로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섬매섬매, 선베선베, 섬마섬마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삿가닥질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개동개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천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창아리, 쌈토맥이
202058	자라다[成長]	자라다
202059	부아	부애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오장머리, 심술다리, 게움쟁이, 게움다리.
202062	밉다[憎]	밉상블르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단번치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음작기, 굽음재기, 굽음쩍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손꼽장난, 자파리, 손꼽장.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문이	*
202074	줄넘기	베뜰레기, 베뜰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기기
202076	수수께끼	예숯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돌싸기, 본전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땅따먹을락
202082	사금파리	*
202083	말놀음질	말탈래기
202083-1	생말타기	말탈래기, 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겨루다
202087	제기차기	쩍기찰락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동매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동매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동매, 석동매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동매, 넉동매

202092	막동	막동매, 막동산
202093	보리웃	보리웃(서툰사람 노는 거)
202094	줄목	줄목(계속 모가 여러번)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실랭이
202097	싸우다[鬪]	싸움박질하다
202098	패싸움	싸움박질, 태싸움
202099	모다기령	태싸움
202100	편백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래기, 브름돌애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춤연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가운디테대
202108-3	긷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대

202109	방구멍	가오리구녕, 들연(들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갈개발
202112	벌이줄	연술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긷줄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줄음에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가운디줄

202113	얼레	실패
--------	----	----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밀
202118	퇴김	연싸움
202119	그네[鞦韆]	뒤천, 주천
202120	밀신개	발판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트는 거.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선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잠꼬대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잠꾸레기, 잠푸대, 잠푸대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트림
202145	딸꾹질	툄구지
202146	채채기	허깅이
202147	개치네췌	허쉬
202148	방귀	방귀, 똥 끼는 거.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푸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기시린내
202153	사레들다	스레들다, 야개 걸었져.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불거리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마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
202161	기계총	*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웃	웃
202165	버짐	버짐
202166	마른버짐	군버짐(희뜩희뜨), 쉼버짐(뚜꺼와)
202167	진버짐	츄버짐(ㄹ렵는 거)
202168	주근깨	주근깨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ㅎ다
202174	굳은살	구진슬
202175	부스럼	부시럼, 허멀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구진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표적

202186	생인손	대전
202187	얹다[痛]	얹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땀두드레기
202190	소경	봉사
202191	청맹과니	*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애꾸눈이, 사통이, 간데.기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들럿, 개좃(우예), 개씹(아래),
202195-1		*
202195-2		*
202196	언챙이	얼챙이
202197	외언챙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모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버벅이
202203	혀짤배기	세즐레기, 세다데기.
202204	입비뿔이	입트래기
202205	구안괘사	*
202206	가납사니	자제기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절뚝발이, 전태
202210	얹은뱅이	얹은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이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무니
203003	아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부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무니, 할망
203007	남편	남편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부부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녕이, 막동이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네 번째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녕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이세끼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이딸
203025	어이아들	이세끼
203026	말이	큰거
203027	막내	막녕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203034	외딸	단딸, 외딸
203035	쌍둥이	글루기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글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
203038-2		양재드는 거
203039	처녀	처녀, 애기씨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신, 중매
203045	권당	켄당
203045-1	답덜	식구가 많은 사람
203045-2	방상	친척
203046	얹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며느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부지
203050	시어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부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무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으뎡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딸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시누이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죽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죽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할아버지
203087	넋할머니	넋할머니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늡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꿨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붙다
204007	무명	민영
204008	무명실	민영실
204009	닷새무명	(막 좋은 거)
204010	옛새무명	(보통)
204011	생목	*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매
204016	숨	소게, 멘네소게.
204017	풀숨	*
204018	숨틀	*
204019	숨틀집	*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드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닙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뽕낭올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툼이, 푸답마께

204032	피다	페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게꿈
204035	물거품	물게꿈
204036	빨랫돌	빨랫팡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께(넙적)마께, 서답마께(똥글락).
204038	빨랫바구니	빨랫구덕
204039	행구다	행구다
204040	빨랫줄	빨래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브래다
204046	형끓	헌벽세기, 헌벽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형끓세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매
204053	치맛자락	치맷즈락
204054	풀치마	깍치매
204055	웃고름	곰
204056	웃깃	웃깃
204057	웃섶	웃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므작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마기

204067	장옷	장옷(시집, 죽영갈 때)
204068	고쟁이	고쟁이, 수건, 속곳
204069	토시	토시, 손도메.
204070	누더기	누더기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잠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끈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계쌈, 계와.
204077	넣다[入]	들여놓다
204078	버선	브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브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브선등체기, 뒷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브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브선코

204079	길목버선	헌 브선
204080	버선발	브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대기

204096	보풀	보푸레기
204097	홀청	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잇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옷팡석, 자부동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베갯거죽
204107	베갯머리	머리맡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짚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딤총박이	깍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어웁쪽으로 고운짚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뜨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선재
204128	미션	*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	------	------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미, 골매.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꾸리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즐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주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흔자 흔치씩)
204145	곱치다	*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땡침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다
204153	씨아	씨아, 가레기,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물레지둥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물레궤머리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베클방석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베기처럼 생긴 톱니	멘주기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물렛즈록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가레기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퀘머리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퀘머리지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물렛지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가레기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물렛조록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가레기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깨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괴다
205007	빠다[湯水]	빠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폴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고들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눌은밥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밥푸대, 밥체시.
205021	밥술	숫가락, 수저
205022	밥알	밥개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냥	송냥
205029	화독내	그끈내(뿔이 캄시니)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늑말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풀죽
205042	섞다[混合]	섞으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강이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늑말짐치
205051	무김치	늑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짬치
205053	물김치	물짬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짬치
205055	갯김치	갯짬치
205056	파김치	파짬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등그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텅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늬뻬늬멸, 무늬멸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늬멸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병텅이, 고사리순
205075	꺾다[切]	꺾다
205076	곶[場所]	*
205077	고비	고비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상추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
205083	오이	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츄외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
205087	만물	첻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펜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ㄴ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즉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
205099	호박잎	호박닙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곤떡(절벤솔벤), 고달떡 중계(너지반득)약계(소량))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ㄴ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뭍다[淡]	뭍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봉지	봉다리
205127	과줄	과줄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감취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지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술甕
205138	엮다	엮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술망데기(죽은 거)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숨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가게마씨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깔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재
205151	부엌문	정재문
205152	불때다	불때다
205153	불등걸	잉경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 비차락
205156	내[煙氣]	네, 연기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숫구메기
205161	아궁이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채
205163	모으다[集]	모이다
205164	부뚜막	숫덕(돌 식개 한 다락허게 아짱)
205165	봇돌	숫덕(식반디)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조리(제일 작은 숫), 서두태기, 다두태기, 말치, 두말떼기, 서말떼기, 짐재기
205168	무쇠솔	무쇄솔
205169	끓다[沸]	끓다
205170	솔뚜껍	숫뚜껍이
205171	솔귀	숫천
205172	솔전	솔천
205173	솔바닥	숫창, 숫강알
205174	솔밑	숫창, 숫밑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삽
205177	군손	군손
205178	군일	군일, 굴룬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깽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줄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살
205184	성냥갑	성냥곽
205185	부시	부술
205186	부싷돌	부들
205187	부싷깃	불찍
205188	부시쌘지	불찍쌘지
205189	부시통	불통, 불찍대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룽	호룽이(들렁 땡기는 거), 섯유깅지
205193	남포등	호야(큰등)

205194	접싯불	방급(춤지름 , 느멀지름)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댕이
205201	불타다	불슴다
205202	탄내	그끈내, ㄱ시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스르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불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붕덕불
205210	화룻불	화리불
205211	불찌다	불츠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집게
205214	부젓가락	불순구락, 불즈룩, 불저뽀, 것쟁이
205215	다리쇠	세발쇄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바툼자리(지신물)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뚜껑이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접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종지
205241	숟가락	숟구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구정물
205246	도시락	동그랑, 동그랑착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쿨락박세기, 낭박세기(크고)
205250	박	꺅
205251	뒤옹박	뒤렁박
205252	조롱박	꺅, 꺅박, 조롱박
205253	쪽박	꺅박
205254	양푼	낭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꺅막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마개
205260	시룻번	시리마개
205261	경그레	징
205262	함지박	도구리, 장태, 남박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낭

205266	이대	죽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릿대 죽대
205269	제주조릿대	ㄱ대
205270	굳은대	왕대
205271	무른대	죽대
205272	항아리	항, 암통계(아가리 큰 거), 숫통계(아가리 작은거), 망대기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디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신들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행주
205284	번철	숫뚜껑, 숫두껍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밥주걱, 우금
205287	죽젓광이	배수기(밥 젓고, 죽젓고)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판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깃대
205292	소줏고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장태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알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고소리죇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바지쟁

205293	빚다	술등그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쇠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낡다
206007	기와집	지와집
206008	흙집	혁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단채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밖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꺼리
206015	문간채	모꺼리
206016	곁채	목꺼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독
206019	덮다[蓋]	덮다
206020	장독대	장항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마구간
206025	변소	통지, 돛통
206026	부춘돌	디딜팡
206026-1	부출	디딜낭
206027	기척	기척
206028	맞서다[拮]	맞서다
206029	냄새	내움살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담
206032	울안	우영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왓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찍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가리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엮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푼채
206043-1		겉푼채
206043-2		*
206044	디딤돌	여이돌
206045	난간	무똥, 여잇돌
206046	마루	마래, 상방
206047	마루문	상방문
206047-1	‘호령창’	셋문, 죽은문(다심아기)
206048	마룻널	마렛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백이, 방지기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웃목
206057	아랫목	아랫목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웃브름
206061	안방	안방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霈]	비차락, 비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 빗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브름벽, 축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벽장
206070	시렁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살레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풀솔, 풀비, 풀빗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찾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하다
206081	안뒤결	뒷우영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이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맞기슭	지붕가생이
206089	낙숫물	지신물
206090	댓돌	여잇돌
206091	흙	혁
206092	진흙	*
206093	찰흙	출흙, 촌흙
206094	흙덩이	흙병에, 혁병덩이
206095	새벽	꾸은 혁
206096	흙질	혁질
206097	이기다[沓]	*
206098	산자(撒子)	*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포지둥
206101	뿔기둥	뿔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드리
206107	대들보	대들보
206108	반자틀	드리
206109	귀틀	구클, 개윗드리
206110	외(椽)	토기
206111	인방	입쟁이
206112	문설주	문설주
206113	문곶도리	귀도리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부출
206116	문머리	웃지벙이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
206127	여단이	*
206128	살문	*
206129	널문	*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
206133	암틀쩌귀	암돌처귀
206134	수틀쩌귀	*
206135	문고리	*
206136	배목	대목, 문친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206142	부수다[碎]	부시다
206143	서랍	서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
206152	못뽑이	*
206153	박다[釘]	*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록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지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벧받침 잡대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깃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벧칼 호령못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습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선비줄 거는 거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벧꿀레 벧바드랭이 벧칼

207009	옥보다	*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양명에
207014	밭두둑	*
207015	밭고랑	고령
207016	밭이랑	이령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쇠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앗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꿈계	섬피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벌매기
207041	세벌매기	식벌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대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놉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폼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호미늘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단갈
207052-4	낫놀이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낫공치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베다
207054	새 패기	*
207055	새끼	노끈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끈애기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
207061	짐바	*
207062	질빵	질빵, 짐베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쇠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궁근막대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ㄱ들게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경거리끈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줄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멍에줄
207067-2	붓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소래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대줄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털대

207068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셋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태
207068-5	지게꼬리 (털뻐)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줄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막대기

207069 바지게 *

207070 발채 *

207071	물지게	*
207072	이삭	ㄹㄹ리
207072-1		*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 ㄹ고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 ㄹ고리

207078	타작하다	도깨질 ㅎ다, 타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겨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즈룩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몽치 도개틀레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쭉정이	꺾줄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왓
207089	꿀꾼	*
207090	꿀단	출뭇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북두	*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좁진체, ㄱ는체
207099	굵은체	거름체, 대체
207100	말총체	*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좁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되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
207114	사삿되	사삿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묵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맥, 망탕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흩다
207125	자루[袋]	푸대
207126	부대(負袋)	*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다리
207129	노라리	*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리다
207133	밟다	뽀다
207134	까끄라기	ㄱ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츨
207136	보릿겨	보릿겨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오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슌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짖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ㄱ고리
207157	볍씨	볍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ㄱ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츨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ㄱ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래착, ㄴ랫돌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쪽	웃돌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쪽	아랫돌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중수리 ㄴ망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중수리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래즈룩

207165	맷방석	ㄴ랫방석
207166	매함지	*
207167	풀맷돌	정ㄴ래(죽은)
207168	풀매	풀ㄴ래(콩 물 컷당)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애
207171	쌍방아	두콜방애
207171-1		식콜방애
207171-2		네콜방애
207171-3		다섯콜방애
207172	방아확	돌혹, 방애톡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븨비다	븨비다
207175	방앗공이	방애꾸, 방애콧
207176	남방아	남방애
207177	연자매	연자매, 돌방애
207178	방앗돌	방앗돌
207179	연자맷간	돌방앗간
207180	절구	남방애
207181	절긱공이	방애끼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고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콩닙

207191	콩짚	콩짖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재
207197	찌꺼기	찌끄레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듬비
207201	팔	폴
207202	팔알	폴방울
207203	팔밥	폴밥
207204	녹두	논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들꽤
207207	참기름	춤지름
207208	깻묵	*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밭
207212	나깨	막멸채
207213	메밀껍질	모멸껍줄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재
207221	절간고구마	빼대기
207222	찌다[蒸]	찌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대가리

207225-3	마늘종	마농쫐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과밀동	꽤마농불리
207228	무	늬뻬
207229	무청	무청
207230	시래기	시래기, 유래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배추속, 속아진 늬멸
207235	나물	늬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피대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냉이대죽, 대죽부레기, 강냉부레기, 강냉대죽
207240-1	옥수수	옥수수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
207243	비목수수	빋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사탕부레기
207245	수수깡	대죽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길	*
207248	물웃	물속곳,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작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뜰채	쪽배기, 사들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배
207258	이물	고물
207258-1	이물칸	고물칸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이물
207259-1	고물칸	이물칸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네앞
207270	노뒤	네뒤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들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키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떼

기타

207285	이웃	*
207286	더불다[與]	어울리다
207287	마을	막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산간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갯갯, 해각
207293	마을가다	막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마실
207295	가게	점방, 상점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우수리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대장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견다[編]	즌다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죄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덥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스물	스물
208004-2	(30)서른	서른
208004-3	(40)마흔	마흔
208004-4	(50)쉰	쉰
208004-5	(60)예순	예순
208004-6	(70)일흔	일흔
208004-7	(80)요든	요든
208004-8	(90)아흔	아흔
208004-9	(100)백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되	흔말
208005-2	(2/두)	두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되	석말
208005-4	(4/너, 녀)	녀되	녀말
208005-5	(5/닷)	다섯되	다섯말
208005-6	(6/엿)	말가웃	요섯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녀되	두서녀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되	서녀말
208006-5	(4-5/네댓)	너댓개	너댓되	너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개	대엿되	대엿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되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요덟개	일고요덟되	일고요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요답아홉개	요답아홉되	요답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개 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개 남은

단위

208009 뺨 혼뺨
 208010 집계뺨 혼조리
 208011 밭[單位] 혼밭
 208012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민영
208014-2	명주	멩주
208014-3	광목	광목
208014-4	베	베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묶다
 208018 나르다[移] 나르다
 208019 둥 *
 208019-1 *
 208020 조짐 혼즐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6못(웃못), 8못(큰쉐)
208021-2	조(이삭 있음)	6못(웃못), 8못(큰쉐)
208021-3	콩	6못(웃못)
208021-4	밭벼	산디
208021-5	꼴	출18못
208021-6	띠	새 너못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어욱너못

208022 모금 *
 208023 섬 섬

208023-1		*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두
208028-2		*
208029	축	축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흔 자리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
208034	결레(신)	결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
209005	배냇머리	*
209006	돌	돌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시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槩]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조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209022	겹사돈	가시사돈
209023	상갓집	상집
209024	수의	수의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만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매
209031	상장(喪杖)	상장
209031-1		*
209031-2		*
209032	짚동	*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뒗자리	뒗자리
209036	지관	지관
209037	패철	*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두꾼
209043	장삿날	장시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
209046	횡대	*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무덤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튼물
209061	매	매
209062	갱(羹)	게영국
209063	제육	제육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고달떡
209067	웃기떡	곤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태우다
209070	뭇	반
209071	면례(緬禮)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검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살장구
209080	뽕과리	깡매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질
209085	추석	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기신세, 헛거, 그시린닥세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고시레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화

211004	불다[點火]	불다
211005	내[川]	넛창
211006	넛가	넛ㄱ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낭떠러지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가참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왕
211015	돌무더기	돌무데기
211016	갈림길	*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비탈질
211019	벼랑길	베랑질
211020	내리막길	*
211021	오르막길	*
211022	길가	질ㄱ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분화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
211031	구렁	*
211032	고랑창	고랑창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넘어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숲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것디
211041	바닷물	바닷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짚다
211044	얕다[淺]	얕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펄	빨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	*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덟무날	*	*
211059-9	아홉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스무사흘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즈낙날
211072	어제	어저께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벽
211076	꼭두새벽	동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척
211080	낮	낫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꼬심
211083	초저녁	초즈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덜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
211095	초승달	초성덜
211096	보름달	보름덜
211097	그믐달	그믐덜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무지개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ㄱ실
211104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허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
211119	선달	섯달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하다
211128	땡별	즈작벳
211129	가을별	ㄱ실벳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이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아래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바람받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쟁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포름
211144	서풍	섯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줄기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5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실장마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쉐네기주제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선선하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가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으남(셋져)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스파낙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진눈깨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이
211183	뒤	두이
211184	결	결이
211185	옆	옆이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하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느단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밖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ㄱ
211199	가장자리	어염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212005	취소	취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랭이
212009	얼룩소	얼룩췌, 속쇠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콧줄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벵작쇠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근심송애기	근심
212015-2	이듭/두듭(2)	다간송애기	다간
212105-3	사릅(3)	사릅췌	사릅
212015-4	나릅(4)	나릅췌	나릅
212015-5	다듭(5)	다듭췌	다듭
212015-6	여듭(6)	여듭췌	여듭
212015-7	이릅(7)	이릅췌	이릅
212015-8	여듭(8)	여듭췌	여듭
212015-9	아듭/구릅(9)	아듭/구릅췌	아듭/구릅
212015-10	열룻/담불(10)	열룻/담불췌	열룻/담불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도구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말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
212026	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달리다
212035	마소	마소
212036	글경이	글경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고삐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루
212048	비루먹다	비루먹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고냉이
212051	수고양이	숫고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쥬이	살쥬이
212054	닭	닭
212055	암탉	암닭
212056	수탉	장닭, 숫닭
212057	멀떠구니	멍터구리, 툄타과리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독망
212061	달걀	독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른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끓다
212063	빙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괴기
212071	일شم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저쫂로 행, 멩챙이
212073	새끼 돼지	애기도세기, 새끼도세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괴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관(푸줏간)	*
212080	기르다	기르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
212081-2	둘암말	*
212081-3	둘암돼지	*
212081-4	둘암개	*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가시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쇠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각다귀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서캐
212100	서캐훤이	*
212101	지렁이	지렁이
212102	회충	개우리
212103	거머리	거머리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삼동벼렁지
212110	노래기	노래기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시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딧물느리다
212114	하루살이	눈에눈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덜벙이
212117	민달팽이	*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애기

212126	귀뚜라미	말죽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똥구리	쇄동벌레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짹제기 벌레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산데비
212140	고추잠자리	왕산데비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죽재열, 멘용재열, 깃죽재열 꽃재열
212143	매미허물	흘멍이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
212155	진드기	진독(작은 거), 부그리(큰 거)
212155-1		*
212155-2		*
212156	송충이	소낭버렁이
212157	개구리	굴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득다구리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뚫줄레, 물폐기, 조폐염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값다	값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멧돼지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심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소로기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으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까투리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똥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애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구쟁이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배차기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굽벗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
212230	오분자기	오분재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마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강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어금발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뚱성게	숨
212244	군소	물토새기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고냉이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해파리
212249	낙지	메꾸럭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괴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미겁
212263	갯지렁이	갯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낙숫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숫줄	낙숫줄
212268	붕돌	뿡돌
212269	참대	츄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성돔
212291	벵에돔	벵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재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지에
212299-1		*
212300	붉바리	붉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깍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볼락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사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
213027	쇠비름	쇠비름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질갱이

213035	쭈	쭈
213036	캐다[採]	*
213037	쭈떡	쭈떡
213038	토키풀	튀끼풀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퀴	소왕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하늘래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똥	*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213074	취덩굴	*
213075	취뿌리	취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
213096	달래	뽕마농
213097	씀마귀	*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엣간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붓꽃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맨드라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수국
213134	산수국	산수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제비꽃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불리
--------	----	----

213142	잔뿌리	즌불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상귀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
213152	솔망울	솔똥
213153	땃감	삭다리, 지들커, 땃감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퐁낭
213158	팽	푹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별경ㅎ다
213161	멀구슬나무	떡구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쑥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묵이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느릅낭
213198	두릅나무	두릅낭
213199	향나무	*
213200	웃나무	웃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뽕낭
213217	털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산탈낭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껍질	겉줄

213251	깎다	깍그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뺨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머뤄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산머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로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
213279	밀감	밀감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213289	맹감	*
213290	찐레나무	찐레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도애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즐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